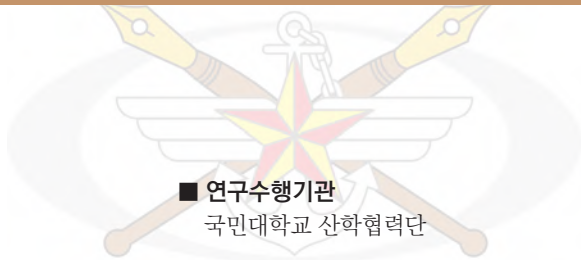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

MILITARY
HISTORY
SERIE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 연구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한준수(국민대학교 부교수)

■ 공동연구원
최희준(가천대 강사)
이재준(충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민수(서강대학교 박사수료)
김강훈(사동중학교 교사)
윤성호(한성대학교 조교수)
송영대(중부대학교 조교수)
홍성열(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권창혁(포항시청 학예연구사)
정덕기(중부대학교 조교수)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총 설

삼국통일전쟁의 軍事史的 연구와 역사적 함의	9

1부 :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

■ 나당동맹의 성립 시점에 대한 재검토	41
■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77
■ 666~667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141
■ 670년대 이후 고구려 유민과 신라·당 관계	185

2부 : 신라의 삼국통일 여정

■ 신라 한주 관방시설 정비의 군사사적 의미	233
■ 삼국통일전쟁기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	269
■ 삼국통일 후 신라 6정·10정의 재편과 운용	313
■ 신라의 보덕국 경략과 일통(一統) 이념	351
■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처리와 통일인식	425

참고문헌	4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연구 중심기관으로, 전문연구자와 대중의 군사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사사연구지원사업'은 한국 역대군사사분야의 미정립 주제를 발굴하고, 학계 전문연구자들의 연구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유수의 연구팀들의 호응 속에 2024년에는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어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성과물을 이제 『군사연구총서』 제2집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7세기 후반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주변국인 당(唐)과 일본도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삼국은 많은 전쟁을 통해 힘을 겨루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군사운영은 삼국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이었고,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삼국통일은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역사의 전환점으로, 역사가들이 오랜 시간 주목해온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당시의 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신라가 통일의 주체로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등 거시적인 시각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국통일'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군사(軍事)'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에 따라 삼국통일을 이해하는 연구방법도 정체되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사적인 시각에서 삼국통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연구총서』 제2집 :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은 총 10명의 군사사 연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쟁의 중심에 있는 7세기 후반 삼국의 동향과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쟁의 경과, 그 승패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총서가 당시 시대상을 군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더욱 양질의 연구성과와 편찬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 성 대



총설

삼국통일전쟁의 軍事史的 연구와 역사적 함의

한 준 수*

- I. 군사사를 통한 역사의 이해
- II.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



I. 군사사를 통한 역사의 이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될 만큼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충돌은 지속되어 왔다. 우리의 역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러한 표현이 군사사 연구자는 물론 일반 대중 역시 당연히 공감하는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국지전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첨단 무기의 성능과 위용은 군사와 전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촉진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군사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집중되고 있으며 시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와 전쟁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와 차원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일반 독자가 군사사 영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이는 특정 군사 활동이나 전쟁과 관련된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는 군사사적 고찰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사 연구의 심화 못지않게 군사사 영역의 대중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며 현재가 바로 그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군사사 연구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본 고찰은 그와 같은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상황을 염두 하고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고대사의 한 시기, 즉 7세기 후반에 진행된 삼국의 격변과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군사사적 활동의 의미를 개관한 것이다. 일반적 시각으로서 軍事나 軍事史는 무엇이며, 군사사적 고찰을 통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고찰의 의미와 이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문명사학자 월 듀런트(1885~1981)에 따르면 “전쟁은 인간 역사의 상수로서 문명이나 민주주의가 나타나도 약화되지 않았다. 기록된 역사의 기간인 지난 3,421년 동안 오직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¹⁾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는 “1945년

1) 월 듀런트, 아리엘 듀런트 지음·안인희 옮김, 『월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 을유문화사, 2014, 141쪽(원저 『The lessons of History』, 1968).

에서 1990년의 전체 2,340주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기간은 도합 3주에 불과했다.”고 한다.²⁾ 월 듀런트나 엘빈 토플러의 분석은 인간과 전쟁이 그만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사에서는 어떠하였을까?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간 전투는 약 600여 년 동안 275회에 이르며, 주변 국가까지 포함할 경우 460회에 이른다.³⁾ 우리 역시 전쟁의 역사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인간의 투쟁적 본성이 위치하며 더하여 각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으로 상징되는 군사력의 사용에 국가 이익의 관점이 철저히 작용했기 때문이다.

프로이센의 군인·전략가였던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⁴⁾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이는 외교 등 다른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력의 사용으로서 얻어지는 잠재적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전쟁이 국가의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즉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국익이 희생보다 크다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쟁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를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의

2) 엘빈 토플러 지음·이규행 감역, 『전쟁과 反戰爭』, 한국경제신문사, 1994, 28쪽.

3) 김영수, 『역사를 훑친 첩자』, 김영사, 2006, 7쪽에 서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민족(韓民族)의 전투 및 전쟁 관련 기록은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 - 古代編』, 1994, 401~425쪽, 부록1. 연표 및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지문당, 2013, 1054~1055쪽 부록 참조.

4) 클라우제비츠 저·김홍철 역, 『전쟁론』, 삼성출판사, 1990, 70~71쪽.

시각이 가장 잘 투영된 시기는 7세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8세기가 ‘전염병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7세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만큼 단연코 ‘전쟁의 시대’였다.

오늘날의 세계 대전에 비견될 만큼 많은 국가와 민족이 연계된 대규모의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여수전쟁(612) 여당전쟁(645), 삼국통일전쟁(660), 나당전쟁(670)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속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에 전개된 수많은 전투는 물론 주변 세력과 벌였던 살수대첩, 안시성전투, 백강전투,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전투도 담겨 있다. 여기에 당과 토번(吐蕃)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전쟁까지⁵⁾ 포함하면 이 시기의 상황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따라서 7세기의 우리 역사나 동아시아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한 군사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사(軍事史)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 것인가? 군사(軍事)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나 전쟁 등과 관련된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군사사란 군대나 전쟁에 대한 역사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사라 표현할 경우 전쟁사(戰爭史)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전쟁사는 군사사의 한 영역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전쟁사가 지니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군사사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무기, 군제(軍制), 군역(軍役), 군수(軍需), 전략·전술 등 다양한 분야

5) 당과 토번 사이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대비천(大非川) 전투(670), 승풍령(承風嶺) 전투(678), 인식가(寅識迦) 전투(689), 소라한산(素羅汗山) 전투(692) 등이 전개되었으며, 이들 대규모의 전투에서 당은 모두 대패하며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 대종(代宗) 2년(763)에 이르러서는 수도 장안(長安)이 토번에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사란 전쟁 등 군사 관련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인식들을 완성하는 작업이라 표현할 수 있다. 각 국의 지배 세력, 경제 체제, 인구 규모, 병력 동원, 군사 조직, 교통로, 대외 교섭 등 다양한 분야와 역학 관계를 조망하여 전체적인 시대상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전쟁 중인 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군사사의 기능이라 하겠다.⁶⁾ 즉 군사사는 전쟁이나 무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군사사는 사회사와 구별되지 않으며, 군사사는 사회사의 중요한 일부이다.”는 존 터레인(John Terraine)의 지적이 주목된다.⁷⁾

이와 같은 군사사 시각을 토대로 하여 7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바라보면 당시 각 국이 생존을 위하여 자신들의 국운(國運)을 걸고 얼마나 치열하게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그 생생한 모습은 물론인과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7세기 중반 신라의 전략 변화는 군사사 고찰의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진흥왕대 전성기를 누렸던 신라는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 속에 위기에 내몰리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정적 위기는 대야성 전투(642)였다. 당시 신라의 실질적인 집권자였던 김춘추는 백제군의 공격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상실함은 물론 성주였던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소랑까지 잃었다.⁸⁾

6) 스태그(J.C.A. Stagg) 저·임지현·김원수 외 옮김, 「군사사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역사학: 쟁점과 전망』, 역사비평사, 1992, 51쪽에서 “군사사는 대국적 관점에서 전쟁 중인 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 - 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 학계의 군사사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98, 2008, 292쪽 주) 19.

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642) 8월.

김춘추에게는 개인적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기에 슬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김춘추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병(請兵)하고자 고구려를 방문하였으나(642), 신라가 진흥왕대 점령한 영토의 반환을 요구받으며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⁹⁾ 이후 일본도 방문하였지만¹⁰⁾ 백제와 친연성이 매우 강한 나라였기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신라에게 있어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당(唐)이었다. 김춘추는 3남 문왕(文王)과 함께 대당사행(對唐使行)에 나섰다. 당시 대당사행은 수도인 경주를 출발하여 당항성(黨項城)을 거쳐 장안까지 편도 90일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여정이었으며,¹¹⁾ 거기에 더하여 고구려군의 감시도 피해야만 하는 생명을 담보로 했던 험난한 행로였다. 다행히 김춘추는 당 태종의 환대를 받으며 나당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고, 귀국 후 당제(唐制)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신라 사회 전반에 걸쳐 추진하였다. 6세기 지증왕~법흥왕대 진행된 신라의 사회적 변혁에 버금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군사 분야의 혁신은 신라군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국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

신라의 군사 전략을 비롯한 군제나 전술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여·제의 군사적 압박을 힘겹게 막아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태세로의 전환이었다. 정치적인 수세 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쟁으로의 전환이라고 비유할

9)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10) 『일본서기』 권25, 孝德天皇 大和 3年(647).

11) 신라 왕경에서 당은포를 거쳐 황해를 횡단한 후 등주에서 장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일이었으므로, 왕복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180일이었다(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214~220쪽).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한 변화는 신라군이 당의 행군(行軍), 삼군(三軍), 총관(摠管) 등을 도입하여 운용한 모습에서 나타나며,¹³⁾ 그러한 제도들이 신라에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실이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식적인 차용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수용이자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이러한 변화들은 나당동맹(648) 성립부터 백제공략(660)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12년’은 신라에게 있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고의 세월이자 변혁의 시기였다. 이러한 변혁을 통해 신라군은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당과 대등한 존재로서 동맹의 중심이 되어 당당히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하는 푸념을 보는 경우가 있다. 삼국통일의 결과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모순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신라의 국가 공인 청소년 조직으로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자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던 화랑도(花郞徒)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성장과 활동의 배경이었던 신라와 그 국가적 역량은 그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각이 아닌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고찰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삼

12) 양투안 양리 조미니 지음·이내주 옮김, 『전쟁술』, 책세상, 1999, 19쪽에서 자국의 영토 방어를 위하여 “적군이 국경선으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먼저 공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무렵 신라의 군사 전략이 큰 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3) 이상훈, 「삼국통일기 신라군의 행군편성 구조」,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a).

국은 자신들의 생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다. 혼인 동맹을 맺을 정도로 친밀함을 보이다가도 상대방을 절멸시키려는 수준의 공격을 행하기도 했다. 갈등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출되던 대립 양상은 삼국이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삼국통일전쟁의 결과로 동족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참고하면,¹⁴⁾ 이 무렵에 동족의식의 이전 단계로서 강한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7세기 삼국 간 군사적 대립의 격화는 자신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서로가 공존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전쟁이라는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은 서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부정적 인식을 함께 정립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닮아가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느슨하지만 혈연적·문화적 친연성을 토대로 상호 공통되는 속성을 형성하며 삼국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군사사 연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 대상으로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을 거치며 새롭게 생성되던 지배 질서의 변동이나 사회 의식의 변화 등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97~299쪽.

Ⅱ.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

한국 고대사에 있어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삼국통일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다. 단순히 규모가 거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에 있어 역사적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삼국통일전쟁은 한국 고대사의 핵심적 주제였고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신라사를 중심으로 많은 고찰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통일이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¹⁵⁾ 이후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와 문화가 장차 한국사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는 견해로 다시 강조된 후,¹⁶⁾ 현재 통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일반적 시각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 기존의 견해와 달리 삼국통일이라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백제 고지(故地)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백제통합론’이 그것이다.¹⁷⁾ 당연히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신라의 통합 영역이 상당 부분 고구려 고지(故地)이고,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의 틀을 형성하였으므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기존 통설의 논리를 강화한 ‘삼국통일론’이 제시되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¹⁸⁾

15) 이기백, 『한국사신론』, 1967, 90쪽 ; 1986, 改訂版, 87쪽.

16)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1982, 301쪽.

17)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8 ;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238~267쪽.

18) 노태돈, 「[說林]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논쟁의 핵심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의 ‘평양이남 백제토지(平壤已南 百濟土地)’의¹⁹⁾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상 평양이남과 백제토지인지 평양이남의 백제토지인지 구분이지만 해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백제통합론은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삼국통일론은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라는 기존 통설²⁰⁾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속에 삼국통일론을 부정하며 백제통합론을 지지하는 견해까지 파생되었고,²¹⁾ 다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이어지며,²²⁾ 논쟁이 계속되는 형국이다.²³⁾ 여기에 신라통일론 담론을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소산으로 이해하거나,²⁴⁾ 삼국통일전쟁을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부르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²⁵⁾ 신라통일론 또는 백제통합론으로는 신라의 통일(통합)을 둘러싼 당·신라·백제·고구려, 왜·말갈·거란 등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의 성격을 온전히 설명

329~345쪽 ; 앞의 책, 2009, 30~32쪽.

1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1년(671).

20)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史, 1977, 134쪽.

21)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c).

22) 기경량,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 128, 2019.

23)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및 윤진석,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에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사료 해석을 매개로 전개되는 백제통합론이나 삼국통일론에 대한 자세한 논지 및 비판이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24)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29, 2007.

25) 이재환,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2019.

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미 삼국통일전쟁이나 나당전쟁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한 견해도 있었던 바,²⁶⁾ 시야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칫 우리 역사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자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한국사를 타자화(他者化)하는 단점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주요 논쟁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 논쟁 그 자체는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학술적 의도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과생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백제통합론의 경우 삼국통일의 불완전성이나 일통삼한의식의 성립 시점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²⁷⁾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부분은 약간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전개할 당시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²⁸⁾ 자칫 동북 3성 지역의 역사적 연고를 주장하는 중국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 본의 아니게 연계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학계 일부에서는 당 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체결된 나당 밀약[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하여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변호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²⁹⁾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논리가 백제·고구려의 멸망은 당이 주도했으며, 신라는 부수적인 존재라는 가벼운 인식이크

26)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7) 윤진석, 앞의 논문, 2020, 138쪽.

28) 「답설인귀서」에 “평정양국 평양이남 백제토지(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라 하며 이미 고구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다.

29) 拜根興,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84~86쪽 ; 韓昇, 「唐朝對百濟的戰爭: 背景與性質」, 『百濟文化』 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3, 145~146쪽.

로,³⁰⁾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근원이 되는 나당동맹의 성격은 물론, 성립과 전개, 결과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고찰과 더불어 삼국통일을 관념적으로 상징하는 삼한일통의식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재정립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나당동맹은 오늘날의 한미동맹처럼 사상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이념 동맹이 아니라 여·제 정복 후 그 점령지 분할에 합의한 단순한 영토 동맹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문헌에 기록된 ‘평양’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나당 간 영토 분할의 경계선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와 당 모두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로서 백제와의 영토 경계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표현의 의미는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더불어 백제 영토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일단 초기의 선행 연구들은 민족형성, 국가발달, 대외관계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³¹⁾ 한민족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체제의 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대교린이라는 전통적인 한반도 왕조의 대외 정책의 기본 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견해에서 아쉬운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군사사 시각의 고찰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사, 경제사, 사상사 등과 달리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광복 직후 역사 연구의 인적·물적 토대가 빈약했던 현실에서 기인한다. 다행히 세월이 흐르며 우리

30) 이기천, 「당의 입장에서 본 신라의 통일」, 『역사비평』 130, 2020, 230쪽.

31) 노태돈, 앞의 책, 2009, 297~304쪽.

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군사사 영역의 연구도 심화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정밀하게 완결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사 영역의 고찰을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략·전술, 군제(軍制), 병역(兵役) 등 제반 분야의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정제된 군사사 시각의 견해를 정립하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삼국통일전쟁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신라의 국가적 역량,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록 신라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에 청병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나당동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이 신라를 동맹 상대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혹한 국제 관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당이 단순히 신라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제의 배후에 위치한 신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동맹 상대국으로서 신라가 지닌 군사적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할만한 수준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 태종이 644년 고구려를 침공할 당시 신라 등이 그에 협력한 바 있는데,³²⁾ 아마도 그러한 사실들은 나당동맹의 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한 점에서 나당동맹이 신라에게만 시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국통일전쟁에서

32) 『新唐書』 권220, 東夷傳 高麗, “又發契丹·奚·新羅·百濟諸君長兵悉會.”

있어 신라의 주체적 역량을 확인시켜 주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술했듯이 나당동맹은 여제 정복 후 그 점령지 분할에 합의한 단순한 영토 동맹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당연합군은 처음부터 내부 균열의 가능성이 있었다.³³⁾ 당은 여·제 정벌 후 당이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동맹국인 신라에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府)에 임명하는 등³⁴⁾ 패권주의 행태를 보였다. 신라가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다행히도 문무왕과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 지휘부는 당의 패권주의 행태와 침략적 속성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당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효능감은 여제 정복 단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군이 여제 정복 이후 압록강 건너의 개둔양(皆敦壤) 지역에서 당군을 선제 공격하며³⁵⁾ 나당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압록강 유역을 나당의 경계로 확장해 보려던 신라의 의도는 없었는지 궁금해진다.

신라는 동맹국 당에 대하여 절대 의존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백제의 장군 계백이 활약했던 황산벌전투로 인하여 신라군이 당군과의 합류 시간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였을 때, 신구도행군대총관이었던 소정방(蘇定方)이 그것을 핑계 삼아 신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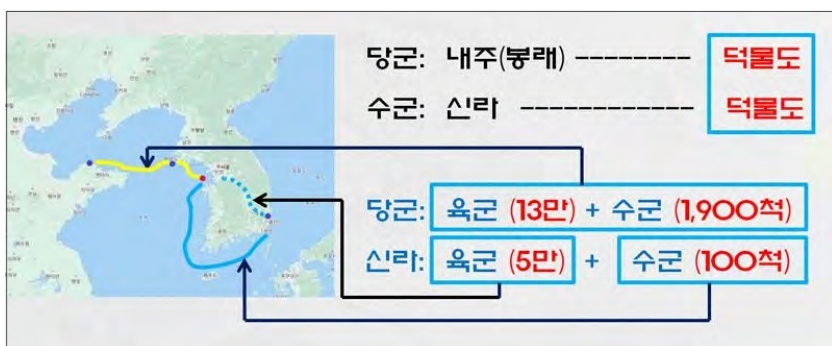
33)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82쪽.

3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3년(663) 4월.

3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10년(670) 3월.

의 독군(督軍) 김문영을 처형하겠다고 하자, 이에 분노한 김유신이 “먼저 당군과 결전한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고 하며³⁶⁾ 강력히 대응하니 소정방이 물러섰던 일화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삼국통일전쟁의 주역으로서 주체적인 자세를 절대 잃지 않았던 당당한 모습이 었다.

〈그림 1〉 나당연합군 병력 규모와 이동 경로



당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하여 당군(唐軍)의 군량 조달을 담당하며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는 일부 견해들이 있으나, 이는 부분적인 사료 해석에서 생겨난 오류일 뿐이다. 오히려 신라군이 대규모 병력 운용에 더하여 병참 능력까지도 완비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료에서 확인되는 5만 정병(精兵) 기록은 당시에 정예화 되었던 신라의 군사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³⁷⁾

신라 수군의 역량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다. 육군을 보조하거나 보

3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0), 7월 9일, “必先與唐軍決戰 然後破百濟 ….”

3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0) 6월 21일, “王喜不自勝 又命太子與大將軍庾信將軍品日欽春【春或作純】等 率精兵五萬 應之 王次今突城.”

급 함대로써 수송 역할에 한정되었다는 견해들이 그것인데 기록을 토대로 할 때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백제공략 당시 나당 수군의 상륙작전을 예로 들 수 있다. 서해의 경우 섬이 많고 조류가 빠르며 조수간만의 차도 커서 항해나 정박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³⁸⁾ 당군이 계절풍, 해류, 조수, 사주(沙柱) 등 백제 해역의 정확한 해양 정보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러한 작전 영역은 신라 수군이 백제 영해에 대한 탐색전을 은밀히 전개하며 해로와 수심 등의 항해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고, 나당연합작전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며 활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³⁹⁾ 이미 진평왕대 선부서(船府署)가 설치되어⁴⁰⁾ 선박, 조선술, 항해술, 수병 등에 대한 관리를 주 업무로 했음을 생각할 때, 수군의 군사 행정을 장악하고 수군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므로, 이 시기 신라의 해양력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당전쟁 시기에는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군의 기본적인 침공 전략이 수륙병진(水陸並進)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것은, 한반도 연안의 제해권을 신라 수군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벌포해전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는 천성전투에서⁴¹⁾ 설인귀가 이끄는 당 수군을 격파하고 병선 40척을 포획했던 것도⁴²⁾ 그러한 신라 수군의 역량을

38)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169쪽.

39) 한준수, 「신라 문무왕대 삼국 통일의 완성과 水軍의 활약」, 『新羅文化』 5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21, 1쪽.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5년(583).

41) 이상훈, 앞의 책, 2012, 213쪽.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5년(675) 9월.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신라군의 위상이나 역할을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들은 단편적 시각의 접근으로서 다면적 고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삼국통일전쟁이 새로운 군사 전략의 등장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이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활용했던 항로는 기존의 서해 연안 항로가 아닌 서해 중부 횡단 항로였다. 당은 13만 명의 병력과 병선 1,900척을 투입하였는데,⁴³⁾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전에 따른 수군력의 활용이었지만⁴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백제가 전쟁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국가가 붕괴되는 단계로 진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준다. 당시 나당 연합군은 서해의 덕물도(덕적도)에서 합류하였는데, 신라의 태자(문무왕)가 병선 100척을 이끌고 합류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되므로⁴⁵⁾ 덕물도가 삼국통일전쟁의 서막이 열린 곳임을 알 수 있다. 덕물도는 나당 연합군의 단순한 합류 지점을 넘어 백제 공략에 있어 나당 연합군의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신라군의 전략과 전술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삼국통일전쟁의 상징적인 주역으로서 김유신의 역할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 전개된 신라군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도 고찰이 가능하

4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7) 3월 및 『삼국유사』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44) 『資治通鑑』 卷181, 煬皇帝上之下大業 8年 6月 己未에 “高麗諸城各堅守不下右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舳艫數百裏浮海先進入自涇水去平壤六十裏與高麗相遇進擊大破之.”라 하여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당시 水軍 대장 내호아(來護兒)가 강회(江淮) 지역의 수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사실에서 唐 이전에 이미 체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7) 5월 21일.

다는 점이다. 기만전술, 삼도 진군 전략, 첩보전, 돌격전술 등 다양한 군사적 꾀적이 기록에서 확인되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와 관련하여 신라군이 여제 공략 과정에서 보여준 한산주 일대의 군사 거점이나 관방(關防)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삼국 통일전쟁의 교두보로서 서해의 덕물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당전쟁기에 당군이 신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도 그와 관련 지워 볼 수 있다. 신라가 낭비성(포천 반월산성)을 확보한 후 구축한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방어선이 고구려의 돌파를 차단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⁴⁶⁾ 그러한 요소들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삼국통일 이후 한산주가 가장 많은 영현을 거느린 광역행정구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그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백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심화된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당동맹 성립 이후 652년부터 백제와 당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자 백제가 급변하던 국제정세에 대응하고자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며 국가의 생존을 위해 도모했던 외교 전략은⁴⁷⁾ 삼국통일전쟁의 일부분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비록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소멸되기는 하였지만, 계백으로 상징되는 백제의 군사적 대응 역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보

46) 이상훈, 『신라는 어떻게 살아 남았는가』, 푸른역사, 2015, 103쪽.

47)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212~221쪽,

여준 흑치상지나 백제군의 전투력은 백제의 성곽 체계나 방어 전술 등을 고찰하는데 있어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 더하여 백강이나 탄현 등 주요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대한 위치 비정 역시 정밀하게 재조명 할 수 있으며,⁴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류성 또한 그러한 작업 과정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⁴⁹⁾ 백제의 방어 체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나당전쟁 당시의 전역(戰域) 역시 관방 체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요 전투가 한강 하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지역만을 주된 전장(戰場)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료에서는 다른 면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 전하는 신라의 23개 군호(軍號)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3군호는 신라의 23개 군단을 지칭하는데, 한산주(漢山州)를 군단 명칭으로 하는 부대와 우수주(牛首州)를 군단 명칭으로 하는 부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⁵⁰⁾ 한산주는 수도권 지역, 우수주는 춘천 지역에 해당하므로 당시 전역이 한강 유역과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나당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라에게 있어 한산주는 서부 전선의 중심축이었고, 우수주는 동부 전선의 중심축으로서 전진 기지이자 교두보였던 것이다.⁵¹⁾ 신라군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수주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결과라 하겠다.⁵²⁾

48) 이재준, 「백제 기벌포 위치비정에 관하여」, 『북악사론』 18, 2023.

49) 이재준, 「군사적 관점에서 본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50) 『삼국사기』 권40, 잡지9, 凡軍號에 따르면 牛首州誓(672), 牛首州鬪幢(672), 牛首州三千幢(672), 牛首停(673)이 확인된다.

51)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296쪽.

52)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110, 2023, 223~239쪽.

강원 지역의 ‘화천-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동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진 경로나 7세기 전반 신라의 북진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³⁾ 그러한 모습은 고려 후기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 몽고의 압박을 받은 거란군이 고려로 침입하여 원주·춘천을 거쳐 제천까지 남하하자 장군 김취려가 이끄는 고려군이 그들을 격파했던 박달재 전투(1217)가 그것이다.⁵⁴⁾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전개할 때 선택했던 주요 침공로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렇듯 춘천 지역은 강원 영서 지역의 거점인 동시에 태백산맥 서쪽을 지나는 영서로(嶺西路)의 길목으로서, 일찍이 고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영서로를 통해 평시의 국가 기간 교통망이 전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역이 중요한 요충지나 길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고찰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로와 밀접한 지역에 창건된 사찰에 대해서도 확장된 분석이 가능하다. 사찰의 경우 승려와 불교 철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사상사적 접근이 주된 형태이지만, 호국(護國)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나 영향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신라 화엄종의 개조(開祖)인 의상(義湘)이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창건했다는 부석사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다.⁵⁶⁾ 부석사의 창건 시기는

53)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297쪽, 〈지도 12〉 및 312쪽 〈지도 13〉.

54) 『고려사』 世家 권22, 高宗 4년(1217), 7월 5일(陰) 庚辰. “崔元世·金就礪追丹兵于忠·原二州間 戰于麥谷 追至朴達峴 大敗之 賊踰大關嶺而遁.”

55) 유재춘, 「역사상 춘천의 군사적 거점과 가치」, 『군사연구』 130, 2010, 216쪽.

5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6년(676) 2월.

문무왕 16년(676) 2월로서 매소성 전투(675, 9)와 기벌포 전투(676, 11) 사이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나당전쟁이 종전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당이 침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다.⁵⁷⁾ 비록 신라가 매소성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깊게 드리운 전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시점에 죽령 교통로 주변에 부석사가 창건되었으니 종교적 측면에 더하여 나당전쟁의 군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될 수밖에 없다.⁵⁸⁾

나당전쟁 당시 소백산맥이 신라가 구축한 5개의 대당 방어선 가운데 제3차 방어선이었던다는 점에서,⁵⁹⁾ 관방 유적과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상이 입당구법(入唐敕法) 중 귀국하게 된 배경이 당의 침공 계획을 신라에 알리려 했던 것이므로⁶⁰⁾ 설득력은 충분할 것이다. 주요 교통로의 거점과 주변 지역의 사찰 창건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이다.

넷째로 무기 체계에 대한 고찰 심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대의 전쟁을 현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고위력(高威力) 병기의 개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라는 법흥왕 4년(517) 병부(兵部)의 설치⁶¹⁾ 통해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화시키는 군사 제도의 정비를 단행한 바 있다.⁶²⁾ 신라 최초의 행정 관부

57) 당 高宗은 의봉 3년(678) 시중 장문관(張文罐)이 원정 중단을 건의하자 비로소 전쟁을 그만두었다.

58) 정성권, 「항마촉지인 불상의 신라 등장시기와 배경」, 『신라사학보』 59, 2023, 79쪽.

59)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b), 86~87쪽.

60) 『삼국유사』 권4, 의해5, 義相傳敎.

6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法興王 4년(517) 夏 4월, “始置兵部.”

62) 盧重國, 「法興王代の 國家體制 強化」,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경상북도, 1987,

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그 기관이 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른 시기부터 ‘군국정사(軍國政事)’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⁶³⁾ 군사가 국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한 신라 병부에 노(弩) 관련 관원이 존재하고 있어 흥미롭다. 노사지(弩舍知)와 노당(弩幢)이 그것인데,⁶⁴⁾ 노를 담당하는 사지와 당⁶⁵⁾이라는 의미이다. 문무왕대 노 제작 전문 기술자인 구진천(仇珍川)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신라의 노 제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당 고종까지 나서 그것을 얻고자 상당한 압박을 하였음에도 구진천이 끝내 굴하지 않았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한다.⁶⁶⁾ 그러한 노를 담당하는 노당이 문무왕 11년(671), 노사지가 문무왕 12년(672) 각각 설치되었다고 하니, 그 시기가 나당전쟁이 한창 격화되던 무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흥왕 19년(558) 나마 신득의 포노(砲弩) 제작 기록을⁶⁷⁾ 토대로 진평왕대 이미 노당 군단이 설치되었다는 건

49쪽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316쪽 ; 정덕기, 「6~7세기 신라 병부의 조직정비와 병마행정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62~76쪽.

6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南解次次雄 7년(10), 秋 7월, “以脫解爲大輔委以軍國政事.”

64)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병부, “弩舍知一人 文武王十二年 始置 景德王改爲司兵 惠恭王復稱弩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 弩幢一人 文武王十一年置 景德王改爲小司兵 惠恭王復故 位與史同.”

65) 당(幢)은 3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사찰의 당간지주(幢竿支柱)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깃발’을 의미하며, 둘째는 군사 조직으로서 신라의 “○○당”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관료(관원)를 의미하는데, 병부의 노당(弩幢) 및 고관가전(古官家典)의 당(幢)이 그것이다. 따라서 신라에서 노당은 군사조직(군단) 명칭인 동시에 병부 소속 관료라는 2가지 의미를 지닌다.

6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669) 冬.

6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9년(558).

해도 있으므로⁶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여기에는 삼국통일전쟁의 출발점이었던 나당동맹의 불완전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새로운 병법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문무왕이 영묘사 앞길에 행차하여 군대를 사열하고, 아찬 설수진(薛秀眞)의 육진병법(六陣兵法)을 관람하였다고 한다.⁶⁹⁾ 육진 병법은 당 이정(李靖)이 고안한 진법(陳法)으로서 중앙의 1개 부대를 중심으로 주변의 5개 부대가 둘러싸는 방식인데 고난도의 훈련이 실행되어야만 가능했다. 이는 신라가 당 병법의 도입은 물론 그것을 통한 숙련된 군사력의 유지에도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신라 병제의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⁷⁰⁾

다섯째로 군사적 영역에 있어 여제 유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심화이다. 이미 여제 유민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유민 통합 내지 지배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보덕국(報德國)은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느낌이다. 군사사 측면이라 하여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부흥운동과는 별개로 나당전쟁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¹⁾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의 존

68) 신범규, 『신라 중고기 軍事制度의 정비와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31~32쪽.

6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4년(674) 9월.

70)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116, 2002(a), 52~55쪽.

7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3月. 신라 사찬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高延武)가 개돈양에서 각각 정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당 말갈병을 공격했던 것은 신라의 여·제 유민 또는 부흥군과의 연합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제가 당의 신라 침공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⁷²⁾ 그들의 동향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신라의 포용력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닐 듯하다.⁷³⁾ 신라의 군사조직 가운데 구서당이나 삼무당⁷⁴⁾이 여제유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화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삼국통일 후 신라의 북계(北界)에 대한 고찰도 심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덕왕대 당이 패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공인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⁷⁵⁾ 신라가 성덕왕대 이르러서야 패강 유역에 대하여 지배를 처음 실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신라의 지방군 10정 가운데 남천정(이천)과 골내근정(여주) 주둔지를 예로 들며 “10정 설치의 북방 한계선은 ‘여주-이천’선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는 한강 이북지역의 치안 및 편제에 대한 신라의 관심이 미비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고 하거나,⁷⁶⁾ 신라가 백제 고지에 만족하고 더 이상 북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문왕대 9주를 설치할 때에도 임진강선을 넘지 못했다고⁷⁷⁾ 한 견해들이 그에 해당한다.

72)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244~246쪽; 신은이,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 132, 2023, 4쪽.

73) 백제 유민이 고구려 유민 보다 차별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시각에 대하여 사료 비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신라사학보』 50, 2020, 94~98쪽).

74) 한준수, 「신라 통일기 삼무당의 설치와 여제 유민」,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7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聖德王 34년(735).

76)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1976, 4쪽;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211쪽; 강봉룡, 「新羅下代 溟江鎮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1997, 206쪽, 주)30.

77)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93쪽.

하지만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할 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견해와 달리 신라는 북쪽 경계나 영역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고구려 옛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왕 10년(690) 창설된 삼변수당이 그것으로서 한산변·우수변·하서변이라 하여 북쪽 3개 주에 국경 수비를 위하여 창설한 군단이 있었다.⁷⁸⁾ 지방 군단 10정과는 별개로 북방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문왕대 패강 유역에 대해 지배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기록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 기록에 “당 고종이 이적을 보내 신라와 함께 협공하여 고구려를 멸하고 안동도호부를 두어 좌위위대장군 설인귀에게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진무하게 하였는데, 뒤에 당나라 군사가 떠나자 그 땅이 모두 신라로 들어갔다.”고 한다.⁷⁹⁾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당군이 철수한 이후 신라가 평양 일대까지 진출하며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신라가 단순히 백제 통합만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 옛 영역까지도 확보하려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자신의 현실적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⁸⁰⁾

이러한 신라의 모습은 만주와 요동을 포함한 동북 3성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 대한 역사적, 논리적 대응

78)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三邊守幢【一云邊守】.

7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平安道 平壤府 建置沿革, “唐高宗遣李勣與新羅夾攻滅之 置安東都護府 以左威衛大將軍薛仁貴總兵二萬以鎮撫之 後唐兵既去 其地皆入於新羅.”

80) 이상훈, 앞의 책, 2012. 40쪽.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는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신라가 나당전쟁의 전개에 있어 중심 국가로서 당과 협력하면서도 절대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였던 사실에서 국가적, 군사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적 특징으로서 새로운 방어 체계와 전략·전술·병법의 도입과 신무기의 개발도 확인할 수 있어 군사사 영역의 심화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여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효적 지배 노력은 신라가 삼국과 삼국민을 동질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통합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고찰이 미진하다는 점도 커다란 과제이다. 첫째, 삼국통일전쟁기 군사 제도에 대한 고찰이 신라 중고기 보다 소략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시 상황인 만큼 사료 내용이 제도의 변화상보다 전쟁의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⁸¹⁾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라의 23개 군단 가운데 고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점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군관조직에 대한 부분도 심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록된 31개 군관 중 검토가 진행된 것은 장군(將軍) 등 몇몇에 불과한 상태이다.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못지않게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내는 것도 과제라 할 수 있다. 장군직의 경우만 해도 평시의 상설직인지 아니면 전시에 임명되는 임시직인지 견해가 나뉘어 있는데, 연구의 다양성만으로 인식하기에는

81) 신범규, 앞의 논문, 2024, 14쪽.

아쉬움이 남는다. 단순히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의 운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진전이 필요하다.

셋째, 개념 용어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필요하다. 기존에 여수전쟁, 여당전쟁, 나당전쟁 등의 용어가 최근 고수전쟁, 고당전쟁, 신당전쟁 등으로 불리고 있다.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군사사 연구 토대의 정밀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합의된 견해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흥운동과 복국운동, 부흥운동과 부흥전쟁 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⁸²⁾

넷째, 군진의학(軍陣醫學)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진의학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군대 내 대규모로 발생하는 각종 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자를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⁸³⁾ 정리하면 군대 내의 의학이라 표현할 수 있다.⁸⁴⁾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군대가 집결하여 한반도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치름으로써 풍토병이 교환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한반도에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으며,⁸⁵⁾ 전황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육효빈 신도비」에 따르면 670~673년 사이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⁸⁶⁾ 육효빈과 함께 파견된 친구 왕수義(王守義)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는데, 이 때의 전염병은 그 여파가 커서 674년

82)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14~17쪽에서 용어에 대한 제 견해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83)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 2003, 12쪽.

84) 오준호, 「軍陣醫書『行軍方便方』의 구성과 내용」,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2권 2호, 2014, 58쪽.

85)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김영수 지음, 『한국의학사』, 2018, 역사공간, 60쪽.

86)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347쪽, “公諱孝斌 … 公參是軍事友人太原王守義遇疫於海東 ….”

나당전쟁이 소강 상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질병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희생 못지않게 의학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⁸⁷⁾ 의학사 측면에서는 이 시기를 고대의학과 중세의학의 분기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만큼⁸⁸⁾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군사사 시각에서 질병사와 의학사 영역과 연계하여 학제 간 고찰이 필요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삼국통일전쟁과 관련하여 군사사 영역의 고찰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련 분야 연구의 심화와 필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가 단순한 전쟁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전쟁을 행하던 7세기의 사회에 대한 시대상과 역사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연구의 당위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87) 신라가 효소왕 원년(692) 의학(醫學)을 설치한 것은 상징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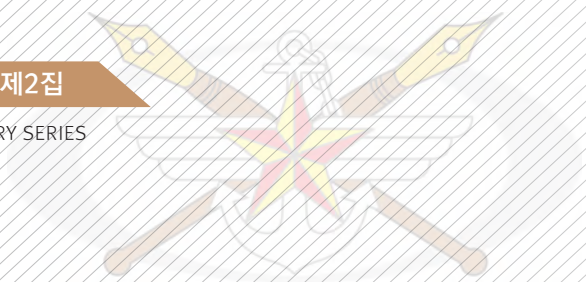
88)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김영수 지음, 위의 책, 2018, 역사공간, 73~74쪽.

1부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나당동맹의 성립 시점에 대한 재검토

| 최희준

나당동맹의 성립 시점에 대한 재검토

최 희 준*

- I. 머리말
- II. 648년 나당동맹의 논의와 내용
- III. 당 태종 사망과 동맹의 추진 중지
- IV. 무열왕 즉위와 나당동맹 성립
- V. 맺음말

I. 머리말

군사동맹(軍事同盟, Military Alliance)이란, 국가 안보의 영역에서 국가 간 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자원의 실질적인 기여 제공을 그 특징으로 한다.¹⁾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강사.

1) Stefan Bergsmann, “The Concept of Military Alliance”, *Small States and Alliances*, ed. Erich Reiter and Heinz Gärtner (Physica, 2001).

한국 고대사의 영역에서도 다수의 군사동맹이 상정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당동맹이다. 나당동맹은 7세기 중엽 신라와 당, 두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맺었던 군사동맹이었다. 특히, 신라는 이 동맹의 성사를 위해서 자국의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였고, 그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수 세기에 걸쳐 상쟁해 왔던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평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동맹을 계기로 촉발된 삼국통일전쟁은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재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나당동맹은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 그 시발점이자 원동력으로써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나당동맹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 대다수가 648년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김춘추가 입당(入唐) 후 당 태종을 만나 추후 함께 고구려·백제 양국을 평정할 계획을 의논했던 상황을 나당동맹이 체결된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

반면, 연구자에 따라서는 나름의 근거를 들어 나당동맹의 성립 시점을 달리 파악하기도 한다. 먼저 이호영은 645년에 당이 고구려를

2)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기동, 「신라의 대당(對唐) 군사동맹과 삼국통일」,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최현화, 「7세기 중엽 당(唐)의 한반도(韓半島) 지배전략(支配戰略)」, 『역사와 현실』 61, 2006 ; 이상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e). 반면, ‘나당동맹’을 대신해 양국의 합동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나당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나당연합’의 성립 시점은 648년으로 동일하게 파악한다(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12 ;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필자도 선행연구에서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나당 군사동맹’이 648년에 성립된 것으로 서술한 바 있다(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22쪽).

침공하자 신라가 당을 도와 3만의 군사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한 사실을 들어, 이 해가 실질적인 ‘나·당군사동맹’의 성립 시점으로 파악하였다.³⁾ 김덕원은 관련 사서에서 김춘추의 입당 기사가 648년 겨울, 혹은 윤12월조에 기재된 점에 착안하여, 648년은 그가 당에 파견된 시점일 뿐이고, 실제로 나당동맹이 성사된 시점은 당 태종을 만난 이듬해 649년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연민수는 651년 당 고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새서(璽書)를 보내 백제가 빼앗은 성을 모두 신라에 돌려주라 신라 편에서 명령을 내린 점을 들어, 이 해에 신라와 당의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주보돈은 648년에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한 약속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口頭)로만 표명된 것으로, 그 내용이 김춘추를 통해서 신라 조정에게 정식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나당동맹 성립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아간 느낌이라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무열왕이 전면전을 결심하고 당에 사신을 보내 원병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659년을 사실상 나당 간 군사동맹 성립 시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보았다.⁶⁾

그런데,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나당동맹이라는 신라와 당 양국의 중요한 외교 사안을 검토하면서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라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신무외교’란 다른 이의 신하 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외교 원칙이다. 648년에 입당한 김춘추는 신라 진덕왕이 파견

3) 이호영,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論文集：檀國大學校(人文·社會科學篇)』 21, 1987.

4)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5)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6) 주보돈, 「羅唐同盟의 始末」, 『大邱史學』 126, 2017.

한 사신이였다. 따라서 그가 당 태종과 논의했던 나당동맹의 내용이 최종 성사되려면 신라 측 외교권자인 진덕왕의 재가가 필요했다.⁷⁾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나당동맹 성립 시점과 관련한 이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급변했던 7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당동맹의 성립 시점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자칫 미시적인 목표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행동으로 비취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사건의 인과관계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주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7세기 중엽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 흐름 속에서 나당동맹이 성립되는 과정과 시점을 추적하고자 한다.

Ⅱ. 648년 나당동맹의 논의와 내용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의 항쟁은 6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백제 의자왕(義慈王)은 즉위 이듬해인 642년 7월에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

7)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외교, 즉 국가 사이의 교섭은 정기적·비정기적 사신 파견과 그들이 전달하는 외교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신무외교’라는 원칙하에 사신 개인이 현지에서 벌이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용납되지 않았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사신의 역할은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데에 한정되었을 뿐이었다(정동훈, 2022,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해안, 15~16쪽).

의 서쪽 변방 40여 성을 공취하였고,⁸⁾ 같은 해 8월에는 1만의 군사로 신라의 낙동강 서안 군사 요충지인 대야성(大耶城)을 함락시켰다.⁹⁾ 이에 신라 선덕왕(善德王)은 김춘추(金春秋)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할 병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¹⁰⁾ 신라의 청병 요청을 거절한 고구려는 오히려 643년 백제와 모의하여 신라의 대당(對唐) 관문이었던 당항성(党項城) 공격을 모의하였고, 이를 사전에 파악한 신라는 신속히 당에 사신을 파견해 구원을 요청하였다.¹¹⁾ 이 과정에서 644년 당 태종(太宗)은 고구려 정벌을 공식 천명하였고,¹²⁾ 이에 신라에게도 병사를 내어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라

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7월,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8월,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湊品釋舍知竹竹龍石等死之.”

1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겨울,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湊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642), “新羅謀伐百濟 遣金春秋乞師 不從.”

1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8월, “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년(643) 11월,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罷兵.” ; 『책부원귀』 권991, 외신부36, 비어4 당태종 정관 17년(643) 9월 경진, “新羅遣使言 高麗百濟侵凌臣國 累遣攻襲數十城 兩國連兵期之必取 將以今茲 九月大舉 臣社稷必不獲全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編師 以存救援.” 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해당 기사는 선덕왕 11년(642년)조에 기재되어 있어 발생 연도가 다른 사서의 동일 사건 기록과 1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조의 일괄 기사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두참이므로, 실제로는 이듬해인 선덕왕 12년(643)조에 기입되어야 할 사건이다(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23쪽).

12)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8년(644) 2월 을사(1일), “玄奘還 且言其狀 上曰 蓋蘇文弑其君 賊其大臣 殘虐其民 今又違我詔命 侵暴鄰國 不可以不討.”

는 숙고 끝에 645년 당의 고구려 공격에 조응하여 3만의 군사를 내 고구려 남쪽 변경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¹³⁾ 비록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은 실패로 종결되었으나, 신라의 참전은 당 태종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¹⁴⁾

647년 1월 신라의 선덕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진덕왕이 즉위하였다.¹⁵⁾ 당시 여왕의 통치에 반대해 왔던 신라의 비담(毗曇)·염종(廉宗) 등 귀족 세력들은 진덕왕이라는 또 다른 여왕의 즉위를 빌미로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¹⁶⁾ 이후 신라 조정은 김춘추로 대표되는 여왕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완전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신라 최고의 실력자였던 김춘추가 648년 사신으로 임명되어 직접 바다를 건너 당으로 들어갔다.¹⁷⁾

1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645), “太宗親征高句麗 王發兵三萬以助之” ; 『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동이 신라국,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降之.” 『구당서』 등의 중국 측 사서에서는 645년 5월에 신라가 파병한 군사의 수를 ‘5만(五萬)’으로 기록한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3만(三萬)’이라고 기록하여 차이를 보인다.

14) 최희준, 앞의 논문, 2022. 이 사건을 ‘나·당군사동맹’의 최초 성립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이호영, 앞의 논문, 1987). 그러나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과 신라의 참전은 당의 일방적인 참전 요구와 신라의 수락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군사 연합이므로, 사전에 상호 안보를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는 군사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1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647) 정월 8일, “王薨 諡曰善德 葬于狼山.”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즉위, “眞德王立 名勝曼 眞平王母弟國飯葛文王之女也.”

1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647) 정월, “毗曇廉宗等謂 女主不能善理 因謀叛擧兵 不克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647) 정월 17일,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1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진덕왕 3년(649) 1월조에는 “始服中朝衣冠”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중국식 의관 제도는 김춘추가 귀국한 이후에 신라에서 시행되었

A-①. [648년 윤12월 7일] 신라의 재상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이 들어와 알현하였다. 춘추는 진덕의 동생이다. 황상은 김춘추를 특진(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춘추가 장복(章服)을 고쳐 중국을 따르게 해달라 청하니, 내전에서 동복(冬服)을 꺼내 그에게 하사하였다.¹⁸⁾

A-②. [648년 겨울]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보내 당에 조공하였다. … 일찍이 [춘추를] 불러 사사로이 만나[燕見]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며 묻기를, “경(卿)은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臣)의 본국은 바다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천자(天子)의 조정을 엿드려 섬긴 것이 여러 해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방자하게 침범해 오더니, 작년에는 대거 침입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조공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함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나라의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조화에 참석하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은 깊이 공감하여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춘추가 또한 장복(章服)을 고쳐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르게 해달라 청하니, 이에 내전에

으므로, 648년 겨울에 입당한 김춘추가 이듬해 정월까지 귀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김춘추의 입당을 진덕왕 원년(647)으로 수정해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6~31쪽). 그러나 진덕왕 3년 1월의 ‘始服中朝衣冠’ 기사는 김춘추가 귀국한 이후 신라에서 시행한 중국식 의관 제도를 그해 처음부터 실시했다고 소급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당서』 본기와 『자치통감』 등에서는 김춘추의 입조 시점을 정관 22년(648) 윤12월 계미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648년과 달리 647년에는 윤달이 없다(平岡武夫, 『唐代之曆』,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54, 38~39쪽). 따라서 김춘추의 입당 연도를 647년으로 수정한 견해는 따르지 않는다(김종복, 앞의 논문, 258~259쪽).

- 18) 『자치통감』 권199, 당 태종, 정관 22년(648) 윤12월 계미, “新羅相金春秋及其子文王入見 春秋眞德之弟也 上以春秋爲特進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改章服從中國內出冬服賜之.”

서 진귀한 옷(珍服)을 꺼내 춘추와 그의 종자에게 하사하였다. 조(詔)로써 배수해 춘추를 특진(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¹⁹⁾

사료 A-①은 신라의 김춘추가 그의 아들 문왕과 함께 사신으로 입당하여 당 태종을 알현한 사실을 기록한 『자치통감』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당 태종은 김춘추에게 특진(特進), 문왕에게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이라는 당의 관작을 배수하는 한편, 신라도 당의 장복제를 따르게 해달라는 김춘추의 요청에 따라 내전에서 동복을 꺼내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춘추가 당 태종을 알현한 시점을 648년 윤12월 계미일로 특정하였다.

사료 A-②는 사료 A-①과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기록으로, 사료 A-①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 태종은 공식 사신 접견과는 별도의 자리에서 김춘추를 만나[燕見] 그가 입당한 속내를 직접 물어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김춘추는 백제의 잦은 침공으로 신라는 현재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만약 당이 군사를 빌려주어 백제를 제거하고 신라를 구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천자의 조정을 섬길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군사를 내어 신라와 함께 백제를 섬멸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사료 A-②는 당 태종이 김춘추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당군의 출정을 허락하였다고 전한

1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遣伊湊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 嘗召燕見 賜以金帛尤厚 問曰 卿有所懷乎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強猾 屢肆侵凌 況往年大舉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敝邑人民盡爲所虜 則梯航述職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다. 즉, 648년 12월 당시 신라사신 김춘추와 당 태종은 백제에 대한 양국 공동의 군사 행동을 논의했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²⁰⁾

이때 김춘추와 당 태종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 사료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 선왕(태종무열왕 김춘추)께서는 정관(貞觀) 22년(648) (당에) 입조하여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를 뵈고 은혜로운 칙(勅)을 받았는데, “짐이 지금 고구려를 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여 매번 침략을 당하니 편안한 해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하는 바 아니고, 예물과 백성은 나도 가지고 있는 바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고 평양(平壤) 이남과 백제 토지를 모두 너희 신라에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계획(計會)과 군기(軍期)를 하사해 주셨습니다.²¹⁾

사료 B는 671년에 작성된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답설인귀서」는 당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신라를 공격하러 온 행군총관(行軍總管) 설인귀(薛仁貴)의 서신에 대해 문무왕의 명의로 작성된 답서이다. 서신의 주요 내용은 신라가 648년 당 태종 이세민과 신라사신 김춘추

20) 김춘추와 당 태종의 군사동맹 논의가 649년 1월에 개최된 당의 하정식 이후에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9~32쪽). 그러나 사료 『자치통감』에서 김춘추가 당 태종을 별도로 알현한 시점을 648년 윤12월 7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A-①). 따라서 그 시점을 649년 1월 이후로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주장도 취하지 않는다.

2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貪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사이의 군사동맹 논의 이후, 그 합의에 의거해 대백제·고구려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신의를 지키고 공적을 세웠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함으로써 지금 당의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었다. 그중 648년 당 태종과 신라 김춘추 사이의 군사동맹 논의와 그 합의 내용을 언급한 단락이 바로 사료 B 부분이다.

사료 B의 첫머리에 신라의 김춘추가 648년에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을 만났음은 앞서 A군의 사료에서 살핀 바와 같다. 양자는 별도의 만남을 통해서 군사동맹을 논의하였고, 당 태종은 그 결과를 ‘칙(勅)’ 양식의 공문서(公文書)²²⁾로 정리하여 신라측에 전달하였다.²³⁾ 해당 칙서의 골자는 당 태종 자신이 지금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이유가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침략을 받는 신라가 불쌍해서이고, 자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의 땅은 신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 당시 당 태종은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 김춘추가 입당해 당 태종과 군사동맹을 논의했던 648년 12월의 시점에 당은 이미 고구려에 대한 파상공세를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다.²⁴⁾ 사료 B의 칙

22) 『대당육전(大唐六典)』에는 당 황제가 사용하는 공문서의 양식으로 ①책서(冊書), ②제서(制書), ③위로제서(慰勞制書), ④발일칙(發日勅), ⑤칙지(勅旨), ⑥논사칙서(論事勅書), ⑦칙첩(勅牒) 등 7종이 명시되어 있다.

23) 이 기사를 두고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문서(文書)가 아닌 구두(口頭)로만 약속을 전달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주보돈, 앞의 논문, 2017).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칙(勅)’은 황제가 사용하는 왕명(王命)의 한 종류로, ‘칙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하달된다. 따라서 ‘칙을 받았다(奉勅)’는 표현은 칙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칙이 구두로만 전달될 경우, 이를 ‘구칙(口勅)’이라 특기한다. 따라서 당 태종과 김춘추가 군사동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은 칙서로 작성되어 신라에 전달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6년(647) 2월,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

서 내용 중 “짐이 지금 고구려를 벌하는 것은(朕今伐高麗)”이라는 문구는 당 태종과 김춘추가 논의한 군사동맹의 첫 행동 역시도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이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당 황제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 백제가 평정되어야 하는 나라로 처음 지목되었다. 이는 직전의 몇 차례 사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상이었다. 예를 들어, 643년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을 빌미로 당에 병사를 요청했을 때, 당 태종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해 신라를 괴롭히지 말라 타이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²⁵⁾ 당 태종이 645년의 고구려 공격을 준비할 때도 당은 백제에게 대고구려전 참전을 종용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당의 백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결국 고구려를 제압하고자 하는 당 태종과 백제를 멸하고자 하는 신라 김춘추 양측의 염원이 결합하여 고구려·백제 양국을 모두 멸하는 것으로 군사동맹의 기본 목표가 합의 도출된

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副之 發兵萬餘人 乘樓舡自萊州泛海而入 又以太子詹事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朗等副之 將兵三千人 因營州都督府兵 自新城道入 兩軍皆選習水善戰者配之.”；『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6년(647) 7월, “牛進達·李海岸入我境 凡百餘戰 攻石城拔之 進至積利城下 我兵萬餘人出戰 李海岸擊克之 我軍死者三千人.”；『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7년(648) 정월, “帝詔右武衛大將軍薛萬徹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方副之 將兵三萬餘人及樓舡戰艦 自萊州泛海來擊.”；『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7년(648) 9월, “太宗遣將軍薛萬徹等來伐 度海入鴨渚 至泊灼城南四十里 止營 泊灼城主所夫孫 帥步騎萬餘拒之 萬徹遣右衛將軍裴行方 領步卒及諸軍乘之 我兵潰 行方等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渚水以爲固 攻之不拔 我將高文 率烏骨安地諸城兵三萬餘人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我軍敗潰 帝又詔萊州刺史李道裕 轉糧及器械 貯於烏胡曷 將欲大舉.”

2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4년(644) 정월, “遣使入唐朝貢 太宗遣司農丞相里玄獎 告諭兩國 王奉表陳謝.”

26) 『문관사림』 권664,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 “康信又述王意 固請發兵即與官軍同伐 凶惡 朕今興動甲兵 本誅弑君之賊 王志存忠正 情切鷹鷂 既稱朕懷 欽歎無已 所發之兵 宜受張亮處分 若討賊之日 能立功勳 王宜錄奏 當加褒獎.”

결과였을 것이다.

셋째, 군사동맹의 결과로 고구려·백제 양국을 모두 평정했을 경우, 평양을 기준으로 그 남쪽의 토지는 신라에게 주겠다고 당 태종이 약속한 점이다. 이는 당 태종과 신라 김춘추가 향후 평정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분할할 때 평양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이, 그리고 그 남쪽은 신라가 나눠 갖는다는 전후처리 원칙을 도출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 태종은 그 내용을 칙서(勅書)로 문서화하여 신라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이는 추후 신라가 당에 백제 고지의 영유권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648년 당 태종과 김춘추가 논의한 나당동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8년 진덕왕이 김춘추를 당에 파견한 목적은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반면, 당시 당 태종은 고구려의 굴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김춘추와 당 태종은 신라와 당 양국이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하고 그 대가로 평양 이북의 고구려땅은 당이, 그리고 평양 이남과 백제땅은 신라가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군사동맹의 내용은 칙서(勅書)로 작성되어 김춘추의 편으로 신라 진덕왕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당 태종은 향후 진행될 대(對)고구려전에 앞서 신라군의 역할과 군기를 정하여 함께 신라측에 하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나당동맹이 648년에 성립되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기본 개념인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의 논의만으로 신라와 당 양국의 동맹이 성립되었다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신무외교’란 『예기(禮記)』에 언급된 개념으로,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신의 역할은 군주의 서신, 즉 국서(國書)를 전달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고, 현지에서 사신이 벌이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용납되지 않았다. 김춘추라고 하는 당대 최고 실력자가 직접 당에 건너간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상 그는 신라 진덕왕이 당에 파견한 사신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648년 김춘추가 당 태종과 실질적인 차원에서 군사동맹의 내용을 논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합의·도출된 논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군사동맹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은 당 태종의 입장에서 칙서로 정리되어 신라 진덕왕에게 보내졌다. 이에 대해 신라 진덕왕이 동의한다면 그 입장이 다시 표문(表文)으로 정리되어 사신을 통해 당에 전달되어야 했다. 이 같은 국서의 교환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양측 외교권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48년에 김춘추가 입당하여 당 태종과 도출한 군사동맹의 논의 결과는 말 그대로 나당군사동맹의 논의 과정 정도로 이해함이 옳다.

Ⅲ. 당 태종 사망과 동맹의 추진 중지

당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친 김춘추는 입당 이듬해인 649년 2월 30일에 당 태종의 칙서를 지니고 신라로의 귀국을 위해 당 도성을 출발하였다.²⁷⁾ 당의 수도 장안에서 신라 수도 금성까지의 사행길은 육로와 해로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노정이었고, 통상적인 영접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에 편도로만 평균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여정이

27) 『책부원귀』 권974, 외신부, 포리1, 정관 23년 2월 계사, “特進新羅金春秋還國 令三品已上宴餞之 優禮甚備.”

었다.²⁸⁾ 이를 감안하면,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와 진덕왕에게 사행의 결과를 복명하고 당 태종의 칙서를 전달한 시점은 빨라도 649년 5~6월 즈음으로 판단된다. 당과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하고 그 땅을 나눠 가지자는 나당군사동맹의 구상은 오랜 기간 전쟁으로 지쳐있던 신라인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던 듯하다.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 백성들 모두 은혜로운 칙명을 듣고 저마다 힘을 길러 집집마다 쓰임을 기다렸다”라는 구절²⁹⁾을 통해서 당시 신라인들의 나당군사동맹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김춘추와 더불어 나당군사동맹을 구상했던 당 태종은 649년 5월 26일에 취미궁(翠微宮) 함풍전(含風殿)에서 유조(遺詔)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³⁰⁾ 같은 달 29일에 태극전(太極殿)에서 황제의 사망이 발표되었다. 이때 함께 선포된 당 태종의 유조(遺詔)에는 요동(遼東), 즉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³¹⁾ 그리고 649년 6월 1일에 황태자 이치(李治)가 22살의 나이로 태종의 뒤를 이어 당의 제3대 황제 고종(高宗)으로 즉위하였다.³²⁾

28) 권덕영의 논증에 따르면 신라사신의 대당 사행길은 편도로 당은포로(唐恩浦路)에 15일, 황해를 횡단하는 데 15일, 그리고 등주(登州)-장안(長安) 간에 60일 가량이 소요되었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14~220쪽). 게다가 김춘추 일행은 귀국 중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겨울, “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春秋乘小船至國.”).

2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 “新羅百姓具聞恩勅 人人畜力 家家待用.”

30) 『자치통감』 권199, 당기, 태종 정관 23년(649) 5월 기사, “復召無忌及褚遂良入臥內 … 仍令遂良草遺詔 有頃上崩.”

31) 『자치통감』 권199, 당기, 태종 정관 23년(649) 5월 임신, “發喪太極殿 宣遺詔 太子卽位 … 罷遼東之役及諸土木之功.”

32) 『구당서』 권4, 본기4, 고종상 정관 23년(649) 6월 갑술 초하루, “皇太子卽皇帝位

이후 절차에 따라 선헌제의 사망과 새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사신이 주변국에 파견되었고, 이에 따라 신라에도 그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당사신이 방문하여 해당 소식을 전달해 왔을 것이다. 당 태종의 사망과 그가 남긴 유조, 그리고 새 황제의 등극이라는 일련의 사건은 모두 신라의 대당(對唐) 외교 환경에 있어 일대 변화를 의미했다. 특히 김춘추와 당 태종이 논의했던 신라와 당, 양국의 군사동맹은 신라 진덕왕의 공식 답변을 당에 전달하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동맹 논의의 한 쪽 주체였던 당 태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유조의 내용이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공략하자는 동맹의 내용과 정확하게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진덕왕이 당 태종과의 논의대로 군사동맹을 체결하겠다고 당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즉위한 황제 고종이 선헌의 유조를 무시하고 신라와 함께 고구려 전쟁을 준비할 리도 만무했다.

당시 나당동맹의 체결과 관련해 신라가 처한 이 같은 상황은 당 고종 즉위 이후 신라가 당에 파견했던 첫 번째 사신의 행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료는 고종 즉위 후 처음으로 당에 파견한 신라사신 관련 기사들이다.

C-①. [650년] 신라왕 김진덕(金眞德)이 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사신 김법민(金法敏)을 보내 내조하였다. 이에 비단을 짜고 오언태평시(五言太平詩)를 지어 바쳤다. 황제가 기뻐하며 법민을 태부경(太府卿)에 배수하였다.³³⁾

C-②. [650년 6월] 신라왕 김진덕(金眞德)이 백제의 무리를 크게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보고하였다.³⁴⁾

時年二十二.”

33) 『당회요』 권95, 신라, 영희 원년(650), “新羅王金眞德大破百濟 遣使金法敏來朝 仍織錦作五言太平詩以獻 帝嘉之 拜法敏爲太府卿.”

사료 C-①은 『당회요』 신라 영휘 원년(650)조의 기사로 신라 진덕왕이 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김법민을 사신으로 임명해 당에 파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때 진덕왕은 김법민을 통해서 친히 짠 비단과 직접 지은 오언태평시(五言太平詩)을 당 고종에게 바쳤다고 한다. 사료 C-②는 동일 사건을 기록한 『책부원귀』 외신부 교침(交侵)의 기사로, 영휘 원년(650) '6월'조에 편재해 두어 다른 사서들이 언급하지 않은 사신의 활동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책부원귀』는 중국측 사서이므로 여기서 6월은 신라사신 김법민이 당 고종에게 신라의 승전을 보고한 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금성에서 당 장안성까지 사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장안성 도착 후 체류하며 대기했을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김법민은 대략 650년 초반에 대당 사행길에 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신라는 649년 하반기에 당 태종의 사망과 당 고종의 즉위 소식을 입수하였다. 그리고 신라 진덕왕은 이듬해인 650년 초 김춘추의 아들 김법민을 사신으로 임명하여 당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사신 김법민이 부여받은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당 태종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당 고종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임무였다. 이는 새 황제의 즉위 이후 신라가 파견한 첫 번째 사신이었던 때문에 당연하게 부여된 임무였을 것이다. 둘째, 새로 즉위한 당 고종의 환심을 사는 임무였다. 이를 위해서 김법민은 신라 진덕왕이

34) 『책부원귀』 권995, 외신부, 교침, 고종 영휘 원년(650) 6월, “新羅王金眞德大破百濟之衆 遣使以聞.”

35) 사료 C-①의 내용에서 ‘김법민’이라는 사신의 이름이나 ‘오언태평시’의 현상 관련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교침(交侵)’이라는 표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내용을 가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손수 짚 비단과 직접 지은 태평오언시를 지니고 가서 당 고종에게 헌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무는 새 황제가 648년의 나당군 사동맹 논의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그 속내를 타진하는 것이었다. 신라는 김인문에게 이례적으로 백제군에 대한 승전 사실을 당 황제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당 고종이 선허의 군사동맹 논의를 계승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떠보기 위한 신라의 외교적 방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법민의 사행에서 세 번째 임무와 관련한 당 고종의 입장은 다음 사료 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D. [651년] 작년(650)에 왕(의자왕)과 고구려·신라 등의 사신들이 함께 와서 입조(入朝)하자, 짐(朕)은 이 같은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하라 명하였다. 신라사신 김법민(金法敏)이 글로 상주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이와 입술처럼 서로 의지하며 앞다투어 군사를 일으키고 번갈아 침입해 핍박합니다. 큰 성(城)과 중요한 진(鎭)이 모두 백제에 병합되었으니 강역은 나날이 줄어들고 위력도 함께 쇠퇴하였습니다. 청컨대 백제에 조(詔)를 내려 침략한 성을 되돌려주게끔 해주십시오. 만약 조를 받들지 않으면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싸움으로 되찾겠습니다. 다만, 옛 땅만 되찾으면 곧바로 서로 화해를 청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짐은 그 말이 도리에 맞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마땅히 본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라도 사로잡아간 백제의 포로를 모두 왕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서로의 사이에 불화가 풀리고 전쟁이 멎으니, 백성들은 쉬고 싶은 소원을 이루고 세 번국에는 전쟁의 수고로움이 없게 될 것이다. ... 왕이 만약 나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이미 법민이 청한 대로 왕과 싸우게 놓아둘 것이고, 또한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돕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약 이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즉시 거란의 제변을 시켜 요택을 건너 노략질하게 할 것이다.³⁶⁾

36) 『전당문』 권15, 고종황제 여백제왕의자새서(與百濟王義慈璽書), “去歲王及高麗新

사료 D는 651년에 당 고종이 당을 방문한 백제사신 편으로 의자왕에게 하달한 외교문서 「여백제왕의자새서(與百濟王義慈璽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해인 650년에 백제와 고구려·신라 삼국이 모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당 도성에 함께 체류하고 있었다.³⁷⁾ 이때 신라사신 김법민은 당 고종을 알현하고 신라의 대(對)백제 승전보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648년 군사동맹 논의에 대한 황제의 계승 의지를 확인할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제·고구려와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 고종의 명령이었다. 이 같은 당 고종의 입장은 648년 김춘추와 군사동맹을 논의했던 당 태종의 그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당 고종의 입장은 삼국이 모두 당 황제의 번부(藩附)이므로 오래된 원한을 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고 힘썼던³⁸⁾ 당 고조(高祖)의 입장과 유사했다. 다시 말해, 즉위 초 당 고종의 삼국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당 태종 재위 이전으로 회귀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신라사신 김법민은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하라는 당 고종의 명령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즉, 신라가 백제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당 고종이 직접 백제 의자왕에게 그

羅等使竝來入朝 朕命釋茲讎怨 更敦款穆 新羅使金法敏奏書 高麗百濟 脣齒相依 競舉兵戈 侵逼交至 大城重鎮 竝爲百濟所併 疆宇日蹙 威力茲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不奉詔 卽自興兵打取 但得故地 卽請交和 朕以其言既順 不可不許 … 王所兼新羅之城 竝宜還其本國 新羅所獲百濟俘虜 亦遣還王 然後解患釋紛 韜戈偃革 百姓獲息肩之願 三蕃無戰爭之勞 …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麗不許遠相救恤 高麗若不承命 卽令契丹諸蕃 度遼澤入抄掠。”

37) 당시 고구려와 백제 양국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대당사신 파견의 표면적인 목적을 당 태종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당 고종의 즉위 축하로 내세웠을 것이다.

38) 『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동이 신라국,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들이 빼앗은 신라의 성을 반환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백제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라가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빼앗긴 성들은 되찾은 뒤, 곧바로 화해를 청하여 우호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당과 신라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의 분위기에서 김법민은 더 이상 나당군사동맹과 관련한 언급을 당 고종에게 꺼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당 고종은 김법민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듬해인 651년에 백제 의자왕에게 조(詔)를 내려 의자왕이 신라로부터 공취한 성을 모두 신라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만약 의자왕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더라도 당은 관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고구려 역시도 백제를 돕지 못하도록 자신이 강제하리라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당 고종의 조(詔)는 651년 고종 즉위 초반의 분위기 변화를 잘 대변해 준다. 당시 당은 의자왕에게 보내는 외교문서를 통해서 신라와 백제·고구려 삼국의 갈등을 조정·관리하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643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앞서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 고구려와 백제 양국에 군사를 거두지 않으면 직접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던 당 태종의 입장과는 뚜렷하게 비교된다.³⁹⁾

이처럼 당 고종 즉위 초에는 당 태종의 유조에 따라서 조정 내에 대고구려 강경 노선이 자취를 감췄다. 650년에 사신으로 입당하여 새 황제가 648년의 나당군사동맹 논의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타

39)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7년(643) 9월 경진, “上命司農丞相里玄獎齎璽書賜高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與百濟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擊爾國矣.”

진했던 김법민은 신라 귀국 후 이 같은 당의 분위기를 진덕왕과 조정에 보고했을 것이다. 결국 648년에 논의되었던 신라와 당 양국의 군사동맹은 649년 당 태종의 사망과 그의 유조, 그리고 당 고종의 즉위로 인하여 동력을 상실한 채 추진이 중지되었다.

IV. 무열왕 즉위와 나당동맹 성립

주지하다시피 660년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을 시작으로 삼국통일전쟁의 막이 올랐고, 그 군사적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나당동맹이다. 그렇다면 649년 당 태종의 사망을 계기로 추진이 중지되었던 나당동맹이 660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다시 추진·성사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①. [655년 정월] 이에 앞서 우리(고구려)가 백제·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고 33성을 취하자, 신라왕 김춘추가 당에 사신을 보내 원조를 구했다.⁴⁰⁾

E-②. [655년 2월] (당) 고종이 영주도독(營州都督) 정명진(程名振)과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소정방(蘇定方)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하게 하였다.⁴¹⁾

사료 E-①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로, 655년 1월에 고구려

4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정월, “先是我與百濟靺鞨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4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2월,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 將兵來擊.”

가 백제·말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고 33개 성을 빼앗자, 신라 무열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던 사실을 전한다. 이 기사와 전거는 중국측 사서인 『자치통감』이므로,⁴²⁾ 여기서 655년 1월은 신라사신이 당 고종을 만나 군사 원조를 청했던 시점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 33개 성을 빼앗은 사건은 이보다 앞선 654년 하반기의 어느 시점에 발생했던 일이다. 그리고 사료 E-②는 사료 E-①의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 고종이 655년 2월에 영주도독(營州都督) 정명진(程名振)과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소정방(蘇定方)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이다.⁴³⁾

두 기사를 종합하면, 654년 하반기에 고구려와 백제·말갈이 연합하여 신라 북쪽 변경을 공격하고 33개 성을 탈취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 사신은 655년 1월 당 조정에서 고종을 만나 상황을 보고하고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당 고종은 신라의 청병에 응하여 곧바로 다음 달인 655년 2월에 장수 정명진과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655년 당 고종의 대응은 앞서 살핀 650~651년의 사례(사료 D)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사료 D에서는 고종이 650년 삼국의 국왕들에게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을 명하였고,

42)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희 6년 정월, “高麗與百濟靺鞨連兵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春秋遣使求援.”

43) 사료 E-②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년(655) 3월조에 기재되어 있어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하여 『책부원귀』나 『자치통감』 등의 중국측 사서에서는 동일 내용의 사건을 모두 영희 6년(655) 2월조에 기입하였다. 따라서 당이 정명진과 소정방을 출격시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한 것은 655년 2월의 일이었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해당 기사는 “2월”의 오기로 판단된다.

뒤이어 651년 백제 의자왕에게는 신라에게서 빼앗은 성(城)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백제가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도 양국이 싸우게 둘 것이며, 고구려 또한 백제를 돕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당 고종은 삼국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하여 신라를 두둔하면서도, 방관하는 조정자 입장을 견지하며 군사 개입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반면, 655년에는 고구려·백제 등의 신라 공격과 이에 따른 신라의 구원 요청에 즉각 군사를 출동시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다시 말해 655년의 당은 당 고종 즉위 초 견지하였던 삼국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벗어버리고 신라를 위해 군사 행동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사료 E의 시점에는 이미 신라와 당 사이에는 군사동맹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사료 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 [영휘 5년(654) 12월] (왜국에서) 사신을 보내 호박과 마노를 헌상하였는데, 호박의 크기는 한 말[斗]과 같았고 마노의 크기는 다섯 되[升]의 그릇과 같았다. 고종이 서(書)를 내려 왜국왕을 위무하였다. 이에 이르기를, “왕의 나라는 신라와 가깝다. 신라가 평소에 고려와 백제에 침략당하니,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왕이 마땅히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하라.”라고 하였다.⁴⁴⁾

사료 F는 654년 12월에 왜국(倭國)사신이 황제에게 방물을 헌상한 사실을 전하는 『당회요』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왜국왕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 고종에게 호박·마노 등의 보석을 방물로

44) 『당회요』 권99, 왜국, 영휘 5년(654) 12월, “遣使獻琥珀瑪瑙 琥珀大如斗 瑪瑙大如五升器 高宗降書慰撫之 仍云 王國與新羅接近 新羅素爲高麗百濟所侵 若有危急, 王宜遣兵救之.”

바쳤다. 이에 당 고종은 서(書)를 하달해 왜국왕을 위무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신라와 당이 이미 군사동맹을 체결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인즉슨, 신라가 평소에 고구려와 백제에 침략당하는데, 왜국이 신라와 가까우니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왜국에서 발병하여 신라를 구하라는 당 고종의 명령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고구려와 백제를 한통속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이 같은 자세는 안보의 영역에서 국가 간 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이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자원을 실질적으로 기여·제공한다는 군사동맹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사료 F에 기재된 당 고종의 외교문서 내용으로 봤을 때, 늦어도 654년 12월에는 나당동맹이 성립되어 있었다.

앞서 당 태종은 649년 5월 26일에 사망하면서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저수량(褚遂良)을 궁으로 불러 태자(太子)의 보필을 당부하였다.⁴⁵⁾ 이후 황위에 오른 당 고종은 곧바로 장손무기를 태위(太尉) 겸 검교중서령(檢校中書令) 지상서문하이성사(知尚書門下二省事)로 배수하여⁴⁶⁾ 조정 내 최고 기관인 3성(省)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장손무기가 전권을 행사하고 저수량이 보조하는 당 고종 초기의 정국이 조성되었다. 일찍이 장손무기는 643년 당 태종에게 고구려에 대한 정벌보다는 위무를 건의한 바 있었고,⁴⁷⁾ 저수량 역시

45)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태종 정관 23년(649) 5월 기사(26일), “復召無忌及褚遂良入臥內 謂之曰 朕今悉以後事付公輩 太子仁孝 公輩所知 善輔導之 謂太子曰 無忌遂良在 汝勿憂天下 又謂遂良曰 無忌盡忠於我 我有天下 多其力也 我死 勿令讒人間之 仍令遂良草遺詔 有頃 上崩.”

46)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태종 정관 23년(649) 6월 계미(10일), “以長孫無忌爲太尉 兼檢校中書令 知尚書 門下二省事.”

4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司徒長孫无忌曰 高麗無一介告難 宜賜書安

644년에 당 태종에게 고구려 원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던 인물이었다.⁴⁸⁾ 이들의 외교적 성향에 당 태종의 유조까지 더해져, 당 고종 즉위 초에는 고구려에 대한 외교정책이 온건 노선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645년 이후 이어졌던 당의 대(對)고구려 과상공세도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⁴⁹⁾

반면, 고구려는 이와 같은 당의 변화를 틈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나 고구려는 요하 중상류의 동몽골 일대까지 진출하여 당이 장악하고 있던 거란족 사회에 영향력을 뻗침으로써 군사적으로 당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 태종 사후에 서돌궐에서는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가 천산산맥(天山山脈) 서북방의 이리하(伊犁河)와 이식쿨호 일대를 거점으로 거대한 반당(反唐) 세력을 구축하여 당과 충돌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이와의 교섭을 통해 연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⁵⁰⁾

G-①. [654년 10월] 고구려가 그 장수 안고(安固)를 보내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거란을 침입하였다. 송막도독(松漠都督) 이굴가(李窟哥)가 기병을 내어 그들을 막고 신성(新城)에서 싸웠다. 때마침 큰 바람을 만나 고구려가 화살을 쏘면 바람이 불어 모두 되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진영이 어지러워지자 거란이 그것을 틈타 5백 명을 참수하고 말 7백

尉之 隱其患 撫其存 彼當聽命.”

48)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諫議大夫褚遂良曰 陛下之兵度遼而克固善萬分一不得逞 且再用師 再用師 安危不可億.”

49) 여호규,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邱史學』 133, 2018, 15~16쪽.

50) 권영필,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 57~59쪽; 방용철,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187~188쪽; 여호규, 위의 논문, 17~20쪽.

여 필을 획득하였다. 고구려가 패하여 달아났는데, 풀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여 거란이 다시 불을 놓아 그들을 휩박하였다. 광풍이 날리고 불꽃이 일어나서 사람과 말을 태워 죽임이 매우 많았다. 거란은 그 시체를 모아 경관(京觀)을 쌓았고, (당에) 사신을 보내 와 승리를 알렸다. 황제가 조정에서 노포(露布)하여 모든 관료에게 알리게 하였다.⁵¹⁾

G-②.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강하왕(江夏王) 도종(道宗)이 죄를 얻었는데, 대가(待價)가 도종의 사위로서 연좌되어 노룡부(盧龍府)과의(果毅)로 좌천되었다. 이때 장군 신문릉(辛文陵)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초위(招慰)하고자 토호진수(吐護真水)에 이르렀는데, (당군의) 방비가 허술하니 고구려가 엄습하여 패배시켰다. 대가는 중랑장(中郎將) 설인귀(薛仁貴)와 더불어 조(詔)를 받들어 동번(東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인하여 자신의 부(部)를 이끌고 그를 구원하였다.⁵²⁾

사료 G-①은 고구려의 군사가 654년에 거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가 충돌이 발생한 사건을 기술한 『책부원귀』 외신부 교침 영휘 5년(654) 10월조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장수 안고(安固)가 고구려와 말갈 군사를 이끌고 거란의 영역을 침범하자 송막도독(松漠都督) 이굴가(李窟哥)가 이끄는 거란군이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굴가는 거란인으로 648년 자신의 부락을 모두 이끌고 당에 복속한 인물이었다. 복속 당시 당 태종은 오늘날 중국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

51) 『책부원귀』 권995, 외신부, 교침, 영휘 5년(654) 10월, “高麗遣其將安固 率高麗靺鞨兵侵契丹 松漠都督李窟哥 發騎禦之 戰於新城 適會大風 高麗放箭 風吹竝回 因而陳亂 契丹乘之 斬首五百級 獲馬七百餘匹 高麗敗走 草乾風勁 契丹又縱火迫之 飄焰飛起 燒殺人馬甚衆 契丹聚其屍 築爲京觀 遣使來告捷 帝使宣其露布於朝 以示百僚.”

52) 『구당서』 권77, 열전27, 위대가(韋待價), “永徽中 江夏王道宗得罪 待價卽道宗之壻也 緣坐左遷盧龍府果毅 時將軍辛文陵率兵招慰高麗 行至吐護真水 高麗掩其不備 襲擊敗之 待價與中郎將薛仁貴受詔經略東蕃 因率所部救之.”

治區) 츠핑시(赤峰市)와 통랴오시(通遼市) 일대에 해당하는 그의 영지에 송막도독부(松漠都督府)를 설치하고 그에게 이씨(李氏) 성을 하사하였다. 즉, 사료 G-①은 654년 당시 고구려가 동몽골의 거란 영역으로 진출을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에 부용했던 거란 세력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음을 전하는 기사이다.

사료 G-②는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당과 고구려의 군사가 동몽골 지역에서 직접 교전한 사실을 전하는 『구당서』 위대가(韋待價)전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의 장군 신문릉(辛文陵)의 부대가 토호진수(吐護眞水)에서 고구려군에게 공격을 받아, 노룡부(盧龍府)과의(果毅) 위대가가 중랑장(中郎將) 설인귀(薛仁貴)와 함께 그를 구원해 주었다고 한다. 신문릉의 부대와 고구려군의 교전이 이루어진 토호진수는 시라무렌하 남쪽 지류인 노합하(老哈河)에 비정된다.⁵³⁾ 따라서 사료 G-② 역시 동몽골 일대에서의 고구려군 활동을 확인시켜주는 기사인 것이다. 위대가는 강하왕(江夏王) 이도종(李道宗)의 사위로, 그가 653년 2월에 죄를 얻어 유배되자⁵⁴⁾ 함께 연좌되어 노룡부로 좌천되었다. 따라서 사료 G-②의 전투는 653년 2월 이후부터 65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기의 한정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654년을 전후한 시점에 고구려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요하 중상류의 동몽골 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공세적 군사전략을 펼쳤다.⁵⁵⁾ 이로 말미암아 당과 고구려 양국의 군

53) 白鳥庫吉, 『塞外民族史研究』, 岩波書店, 1970, 236~237쪽.

54)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휘 4년(653) 2월 을유, “侍中兼太子詹事宇文節特進太常卿江夏王道宗 左驍衛大將軍駙馬都尉執失思力 並坐與房遺愛交通 流嶺表.”

55) 고구려의 동몽골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노태돈, 『삼국 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羅棟煜,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 144, 2009 ; 윤병모,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요서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2009 ; 이재성, 「麗唐戰爭과 거란·해」, 『중

사적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다. 사료 G-①에서 송막도독 이굴가의 승전 보고를 받은 당 고종은 이 사실을 노포(露布)하여 조정의 모든 관료에게 알렸다. 이는 654년 10월 당시 고구려가 요하 중상류의 거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 고종의 강한 의지를 방증한다. 당 고종이 즉위한 649년 6월부터 654년 10월까지 약 5년간 사료 상에서 당의 고구려 공격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654년 10월 이후부터는 655년⁵⁶⁾, 658년⁵⁷⁾, 659년⁵⁸⁾ 등 당의 대고구려 공세가 다시 사료에서 등장한다. 즉, 654년 10월을 기점으로 당 고종의 대고구려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이다.

한편, 신라는 당 태종의 사망과 고종의 즉위로 나당동맹 논의가 중지된 후에도 당의 대고구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김춘추는 648년 당 태종과 동맹을 논의하고 귀국하던 때(649년)에 이미 자신의 제3자인 김문왕(金文王)을 당에 남겨 당 태종 곁

국고종세사연구』 26, 2011 ; 김지영,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방용철, 앞의 논문, 2015 ; 여호규, 앞의 논문, 2018 ; 서영교,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令出兵授新羅 璽書의 背景」, 『역사학보』 237, 2018.

- 56)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희 6년(655) 5월 임오(14일), “名振等渡遼水 高麗見其兵少 開門渡貴端水逆戰 名振等奮擊 大破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還.”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5월, “名振等渡遼水 吾人見其兵少 開門度貴端水逆戰 名振等奮擊大克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歸.”
- 57) 『자치통감』 권199, 당기16, 고종 현경 3년(658) 6월, “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 右領軍中郎將薛仁貴將兵攻高麗之赤烽鎮 拔之 斬首四百餘級 捕虜百餘人 高麗遣其大將豆方婁帥衆三萬拒之 名振以契丹逆擊 大破之 斬首二千五百級.”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7년(658) 6월, “唐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 將兵來攻 不能克.”
- 58) 『자치통감』 권199, 당기16, 고종 현경 4년(659) 11월, “右領軍中郎將薛仁貴等 與高麗將溫沙門戰於橫山 破之.”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8년(659) 11월, “唐右領軍中郎將薛仁貴等 與我將溫沙門戰於橫山 破之.”

에서 숙위(宿衛)하게 하였고,⁵⁹⁾ 당 고종이 즉위 후인 651년에는 제2자 김인문(金仁問)을 입당시켜 숙위를 교체하였다.⁶⁰⁾ 이들 신라 숙위는 당 황제 곁에서 시위하면서 제국의 수도로 유입되는 각종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당과 그 주변국들의 국제정세를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 중에서 신라에 유익한 것들은 매년 신라가 당에 파견했던 대당사신을 통해서 본국에 보고되었으리라 본다. 650년대 전반 신라는 당과 그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십분 경주하였다.

〈표 1〉 650년대 전반 신라의 대당사신 파견

연번	파견 연월	사신명	사행 목적	전거
1	650년 6월	김법민	백제 격파 사실 보고, 대당태평시 헌상	史記, 舊, 新, 冊
2	651년 2월	김인문	김인문을 숙위로 교체	史記
3	652년		조공	史記, 冊, 資
4	653년 11월		금총포 헌상	史記, 冊
5	(654년 3월)		진덕왕 사망 및 무열왕 즉위 통지	
6	654년 (9월)		무열왕 책봉에 대한 감사	史記
7	(654년 10월)		고구려·백제·말갈의 침입에 따른 구원 요청	史記, 舊, 新, 冊, 資

※史記 : 『삼국사기』, 舊 : 『구당서』, 新 : 『신당서』, 冊 : 『책부원귀』, 資 : 『자치통감』, () : 수정된 연월.

그러던 중 653년 당에서 숙위하던 김인문이 부모를 뵈기 위해 신라로 귀국할 것을 요청하자 당 고종이 조를 내려 허락한 사실⁶¹⁾이

5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春秋奏曰 臣有七子 願使不離 聖明宿衛 乃命其子文王與大監□□.”

6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5년(651), “遣波珍浪金仁問入唐朝貢 仍留宿衛.”

61)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인문, “永徽二年 仁問年二十三歲 受王命入大唐宿衛 高宗謂涉海來朝 忠誠可尚 特授左領軍衛將軍 四年 詔許歸國覲省.”

주목된다. 시기상 그의 귀국 요청은 653년 11월에 입당하여 금총포(金總布)를 헌상했던 신라사신단의 방문⁶²⁾ 즈음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귀국을 요청했던 653년 하반기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이 장악하고 있던 거란 지역으로 고구려가 점차 영향력을 뻗쳐 옴으로써 당과 고구려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어 갔던 시기였다. 숙위 김인문은 당시 고구려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당 조정 내의 반감 등을 고려했을 때, 군사동맹의 재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신라 조정에 보고할 목적에서 귀국을 결심한 듯하다. 이에 당 고종의 허락을 득한 뒤 653년 11월에 입조했던 신라사신의 귀국편에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김인문의 귀국과 신라 조정의 복명 시점은 이듬해인 654년 2~3월경으로 비정 가능하다.

그런데, 김인문이 귀국한 654년 상반기에 신라에서는 진덕왕이 사망하고,⁶³⁾ 그 뒤를 이어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즉위한 왕위 교체가 발생하였다.⁶⁴⁾ 새롭게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상례에 따라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전왕의 사망과 자신의 즉위 사실을 통지하였을 것이다. 이에 소식을 접한 당 고종은 영광문(永光門)에서 애도를 표하고 태상승(太常丞) 장문수(張文收)를 신라에 파견해 절(節)을 지니고 가서 조문하도록 명하였다.⁶⁵⁾ 이때 무열왕에 대한 책봉의 임무도 함께 부여했는데, 그 시점은 654년 윤5월 18일로 파악된다.⁶⁶⁾ 이렇게 임명

6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7년(653) 11월, “遣使大唐 獻金總布.”

6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654) 3월, “王薨 諡曰眞德 葬沙梁部.”

6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654), “太宗武烈王立 諱春秋.”

6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654) 3월, “唐高宗聞之 爲舉哀於永光門 使太常丞張文收 持節吊祭之 贈開府儀同三司 賜綵段三百.”

66)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희 5년(654) 윤5월 임진, “新羅女王金眞德卒 詔立其弟春秋爲新羅王.”; 『책부원귀』 권964, 외신, 봉책2, 영희 5년(654) 윤5월, “新羅女王金眞德卒 以其弟國相金春秋爲新羅王 繼眞德之位 仍拜開府儀同三司 封

된 당의 조문 및 책봉사는 편도 약 3개월의 여정을 거쳐 654년 8월 즈음 신라 도성에 도착하였고, 진덕왕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무열왕의 즉위에 대한 책봉의 임무를 수행했다.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원년(654)조에는 당사신이 무열왕을 책봉하자, 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감사의 표(表)를 올렸던 사실을 전한다.⁶⁷⁾ 이 해 초 당에서 숙위했던 김인문이 귀국하여 당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동맹 재추진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진덕왕의 사망과 무열왕 즉위라는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관련 논의가 잠시 중지되었다. 그러다가 당 황제의 책봉으로 무열왕의 왕위 계승이 일단락되자, 나당동맹의 재추진 건이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무열왕은 당 태종과 나당동맹의 기본틀을 함께 구상했던 인물로, 나당동맹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무열왕은 654년에 파견한 사은사(謝恩使) 편으로 당 고종에게 나당동맹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동맹의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표문을 작성하여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⁸⁾

이 해의 사은사는 앞서 신라를 방문한 당의 조문 및 책봉사에 대한 답사(答使)이므로, 이들이 신라를 출발한 시점은 당사신이 신라 도성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한 8~9월 이후였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의 이동 기간을 감안한다면, 신라 무열왕의 표문은 사신을 통해 654년 11~12월 즈음 당 고종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

樂浪郡王 遣使持節備禮冊命.”

6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654), “唐遣使持節備禮 冊命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王遣使入唐表謝.”

68) 『삼국사기』 강수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라의 사은사가 전달한 무열왕의 표문은 신라 강수(強首)가 작성하였다(『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及太宗大王卽位 唐使者至 傳詔書 … 使製迴謝唐皇帝詔書表 文工而意盡.”).

점은 공교롭게도 당 고종이 송막도독 이굴가로부터 고구려에 대한 승전을 보고받고 이를 조정에 널리 포고한 직후였다.(사료 G-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종 즉위 후 고구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견지했던 당이 그 틈을 노려 군사적 공세를 강화했던 고구려로 인해 축적한 갈등은 654년 노포(露布)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이제 당은 고구려에 대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상황이었다. 이때 신라 무열왕의 나당동맹 재추진 요청 표문이 접수되었다. 동맹의 기본 틀은 기존의 논의에서 합의된 바대로 당과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제압하고 평양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눠 갖는 것이었다. 이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합치됨으로써 당 고종은 신라 무열왕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였다.

그 결과 당은 신라의 동맹으로서 신라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왜국의 사신에게서(書)를 내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침략할 때 가까운 왜국이 군사를 내어 신라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거나(사료 F, 654년 12월), 고구려·백제·말갈의 군사가 신라의 북변을 침탈하여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자(사료 E-①, 655년 1월) 곧바로 군사를 출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였다.(사료 E-②, 655년 2월) 이후 신라와 당 양국은 점차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였고, 마침내 나당연합군의 660년 백제 공략을 시작으로 삼국통일전쟁이 개시되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그간 간과된 ‘인신무외교’라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원칙하에 나당동맹(羅唐同盟)의 성립 시점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648년에 김춘추가 당 태종과 협상하여 나당동맹이 성립했다고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시점의 재고가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맺음말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진덕왕대 신라의 최고 실력자였던 김춘추는 648년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을 만났다. 당시 신라 진덕왕이 김춘추를 당에 사신으로 파견한 목적은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반면, 당 태종은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김춘추와 당 태종은 신라와 당 양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한 뒤, 그 대가로 평양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이, 그 이남의 땅은 신라가 나눠 갖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 내용은 칙서로 작성되어 김춘추 편으로 신라 진덕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나당동맹이 공식 체결되기 전인 649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유조(遺詔)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당 태종의 사망과 당 고종의 즉위, 그리고 당 태종이 남긴 유조 등으로 인하여 고종 즉위 초의 당 조정에서는 고구려 강경 노선이 자취를 감췄고, 나당동맹은 동력을 상실한 채 한동안 추진이 중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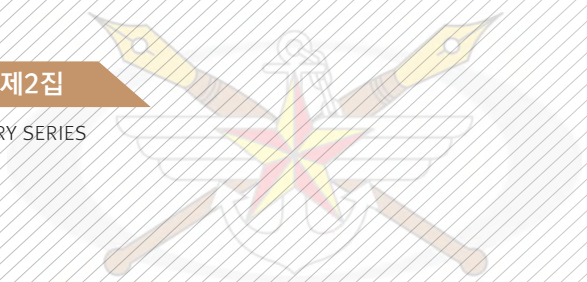
한편, 650년대 전반 당의 고구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틈타, 고구려는 당이 장악하고 있던 요하 중상류의 거란족 사회에 영향력을 뻗치는 등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며 당을 견제해 나갔다. 그 결과 654년을 전후한 시점에 동몽골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당과 고구려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었다. 나당동맹 논의 중지 후에도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당과 그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해 왔던 신라는 당과 고구려의 군사적 긴장감이 충분히 고조되었다는 판단 아래, 654년 김춘추의 태종무열왕 즉위를 계기로 당에 나당동맹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 시기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합치됨으로써 당 고종은 신라 무열왕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여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 이재준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

이 재 준*

- I. 머리말
- II.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
- III. 백제군의 대응과 병력운용
- IV.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 전투
- V. 사비도성 전투와 의자왕의 항복
- VI. 백제 부흥군의 항전
- VII. 맺음말

I. 머리말

660년 백제가 멸망에 이르는 연원은 매우 길다. 5세기 전반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펴자 433년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었다. 이른바 나제동맹이다. 120년간 지속되었던 나제동맹으로 551년 신라는 죽령

*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북 10군을 차지하고, 백제는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한강 유역 회복에 성공했다. 그러나 553년 신라 진흥왕이 기습적으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하자, 백제 성왕은 554년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 이때부터 백제는 107년간 신라와 공방을 주고받는다. 백제는 642년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항복한 성주 품석(品石)과 부인 고타소의 머리를 참수하여 왕도로 보냈다.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고 품석은 사위였다. 554년 성왕의 전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이에 김춘추는 백제를 병탄하기로 결심하고 끈질긴 청병외교 결과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게 되었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백제는 660년 7월 9일 신라와 황산벌에서, 당나라 소정방과는 기벌포[웅진강구]에서 최초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개전 후 10일 만인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결코 허약한 나라가 아닌 백제¹⁾가 단 10일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다.

연구자들은 백제멸망 원인을 백제 지배층의 분열 때문에, 의자왕이 말년에 황음무도에 빠져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었기 때문에, 혹은 당과의 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등 정치, 외교사적 측면에서 그 이유²⁾를 찾고 있다. 하지만 백제가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

1) 7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 사이에 발생했던 전쟁은 백제의 선제공격과 신라의 방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국력과 군사력에서 백제가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이문기, 「648·649 신라의 대 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195쪽). 진덕왕은 백제를 대국, 신라를 소국에 비유하기도 하였다(『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請伐百濟以大梁州之役 王曰 以小觸大 危將奈何.”).

2)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19, 1988 ; 이병렬·조기호,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 멸망관 재고찰」, 『인문학논총』 3, 2003 ; 양종국, 「백제 의자왕대의 정치와 對中外交의 성격 검토」, 『백제문화』 47, 2012) 등.

하고 10일 만에 무너지게 된 이유를 정치·외교적 이유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삼국사기』 편찬자가 신라 중심적 편견과 백제 지배층의 분열상을 과대포장하였다는³⁾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백제의 멸망은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의 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백제멸망 전쟁의 주요 수단인 전략과 전술 등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연구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성과도 상당하다. 백제 단기 멸망의 원인을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기만 전략에 속아서,⁴⁾ 전략 요충지인 탄현과 기벌포를 막지 못했고 수도의 방어중심이 짧아서,⁵⁾ 당군과 신라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에 실패해서,⁶⁾ 당나라의 양공작전과 신라의 양동작전에 속아서,⁷⁾ 백제가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조기투입하는 전략적 실패⁸⁾ 등 군사작전 실패에서 찾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먼저 나당연합군의 실상을 심층 깊게 파악하려는 연구가 미흡하다. 소정방의 13만 당군이 덕물도에서 사비도성에 도착하기까지 20일 동안의 행적이 미스터리 하다. 소정방이 상륙한 지점에 대해서도 기벌포로 비정되는 서천이라고 하거나 군산이라고 하지만 고대 군대의 행군거리를 고려

3) 이회진, 「백제 멸망과정에서 나타난 군사사상의 재검토」, 『사학연구』 64, 2001, 12~18쪽.

4) 이상훈,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멸망」, 『역사와 실학』 59, 2016, 69쪽.

5) 장학근,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본 나·당 연합국과 백제의 전쟁」, 『해양연구논총』 29, 2002, 202쪽.

6)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 전투의 실상」, 『軍史』 76, 2010, 24쪽.

7) 이재준,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2017, 30~57쪽.

8) 박노석, 「백제 황산벌 전투와 멸망과정의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27, 2010, 360~371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d), 61~68쪽 ; 이재준, 앞의 책, 2017, 61~74쪽.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⁹⁾이다. 신라와 당군의 합류 지점을 강경 일대로 보는 대다수 견해는 공격하기 전에 논산천을 도하 하여야 하므로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백강=웅진(강)구 전투는 탄현과 백강의 위치 비정이 다양하여 혼선이 많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백제군의 대응은 사료에 기록된 조정(朝廷)의 격론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사료를 재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백제멸망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가능한지 객관성이 담보되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이에 본고는 당시 전장 상황 재현을 위해 식량과 식수 조달, 일일 행군 가능 거리, 무기체계, 군사제도, 정보활동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후대사료나 구전 자료는 물론 금석문에서도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백제멸망 전쟁에서 미스터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낸다면 단기 멸망의 이유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

먼저 나당동맹의 성립과정을 통해 동맹의 의미와 나당연합군의 성격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신라는 642년 백제가 자주 침범한

9)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등 사료에 의하면 소정방은 7월 9일 기벌포=웅진강구=웅진구에 상륙하여 전투를 벌이고 수륙병진으로 7월 10일 신라군과 약속한 합군지점인 사비도성 남쪽 20리~30리 지점에 하루 만에 도착하였는데, 서천에서 부여까지는 50여 km, 군산에서는 60여 km나 되어 이 거리는 수륙병진으로 갔다고 했는데 하루에 약 12km를 간다는 고대 군대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다는 호소¹⁰⁾에 이어 643년에는 직접적으로 당나라에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때 당 태종은 세 가지 계책¹¹⁾을 제시했다. 당시 신라 사신의 용렬한 답변으로 청병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당 태종의 계책 중에는 신라를 업신여기며 “당 황족이 신라를 위탁 통치하겠다.” 등 침략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가 647년 직접 청병 외교에 나섰다. 당을 상국으로 섬기고, 신라의 관료들이 당의 복식과 제도 등을 따르겠으며 자신의 아들이 황제를 곁에서 모시도록 청하여 허락받았다.¹²⁾ 그리고 조공로를 막고 있는 백제를 없애줄 것을 청하여 태종의 승낙을 받았다. 이때 당 태종은 “내가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라가 편안한 날이 없어서 …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하는 바가 아니며 …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하였다.¹³⁾ 신라는 백제를 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은 고구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다. 동맹이 맺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648년 당 태종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655년¹⁴⁾ 및 659년 4월¹⁵⁾ 등 당에 숙위하던 김인문은 물론

10) 가을 7월에 백제 의자왕이 군사를 일으켜 서쪽 40여 성을 빼앗았고,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빼앗아서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으려 한다고 왕이 사신을 보내 태종에게 급한 사정을 보고했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11) 첫째는 거란·말갈과 함께 요동을 치는 방안, 둘째는 당나라가 사용하는 붉은 옷과 붉은 기 수천 벌을 빌려주는 방안, 셋째는 병력을 보내 백제를 습격하고 황제의 친척을 보내 여자 임금 대신 신라를 통치하는 방안 등이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1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1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14) 이때는 신라의 청병요구에 당나라가 정명진과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2년).

1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6년.

견당사들의 지속적인 청병 요청이 있었다. 당은 계속된 고구려 공격이 실패하자 백제부터 멸하기로 하였다.¹⁶⁾ 백제를 정벌할 병력지원을 요청한 신라의 요구를 당이 수락하기까지 십 년이 넘게 걸렸다. 이를 통상 나당동맹이라 하고 그 군대를 나당연합군이라고 한다.

김인문이 일시 귀국했다 다시 당에 도착했을 즈음 소정방을 중심으로 백제 침공군을 편성 중이었다.¹⁷⁾ 하지만 당군 출병 소식은 660년 3월이 되어서야 신라에 전해졌다. 당이 작전 보안을 위해 왜의 사신을 억류¹⁸⁾시킨 점은 이해되나 동맹국인 신라에게까지 함구한 것은 저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당은 출병 사실을 동맹국에 늦게 통보하고 또 작전계획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듯하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동맹 내지는 연합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한편 『구·신당서』 등 모든 사료에는 소정방의 직함이 신구도행군대총관이며 대당평백제국 비명에는 신구·우이·마한·웅진 등 14개도 대총관이다. 태종무열왕의 직함은 우이도행군총관으로 14개 중 1개 총관이었다. 대등한 동맹 또는 연합군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금석문에서 659년도 소정방의 직함이 계림도행군대총관이었다는 사실¹⁹⁾에 근거하여 당은 백제는 물론 신라까지

16) 『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케.

17)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인문.

18) 『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5년.

19) 「冯师训碑(馮師訓碑, 1984년 출토)」, “현경 4년(659) 계림도대총관 소정방은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소정방은) 공(冯师训)이 무리보다 계략이 뛰어난 것을 알고 (고종에게) 함께 정벌할 것을 주청하였다....5년(660) 공은 유격장군 좌부위보현 부좌과과도위에 제수되고 훈관 상주국을 더하고 휴녕현 개국공에 봉해지고 식읍 1천호를 받았다(顯慶4年 雞林道行軍大總管 蘇定方受制專征 聊由薄伐 知公英略冠衆 奏請同征...五年, 除遊擊將軍 守左武衛輔賢府左科穀都尉 尋加勳官上柱國 封休寧縣開國公 食邑一千戶).”

침공할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²⁰⁾는 연구가 있다.

사실 나당동맹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신라는 백제멸망이 목적이었으나 당은 고구려 멸망이 목적이었으며, 당은 신라까지 겸병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었다.²¹⁾ 결국 동상이몽을 가진 당과 신라의 나당연합군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작전 도중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고,²²⁾ 동맹에 임하던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고구려 멸망 직후에 군사동맹은 결국 파탄이 나고²³⁾ 급기야 나당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먼저 당군의 전략을 살펴보자. 660년 3월 당 고종의 백제 출정 명령을 받은²⁴⁾ 소정방은 좌위장군 유백영,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효위장군 방효태 등 3명의 주요 장군을 인솔, 당군 13만 명을 1,900척의 전함에 태우고²⁵⁾ 6월 18일 성산(래주)를 출발하여 6월 21일 덕물도

20) 5세기경 고구려가 왜로부터 신라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라에 군대를 주둔하였으나 실상은 신라 병합이 목적이었던 것처럼(『일본서기』 권14, 웅락천황 8년 2월) 당은 659년 백제와 함께 신라를 침공할 계획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왜는 물론 주요 군사동맹 당사자인 신라에게까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고대사탐구학회 편, 이민수, 앞의 책, 2020. 306쪽.)

21) 백제 멸망 후 “당나라는 사비성 지역에 주둔하여 신라에 대한 침략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기사와 “소정방이 돌아가서 포로를 바치는 절차가 끝나자 당 고종이 ‘왜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는가?’하는 물음에 소정방이 ‘신라는 임금이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들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부형처럼 따르니 나라는 비록 작지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22) 대표적인 사건으로 신라군이 늦었다고 소정방이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려 했던 사건과 사비성 공격을 주저한 사건, 백제 함락 후 사비성에서 신라를 도모하려 했던 사건 등이 있다.

23)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1쪽.

24) 『구당서』 권4, 본기4; 『신당서』 권3, 본기3;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25) 『구당서』 『자치통감』에 수록 10만명, 『삼국사기』는 13만 명, 『삼국유사』에는 12만 2,711명 배는 1900척으로 명시되어 있다.

에 도착하였다. 이날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신라의 태자 김법민에게 “7월 10일 백제의 남쪽에서 만나 의자의 도성을 깨뜨린다.”²⁶⁾는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나는 해로로 가고 태자는 육로로 가서 백제왕도 사비성에서 만나자”²⁷⁾는 양군의 기동방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당군은 산동반도에서 덕물도까지 305km를 3일 만에 항해하였다. 덕물도에서 부여 사비성까지는 210km다. 고대 선박 평균 속도²⁸⁾로 치면 31시간이면 도달할 거리를 20일 뒤에 도착하였다. 7월 9일 상륙당일을 빼면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17일 동안 당군의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의견이 분분하다.²⁹⁾ 과연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소정방이 인솔한 1,900척에는 군량선이 몇 척인지 기록이 없다. 유사한 사례로, 645년 당이 래주로부터 요동반도 남쪽인 고구려 비사성을 공격할 때 4.3만의 병력은 전함 500척에 군량은 400척에 실었다.³⁰⁾ 고구려 비사성 공격 사례를 적용하면 배 1척당 86명이 탑승했으므로 13만 명이면 1,512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1,900척 중 병력 탑승선

2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27)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28) 윤일영, 「고대선박의 항해속도 연구-고려도경을 중심으로」, 『군사학연구』 7, 2009, 224~226쪽 : 1123년 당시 항해속도는 최대 8.75km/h, 평균 6.29km/h, 최저 4.3km/h.

29) ①동진강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전영래,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신아출판사, 1996, 30~30쪽). ②백제와 신라가 전투개시를 했을 것을 계산하여 시간을 끌었다(이종학, 『한국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250~251쪽). ③후미의 당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전열을 정비했다(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241쪽). ④20일은 당군의 작전시간이 아니라 보급부대인 김유신의 이동시간이다(이희진, 「백제의 멸망과정에 나타난 군사상황 재검토」, 『사학연구』 64, 2001, 10~12쪽). ⑤신라군과 조율을 거쳐 당진의 백제 수군기지를 선제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기로 했을 것(이상훈, 앞의 논문, 2016, 51~69쪽)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30)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을 제외하면 388척이 남는다. 비사성 공격비율로 군량선 1,209척이 필요한데 1/3수준도 안 되는 388척이다.³¹⁾ 더구나 후속하던 유인케의 군량선은 바다에서 좌초되어 도달하지 못했다.³²⁾ 1,900척의 전함과 13만 명의 당군은 군량과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당시 병사 1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군량은 2승(升)³³⁾으로 13만 명은 하루에 26만 승이 소요된다. 쌀 1석(石)은 150승이므로 하루에 1,734석이 되고 20일 이면 34,6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량이 필요하다. 식수도 문제다. 1인 1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2.1~3.2ℓ이다.³⁴⁾ 최소로 계산해도 13만 명이면 하루에 273톤이 필요하며 20일이면 5,460톤이 된다. 엄청난 양으로 용기도 부족한 당시 서해횡단 3일간의 식수만 적재하고 항해했을 확률이 높다. 더욱이 6월이면 여름철로 더 많은 식수가 필요했을 것이다. 말먹이 건초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군량과 식수를 조달하기 위해 수시로 육지에 상륙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후대사료나 구전되는 전설 등에서 확인되는 흔적들이 있다.

31) 1/3수준은 단순수치 계산이다. 비사성까지 245km, 사비성까지 500km임을 고려하면 두 배의 군량이 더 필요할 수 있다.

32) 『자치통감』 당기16 高宗 顯慶 5년 11월, “靑州刺史 劉仁軌는 바닷길의 운송을 감독하다가 배가 뒤집혔던 사고에 연좌되어 [고구려 공격에] 白衣從軍하였다.” ; 『자치통감』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백제를 토벌하게 되자 유인케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군량을 운반하는데 … 바람을 만나서 배를 잃고 빠져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 두 기록을 보면 백제 침공 시 유인케가 군량 해상수송 책임자였으며 소정방은 군량을 조달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3)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1995, 320쪽.

34) 김은영, 「청소년의 음소수 섭취와 식생활 습관 및 ADHD와의 관련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 미국 국가연구 심의회(NRC) 권장량, 1989.

A-①. 5월 고구려가 송산성을 치다가 항복 받지 못하자 석두성으로 옮겨 습격하여 남녀 3,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³⁵⁾

A-②. 면주도경에 의하면 삼국시대 평양[고구려]과 백제가 서로 석두성 창고를 공격하여 취하였다. 석두성은 [백제]수군 창고였다. 지금은 가리저 동쪽에 있다. 당 현경(顯慶) 중에 당군이 바다로 건너와 난리로 인하여 창고를 폐지하였다. 신라가 평정한 뒤에 석두에 창고를 설치하였다.³⁶⁾

A-③. 백제 의자왕 20년에 당 소정방이 덕물도에 주둔하였고, 당진에 상륙하여 정박하였다.³⁷⁾

면주는 충남 당진이다. 위 사료로 볼 때 당진에 백제 수군 창고가 있었으며, 소정방이 공격하여 군량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진의 대호지면 적서리에 “방구암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시대 당군의 일부가 송악면 한진으로 상륙하고, 일부는 난지도를 경유하여 내륙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방구암으로 상륙하였다. 백제군이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 격퇴하여 당군은 강건너 당진포리에 상륙하였다.”³⁸⁾ 비록 전설이지만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및 식수를 탈취하게 되면 군량이 부족하다는 허점이 노출된다. 이를 기만하기 위한 제한된 작전이 필요하다. 즉 통상적인 공격작전이 아닌 ‘한계선이 있는 기동’과 같은 제한적인 작전이었을 것이다. 당군의 기동으로 생겨났을 전설들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35)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8년 ;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8년.

36) 『증보문헌비고』 권33, 여지고21, 당진, “沔州圖經記 郡在三國時 平壤與百濟相攻 取倉於石頭 今加里渚東積栗爲水軍之 唐 顯慶中 唐兵渡海因亂 倉廢 新羅平 此界復置倉於石頭.”

37) 『대동지지』 권5, 당진, “百濟義慈王二十年 唐將蘇定方 駐軍德勿島 泊唐津下陸.”

38) 윤명철, 「당진의 고대 해항도시적인 성격 검토와 항로」, 『동아시아고대학』 29, 2012, 298쪽. ; 당진군, 『당진군지』 상, 상록동양인쇄문화, 1997, 220쪽.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천방사 전설이다. “소정방이 안개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산신께 치성을 드리며 천 채(방)의 절을 짓겠다고 약속하자 안개가 걷혔다.”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설 지역이 6개소나 되며, 위로부터 예산군 대술면, 공주시 탑곡리, 청양군 대치면, 보령시 미산면, 서천군, 군산시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절터나 시루편 등이 발견되고 있다.³⁹⁾ 이 외에 부여군 석성면 파진산 정상에 넓은 공터가 있어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만 명의 군사를 숨겨놓았다는 장군동 전설이 있다.⁴⁰⁾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안개 속에서 헤매던 중 바둑을 두는 노인을 만나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으므로 노인들의 목을 치고 갔다는 군산 지역의 오성산 전설이 있다.⁴¹⁾

국토정보지리원 발행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인천 남동구 소래산(蘇來山)은 삼국시대 말(末)에 소정방이 날라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⁴²⁾ 지리적 인접성으로 볼 때 덕물도에서 소래산까지 소정방의 예하 부대의 흔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지역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³⁾

39) 황인덕, 「천방사(千房寺)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 32, 2000, 205쪽 ; 전북 옥구군 천방사 전설(군산시 소룡동)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옥구현, 불우조에 소정방 대신에 김유신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김유신이 군산지역에 왔던 기록이 없다. 소정방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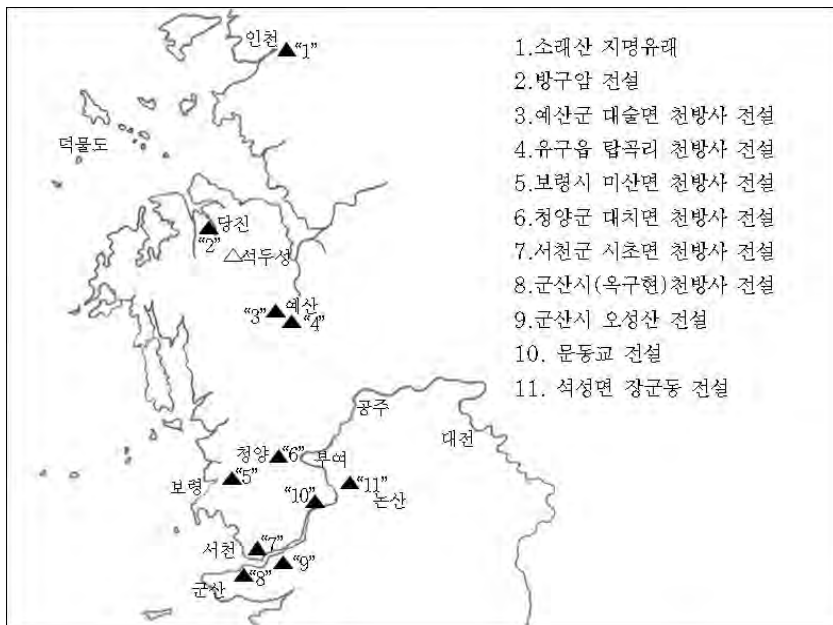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석성현, 산천.

41) 『여지도서』 보유편, 전라도, 임피현 고적조.

42) 『한국지명 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174쪽.

43) 이재준, 앞의 책, 2017, 51쪽.

〈요도 1〉 소정방 관련 전설 유래지역



위 요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안으로부터 지형을 따라 내륙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군사학적으로 분석해보자.

먼저 덕물도와 “1” 인천 소래산을 해상으로 연결해 보면 연안 해상을 통제하기에 편리한 목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즉 소정방은 백제를 공격하면서 배후의 고구려 수군을 견제하기 위한 해상 차장부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인근 육상에서는 별도의 견제부대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2” 당진의 방구암 전설 지역과 석두성 수군창고, 그리고 “3”, “4” 천방사 전설 지역이 한 축선으로 묶여있다. 지리적으로 당진에서 먼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7년, “소정방이 범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게 하였다.” 이 기사는 고구려에 대한 육상 견제 부대였을 것이다.

천-예산-공주 유구읍 탑곡리까지 기동에 편리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주·부여로 접근하는 원거리이나, 덕물도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공주·부여⁴⁵⁾를 향해 공격한다면 선정되어야 할 접근로이다.

“5”, “6”은 기동에 편리한 종격실로 연결된 능선이다. 해안지역으로부터 보령시 미산면을 거쳐 청양 대치면을 지나면 부여로 갈 수 있는 단거리 접근로이다. 목표까지는 강을 도하 하여야 하지만,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형이다.

“7”, “8”, “9”, “10”, “11”은 금강 좌·우측에 연하여 위치한 특성이 있다. 우선 “7”, “8”, “9”는 바다로부터 강으로 진입하는 모든 세력을 통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다. “10”, “11”은 당군이 목표인 부여를 점령하는데 필요한 중요지형이다. 중요지형지물은 공격이나 방어할 때 피아 공히 필히 확보 통제하여야 하는 장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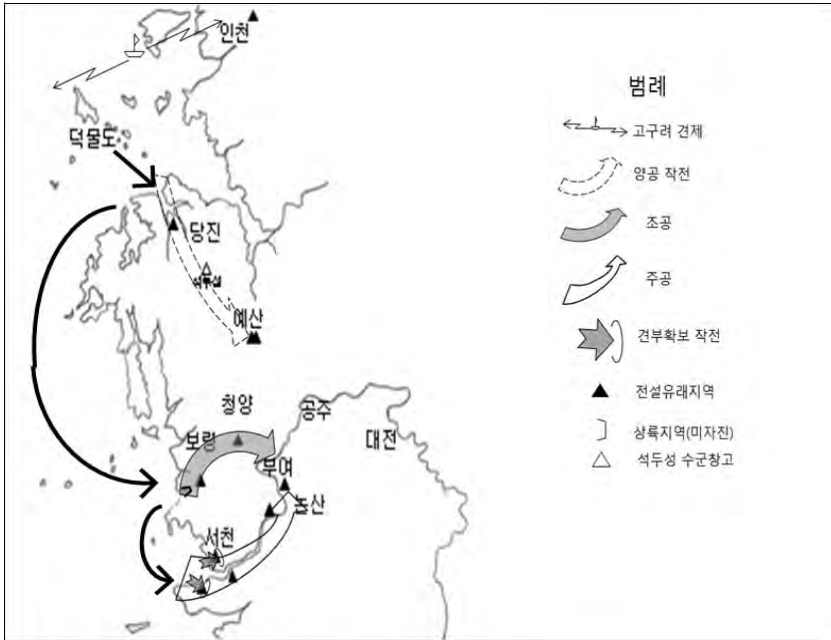
덕물도에서 부여를 공격한다면 위와 같은 지형분석을 통해 중요 지형지물과 접근로를 고려한 후 최선의 방책이 선정되며, 선정되지 않은 접근로에는 허위기동이나 조공 등 기만 계획을 수립한다. 중요 지형지물에는 병력이나 장비 등 반드시 통제대책을 강구한다.⁴⁶⁾ 물론 이러한 방법이 고대에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순수 지형만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후대사료, 전설 등과 일치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당군의 기동계획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⁴⁷⁾

45) 「大唐平百濟國碑銘」에 소정방의 직책에 神丘·嶧夷·馬韓·熊津 等十四道行軍大總管 중 웅진도행군총관은 공주방면 접근로 추론이 가능하다.

46) 이는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계획수립 절차 중 한 단계이다.

47) 이재준, 앞의 책, 2017, 57쪽.

〈요도 2〉 당군 기동계획 추정도



요도를 설명하면, 우선 덕물도에서 소래산 사이에 고구려 수군을 견제하는 차장부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식량 확보를 위해 당진포리에 상륙하여 사료 A와 같이 면천 석두성의 백제 수군창고를 공략하였다. 그리고 천방사 전설 “3”, “4” 지역인 예산 대술면을 거쳐 공주 유구읍 탑곡리까지 백제를 기만하기 위한 기동을 했을 것이다.

이후 당진으로 복귀한 당군은 당진에서 보령 앞바다로 해상 이동하여 조공부대를 투입했을 것이다. 『일본서기』에 당군이 진을 쳤다는 미자진⁴⁸⁾을 보령 부사방조제의 미조포로 비정⁴⁹⁾하고 있으며, 금

48) 『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 “7월 10일 소정방이 수군을 이끌고 尾資津에 진을 쳤다.”

49) 충남역사문화원, 『백제사료자료 역주집-일본편-』, 아디람, 2008. 177쪽.

석문에서 확인된 ‘시철위(柴哲威)가 가림도행군총관’⁵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림성인 임천면 성흥산성 방향 기동은 조공부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전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일단의 부대가 서천과 군산 등 양안을 확보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정방의 본대가 금강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당군의 전투 또는 기동이 전설 “7”, “8”, “9”가 전승되는 배경일 것이다. 당군 기동계획의 상륙과 해상 및 육로이동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약 17일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⁵¹⁾

이상과 같은 기동계획을 군사적으로 살펴보면 당군이 식량을 탈취한 후 공주·부여 방향으로 기동한 것은 양공작전이었고, 조공부대를 투입한 것은 기만작전이며 금강 수로를 통한 수도 가까이 상륙한 것은 기습작전으로 볼 수 있다. 당군의 상륙지역과 상륙전투는 IV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 신라군의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자. 김춘추가 백제를 병탄하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642년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직후이다.⁵²⁾ 이때부터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청병외교에 돌입했다. 김춘추는 고구려 청병이 실패로 끝나자 647년 왜에도 다녀왔다.⁵³⁾ 당나라에는 643년부터 청병 사신만 4회나 파견하였으며 당

50) 1997년 경북 김천 미륵암에서 발굴된 금석문에 柴將軍이 당 황제 친척이며 加林道行軍總管으로 임명되었고, 후에 황제로부터 함라도총관을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민덕식, 「唐. 柴將軍 精舍草堂碑에 관한 檢討」 『백제문화』31, 2002, 159쪽).

51) 이재준, 앞의 책, 2017, 54~56쪽.

52) 대야성은 함천에 위치해 있으며 황강을 통해 곧바로 경주로 통하는 신라의 요충지다.

53)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백제를 칠 병력을 요청하자 보장왕이 병력이 필요하면 먼저 죽령 이북을 내놓으라며 춘추를 옥에 가두었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 647년 김춘추는 왜에도 사절로 다녀왔는데 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을 설득하기 위한 다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⁵⁴⁾ 그중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 공격을 모의했다거나,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의 북방 33개 성을 공취 했다는 등 신라가 642년부터 대당 외교에서 주장한 러제 연화설은 사실과는 다른 신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신라의 외교전략⁵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신라는 655년 왕손인 내물왕의 8세손 김흠운이 백제지역 양산 밑에 진을 치고 조천성을 공격하다 전사하자 양산가를 지어 추모⁵⁶⁾하는 등 자국민의 대백제 감정을 악화시켜 백제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⁵⁷⁾ 또한 의자왕 말기에 백제의 왕도 사비에 나타났던 괴변과 유언비어⁵⁸⁾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김유신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백제를 칠 때⁵⁹⁾라고 하였는데 백제 말기에 사비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신라의 계략일 가능성이 크다.⁶⁰⁾

54) 직접적인 청병 사신 외에 김인문의 당 숙위, 651년 백제 침공 사실 보고, 김범민이 황제에게 바친 선덕왕의 5언 태평송(太平頌),麗濟 연화설 등도 청병 외교의 일환이었다.

55) 방용철, 「여·제 연화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277쪽.

56) 『삼국사기』 권47, 열전6, 김흠운.

57)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과 백제의 방어전략」, 『STRATEGY』 21, 1999, 157~159쪽.

58)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5(655년)에 의하면 태자궁을 수리하는데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했으며, 복악의 오함사(烏含寺)에 붉은 말이 들어와 울며 수일 동안 불당을 돌다가 죽었다. 의자왕 16(656년)에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말리는 성충(成忠)을 옥에 가두었다. 의자왕 19(659년)에는 흰여우가 상좌평 책상에 올라앉았다.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교미하였다. 등과 의자왕 20(660년)에도 수도의 우물물이 핏빛이었다 등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기록만 11건 이상이 된다. 고구려 1건에 비해 너무 많은 기괴한 사건이 기록된 것은 백제 내부 소행이라기보다는 신라가 전략적으로 첩자를 이용해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이재준, 앞의 책, 115~117쪽).

59)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60) 김영관, 앞의 논문, 1999, 160쪽.

위와 같은 유언비어 외에도 김유신은 백제 침공 전에 신라 부산현령으로 있다가 백제의 포로가 되어 좌평 임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급찬 조미압을 이용하여 백제조정의 일을 소상히 파악하면서 백제의 좌평 임자를 회유하여 국가가 망할 경우 서로 의지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자와 마찬가지로 황산벌에 투입되었다 포로가 된 충상과 상영이 신라의 관등과 군관직을 제수받은 사실로 볼 때 사전에 포섭되어 신라와 내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¹⁾

이처럼 신라의 외교와 첩보전 및 유언비어 유포 또는 심리전을 간접접근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⁶²⁾ 하지만 간접접근 전략은 목표에 대한 최소저항선을 이용한 접근이라고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첩보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첩보전략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선무전략 또는 교란전략에 해당한다.

신라군의 기동을 살펴보자. 신라의 무열왕은 660년 3월 당 고종으로부터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성원하도록 칙명을 받았다. 이에 5월 26일 유신·진주·천존 등과 함께 경주를 출발하여 6월 18일 경기도 남천정에 도착하였다. 6월 21일에는 태자 법민이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였다. 소정방의 작전 지시를 들은 법민이 돌아와 무열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대장군 유신과 장군 품일·흠춘 등에게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이에 부응하도록 하고 왕은 금돌성에 머물렀다.⁶³⁾

금돌성은 추풍령로 상에 있다. 추풍령로는 죽령로 및 계림령로와

61) 김영관, 위의 논문, 1999, 162~163쪽.

62) 김영관, 위의 논문, 1999, 152쪽.

6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7년.

함께 고대 경주에서 이천에 이르는 길⁶⁴⁾ 중 하나이다. 세 루트 중 신라군은 비교적 험하지 않으며 백제와 국경지대이자 관방 시설인 산성이 많은 추풍령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⁶⁵⁾

한편 신라군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가지 않고 지휘부만 다녀왔을 것⁶⁶⁾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신라군은 소정방의 백제 공격방안 즉 합군 지점 등을 몰랐으며, 행군 속도 등이 정상적이었음을 고려하면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올라갔다⁶⁷⁾고 판단된다. 문제는 신라가 왜 이천까지 기동했다가 다시 남하했는가 하는 이유이다. 연구자들은 각 지역의 동원체제를 점검하려는 목적 등 신라 위주로 설명⁶⁸⁾하고 있으나 군 지휘계통상 소정방의 명에 의한 기동이었으며, 처음부터 당의 저의⁶⁹⁾에 의한 기동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라군

64) 추풍령로는 경주~영천~선산~상주~화령~보은~진천~이천으로 연결되며 죽령로는 경주~의성~단동~죽령~단양~충주~이천으로, 계림령로는 상주까지는 추풍령로와 같으나 상주~문경~충주~이천으로 연결된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342쪽).

65) 이재준, 앞의 책, 2017, 31~33쪽.

66) 김영관, 앞의 논문, 1999, 176~179쪽.

67) 5만 군사가 모두 이천까지 기동한 이유는 소정방은 신라에게 작전상황을 덕물도에서 통보했으며, 경주에서 이천까지 268km를 23일간 행군하여 11.6km/일로 행군하였고 이천에서 부여까지 209km를 17일간 행군하여 12.2km/일 행군하는 등 기병위주의 지휘부와 달리 정상적인 속도였고, 주력 부대를 백제 국경지대에 대기시켰다면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제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 것이다(이재준, 앞의 책, 2017, 34~36쪽).

68) 군사동원체제 점검(노중국,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46쪽), 고구려 지원병 차단(홍사준, 『탄현고』, 『역사학보』 35·36, 1967, 66쪽 : 장미애, 「백제 말 정치 세력과 백제의 멸망」, 『백제문화』 58, 2013, 136쪽), 백제 기만을 위한 노림수(이상훈, 앞의 논문, 2016(d), 53쪽. ;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103~108쪽 ;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60~367쪽).

69) 앞서 금석문에 나타난 소정방의 직책이 계림도행군대총관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백제를 멸한 후 신라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의 남천정 기동은 나당연합군이 북방에서 합류하여 공격할 것으로 백제가 오관하도록 하는 기만 전략 즉 양동작전이 되었다.

Ⅲ. 백제군의 대응과 병력운용

백제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국이 혼란스러워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랬는지 당시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백제는 군신들이 사치를 일삼고 음탕한 생활에 빠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재괴가 빈번하니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그 나라 임금을 처단하고 백성들을 구할 때⁷⁰⁾”라고 유신이 왕에게 보고하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 의자왕 15년부터 20년까지 멸망의 징조로 보이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괴한 기록⁷¹⁾들이 유난히 많다. 백제 관련 기괴한 기록은 10건이 넘는데 고구려는 단 1건이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 『삼국사기』 편찬자가 활용한 사료가 조작되었거나 유언비어일 수 있다. 유언비어라면 최초 발설자가 내부 불만 세력이라기보다는 신라가 백제 사회 내부에 침투시켜 놓은 첩자 등을 이용해 유포⁷²⁾했다고 추정된다.

70)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71) 시대별로는 의자왕 15년 1건과 19년 6건 20년 4건 등이다.

72) 김유신은 대백제 적개심을 키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부산 현령으로 있다가 포로가 되어 백제 좌평 임자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조미압(租未押) 등을 통해 백제조정 내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등으로 미루어 간첩의 소행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신·구대립이나 성충을 옥에 가두었다는 기사는 의자왕이 정계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노선에 반발하는 관료들을 퇴진시키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⁷³⁾로 볼 수도 있다. 『대당평백제국비명』에 “충신에게는 형벌이 가해지고 간사한 사람이 먼저 총애와 신임을 받아 백성들의 원망과 슬픔이 하늘을 찔렀다”는 기록도 승자의 기록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백제멸망 당시 사료는 승자들의 기록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위정자가 정치를 돌보지 않아 농민 경제가 파탄에 빠져 어려움으로 유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반란이 있었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나당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백제는 신라를 공격⁷⁴⁾하였다. 의자왕이 항복례를 행할 때 “좌평 이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⁷⁵⁾는 기록이 있으며 의자왕 항복 직후 곧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사실⁷⁶⁾들을 볼 때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침공 당시 민심이 이반 되었다거나 군사 체제가 무너져 대비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군신회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해석하여 백제가 내부 분열로 백강과 탄현에 군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제의 군신회의 내용은 면밀히 살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73)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2004, 76쪽.

74) 백제는 655년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개 성을 쳐서 깨뜨렸으며 659년에는 장수를 보내 신라의 독산(獨山)·동잠(桐岑) 두성을 침공하였다(『삼국사기』 권 28, 백제본기6, 의자왕 15·19년).

7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7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백제의 적병이 남잠(南岑)·정현(貞峴)·□□□성에 웅거하고 좌평 정무(正武)는 무리를 모아 두시원(豆尸原) 산에 자리 잡고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노략하였다. 26일에 임존(任存)의 큰 목책을 치다가 군사가 많고 땅이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

B-①.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나라 서쪽 덕물도에 이르렀다.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백제로] 나아가게 하였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신들을 모아 싸우는 것이 옳으나 지키는 것이 옳으나 물었다.

좌평 의직이 나서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배에서 반드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상륙하여 사기가 평온하지 못할 때 급히 공격하면 가히 뜻을 이룰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대국의 지원을 믿고 있어 우리를 가버이 여기고 있으므로, 만일 당나라 군사가 이롭지 못함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감히 기세 있게 진격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하여야 옳을 줄 압니다.”

달솔 상영 등이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왔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예봉을 감당하기 불가합니다. 신라 군사들은 전에 우리 군사에게 여러 번 패배하였으므로 지금 우리 군사의 기세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당나라 군사의 길을 막아 그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를 시켜 신라군을 공격하여 예기를 꺾은 후에 형편이 가능하면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군사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B-②. 왕은 주저하며 어느 의견을 따를지 몰랐다. 이때 좌평 홍수가 죄를 지어 고마미지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묻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였다.

B-③. 홍수가 말하였다. “당병은 수가 많고 군율이 엄정하며 신라와 함께 호응(掎角)하는 상황이니 만약 평원광야에서 대진한다면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백강(白江)[혹은 기벌포(伎伐浦)라고 한다.]과 탄현(炭峴)[혹은 침현(沈岬)이라고 한다.]은 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가 한 자루의 창으로도 만 명을 당해 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용감한 병사를 뽑아 가서 지키게 하여, 당군은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대왕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식량이 떨어지고 사졸이 피곤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공격하면 반드시 꺾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이 불신하며 말하였다. “홍수는 오랫동안 잡혀 갇혀 있었으므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군이 만약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면 물흐름으로 배를 나란히 할 수가 없고, 신라군이 탄현에 오르면 좁은 길을 따라 병마가 가지런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병사를 풀어 공격하면 조령 속에 있는 닭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그럴 듯이 여겼다.

B-④. 또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已過白江·炭峴)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가도록 하였다.⁷⁷⁾

위 사료 B는 백제의 방어전략 회의다. 시기는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뒤부터 계백을 황산벌에 보낼 때까지다. 일정으로 보면 6월 21일 이후부터 7월 7일까지⁷⁸⁾ 약 17일 정도로 추정된다. 기사 내용을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B-①, ②, ③, ④로 나누어진다.

먼저 B-①은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하고 신라군이 이천에서 남하하기 시작한 때다. 의자왕이 “싸우는 게 옳으나 지키는 게 옳느냐?” 물었다. 싸우는 것은 공격에 주안을 두고, 지키는 것은 농성, 협상, 화해 등에 주안을 둔 듯하다. 하지만 의직은 당군을 먼저 치자고 했고, 상영은 신라군을 먼저 치자고 했다. 둘 다 앉아서 지키기보다 나가 싸우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다투듯 내부 분란으로 볼 수 없다. 즉 나당연합군이 북쪽에서 합류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백제는 서북방 방어에 신경을 쓰며⁷⁹⁾ 주력군을 북상시켜 어느 지역

7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78) 황산벌은 논산시 연산면 일대로 사비성으로부터 약 26km인데 7월 9일 이미 전 투준비를 완료하고 김유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동시간과 전투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7월 7일에는 출발하였을 것이다.

79)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68쪽.

에 주둔⁸⁰⁾해놓고 당과 신라중 누구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나은지 하는 토의였다.

백제의 군사력을 가늠해 보자. 사비시대 군사제도는 중앙의 5부제와 방(方)-군(郡)-성(城) 체제였다.⁸¹⁾ 사비도성에 2,500명의 시위대가 있고 사비도성 주위 산성에 별도의 10,000여 명 중앙군이 있었다.⁸²⁾ 지방의 방에는 1,200~700명의 군사가 있고 달솔이 지휘하며 5개 방이므로 총 3,500~6,000명이었고 예하 30~50개의 군과 200~250개성의 병사까지 합하면 백제는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보기도 한다.⁸³⁾ 한편 평상시 신라를 공격할 때 출동 병력은 보기(步騎) 1만에서 큰 규모는 3만, 4만까지이다. 이때 최고 지휘관은 좌장(左將)이나 좌평(佐平)이었고 장군이 출전하기도 하였다.⁸⁴⁾ 때로는 백제는 전국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⁸⁵⁾ 백제멸망 당시 사료에 나타난 백제군은 3만여 명이다. 황산벌 전투에서 5,000명, 웅진구=기벌포 전투에서 수천 명, 사비도성 전투에서 10,000여 명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압송된 1만여 명⁸⁶⁾을 군사라고 보아도 모두 합하

80)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68쪽.

81) 백제는 온조왕 때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병제(皆兵制)를 시행하였으며 군사·행정적인 통치구획으로 4부제를 실시하였다. 고이왕 때 중앙군과 지방군이 성립되었고 이후 담로제를 거쳐 중앙 5부제 및 지방 방·성·군 체제가 확립되었다.

82)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304쪽.

83) 김종수, 「백제 군제의 성립과 정비」, 『역사교육』 103, 2007, 206쪽.

84) 박현숙, 「백제 군사조직의 정비와 그 성격」, 『사총』 47, 1998, 56쪽.

85) 553년 백제 왕자 여창(黎昌)이 나라 안의 군대를 모두 징발하여 고구려로 향하였다(『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14년).

86) 당으로 압송된 인원이 신라본기와 백제본기는 백성 1만2천, 김유신전에는 군사 2만, 구당서에는 위장(僞將) 58인, 신당서는 추장(酋長) 58인, 대당평제비에는 왕자 효 등 13, 좌평 등 700여 인, 일본서기 제왕자 13, 좌평 등 37, 범 50여 인 등 다양하다.

면 3만여 명이다. 백제군의 수를 최하 6만여 명으로 보아도 남은 3만 명의 행적은 기록에 없다.

6만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 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앞서 거론한대로 신라는 관방시설이 많은 추풍령로를 따라 경기도 이천으로 올라갔다. 추풍령로의 백제와의 국경지대인 충북 옥천 보은지방을 6월 11일경 통과하였다. 백제의 우술성과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세작이나 간첩활동 등 첩보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던 삼국 항쟁 시대에 30km 밖에서 5만 군사가 행군하는 것을 백제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⁸⁷⁾ 이때 백제는 전쟁을 감지하고 병력을 동원, 집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B-①에서 상영이 “우리의 기세를 바라보면”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B-①의 토의는 백제군의 주력이 서북방 어딘가에 주둔하면서 당과 신라 중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B-②와 B-③ 기사의 시간 차이를 살펴보자. 의자왕이 전남 장흥의 고마미지현의 홍수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았다. 부여에서 장흥까지는 274km로 최소 5일은 걸렸을 것이다.⁸⁸⁾ 화급을 다투는 전장에서 5일은 엄청난 기간이다. 당과 신라가 서북방에 있을 때부터 토의하였는데 적들이 5일 동안 정지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백제도 5일 이상 방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자 간 어떤 행위나 조치가 있었는데 단지 사료에 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87) 이재준, 앞의 책, 2017, 63쪽

88) 장거리 통신수단이었던 역참제도가 백제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나 말이 운송 수단으로 쓰인 것은 기원전 1300년 은허 시대부터이고 신라가 소지마립간 9년(487)에 우역(郵驛)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볼 때 백제에도 우역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을 것이며, 『고려사』에 하루 6개역 180리를 달리는 파발마가 주야로 달린다면 일일 360리(129.6km/일) 달렸다고 사실상 어려운 가정을 해도 강진까지는 왕복 4.4일 즉 5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 5일 사이 백제군 주력군에 관한 사료가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는 앞서 사료 A-②, ③와 같이 당군이 당진 면천에 있는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자 나당연합군이 당진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남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백제군이 서북방면⁸⁹⁾ 즉 당진 방면으로 투입되었을 것이다. 주력부대가 북방으로 투입되어 있었기에 신라군과 당군의 황산벌 및 기벌포 등 기습 공격에 백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⁹⁰⁾ 또한 주력군 투입을 위한 방·성·군의 백제군이 동원되었기에 충남에만 234개나 되는 백제 산성⁹¹⁾에서의 전투가 전혀 없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백제가 군사적으로 기만작전에 속아 주력군을 북방으로 조기 투입⁹²⁾ 시켰다고 판단된다.

북방에 조기 투입된 병력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있다. 의자왕이 항복하자 충남 예산의 임존성에서 거병한⁹³⁾ 백제 부흥군들을 신라본기에서 남은 적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C-①. 이때 서부 은술 귀실복신이 매우 분개하여 임사기산에 웅거하고 달솔 여자진은 중부 구마노리성에 웅거하여 군영을 만든 뒤 각각 흩어진

89)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68쪽.

90) 박노석, 앞의 논문, 369쪽.

91) 백제의 산성으로 추정되는 산성은 충남지역 234개, 경기도 119개, 전남북 204개로 대부분 테메식으로 해발 100~200m에 위치하여 공격용 거점성 보다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산성들이다(서정석, 「충남지역 백제산성에 대한 일연구」, 『백제문화』 22, 1992, 115~116쪽).

92) 박노석, 앞의 논문, 360~371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61~68쪽 ; 이재준, 앞의 책, 2017, 61~74쪽.

93) 임존성 거병은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 이후부터 소정방이 공격한 8월 26일 사이가 될 것이다.

군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 이전 싸움에서 무기를 다 잃었기 때문에 … 얼마 후 백제 군사들이 다시 날래고 용맹해져서 당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국인(國人)들은 ‘좌평 복신, 좌평 자진’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⁹⁴⁾

C-②.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와 더불어 험고한 곳에 웅거해 복신에게 호응하였다.⁹⁵⁾

C-③. 흑치상지가 두려워하여 좌우 10여 인과 함께 달아나 본부로 돌아와, 도망가고 달아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鳩集亡逸] 임존산을 지키며 책을 구축하니 10일 이내에 돌아온 자[歸附者]들이 3만이었다. 소정방이 군대를 보내 공격하였으나 상지가 용맹스럽게 싸워 관군이 패배하였다.⁹⁶⁾

C-④. 상지가 두려워하여 좌우추장 10여인과 함께 달아났다. 잡혔다가 도망한 사람들을 불러 합하여[囑合捕亡] 임존산에 의지하여 굳게 지키니 열흘이 안 되어 돌아온 사람이[歸者] 3만이었다. 소정방이 병력을 독려하여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⁹⁷⁾

사료 C-①을 보면 복신이 최초 거병하였고 사료 C-②와 같이 흑치상지가 복신에게 호응하였다. 그런데 C-①에서 흩어진 군졸들을 불러 모았다거나 이전 싸움⁹⁸⁾이라는 표현에서 백제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③, ④에서 비둘기 소리(鳩集亡逸), 휘파람 소리

94) 『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

95) 『자치통감』 권201, 唐紀 17, 龍朔 3년. 『신·구당서』도 동일하다.

96) 『구당서』 권109, 열전53, 흑치상지, “常之恐懼, 遂與左右十餘人遁歸本部, 鳩集亡逸, 共保任存山 築柵以自固 旬日而 歸附者 三萬 定方遣兵攻之 常之領敢死之士拒戰 官軍敗績.”

97) 『신당서』 권110, 열전35, 흑치상지,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遁去 囑合捕亡 依任存山自固 不旬日 歸者 三萬 定方勒兵攻之 不克.”

98) 이전 싸움은 먼천 수군창고-예산군 대술면-공주시 유구읍 탐곡리로 축선의 기만 기동, 양공 작전하는 당군과 조우하여 싸웠을 가능성도 있다.

(囑合捕亡) 등은 군에서 사용되는 신호라고 가정하면 백제 정규군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진 방면으로 조기 투입되었던 백제군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⁹⁹⁾ 임존성의 3만 부흥군이 일반 농민이나 백제 유민이었다면 소정방이 이기지 못했을 리 없다. 유민 중에 백제 정규군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소정방이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하면, 백제는 신라군의 5만 군사가 북상하는 6월 11일경 병력을 소집했다고 추정된다. 의자왕이 “싸워야 하나 지켜야 하나?” 물었을 때 다 같이 싸울 것을 천명했다. 단지 신라군과 당군 중 누구를 먼저 쳐야 할지 논쟁하였다. 이때 당군이 먼천 백제 수군 창고를 공격하자 북방에서 합류하여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진 방면으로 주력군을 조기 투입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백제군이 도착했을

99) 북방으로 투입된 주력부대는 복신이 이끌었고, 당군이 기만 기동했던 공주시 탑곡리, 예산 대술면을 경유 당진에 도착했을 때 당군은 빠져나간 듯하다. 주력부대는 할 수 없이 복귀하던 중 임존성 부근에서 항복 소식을 듣자 거병하였을 것이다. 복신의 거병은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 이후, 흑치상지의 호응은 의자왕의 항복례를 행한 8월 2일 이후부터 소정방이 공격하는 8월 26일 사이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은 복신이 서방성의 방령이고 병력은 서방성의 유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존성이 백제의 서방성인지 확인이 안 되며 1개 방의 방령군은 1,200~700명으로 3만이라는 숫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 한편 방령군은 달솔이 지휘하는데 복신의 관등이 은솔로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흑치상지는 대대로 달솔로서 서방성 예하 풍달군의 군장이었다. 그런데 복신에게 호응했다고 한 사실을 보면 복신이 달솔보다 상위 계층이었을 확률이 높다. 물론 복신의 관등은 은솔 한솔 또는 옛 장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 복신을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옛 장군이라는 관등이 주목된다. 과거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좌장 또는 장군이 지휘하여 출전한 사례가 있으며 한 연구에 의하면 장군이라는 호칭은 출정 시에만 임시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사비 시대에는 하나의 관직명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복신은 무왕의 조카로서 백제의 주력인 일부 중앙군과 지방군을 장군으로서 인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 이미 당군을 빠져나간 듯하며 백제군은 복귀 중에 임존성 부근에서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거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백제는 지키기보다 싸울 것을 택했으나 당군의 기만 전략, 양공 작전에 속아 주력부대 조기 투입이라는 과오를 범했다. 결국 기벌포(웅진강구)와 황산벌까지 기습적으로 도달한 나당과 소수의 잔여병력으로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 전투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웅진강구] 전투는 신라와 당군이 7월 10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사비도성(백제의 남쪽)으로 기동하던 중 7월 9일 벌어진 전투이다. 두 지역은 백제의 명운을 결정짓는 최후 결전장이 되었으며 신라에게는 통일전쟁의 최초결전장이 되었다. 두 전투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D-①. 또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已過白江·炭峴)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堵伯)을 보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가도록 하였다. 네 번 싸워 다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군사를 모아 웅진강 어귀(熊津江口)를 막고 강가에 둔춤키니 소정방이 왼쪽으로 나와서 산에 올라 진을 치매 그들과 싸워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이때 조수가 밀려와 ... 정방과 보병·기병이 곧장 달려 진도 30리 지점에 멈추었다.¹⁰⁰⁾

100)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D-②. 7월 9일 유신 등이 황산벌로 진군하니 백제 장군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거하여 3영(營)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이 군사를 3도로 나누어 네 번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고 군사들은 힘이 다 빠졌다. ... 관창이 갑옷 입힌 말을 타고 창 한 개를 들고 바로 적진에 달려들었으나 적군에게 잡혀 산 채로 계백에게 보내졌다. ... 삼군(三軍)이 [관창의 머리가 잘려 돌아온 것]이를 보고 분개하여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하니 백제의 군사들이 패하여 계백은 여기서 죽고 좌평 들로서 충상·상영 등 20여 명을 사로잡았다. 이날 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이르러 백제의 군사를 역격(逆擊)하여 크게 이겼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영에 이르니 정방은 유신 등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군문에서 베려 함에 김유신이 ...¹⁰¹⁾

D-③. 소정방이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웅진강 어귀(熊津江口)에 이르자 적이 강을 지키고 있었다. 정방은 동쪽 언덕으로 올라 산에 진을 치고 적군과 대전을 벌였다. ... 마침 조류가 밀려와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곧장 사비도성으로 달려 20리 안 되는 지점까지 갔다.¹⁰²⁾

먼저 백제가 신라와 벌인 황산벌 전투에 대한 검토이다. 사료 D-①에 의하면 계백이 황산에 투입된 시점은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난 뒤였다. 계백은 황산까지 이동하여 전투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7월 9일 김유신을 만났다. 그러면 탄현과 황산벌 및 사비도성까지 거리¹⁰³⁾와 고대 군대 행군 속도¹⁰⁴⁾를 고려하면 탄현

10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102) 『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

103) 탄현이라 비정되는 마도령으로부터 황산벌까지 약 30km가 넘으며, 사비도성에서 황산벌까지는 약 26km이므로 계백이 명령을 수령하고 준비하여 이동[급속 행군]하고 진을 쳤다면 최소 2일은 걸렸다고 추정되므로 7월 9일부터 역으로 7월 6~7일에 탄현을 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04) 고대 군대의 1일 행군거리는 1사(舍)로 약 30리이며(『左傳』, 僖公28년) 12km로

과 백강을 지난 시간은 7월 6~7일로 계산이 된다. 하지만 당군은 사료 D-②와 같이 7월 9일 기벌포=백강=웅진강구¹⁰⁵⁾에 도착했다. “已過白江”를 “이미 지났다”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

탄현의 위치는 옥천과 대전 사이 마도령(원치), 백강은 기벌포·웅진강구의 별칭으로 서천 장항 일대라고 하여 백제의 외곽 국경지대로 보는 것이 학계의 대세다. 위치 비정이 잘못되었거나 사료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미 지났다는 이과(已過)의 “已”자를 ‘곧, 이윽고, 오래지 않아, 뒤이어, 얼마 되지 아니하여’로 해석할 수도 있다.¹⁰⁶⁾ ‘오래지 않아’ 등의 용례로 쓰인 사례는 『사기』 항우본기에서도 발견된다.¹⁰⁷⁾ 이 해석을 따른다면 탄현과 백강의 위치는 백제의 국경지대라기보다 황산벌과 사비도성 사이의 어느 지점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본 논문은 전투 현장을 논하고 있으므로 탄현과 백강의 다양한 설¹⁰⁸⁾만 소개한다.

다음은 위기 상황에 백제는 왜 계백에게 5,0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주었을까? 이에 대해 기벌포의 당군을 막는데 주력을 배치하

계산된다.

105) 사료 B-⑤와 D-②,③는 기벌포=백강=웅진강구이며 『신당서』에는 웅진강구가 웅진구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06)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6 ; 檀國大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2003. 669쪽 참조.

107) 『史記』 권7, 項羽本紀7. “廢位하고 제후로 삼고 오래지 않아 또 그를 죽였다(廢以爲侯 已又殺之).”

108) 탄현의 위치는 ① 보은의 옥천설, ② 대전동쪽 마도령의 원치설, ③ 진잠의 흑석동 산성설, ④ 금산의 운주면설, ⑤ 운주삼거리설, ⑥ 금산 교촌리설, ⑦ 부여 석성면 정각리~증산리 숲고개설 등 다양하고 백강 또한 ① 서천 장항설, ② 군산설, ③ 동진강 계화도설, ④ 금강이 석성천과 만나는 고다진 설 등 다양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고 계백에게는 신라군의 진군을 늦추도록 했다는 연구¹⁰⁹⁾가 있다. 하지만 D-①에서 “이때¹¹⁰⁾ 병력을 모아 강가에 배치 웅진강구를 막았다.”로 보아 주력을 배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벌포 즉 웅진강구에서 죽은 백제군이 황산벌과 유사한 수천이고 인솔한 장군 기록도 없다. 백제군의 주력을 어딘가에 조기 투입 시켰기 때문에 왕성 방호 인력을 제외하고 출동시킬 병력이 제한되었다고 추정¹¹¹⁾된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백의 3영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D-②의 “거힘”을 근거로 3영을 연산면 신양리~연산리 일대 세 개의 산성을 지목하였다.¹¹²⁾ 그러나 최근에는 3영을 평지에 설치한 진영으로 보고 있다.¹¹³⁾ 산성전이었다면 김유신은 7월 10일 당군과의 약속 일자를 맞추기 위해 견제 부대를 산성에 남겨놓고 본대는 약속 장소로 기동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료에 황산지원으로 표기된 내용이나 관창이 단기필마로 진격했던 모습에서도 산성이 아닌 평야에서 신라군의 진격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계백은 신라군의 진군을 지연시켜 당군과의 합군을 막고, 북방에 투입된

109) 이문기, 앞의 논문, 1998, 281쪽 ; 문동석, 「660년 7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 『신라사학보』 38, 2016, 52쪽.

110) 이때(於是)를 즉 계백이 죽은 후로 보아 5,000명이 죽고 나서 남은 병력을 모아 웅진강구를 막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111) 이상훈, 앞의 논문, 2016(d), 68쪽. ;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69쪽.

112) 홍사준은 동쪽 진입을 막는 황령산성·산직리산성·웅치산성으로 보았고, 지현영은 북쪽 진입을 막는 황산성·청동리산성·외성리산성으로, 전영래는 남쪽 진입을 막는 갈마산성·신흥리산성·황령산성으로, 성주탁은 동쪽과 남쪽을 막는 황령산성·산직리산성·신흥리산성을 보았다(이상훈,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60, 2021, 89~90쪽 재인용).

113)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 전투의 실상」, 『군사』 76, 2010, 21쪽 ; 남정호, 「660년 백제의 방어전략 회의와 방어전 재검토」, 『전북사학』 53, 2018, 121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21, 93쪽.

주력부대의 복귀시간¹¹⁴⁾을 벌 수 있는 지연전을 위해 산성이 아닌 평야를 바라보고 험지를 배후에 둔 1~2부 능선에 진을 친 것이다.

한편 B-③에서 홍수가 “만약 평원광야에서 대진한다면 승부를 알 수 없다.”며 탄현이라는 요충지를 주문하였다. 이는 평상시에 백제가 산정보다는 평원광야에서 전투한 예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먼저 신라군의 황산벌 진입 방향을 살펴보자. 신라군이 연산면 황산벌에 이를 때 북쪽 개태사 방향이라는 견해¹¹⁵⁾와 북쪽 계룡~개태사 경유, 동쪽 한삼천리~황령재 경유, 남쪽 양촌면 산직리와 신흥리 경유 등 여러 루트로 보는 견해¹¹⁶⁾가 있다. 물론 대부대가 1개 통로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양촌면을 경유하려면 대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아니면 금산을 통해 백제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추정되는데 금산 일대는 백제 산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진입로로 보기 어렵다.¹¹⁷⁾

주력부대는 경기도 이천에서 남하하여 보은의 삼년산성을 경유¹¹⁸⁾하여 옥천~마도령~대전 흑석동 진현성¹¹⁹⁾~개태사¹²⁰⁾~연산

114)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70쪽.

115) 서정석, 위의 논문, 2010, 13쪽.

116) 이상훈, 앞의 논문, 2021, 107쪽.

117) 무열왕이 사비성에서 금돌성에 이를 때 금산을 경유하면 최적이나 30km 북쪽에 위치한 삼년산성을 거쳤다는 것은 금산방면으로 교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준, 앞의 책, 2017,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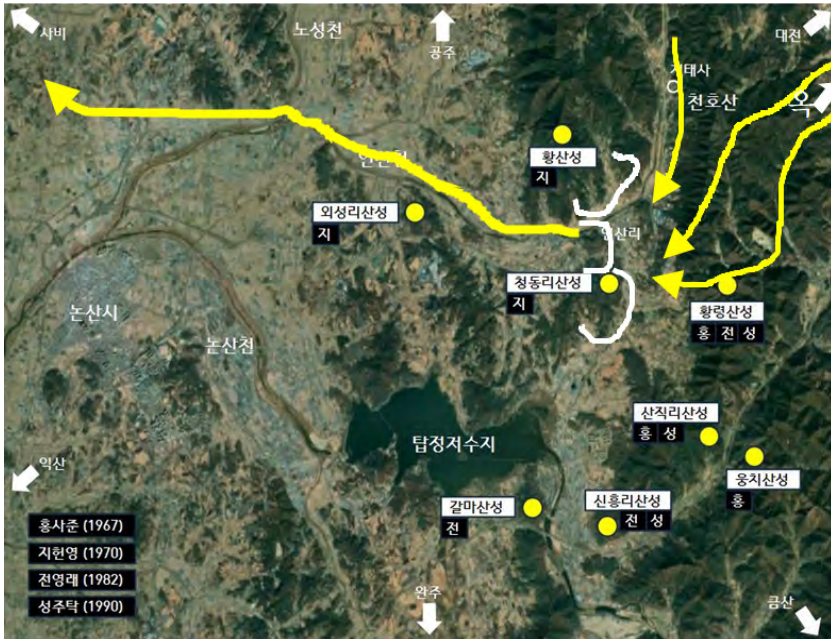
118) 양기석,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삼년산성』, 2001,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17쪽.

119) 진현성은 일명 대전시 흑석동 산성으로 사비도성 함락 후 신라가 웅진도독부(사비도성)에 대한 보급로 역할을 하던 운량도(運糧道)로서 백제 부흥군은 진현성에 근거하여 신라군의 보급을 661년 11월부터 662년 7월까지 9개월간 차단하였으며 이곳은 대전 갑천변을 따라 계룡~개태사~연산에 이르는 주요 길목이다(이재준, 앞의 책, 2017, 287쪽).

120) 개태사는 일리천 전투에서 패하고 전주로 퇴각하던 후백제 신검군과 싸워 항

으로 들어섰고, 일부는 대전 흑석동~황령재~연산으로 진군했을 것이다.¹²¹⁾

〈요도 3〉 백제군 3영 위치와 신라의 진군로 추정도



신라군이 연산 일대로 진입한 것은 당군과 합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는 합군 지점을 강경일대로 보고 있

복 받은 것을 기념하려고 고려태조 23년 940년에 건립된 절이다. 개태사 뒷산은 원래 의자왕이 계백을 보냈다는 황산(黃山)이었는데 하늘이 도와줬다고 하여 왕건이 천호산(天護山)으로 개칭하였다.

121) 지금까지는 3영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신라군의 진입방향만 고려되었다. 본고는 황산벌에서 연산천을 따라 사비로 갈 때 주요 길목인 연산 삼거리를 통제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하여 3영 위치를 도식했다.

지만 강경으로 가려면 신라군은 연산에서 남쪽 즉 논산천 이남으로 기동해야 한다. 강경은 합군 지점이 될 수 없다.¹²²⁾ 사료 D-③ 이십허리(二十許里)를 고려하면 석성천 이북 현내리 일대¹²³⁾로 추정된다. 석성천 이북 현내리 일대로 가려면 연산 삼거리에서 연산천을 따라가다 석성천 북단으로 기동해야 한다. 계백의 3영은 신라군이 합군 지점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황산벌은 연산면 연산삼거리 일대이며, 3영은 연산천 진입로를 통제할 수 있는 와지선이었을 것이다.

황산벌에서의 백제군과 신라군의 전투 모습은 어떠했을까? 신라군은 정병 5만이라고 했다. 정병의 행군 제대편성은 기마부대가 편제되었을 것이다. 기마부대는 선발대였으며 보병부대가 뒤따랐을 것이다.¹²⁴⁾ 전투 시에는 먼저 도착한 보병과 함께 보기 협동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계백의 3영 전체를 4번 공격했는지 3영을 따로따로 한번씩 공격해서 4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험지를 배후에 두고 진을 친 백제군은 험지로부터 측·후방을 보호받을 수 있어¹²⁵⁾ 신라군을 4번이나 이겨냈다고 추정된다. 더불어 신라군은 5월 26일 경주를 출발한 이래 경기도 이천을 거쳐 7월 9일 황산벌에 도착할 때까지 40일이 넘는 긴 행군의 피로가 누적되어 4번씩 패했다. 결국 관창의 죽음을 이용하고, 5만 보병 본대가 다 도착하면서 전열을 정비

122) 합군지점은 사료 D-③는 물론 『자치통감』에도 20리가 안 되는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은 『신당서』의 1속 즉 30리를 근거로 사비로부터 15km가 넘는 강경이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강경은 사비로부터 30리가 넘는 문제도 있지만 작전대기 지점으로 부적절하다. 차후 작전을 고려하면 논산천과 석성천을 지난 북단에서 합류하여야 한다.

123) 이재준, 「백제 기벌포 위치비정에 관하여」, 『북악사론』 18, 2023, 84쪽.

124) 이상훈, 앞의 논문, 2021, 101쪽.

125) 서정석, 앞의 논문, 2010, 21~22쪽.

한 신라군에게 백제는 중과부적¹²⁶⁾으로 무너졌다고 추정된다.

계백이 5,000밖에 안되는 병력을 인솔한 것은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조기 투입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백은 산성이 아닌 황산벌을 결전장으로 선정하여 신라군의 진출을 막고 당군과의 합류를 저지하며, 주력부대가 북방에서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지연전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산성에 진을 쳤다면 신라군은 당군과의 약속기일을 맞추기 위해 산성 견제 부대를 남겨놓고 백제군을 지나쳐 그냥 행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백제가 당군과 벌인 기벌포 전투에 관한 검토이다. 사료 D-②, ③의 키워드¹²⁷⁾로 정리하면 ‘7월 9일 기벌포에 도착한 소정방은 백제군을 지나 [버들자리를 깔고] 좌측(동쪽)으로 하선하여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역으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때마침 조류가 밀려와 보병·기병과 전선이 수륙병진으로 사비도성까지 곧장 달려 20리 못 미치는 지점에 [7월 10일]¹²⁸⁾ 도착하였다’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웅진강구=기벌포로 인식되는 서천 방향으로 상륙했다거나 계화도에 상륙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¹²⁹⁾ 군사학적이라는

126) 사료 D-②에 계백의 관등 달솔보다 상위 직책인 좌평 충상과 상영이 함께 출동했으므로 황산벌에 5,000명이 아니고 계백, 충상, 상영이 각각 5,000씩 인솔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이문기, 앞의 논문, 1998, 282쪽) 관찰을 돌려 보낸 것은 계백이므로 계백이 군령권을 가진 최고 사령관이며 좌평은 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수용하기 어렵다.

127) 상륙과 관련된 키워드는 伐伐浦, 熊津江口, 是日(7월 9일), 20許里, 一舍止, 出, 左涯, 東岸, 乘山而陳, 逆擊, 大敗, 步·騎, 水陸齊陳, 直趣眞都 등이 있다.

128) 구당서에는 20허리로, 신당서에는 30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7월 10일은 소정방이 덕물도에서 태자 범민에게 제시한 시간이다. 그러나 때마침 조류 정황상 7월 9일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129) 서천으로 상륙해서는 부여까지 직선거리가 50여km로 고대 육군이 하루 만에 도착할 수가 없으며 사비도성으로 가기 위해 다시 강을 건너야 하므로 부적절

연구 중엔 서천 기벌포를 지나쳐 군산에 상륙¹³⁰⁾했다거나 또는 옹포지역에 상륙했다고 보기도 한다.¹³¹⁾ 그리고 소정방이 올랐다는 산을 군산 오성산이라고도 한다.¹³²⁾ 하지만 상륙 후 합군 지점까지 단 하루 만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행군거리가 4~5일이 되고¹³³⁾ 사료의 좌안이나 동안 또는 역격 등 사료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웅진강구는 660년 소정방 상륙지점이면서 661년 백제 부흥군 도침이 유인케를 막기 위하여 양책을 세우고 다리로 연결했다는 곳도 웅진강구이다. 이 기사를 분석해보면 기벌포=웅진강구는 역시 서천이 될 수 없다.¹³⁴⁾

하고, 기벌포가 동진강 앞 계화도라고 하지만 금강 입구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 130) 군산으로 상륙한다면(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243~248쪽) 부여까지 거리가 60여km로 서천과 유사하게 하루 만에 부여까지 도착할 수가 없으며, 중간에 산북천 등을 극복하여야 하는 등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131) 옹포지역에 상륙할 경우(남정호, 앞의 논문, 2018, 125쪽 ; 김주성, 「660년 7월 8일간의 전투 재구성」, 『백제문화』 56, 2017, 356쪽) 강경까지 1일 행군거리는 타당할 수 있으나, 합군지점 설정이 잘못되었으며, 좌안(동안)에 부적합하고 소정방이 올라 진을 쳤다는 산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 배치된 백제군 수천을 격멸하였는지 설명이 안 된다.
- 132) 소정방이 올라 지휘했던 산을 오성산(김영관, 앞의 책, 2007, 250쪽)이라고 하지만 오성산은 부여까지 거리가 멀어 교두보로서 부적합하다.
- 133) 군산에서 부여는 60여km, 군산에서 합군지점이라고 주장하는 강경까지는 45km로 고대 군대 1일 행군거리 고려 시 3.75일~5일이 소요된다.
- 134) 661년 2월 [백제부흥군 사령관 도침은] 사비성(백제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부성의 유인원이 꼼짝 못함으로 당 고종이 조서를 내려 유인케를 검교대방주자사로 임명, 편도로 가서 신라병을 발동하여 구하도록 하였다(『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케). [당 조서를 받은] 신라는 대장군 품일이 7~8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유인원 구원에 나섰다. 품일은 중도에 군대를 나누어 두량윤성으로 가게하고 [자신은 유인케와 합류]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유인케는 [품일이 인솔한] 신라병과 함께 웅진강구에서 백제

그러면 상륙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소정방이 전투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자. 바로 이듬해인 661년 소정방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읍산을 탈취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마읍산을 대부분 평양 근교로 추정한다.¹³⁵⁾ 그러한 소정방이 1년 전에 고구려와 같이 강 수로변에 위치한 백제를 공격할 때 서천이나 군산과 같은 금강 입구에 상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구려 침공 시와 유사하게 최대한 사비도성 가까이 상륙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료 D-①과 같이 백제가 급히 군사를 모아 웅진강구에 배치하였다고 할 때 50km가 넘는 서천까지 가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적의 장소는 금강이 논산천과 갈라지는 강경 북쪽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로 추정된다.¹³⁶⁾ 하지만 소정방은 이를 지나쳐 석성천 방향으로 상륙하였다. 이 지역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반도전도」에 이녕(泥瀁) 즉 진흙 벌이 표시되어 있다.¹³⁷⁾ 사료의 좌안(동안)과 일

군을 공격하니 다리가 좁아 싸우다 죽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1만여 명이었다. 도침은 포위를 풀로 임존성을 지켰다(『구당서』 권199, 열전149, 백제).에서 보면 품일은 먼저 군대를 나누어 두량윤성(청양 추정)으로 가게 하고 자신은 유인케와 웅진강구에서 합류하였는데 품일이 금강 입구까지 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침이 포위한 백제부성 지휘를 방기하고 서천 앞바다(웅진강구)까지 갔다고 볼 수 없고, 서천 앞바다에 다리를 놓고 양책을 쳤다고 볼 수 없다. 웅진강구는 서천 앞바다가 될 수 없다.

135) 마읍산은 三國史記에 미상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는 평양 서남쪽으로, 안정복의 東史綱目이나 한치윤의 海東歷史 및 이병도의 역주 삼국사기에도 평양 서쪽 근교라고 되어 있으나 마읍산의 입지 조건으로 평양성과 대동강 하구 사이, 평양성 서남쪽, 수로와 연결된 곳,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곳 등 7가지를 검토한 결과 평양으로부터 약 60여리 이격된 서학산과 정이산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상훈,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202~223쪽).

136) 이 지역은 당군이 수도 사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소이자 진입 불가 시에 논산천으로 이동 신라군과 합군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백제 입장에 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장소이다.

137) 18세기 이중환은 논산의 노성, 연산, 은진과 부여의 석성 등 네 고을의 들판

치한다. 소정방이 올랐다는 산은 앞서 기술한 장군동 전설이 전해지는 파진산으로 추정된다. 파진산에 진을 친 소정방은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 배치된 백제군을 뒤로부터 공격하였다. 이를 사료는 역격(逆擊)¹³⁸⁾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사료 D-③와 같이 마침 조류를 만나¹³⁹⁾ 수륙양면으로 진도성을 향해 달렸다. 상륙 및 전투 시간은 아마도 간조 시간대인 오후 3시 전후한 시간이며, 집결지 도착시간은 만조 시간대인 저녁 9시 이후로 추정된다.¹⁴⁰⁾



여러 곳에 넷물과 골에 배가 통행하는 것은 강경에 조수가 드나들기(이중환(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실제 1934년 조선총독부가 측정한 강경의 평균조위는 썰물 때 -2.0m, 밀물 때에는 +2.0m로 간만의 수위차가 4m인데 큰 사리 때에는 수위차가 이보다 더 컸다(이철성, 「19세기 강경의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 『조선시대사학보』 75, 186쪽).

138) 통상 逆擊의 역을 ‘마주하다’로 보아 배치된 백제군과 맞서 싸웠다고 해석하지만, 병력이 배치된 지역으로 상륙하는 현장 지휘관은 없으며 逆擊은 뒤에서 공격했다는 군사용어로 보아야 한다.

139) 소정방은 백제군을 대파하고 마침 조류를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백제군이 배치된 지역을 통과할 당시는 간조 시간대인 오후 3시 전후한 시간이었을 것(국립해양조사원 : 1300년 전에 해수면 높이는 차이가 있으나 조수 간만 시간은 유사하며 2015년 음력 7월 9일 장항지역 조석예보는 01:44(212m)▼, 07:14(599m)▲, 14:01(182m) ▼, 19:52 (586m)▲이다.

140) 이재준, 앞의 책, 2017, 106쪽.

〈요도 4〉 백제군과 당군의 기벌포(웅진강구) 전투



기벌포(웅진강구)에서의 백제군과 당군의 전투는 요도와 같이 이루어졌다. 요도 판독에 있어 참고해야 할 것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현재 전담으로 보이는 강경 앞의 논산천 일대는 습지 내지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¹⁴¹⁾ 또한 이일대가 바닷물에 잠겼다는 강경역 사문화연구원 연구부장의 증언¹⁴²⁾과 7세기경에는 서해의 해수면 수

141) 논산 강경에서 상습홍수가 있었으며, 침수 기간은 12일, 침수 면적은 6,630여 정보, 피해액은 최고 496,000엔으로 금강 유역 중 최고였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治水及水利踏査書』, 1920, 第2編 第2章 錦江 水害狀況). 이런 이유로 1922년 5월 착고하여 1924년 강경천 제방공사가 있었고(坂上富藏, 『江景事情』, 1928) 1930년대 논산천과 강경천 제방공사가 있었다(이철성, 앞의 논문, 184쪽).

142) 2024년 5월 18일 현지 답사간 평생 교직에 종사했던 김무길 연구부장(1942년생)은 불암산 아래 제방이 없었을 때는 강경 일대는 물론 논산천과 논산까지 바닷물에 잠기곤 했다고 증언하였다.

Map of Gyeongju region showing various landmarks and locations. Key locations include:

- 부소산 (Buseosan)
- 금성산 (Geumseongsan)
- 불암산 (Bulamsan)
- 장암 (Jangam)
- 장하리 (Janghari)
- 후포리 (Hupori)
- 장암면 (Jangam-myeon)
- 사랑리 (Sarangri)
- 사산리 (Sasansan)
- 반조원 (Banjo-won)
- 세도면 (Sedo-myeon)
- 임천면 (Imcheon-myeon)
- 영전리 (Yeongjeonri)
- 능산리 (Nungsanri)
- 오산 (Osan)
- 산막리 (Sammakri)
- 태조봉 (Taeso-bong)
- 정각사 (Jeonggaksan)
- 국수봉 (Gusubong)
- 화여치 (Hwayeochi)
- 산성 (Sanseong)
- 파진산 (Pajinsan)
- 봉두정리 (Bongdujeongri)
- 석성리 (Seokseongri)
- 석선천 (Seokseoncheon)
- 기벌포 (Gibelpo)
- (서포, 포곡리) (Seopo, Pogokri)
- 불암산 (Bulamsan)
- 성동면 (Seongdong-myeon)
- 신암리 (Shinamri)
- 정각리 (Jeonggagri)
- 초촌 (Chochon)
- 노성·연산 (Noseong, Yeonsan)
- 증산리 (Jeungsanri)
- 미당리 (Midangri)
- 광석면 (Gwangseok-myeon)
- 논산 (Nonsan)

Legend:

- 場巖 長巖 (Janggyeong)
- 紗浪 孫梁 (Sallyeong)
- 猪浦 只火浦 (Jip浦)

143) 웅진강이라는 명칭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백제 동성왕 20년에 웅진교(熊津橋)를 가설했다는 기록과 고려 태조 23년(940)에 웅주를 공주로 바꾸고 강의 명칭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⁴⁾ 한편 석성천 일대와 논산시 성동면 일대에도 『삼국유사』에 기벌포를 장암 또는 손량, 지화포라고 한 지명과 유사한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성충의 옥중 서신에 강의 상류라고 칭한¹⁴⁵⁾ 말을 상기하면 기벌포는 서천이 될 수 없고 상류인 석성천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 보면 사료 D-①을 신라군과 당군이 이미 탄현과 백강을 지났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곧 지날 것이라 해석하여야 타당하다. 탄현과 백강은 국경지대가 아닌 도성 가까이¹⁴⁶⁾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⁷⁾ 백제는 탄현과 백강에 신라군과 당군이 얼마 되지 않아 도착할 것을 염려하여 황산에 계백을 내보내고 이어 백강[기벌포]에 병력을 배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기벌포는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로부터 석성천 일대까지로 추정된다. 결국 백제는 황산벌에서 중과부적으로, 기벌포에서는 역격으로 패하고 말았다.

도 ‘웅진강’에서 ‘공주강’으로 바뀌어 불렸다는 기록을 유추해보면 300년 전인 백제시대에 공주 앞을 지나는 강을 웅진강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준, 앞의 논문, 2023, 87쪽).

144) 연구자들은 중국의 강 명칭은 발원지에서 하구까지를 통칭하므로 웅진강구를 서천으로 비정하였으나, 『구당서』 등에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갔다는 표현 등을 볼 때 백제식 강 명칭을 사용했다 추정된다.

14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15년, 成忠臨終上書, “凡用兵 必審擇其地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岬 水軍不使伐浦之岸 舉其險隘以於之…”

146) 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375~378쪽 ; 이재준,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인 연구」, 『군사』 98, 2016(a), 33쪽 ; 이재준, 앞의 논문, 2023, 75~78쪽.

147) 사료 B-③에서 홍수가 탄현과 기벌포에서 양군을 막고 문을 걸어 잠근 후 이들이 지치기를 기다려 공격하라고 한 것을 보면 기벌포와 탄현이 도성 가까운 곳일 수 있다.

V. 사비도성 전투와 의자왕의 항복

사비도성 전투는 7월 10일에서 7월 13일 사이에 백제군과 나당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사료마다 전하는 기록이 상이하여 전투 장소와 전투 정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다. 사료를 망라하여 전투 장소와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보자.

E-①. [나당군 합군 후] 백제의 왕자가 좌평 각가(覺伽)를 시켜 글을 당나라 장수에게 보내 철병을 애걸하였다. 12일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의자의 도성을 둘러싸고 소부리별로 나아갔다. 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나가지 않으므로 유신이 이를 달래 두 군사가 용감하게 네 방향에서 일제히 진격하였다. 백제의 왕자가 상좌평을 시켜 고기로 사용할 가축과 풍부한 선물을 보냈으나 정방은 이것을 물리쳤다. 왕서자인 궁(躬)이 여섯 좌평과 함께 정방을 찾아 용서를 빌었으나 또 거부하였다. 13일에 의자가 측근자들을 데리고 밤에 도망가서 웅진성을 지켰다. 의자의 아들 융(隆)이 대좌평 천복 등과 함께 와서 항복하고 ... 18일에 의자가 태자와 웅진방령의 영군들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¹⁴⁸⁾

E-②. 소정방이 보병·기병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진도성 30리 바깥까지 와서 멈췄다. 우리 군사들이 모조리 나가서 싸우다가 또 패하여 죽은 자가 1만여 명에 달하였고, 당나라 군사는 이긴 기세를 타서 성에 육박하였다. 왕이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한스럽게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하고 드디어 태자 효(孝)를 데리고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 ¹⁴⁹⁾

E-③. 곧장 진도로 나아갔다. 성으로부터 20여 리 떨어진 곳에서 적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해왔지만, 대대적인 전투 끝에 이를 격파하여 죽이거나

14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149)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포로로 잡은 자가 1만여 명이었다. 달아나는 자들을 추격하여 [도성의] 관(郭)으로 진입하니 그 왕 의자와 태자 용은 북쪽 지역으로 달아나고 소정방은 나아가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의자의 차자(次子)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적손인 문사가 말하기를 “왕과 태자께서 비록 성을 빠져나갔으나 몸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숙부께서 병마를 통할하고 함부로 왕이 되시니, 만약 당군이 물러가면 저희 부자는 당연히 [자리를] 보전치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마침내 그 측근들을 거느려 성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태가 제지하지 못했다. 소정방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성에 깃발을 올리도록 하니 이에 태는 문을 열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 대장 예식도 의자를 데리고 와서 항복했으며 용도 못 성주들과 함께 정성을 올렸다.¹⁵⁰⁾

E-④. 진도성 30리까지 다가가 멈추었다. 오랑캐 무리가 다 함께 저항했지만, 격파하여 일만여 급을 참수하고 성을 함락시켰다.¹⁵¹⁾

E-⑤. 도성에서 20여 리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자, 백제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항거하였다. 백제군을 대파하여 1만여 명을 죽였으며, 도망치는 백제 군사를 추격해 성곽 안으로 들어갔다.¹⁵²⁾

E-⑥. 식진(예식)은 당이 천명을 받아 동토를 칠 때 왕이 조정에 없어 [불손] 왕을 끌고 귀의하여 고종황제로부터 좌무위대장군 래원군개국공에 봉해졌다.¹⁵³⁾

요약하면 사비도성 전투는 E-③~⑤까지 중국 측 기록대로 백제군이 총공격으로 1만여 명이 죽고, 신라 측 기록인 E-①과 같이 12일 나당연합군이 의자의 도성을 둘러싸고 소부리벌로 나아가 4방

150) 『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

151)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百濟.

152) 『자치통감』 권200 唐紀16, 顯慶 5年.

153) 「祢仁秀 墓誌銘」 4~5행. “子寔進世官象賢也有唐受命東討不庭卽引其王歸義于高宗皇帝由左武衛大將軍封來遠郡將軍 來遠郡開國公.”

향으로 왕성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때 백제는 협상을 시도하며, 나당군이 성에 육박하자 의자왕은 13일에 웅진성으로 피신하고 사비성은 둘째 아들인 태가 지켰다. 그러나 내분으로 의자왕의 아들 융과 백성들이 성을 나가 항복하고 마침내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18일에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와 항복하면서 백제는 멸망하였다.

이들을 사안별로 살펴보자. 모든 백제군이 공격했다고 하는 장소가 도성으로부터 20리 와 30리로 차이¹⁵⁴⁾가 있다. 이곳은 양군의 합군지점인데 연구자들은 대부분 강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경은 사비도성으로부터 1사(舍)가 넘는 15~17km로 부적합하며 무엇보다 금강과 논산천이 합류하는 금강유역이 당시 4~5km로 추정¹⁵⁵⁾되는 곳이어서 나당군의 차후 사비도성 공격에도 불리하고, 백제군이 모두 나와 나당군을 공격하기도 부적절한 곳이다. 백제군의 총공세 전투는 금강의 분지천인 석성천을 지나서 나성 사이 즉 왕성으로부터 20리 못미치는 지점이 타당하다. 석성면 현내리 일대로 추정된다.

다음은 전투 일자다. 약속 장소인 합군지점에 당군은 7월 9일 야간부터 7월 10일 도착하였을 것이고, 신라군은 7월 11일 도착하였다.

154) 『구당서』 및 『자치통감』은 도성에서 20리가 안 되는 지점이라 하였고, 『신당서』는 30리로, 『백제본기』는 신당서를 그대로 옮겨 30리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전술적으로 논산천과 석성천을 통과한 지역이어야 함을 고려하면 20리가 안 되는 지점이 타당하다.

155) 강경 앞 논산천은 현재와 같은 제방이 없던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 『朝鮮半島全圖』를 보면 넓이가 4~5km로 추정된다. 이처럼 바다와 같은 환경이었기에 강경산 아래 海浦(『신증동국여지승람』 은진현 ; 『湖西邑誌』 (1871) 은진현)라는 지명이 있으며, 부여현 서쪽 7리에 34칸의 海倉이 있었다(『여지도서』 10, 충청도Ⅲ, 夫餘)는 기록이 있다. 100년 전만 해도 위와 같을진대 7세기 당시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1~1.5m 높았다는 연구(신동혁, 「한국 서해안 가로림만 퇴적환경과 홀로세 해수면 변동」,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59쪽)를 고려하면 강경에서 부여를 공격하려면 바다와 다른 없는 4~5km의 논산천을 도하해야 하므로 군사학적으로 양군의 합군지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12일에 나당연합군이 도성을 포위하고 소부리벌로 나가는 E-①의 전투가 벌어진다. 백제군이 총공격했다는 E-③, ④, ⑤의 전투는 E-①의 사비도성 포위 이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전투를 같은 전투로¹⁵⁶⁾ 보기도 한다. 물론 백제군이 곽(郭)으로 도망쳤다는 기사를 보면 포위 전투와 같은 전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신라본기에는 이 전투 관련 기사나 성과가 없다. 백제도 양군이 합군 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당군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사비도성 포위 전투와 백제군의 총공세 전투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라군이 도착하기 전에 7월 10일경 백제군이 당군을 공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이 전투 후에 백제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협상은 당 소정방을 상대로 하고 있다. 나당군의 주도권은 당군이 쥐고 있으며, 당군만 철수하거나 당이 용인해주면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성이 포위되자 의자왕이 태자¹⁵⁷⁾를 데리고 북방성으로 도망¹⁵⁸⁾하였다. 이를 단순한 피신이라기보다는 다른 백제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156)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476쪽 ; 김주성, 앞의 논문, 2017, 358쪽 ; 장학근, 앞의 논문, 2002, 198쪽.

157)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은 모두 북방성으로 도망간 태자를 용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의자왕과 함께 북방성으로 도망간 태자를 효(孝)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용(隆)은 사비성에서 문사와 함께 항복하였다고 한 기사가 타당한 듯하다. 태자가 용인가 효인가 하는 문제는 의자왕 4년에 태자에 책봉된 용이 폐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의자왕이 말년에 대부인 은고의 아들인 효를 후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자왕의 처신으로 정치세력이 분열되어 멸망하였다(윤진석, 「백제 멸망기 ‘태자’문제 보론(補論)」 『북악사론』 15, 2022, 58~61쪽).

158) 『삼국사기』는 走로, 『구당서』는 奔, 『신당서』는 走, 『자치통감』은 逃로 표기되어 모두 “도망갔다”로 해석된다.

수도 있다는 견해¹⁵⁹⁾도 있고, 멸망의 책임을 성충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도망간 용렬한 군주였다고 폄하¹⁶⁰⁾하기도 한다. 그러나 왕이 건재해야 하는 고대 전투에서 멸망한 나라의 군주라고 하여 도망이라고 폄하되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피신한 뒤,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비성 방어를 지휘하며 버텨보고자 했다. 하지만 백제 지배층의 정치적 입장은 문사의 언사처럼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방어에 실패하면 나당연합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정치적 구테타에 협조한 것이 되어 문책당할 것이다. 그래서 용을 포함한 대부분 백성들이 항복해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막지 못한 것은 군사적 실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실책 즉 내부의 혼란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⁶¹⁾ 하지만 용과 문사의 행동은 막바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재는 의욕이 과했던 군사적 실책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다. 『삼국사기』는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방령을 거느리고(率), 『구당서』는 대장 예식이 의자를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2006년과 2010년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 유민 예씨 가족 특히 예인수의 묘지명에서 E-⑥와 같이 웅진방령 예식이 의자왕을 사로잡아 끌고 온 것이 분명하다.¹⁶²⁾

159)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72쪽.

160) 윤진석, 앞의 논문, 2022, 58쪽.

161) 이희진, 「백제의 멸망과정에 나타난 군사상황의 재검토」, 『사학연구』 64, 2001, 23쪽. 하지만 이 글의 맺음말에서 백제의 국론분열이 강조된 이유는 실패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삼국사기』 전반에 흐르는 폄하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백제의 멸망 원인도 내부의 혼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통찰을 통하여 다양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2) 김영관, 「中國 發見 百濟 遺民 祿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24, 2012, 123쪽.

종합하면 백제는 당군이 당진으로 상륙하자 주력을 북방으로 조기 투입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주력부대의 복귀가 있기 전에¹⁶³⁾ 사비성이 함락되었고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주력부대의 복귀를 기대하였으나 중국계 웅진방령 예식의 반란으로 사로 잡혀 의자왕이 사비성으로 끌려와 660년 7월 18일 항복하였다. 황산벌 전투와 웅진구 전투가 벌어진 7월 9일로부터 단 10일 만이었다.

Ⅵ. 백제 부흥군의 항전

의자왕이 항복한 뒤, 8월 2일 신라의 무열왕과 당나라 소정방은 사비성에서 항복례를 받으면서 왕으로 하여금 하단에서 당상의 장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다. 이때 항복례에 참석했던 흑치상지는 의자왕의 굴욕적인 모습과 도륙을 일삼는 현장을 목격하고 좌우 추장 10여 명과 함께 도망하여 예하 풍달군 병력을 이끌고 임존성에서 거병한 복신에게 호응하였다.¹⁶⁴⁾ 열흘이 안 되어 3만이나 되는 병력이 모였다. 이들은 III장에서 검토한 북방으로 조기투입 되었던 백제의 주력부대로 추정된다. 두시원악에서는 좌평 정무가 구마노리성에서는 달솔 여자진이 거병하였다.

소정방은 8월 26일 병력을 보내 임존성의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어 소정방은 의자왕과 귀족·관료·백성 등 12,807명을 데리고 9월 3일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유인원 등 당군 1만 명과 왕자 인태 등 신라군 7천명이 사비성 즉 웅진도독부를 지

163) 박노석, 앞의 논문, 2010, 372쪽.

164) 『자치통감』 권 201, 당기 17, 용삭 3년 조.

키도록 하였다. 신라 무열왕도 삼년산성을 경유하여 경주로 돌아가고 있었다.¹⁶⁵⁾

예산 임존성에서 거병한 3만여 명의 백제 유민들은 당군과 신라군이 점령한 웅진도독부는 물론 당나라와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갔다. 전쟁은 임존성이 함락될 때까지 약 3년 4개월간이나 이어졌고 한때는 백제의 200여 성을 회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¹⁶⁶⁾ 연구자들은 이를 대부분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운동(Demonstration)이 아닌 엄연한 백제 부흥전쟁¹⁶⁷⁾으로 나당연합군에 대한 백제 부흥군의 항전이었다.

백제 부흥군이 수행한 여러 전투¹⁶⁸⁾를 전략적 차원으로 크게 구분해보면 직접전략과 연합전략인데 전자는 2회에 걸친 웅진도독부 직접 공격과 웅진도독부를 고사시키는 3회에 걸친 보급로 차단작전이었다. 후자는 고구려 및 왜와 연합한 연합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작전과 전술의 차이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상황에 부합된 고도의 군사전략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백제 부흥군은 철수 길에 오른 당군이 당에 도착하고 신라군이 금강을 건너 삼년산성에 도착하였을 660년 9월 23일 백제부성

16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 : 12,807명은 『삼국유사』 권1.

166) 『구당서』 권109, 열전53, 흑치상지 : 『자치통감』 권200, 당기17, 용삭3.

167) 전쟁은 2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합동·연합작전 용어집』, 2010, 312쪽)로 정의되고, 왜에서는 661년 9월 풍장이 왜에서 귀국하여 왕이 된 후에는 백제왕으로 표기하여 부흥 백제국을 국가로 인정하였다(『일본서기』, 권27, 천지 원년).

168) 여러 전투는 백제부성 포위공격, 보급로 차단작전, 661년 군영설치 신라군 기습공격, 빈골양/각산 조우전, 임존/이례/왕흥사잠성/거열/거물/사평/덕안성 등 전투 기록은 농성으로, 웅산/우술/지라/운성/대산책/사정책/진현성/내사지성 등은 차단 및 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격을 시작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신라군의 투입 예상 길목인 이례성에 전초부대, 사비남령에 저지부대를 배치하고 백제부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4개 성책을 쌓아 공격하며 군자를 탈취하기도 하였다.¹⁶⁹⁾ 지휘소 내지는 후방지원 본부는 왕흥사 잠성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1일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한 기록을¹⁷⁰⁾ 볼 때 고구려와도 사전에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요도 6〉 1차 백제 부흥군 백제부성 포위공격



부흥군의 공격으로 부성의 당군과 신라군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¹⁷¹⁾ 소식을 들은 무열왕은 회군하여 10월 9일 이례성을 쳐서 18일에 함락시키고 30일에 사비남령을 평정하였으며 11월 7일 왕흥

16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17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7.

1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사 잠성을 함락시켰다. 이 전투에서 부흥군은 약 2,200여 명의 손실이 있었다. 무열왕의 회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9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투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쌍방의 전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무열왕은 경주로 복귀하여 논공행상을 단행했다.¹⁷²⁾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듯하다.

〈요도 7〉 회군한 무열왕과 백제 부흥군 전투



하지만 1차 백제부성 공격 다음해인 661년 1월 부흥군의 복신은 강 동쪽을 침범하였다.¹⁷³⁾ 2월에는 도침과 복신이 백제부성을 포위하고 1차와 달리 사비도성의 나성을 넘어 중부까지 진출하여 운제로 굽어보고 포차를 설치하고 맹공을 퍼부으며 땅굴을 파고들기도 하였다.¹⁷⁴⁾ 이때 신라의 품일과 당의 유인계가 증원되어 오자 부흥군 사령관 도침은 이들의 합류를 막고자 웅진구에

17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7년.

173) 답설인귀서에 의하면 이때 출동한 당군 1천 명이 모두 죽었다.

174) 「당 유인원 기공비」(漸入中部...攻圍留連. 雲梯俯瞰 地道旁通 擊石飛矢 星奔雨落 晝夜連戰 朝夕憑陵...閑然高枕 不與爭鋒...曠日持久).

양책을¹⁷⁵⁾ 설치하고 방어하다가 다리가 좁아 물에 빠지거나 싸우다 죽는 등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임존성으로 퇴각하였다.

〈요도 8〉 2차 백제부성 포위선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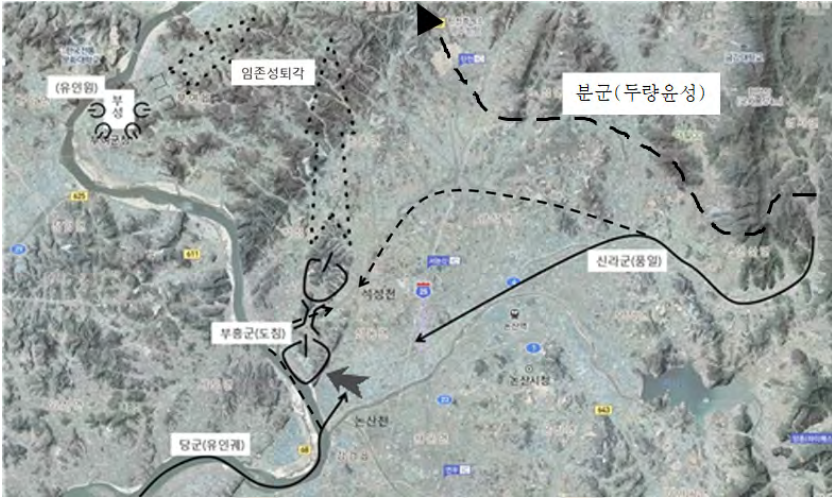


2차 부성 공격에 신라군은 품일 등 장군 11명이 출동하였다. 품일은 3월 5일 중로에 병력을 나누어 먼저 가서 두량윤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본대는 웅진구에서 당의 유인궤와 합세하여 도침의 양책을 격파하고 이어 백제부성의 포위를 풀었다. 12일에 신라군은 고사비성 밖에 진을 설치하고 두량윤성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몇새가 되

175) 웅진구(웅진강구)의 양책은 대부분 금강하구로 보지만 금강 하구에 양책을 다리로 연결할 만한 지역이 있을 수 없고, 백제부성을 포위한 도침이 60km나 되는 서천~군산까지 가서 양군의 합류를 막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라 품일이 선박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포위된 사비성을 방치하고 군산까지 갔다고 볼 수도 없어 웅진구는 금강의 강경과 석성천 사이로 추정한다(이재준, 앞의 논문, 2023, 96~98쪽).

도록 이기지 못하자 4월 19일 군대를 돌려 철수하다가 빈골양에 이르러 백제군을 만나 대패하고 많은 병장기와 군수물자를 잃었다.¹⁷⁶⁾

〈요도 9〉 웅진구(강구) 양책 전투 추정도



5월 9일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군 생해와 함께 신라의 술천성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자 북산산성을 20여 일간 공격하였다.¹⁷⁷⁾ 이 또한 백제 부흥군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차례의 백제부성을 직접 공격한 전략을 평가해 보자. 1차 공격은 나·당군이 백제지역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적정을 파악하고 부성을 포위공격 하였다. 2차 공격에서는 운제와 포차를 운용하는 등 백제 정규군의 전투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당군과 신라군의 증원부대 투입정보를 알고 이들의 합류를 막고자 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조직

17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8년.

17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무열왕 8년(혹은 5월 11일이라고도 한다).

과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고 정보수집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적절한 작전술을 구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은 직접전략인 2차례 백제부성 포위공격에서 전체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1만여 명을 잃었다. 전력이 급격히 약화 되었다. 2만여 부흥군으로 백제부성의 17,000여 나·당군을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직접 공격전략에서 백제부성을 고립시키는 전략, 즉 웅진도독부의 보급로인 운량로를¹⁷⁸⁾ 차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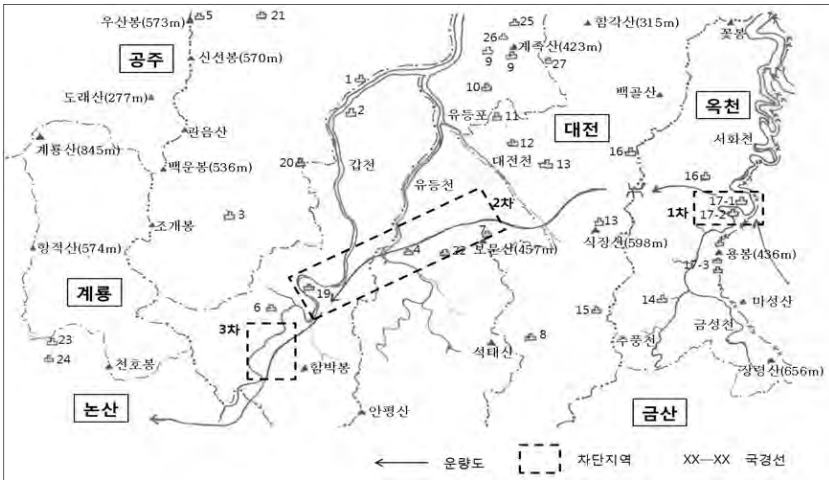
신라에서는 661년 6월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즉위했다.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당군을 돕기 위해 7월 17일 경주를 출발한 김유신이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갔다. 뒤이어 출동한 문무왕이 시이곡정에 도달했을 때 앞에서 부흥군이 웅산성¹⁷⁹⁾에서 길을 막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 백제 부흥군에 의한 1차 보급로 차단작전 이었다.¹⁸⁰⁾

178) 웅진도독부로 군량을 수송하는 길로서 『구당서』에 운량로, 『삼국사기』에 웅진도로 되어 있어 경주에서 공주로 가는 길로 보아왔으나 웅진도독부가 부여 사비성에서 웅진 공주로 옮겨 간 적이 없으므로 웅진도는 경주에서 사비로 가는 길로 보아야 한다(이재준, 앞의 책, 257~274쪽).

179) 웅산성의 위치비정은 노성산성, 계족산성, 회인지역, 보은 등 대부분 금강 주변 여러 산성을 비정하고 있으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국경지대인 옥천군 군서면 지역으로 본다(이재준, 앞의 책 281쪽).

180) 요도에서 1차 차단지역 웅산성은 국경지대로 17-1,2로 서정리/월전리의 서산성으로 추정되며, 2차 차단지역은 19번 진현성은 흑석동 산성이고 4번 사정성 22번 국사봉보루, 7번 모문산성 등은 윤성/대산책으로 추정된다. 3차 차단지역은 6번 봉곡리 산성으로 유성이지역이다. 그 외 번호는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논산시, 『논산향산별전적지』, 현대읍 인쇄사, 2000, pp.126~127쪽 및 성주탁, 「대전부근 古代城址考」, 『백제연구』 5, 1974, 9쪽 및 심정보, 「대전의 고대산성」, 『백제연구』 20, 1989 224~225쪽 참조하여 제작성하였다.

〈요도 10〉 1,2,3차 운량도 차단지역 추정도



이에 문무왕은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갔던 김유신을 불러내려, 9월 25일 웅산성을 공격하여 27일에 수천 명을 참수하고, 품일이 우술성을 공격하여 천여 명을 참수하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은 고구려로 진격하지 않고 웅현성을 쌓았고, 당나라 사신이 경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9일 경주로 돌아왔다.¹⁸¹⁾ 운량도가 개통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평양으로의 군량 공급 때문에 노약자로 출발시킨 군량수송부대가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고 12월에 또다시 웅진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보고 되었다.¹⁸²⁾

백제 부흥군이 2차로 흑석동 산성인 진현성을 비롯한 5개 성을 점거하고 경주로부터 웅진도독부로의 군량수송을 차단한 것이다. 부흥군의 차단작전은 성공적이어서 백제부성의 식량난이 심해졌고 당

18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18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11, 답설인귀서.

고종은 “신라에 가서 의탁하던지 아니면 돌아오라.”는 칙서를 내릴 정도였다. 이를 알아차린 복신은 “대사 등은 언제 돌아갈 것인지 돌아간다면 마땅히 전송해 주겠노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당군은 고종의 칙서대로 대부분 서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백제부성의 유인케는 ‘함부로 움직이면 불귀의 객이 된다. 적당한 기회를 틈타 공취하면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다.’하면서,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 662년 7월 지라성 등 4개 성과 진현성¹⁸³⁾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운량로를 개통하였다.

하지만 부흥군들은 3차로 내사지성에¹⁸⁴⁾ 다시 모여 운량로를 차단하였다. 사료에는 작악(作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662년 8월 신라는 19명의 장군¹⁸⁵⁾을 투입하여 내사지성을 공격하였다. 성의 규모가 작는데 37,000여 명을 투입한 것은 백제군의 작악이 신라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 보면 백제 부흥군은 661년 3월 2차 백제부성 포위공격 때 웅진구 양책에서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력이 약화되자 직접 전략에서 경주로부터 사비로 이어지는 운량도에 대한 공격 즉 보급로 차단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운량로 차단작전은 3차로 구분되어 진다. 1차 차단지역은 웅산성과 우술성으로 국경지대로 추정되며, 2차 차단지역은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책, 진현성 등 중심 깊게 내륙

183)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용삭2년, 진현성 외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책 등으로 진현성은 흑석동 산성으로, 사정책은 사정동 평창부락 뒤산으로 비정하며 웅진의 동쪽 대전 부근에 분포된 것으로 추정한다(이재준, 앞의 책, 287~291쪽).

184)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에 奴斯只縣은 현 유성이며, 심정보는 월평동산성으로 비정하고 성주택은 구성리 산성으로 비정한 바 진현성과의 축선 고려시 구성리 산성으로 추정한다.

185) 장군 1인당 1,500명을 계산하면 28,500명이 되고 전투근무지원부대 30%를 계산하면 8,500명으로 총합 37,050명이 된다(이상훈, 앞의 책, 2012, 302쪽).

으로 중첩 배치하였다. 3차 차단지역은 사비성과 가까운 내사지성이다. 1, 2, 3차 차단지역 모두 국경지대로부터 사비에 이르는 순서대로이며 요충지 길목이었다. 이들 지역선정 결과를 볼 때 수준 높은 전략을 구사했음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다음은 부흥군이 수행한 연합전략이다. 나당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던 부흥군 지휘부에 내분이 일어났다. 풍왕이 복신을 처형한 것이다. 복신은 부흥군 거병의 핵심이면서 각종 전투에서 승리한 훌륭한 장수였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당과 신라가 대대적인 백제 부흥군 토벌에 나섰다.

당에서는 손인사가 170척의 전함에 7,000명의 증원군을 태우고 서해를 건너왔으며, 신라는 7월 17일 문무왕과 김유신 등 장군 28명(혹은 30명)이 경주에서 출발하였다. 수군을 제외하더라도 웅진도독부의 유인원 등 1만여 명을 합하면 6만 2천 명이나 된다.¹⁸⁶⁾ 나당연합군이 총동원되고 백제 부흥군 소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때 누군가가 주류성 공격에 앞서 수륙의 요충지인 가림성을 먼저 공격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유인원은 “가림성은 험하고 견고하니 주류성을 먼저 공격하느니만 못하다. 주류성을 함락시키면 못성들은 저절로 떨어질 것이라” 하여 주류성을 직접 공격하기로 하였다.¹⁸⁷⁾

186) 웅진도독부 당군 1만, 신라군 7천, 문무왕 등 28~30 장군 4만5천 도합 6만2천으로 추정된다.

187) 『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원(於是諸將會議 或曰“加林城水陸之衝 請先擊之” 仁軌曰“加林城險固 急攻則傷損戰士 固守則用日持久 不如先攻周留城 周留 賊之巢穴 羣兇所聚 除惡務本 須拔其源 若剋周留 則諸城自下”) : 가림성은 부여군 임천면에 소재한 성으로 사비도성에서 금강을 건너야 한다. 즉 가림성은 주류성을 향한 공격로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금강을 도하 했으니 가림성부터 공격하자는 제안이었다. 분석하면 주류성은 금강 이북 충남지역에 위치함이 타당하며 전북 부안은 될 수 없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이를 알아차린 풍왕도 고구려와 왜(일본)에게 구원을 요청한 듯하다. 백제 부흥군도 연합전략을 맞선 것이다. 고구려 지원병으로 추정되는 수군은 서해에서 당 손인사에게 격멸되었다.¹⁸⁸⁾ 일본에서는 장수 노원군신이 건아 1만여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다.¹⁸⁹⁾ 백제와 왜의 연합군과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강구에서 대접전을 벌였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 벌어졌다.

유인케가 인솔하는 170척으로부터 군량수송 지원을 받은 육군은 8월 17일 주류성을 포위하였다.¹⁹⁰⁾ 당의 유인케는 170척의 전선으로 백강구를 봉쇄하였다.¹⁹¹⁾ 백제의 풍왕은 8월 13일 주류성을 나와 백촌에서 왜의 지원군을 기다렸다. 8월 27일에 먼저 도착한 왜의 선발대가 당수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8월 28일에 왜의 본대가 도착하자 기상을 고려하지 않고 대오가 흐트러진 중군(中軍)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당의 170척 전선이 왜의 400척 전선을 에워싸고 공격하자 왜의 선박은 뱃머리를 돌릴 틈도 없이 모두 불에 타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치솟았으며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²⁾

188) 『구당서』 권199, 열전149, 백제(扶餘豐...掩殺福信又遣使 往高麗及倭國請兵以拒官軍 孫仁師中路迎擊 破之).

189) 풍왕이 주류성에서 전한 말에 의하면 1만여 명이다. 하지만 『일본서기』에 1만여 명 출발 기사는 없다. 이에 663년 3월에 27,000여 명이 신라를 치도록 했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이들 중 1만 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삼국사기』 답 설인 귀서에 왜선 1,000척이 백사에 정박했다는 기사를 근거로 백강구에 27,000명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190)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8월 13일 두솔성에 이르러 항복시켰다는 기사가 주류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풍왕이 8월 13일 주류성에서 나오고 8월 17일 주류성을 포위했다는 『일본서기』 기록이 타당한 듯하다.

191)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192) 『일본서기』 권27, 천지2년. ;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요도 11〉 백강구 1일차 및 2일차 전투 추정도



나·당의 육군은 백제 부흥군의 근거지 주류성(周留城)을 주요 목표로 공격하였으며, 왜군은 주류성을 구하기 위해 백강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당 수군이 먼저 백강구를 봉쇄함으로써 백강구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백강구 전투가 왜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되고 풍왕마저 고구려로 피신하게 되자 주류성은 고립무원 상황에서 9월 7일 함락되고 말았다.¹⁹³⁾

주류성 함락 후 나당군의 공격을 임존성은 한 달간이나 버텼다. 10월 21일까지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자 김유신은 군대를 돌려 11월 경주에 도착하였다.¹⁹⁴⁾ 신라군이 돌아간 뒤에 임존성의 후치상지와

193) 『일본서기』 권27, 천지2년.

194) 김유신 열전은 한 달간 임존성을 공격하다 11월 20일 경주에 도착했다고 했는

사타상여가 당군에 투항하였다. 당의 유인케는 흑치상지와 사타상여에게 병력을 주어 임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끝까지 임존성을 지키던 지수신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¹⁹⁵⁾ 이처럼 663년 11월에 임존성마저 함락됨으로서 백제 부흥군이 연합전략으로 맞선 항전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VII. 맺음말

백제와 신라는 120년간의 나제동맹을 깨고 약 107년간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신라는 십수 년의 노력으로 백제 병탄을 위한 나당동맹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동맹의 실상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 당과 신라의 목적이 서로 달랐고, 1984년 출토된 금석문에서 소정방의 직함이 계림도행군대총관 이었던 점 등 당이 신라까지 점령하려 했던 속내를 숨긴 명목상의 동맹이었다.

소정방은 660년 5만 신라 군사를 경기도 이천까지 그리고 다시 목표지역인 부여까지 약 40일 동안 행군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라가 각 지역의 동원체제를 점검하거나 백제를 기만 또는 고구려를 견제한 조치라고 보지만 당군에 의한 신라군 힘 빼기 전략이었다.

신라군이 경기도 이천에서 부여로 남하 행군하는 20일 동안 당군의 행적을 후대사료와 금석문, 전설 등을 토대로 군사적으로 검토한

데 문무왕 3년 조는 10월 21일부터 공격하여 11월 4일 설리정에 왔다고 하였다. 동계기간임을 고려하면 11월 20일 경주 도착이 타당하고 임존성에서 경주까지 약 한 달 소요됨을 고려하면 10월 21일부터가 아닌 10월 21일까지로 사료를 재해석해야 한다(이재준, 앞의 책, 338~339쪽).

195)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용삭3년.

결과 당군은 우선 덕물도에서 소래산까지 해상 차단부대를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신라 병마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후속하던 유인케의 군량선이 풍랑에 침몰하여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군은 당진에 있는 백제군 수군 창고를 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였다. 이후 예산 대술면 및 공주 유구읍 탑곡리까지 백제군을 속이기 위한 기동을 하였다. 이는 양공작전이자 기만전략이었다. 이후 보령에서는 금석문에서 확인된 가림도 행군총관 시철위가 인솔하는 조공부대를 청양-부여 방향으로 투입하였다. 서천 앞바다에 도착한 당군은 주력부대[본대]가 금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천과 군산 양안을 확보한 후 본대가 금강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백제군 병력 규모는 최소 6만에서 10만 명까지 추정된다. 그런데 사료에서는 황산벌과 기벌포 전투 그리고 사비도성 전투에서 3만 명 정도만 확인된다. 나머지 3만 명은 행적이 없다. 추정컨대 백제는 신라가 북상할 때 병력을 동원하여 어디엔가 집결시키고 있었다. 집결된 주력부대를 놓고 백제 조정은 신라를 먼저 칠 것인지 아니면 당군을 먼저 칠 것인지를 토의 했다. 그런데 당군이 백제 수군 창고를 탈취하고 공주-부여 방면으로 기동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투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후일 백제 부흥군이¹⁹⁶⁾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탄현과 백강을 지났다는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계백을 황산에 내보냈다. 황산벌이 논산시 연산면 일대로 부여에서 약 26km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소식을 들은 시간은 2~3일 전인 7월 6~7일로 이보다 앞서 탄현과 백강을 지났어야 한다. 그런데 당군이 7월 9일 기벌포[웅진강구] 전투가 있었다. 이미 지났다는 해

196)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68쪽. ; 박노석, 앞의 논문, 369쪽. ; 이재준, 앞의 책, 68~72쪽.

석은 곧 지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타당하다. 따라서 탄현을 국경지대인 마도령으로, 백강[웅진강구=기벌포]을 강 입구인 서천 일대로 비정할 수가 없다. 검토 결과 기벌포=웅진강구는 강경을 지난 논산시 성동면 불암산 일대로부터 석성천 일대까지가 타당하다. 소정방은 석성천으로 상륙하여 파진산에 올라 진을 치고 불암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백제군을 역으로 공격하여 대패시켰다. 한편 계백은 당군과 신라군의 합군을 막고 북방에 투입되었던 주력부대의 복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산성이 아닌 평원광야에서 5만 신라군과 지연전을 시도하여 4번 싸워 이겼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였다. 황산벌 3영의 위치는 신라군이 당군과 합군을 약속한 도성남쪽, 석성면 현내리 일대로의 기동을 막기 위한 연산천 삼거리 길목으로 추정하였다.

사비도성 전투는 7월 10일부터 13일에 벌어졌다. 백제는 당군이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전 병력을 동원하여 당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로 약 1만여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11일 신라군이 도착하였고 12일 나당연합군이 사비도성을 포위해 오자 백제는 당나라 장수에게 철병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협상 시도가 무산되고 나당군이 압박해오자 의자왕은 태자 효를 데리고 웅진성으로 피신하였다. 둘째인 태가 사비성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용과 문사 등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성을 넘어 항복하면서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18일에는 북방에 투입된 주력부대의 귀환을 기다리며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이 웅진방령 예식의 반란으로 사로잡혀 사비성으로 끌려와 항복하였다.

백제 멸망의 주요 원인은 의자왕 말년의 정치적인 문란, 외교 정책의 실책, 지도층의 내분 등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군과 신라군이 북방에서 합류할 것처럼 보이고 당군이 당진의 백제 수군창고를 공격하고 예산 공주 방면으로 기동하

자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투입 시키는 과오를 범한데 있다고 추정된다. 결국 주력부대의 조기 투입은 성충과 홍수가 지목한 기벌포와 탄현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비록 의자왕은 항복하였으나 북방에 투입되었던 백제군과 백제 유민들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흥전쟁을 이어갔다. 663년 11월 임존성이 함락될 때까지 3년 4개월 간 부흥군은 2차례에 걸쳐 백제부성을 직접공격하였으며 전력이 약화되자 백제부성인 웅진도독부를 고립시키는 보급로 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나당의 총공세에 부흥군도 왜와 고구려에 병력지원을 요청하는 연합전략을 계획하여 동아시아의 최초 국제해전인 백강구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후 주류성과 임존성마저 함락당했다. 결국 백제는 663년 11월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백제 멸망은 계백장군의 5,000 결사대 전투 외에 어떠한 전투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황산벌에서 5,000 결사대가 5만의 신라군과 대결하여 4번씩이나 이겼던 투혼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는 18만이나 되는 나당연합군과 당당히 싸우고자 주력부대를 북방으로 투입 시켰다. 그리고 당군의 기만작전이었음을 알고 복귀 중에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알게 되자 예산 임존성에서 거병하여 3년 4개월간 나·당군과 전쟁을 이어갔다. 고대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지속했다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기만전략[양공작전]에 속아 주력부대를 조기 투입하는 과오를 범했지만 황산벌 전투, 웅진구 전투, 1,2차 백제부성[웅진도독부] 포위공격, 1,2,3차 보급로 차단작전, 백강구 해전[전투] 등은 군사사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666~667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 이민수

666~667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이 민 수*

- I. 머리말
- II. 666년 당의 고구려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 III. 667년 고구려-당의 공방전과 전선의 고착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666~668년에 전개된 3차 고구려-당 전쟁은 고구려가 멸망한 전쟁으로 고구려 역사상 가장 장기적으로 전개된 만큼 그 전투 양상도 치열했다. 또한 신라-당 전쟁의 초입으로 향하는 입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¹⁾.

*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池内宏, 『滿鮮史研究(上世 第2策)』, 吉川弘文館. 1960, 247~294쪽 ;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해안, 2001, 286~292쪽 ;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

특히 최근 2020년대에 들어 남생과 고구려 성곽방어체제의 붕괴²⁾, 고구려-당의 전투³⁾, 고구려-신라 전투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전되었다. 이 연구들은 666~668년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부터 전면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복원 시도를 통해 새롭게 재조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종래의 고구려군-당군 교전에 집중된 논의를 신라군과의 교전으로 환기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복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기본 사료의 부족과 소략으로 인한 전황의 공백, 사서 기록 사이의 불일치가 거론되기도 했다.⁵⁾ 이러한 근본적인 한

다출판사, 2003, 283~309쪽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14~220쪽 ; 鄭媛朱, 「高句麗滅亡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 2013, 270~278쪽 ; 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2.

2) 오진석, 「연남생 투항 이후 고구려 서북부 성곽방어체제의 붕괴과정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122, 2021.

3) 김강훈,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高定問」, 『歷史教育論集』 65, 2017 ; 이민수, 「李他仁의 唐 投降과 扶餘城의 高句麗 復國運動 鎮壓에 대한 分析」, 『역사와 경계』 106, 2018 ; 徐榮教,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 2021 ; 徐榮教,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a) ; 徐榮教, 「高句麗 最後의 戰爭」, 『歷史學報』 254, 2022(b) ; 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 정원주, 「666년~668년 전쟁에서 淵男生의 嚮導 역할에 대한 考察」, 『역사와 담론』 107, 2023 ; 임진수, 「667~668년 당의 공격과 고구려의 대응 - 압록강 전선의 전투 양상을 중심으로 -」, 『東洋學』 97, 2024.

4) 김병곤, 「668년 고구려 멸망시 蛇川原戰의 재구성 및 의의」, 『高句麗渤海研究』 46, 2013 ;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軍史』 104, 2017 ; 이상훈, 「668년 신라군 선발대의 진군로와 그 의미」, 『大丘史學』 133, 2018 (b) ;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 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

5) 임기환, 앞의 논문, 2022, 46~47쪽.

계로 인해 고구려 최후의 전쟁 연구는 여전히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666~668년 고구려 전쟁을 전부 논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666~667년으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약 2년에 걸친 장기전인 만큼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 부여성 전투의 패전을 기점으로 전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졌다. 또한 신라군의 본격적인 참전도 668년이기 때문에 이전의 666~667년 전쟁과 분리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와 기존에 알려진 사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반하여 실상에 근접한 전황의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유관 사료의 대부분은 당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전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사료를 분석할 때, 고구려를 주어로 치환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고구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범위인 666~667년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전쟁의 전제이기도 하다. 본고가 고구려 멸망 과정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Ⅱ. 666년 당의 고구려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A군은 666년 6월 고구려에서 동생들로부터 축출된 남생이 당에게 아들 현성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하자, 고종이 구원군을 편성한 사료이다.

A-①. [666] 6월 임인(7일)에 우효위대장군 글필하력을 요동도안무대사(遼東道安撫大使)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게 하고, 헌성을 우무위장군(右武衛將軍)으로 삼아서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 또 금오위장군(金吾衛將軍) 방동선(龐同善)과 영주도독(營州都督) 고간(高侃)을 행군총관(行軍總管)으로 삼아서 함께 고려를 토벌하게 하였다.⁶⁾

A-②. 乾封 원년(666) ...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대신하여 막리지가 되었는데, 남건·남산 두 아우가 있어 서로 사이가 나빴다. 남생이 국내성을 점거하고 아들 헌성을 보내어 입조하여 구원을 청하니, 개소문의 아우 정토(淨土)도 역시 땅을 베어 항복할 것을 청해 왔다. 이에 조서를 내려 글필하력을 요동안무대사로 삼고, 좌금오위장군 방동선과 영주도독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삼는 한편,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설인귀(薛仁貴)와 좌감문장군(左監門將軍) 이근행(李謹行)을 후속 부대로 떠나보냈다.⁷⁾

A-①에 의하면 666년 6월 7일 고종은 남생을 구원하기 위해 글필하력을 요동도안무대사, 방동선과 고간을 행군총관, 헌성을 향도로 삼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그리고 A-②에 의하면 이때 이들 외에도 설인귀와 이근행을 후속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남생이 국내성에 주둔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 즉, 남생은 국내성에서 남건과 내전을 전개하면서 헌성을 당에 파견한 것이다. 아래 B군은 남생 구원군과 고구려군의 첫 교전에 대한 기사이다.

6)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6월, “壬寅 以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遼東道安撫大使 將兵救之 以獻誠爲右武衛將軍 使爲鄉導 又以右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侃爲行軍總管 同討高麗.”

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乾封 元年 藏遣子男福從天子封泰山 還而蓋蘇文死 子男生代爲莫離支 有弟男建·男產相怨 男生據國內城 遣子獻誠入朝求救 蓋蘇文弟淨土亦請割地降 乃詔契苾何力爲遼東道安撫大使 左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爲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左監門將軍李謹行殿而行.”

B-①. (666) 9월, 방동선(龐同善) 등이 고려(高麗)와 더불어 싸워 그들을 패배시켰다.⁸⁾

B-②. (666) 9월, (방)동선이 고려의 군대를 깨뜨리자, 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합류했다. [고종이] 조서(詔書)를 내려 남생에게 특진(特進) 요동대도독(遼東大都督) 겸 평양도안무대사(平壤道安撫大使)를 제수하고, 현도군공(玄菟郡公)에 봉하였다.⁹⁾

B-③. 건봉(乾封) 초 고려의 대장 천남생(泉男生)이 무리를 거느리고 내부하자, 고종이 장군 방동선과 고간 등을 보내 그를 영접하게 하였으나, 아우 남건(男建)이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동선(同善) 등을 공격하였다. 조서를 내려 인귀(仁貴)가 군대를 거느리고 후원하였다.¹⁰⁾

B-④. 건봉 초에 고려의 천남생이 내부하자, 장군 방동선과 고간을 보내 가게 하여 [남생을] 위납(慰納)하게 하였는데, 아우 남건이 국인을 거느리고 굳게 지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서를 내려 인귀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동선을 후원하게 하여 [고구려군을] 쫓아버렸다.¹¹⁾

B-⑤. (666) 9월, 방동선이 고려의 군대를 대파하자, 천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동선 등과 더불어 합하였다. [고종이] 조서를 내림으로써 남생을 특진·요동대도독 겸 평양도안무대사를 삼고 현도군공에 봉하였다.¹²⁾

B-②, ⑤에 의하면 666년 9월 방동선이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로 인해 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합류하였으며, 고종이 조

8) 『신당서』 권3, 본기3, 高宗 乾封 원년 9월, “龐同善及高麗戰 敗之.”

9)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九月 同善破高麗兵 男生率師來會 詔拜男生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 封玄菟郡公.”

10)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乾封初 高麗大將泉男生率衆內附 高宗遣將軍龐同善 高侃等迎接之男生弟男建率國人逆擊同善等 詔仁貴統兵爲後援.”

11) 『신당서』 권111, 열전36, 薛仁貴, “乾封初 高麗泉男生內附 遣將軍龐同善·高侃往慰納 弟男建率國人拒弗納 乃詔仁貴率師援送同善.”

1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9월, “龐同善大破高麗兵 泉男生帥衆與同善合 詔以男生爲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 封玄菟郡公.”

서를 내려 남생에게 특진·요동대도독 겸 평양도안무대사를 제수하고, 현도군공을 책봉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남생묘지」에 의하면 남생이 고종으로부터 요동대도독과 현도군공에 책봉된 시기가 다르다. 「천남생묘지」를 살펴보자.

C. 건봉(乾封) 원년(666)에 공이 또 아들 헌성(獻誠)을 보내 입조시켰다. 황제께서 가상히 여기고 멀리서 공을 특진(特進)에 배수하고 태대형(太대兄)은 예전과 같이 하였으며, 평양도행군대총관(平壤道行軍大總管) 겸 사지절안무대사(使持節按撫大使)로서 본국의 군대를 이끌고 대총관(大總管) 글필하력(契苾何力) 등과 함께 서로 경략하게 하였다. 공은 국내성(國內城) 등 6성의 10여 만호를 이끌고 호적 문서를 원문(轅門)에 바쳤다. 또 목저성(木底城) 등 3성이 황제의 교화를 바라며 아울러 귀순하였다. 작고 위태로운 무리들이 나날이 궁박해지고 다달이 위축되었다. [건봉] 2년(667)에 조칙을 받들어 공이 입조하였다. 총장(總章) 원년(668)에 [천남생에게] 사지절요동대도독(使持節遼東大都督) 상주국(上柱國) 현도군개국공(玄菟郡開國公)과 식읍 2천호에 봉하였으며, 나머지 관은 예전과 같게 하였다.¹³⁾

C에 의하면 남생은 B-②, ⑤에서 666년 9월에 요동대도독 현도군공에 책봉된 것으로 전하는 것과 달리 668년에 책봉된 것으로 전한다. B-②, ⑤는 여러 시기 사건들의 경과를 선후관계만으로 정리한 것으로 즉, 시간 구분 없이 발생한 사건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두어 9월 기

13) 「泉男生墓誌」, “乾封元年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대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 兼使持節按撫大使 領本蕃兵 共大總管契苾何力等 相知經略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 書籍轅門 又有木底等三城 希風共款 藁尔危矣 日窮月蹙 二年奉勅追公入朝 總章 元年 授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菟郡開國公 食邑二千戶 餘官如故.” 이와 유사한 기사로,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鉤七事.”가 참고된다.

사에 모두 함축해 기록한 것이다.¹⁴⁾ 그렇다면 남생과 방동선의 합류 역시 666년 9월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B-①은 B-②, ⑤와 달리 666년 9월에 발발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건들을 함축적으로 전하지 않으며, 오직 방동선이 9월에 고구려군과 전투를 전개하여 승리한 사안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B-③, ④는 666년 9월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B-③에 의하면 고종이 방동선과 고간 등을 보내 남생을 영접하게 하였으나, 남건이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방동선 등을 공격하여 설 인귀가 군대를 거느리고 후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B-④에 의하면 고종이 방동선과 고간에게 남생을 위무하며 들이게 하였으나, 남건이 굳게 지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안만 전하고 있다. 즉, 방동선과 고구려군의 전투만 666년 9월에 발발했으며, 남생과의 합류와 남생의 책봉은 다른 시기에 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군에는 방동선과 고구려군이 첫 전투를 치른 전장이 전하지 않는다.¹⁵⁾ 다만, 방동선 등 당군이 국내성에 주둔하던 남생을¹⁶⁾ 구원하고자 한다면, 육로로 고구려에 왔을 것이다. 이는 당시 당군의 편성에 영주도독 고간은 물론 주로 육지에서 활약했던 장수들이

14) 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1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23, 65쪽.

15) 666년 9월 당군이 요수를 건넜다는 견해가 있으나(노태돈, 앞의 책, 1999, 224쪽 ; 임진수, 앞의 논문, 2024, 46~47쪽), 사료에는 당군이 요수를 건넜다는 기사가 전하지 않는다.

16) 당시 남생의 주둔지에 대해 『泉男生墓誌』의 “飭躬玄菟之城”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현도성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으나(김용만, 앞의 책, 2003, 286~287쪽 ; 정원주, 「男生の失脚 배경과 그의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326~327쪽 ; 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2~63쪽 ; 오진석, 앞의 논문, 2021, 73쪽), 해당 구절은 지명은 특정 지명을 가리키기 보다는 고구려 영역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기환, 위의 논문, 2022, 52~53쪽).

포진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612년 고구려-수 양군의 첫 격전지가 요수였으며,¹⁷⁾ 645년에도 당군이 요수(遼水)를 경유하여 현도성을 공격한 사례가 주목된다.¹⁸⁾ 그렇다면 방동선의 당군 역시 고구려군과 요수 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D군이 주목된다.

D-①. 건봉(乾封) 원년(元年, 666), 또 요동도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總管) 겸 안무대사(安撫大使)가 되었다. 고려(高麗)의 무리 15만이 요수(遼水)에 주둔해 있었으며, 또 말갈(靺鞨) 수만 명이 남소성(南蘇城)에 웅거해 있었다. 하력(何力)은 힘써 공격해, 모두 크게 깨뜨리고 목을 벤 것이 만 여급이었다. 승리한 기세를 타고 진격해 7개 성을 함락했다.¹⁹⁾

D-②. 얼마 지나지 않아 개소문(蓋蘇文)이 죽자, 남생(男生)이 동생들에게 쫓기는 바가 되어 아들을 보내 궤(闕)에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하력을 요동도행군대총관·안무대사로 삼아 이적(李勣)을 돕게 하여 함께 고려에 나아가게 하였다. 적(勣)이 이미 신성(新城)을 함락하고, 하력(何力)에게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이때 고려의 군사 15만 무리가 요수(遼水)에 주둔하였으며, 말갈(靺鞨)의 수만 무리를 끌어들이어 남소성(南蘇城)에 웅거하자, 하력이 분격(奮擊)하여 그들을 깨뜨리고 만 급의 머리를 베고, 승세를 타고 나아가 8개 성을 함락하였다.²⁰⁾

17) 『자치통감』 권181, 수기5, 煬皇帝 大業 8년 3월, “癸巳 上始御師 進至遼水 衆軍總會 臨水爲大陳 高麗兵阻水拒守 隋兵不得濟.”

18)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3·4월, “李世勣軍發柳城 多張形勢 若出懷遠鎮者 而潛師北趣甬道 出高麗不意 夏 四月 戊戌朔 世勣自通定濟遼水 至玄菟.”

19) 『구당서』 권109, 열전59, 契苾何力, “乾封 元年 又爲遼東道行軍大總管 兼安撫大使 高麗有衆十五萬 屯於遼水 又引靺鞨數萬據南蘇城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

20)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契苾何力, “時高麗兵十五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 破之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D-③. 건봉 원년 또 [글필하력을] 요동도행군대총관겸 안무대사로 삼았는데, 고려(高麗)의 15만 무리가 있어 요수에 주둔하였다. 또 말갈의 수만 명을 끌어들이어 남소성에 웅거하게 하자, 하력이 분격하여 그들을 모두 크게 깨뜨려서 만여급을 베었다, 승세를 타고 나아가 무릇 7개성을 함락하고 이에 군대를 돌렸다.²¹⁾

D군에 의하면 고구려는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시켰다고 한다. D-①, ③에서는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한 시점을 666년으로 기술한 것과 달리 D-②에서는 신성 함락 이후로 기술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성의 함락 시기는 『자치통감』에 의하면 667년 9월 14일²²⁾로 확인되므로 D-②에 착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군의 진군로는 서쪽에서 동진하는 것으로 요수→신성→남소성이기 때문에 신성 함락 후에 다시 서진하여 요수에 주둔한 15만 대군과 대치한다는 것은 진군로상 성립하기 어렵다.²³⁾ 고구려 역시 신성이 함락되었다면 15만 대군을 굳이 신성의 서쪽인 요

21) 『책부원귀』 권358, 將帥部19, 立功11, “乾封元年 又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高麗有衆十五萬屯於遼水 又引靺鞨數萬 據南蘇城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乃廻軍.”

2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辛未 李勣拔高麗之新城 使契苾何力守之 勣初度遼 謂諸將曰. “新城 高麗西邊要害 不先得之 餘城未易取也 遂攻之 城人師夫仇等縛城主開門降 降 勣引兵進擊 一十六城皆下之.”

23) 물론 이적이 新城을 공략한 7개월 동안 글필하력이 요수에 주둔한 고구려의 15만 대군과 남소성의 수만 명 말갈 병력을 격파하고 남소, 목저, 창암, 3개 성을 함락하여 고구려의 신성 구원을 차단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3쪽). 그러나 신성에서의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남건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신성을 구원하지 않고 요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사건의 전후관계만이 아니라 군사 전략상으로도 무리한 추정이다. 한편, 이적군이 고구려 신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요수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직면했다면 2월에 신성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남건군 15만 명의 요수 주둔 사건은 667년으로 보기 어렵다(정원주, 앞의 논문, 2023, 67쪽 각주 41).

수에 주둔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대군을 주둔한 시점은 666년으로 기술한 D-①, ③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66년 당시 당군은 6월에 남생 구원군 출병, 10월 (혹 11·12월)에 본격적인 침공군 출병으로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만일 당군의 2차 출병 때 고구려의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였다면 당군의 요수 도하를 저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시킨 시점은 666년 9월경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⁴⁾ 따라서 666년 9월 고구려군이 방동선 군으로부터 패배한 전장은 요수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²⁵⁾

다음으로 B-①, ③, ④와 D-①, ③을 종합하여 666년 9월에 전개된 전투를 재구성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생이 보낸 현성이 666년 5월 말에 당에 입조하였으며, 6월 7일 고종은 남생 구원군을 편성하여 남생을 구원하게 하였다. 666년경 대막리지로서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한 남건은 당의 이러한 동향을 최소한 7월경에는 접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666년 9월경 고구려의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여 당군의 도하를 저지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남건이 15만 병력을 편성하고 요수까지 출병하는 이동거리와 시간을 고려한다면 9월경에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²⁶⁾

24) 남건이 직접 국민들과 함께 15만 병력을 편성하여 요수에 주둔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당군의 요수 도하를 저지하여 고구려 내지 진입 및 남생과의 접촉을 차단, 둘째, 당군에게 15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세를 통해 고구려의 견제와 위용을 과시, 셋째, 국내성 일대에 주둔 중인 남생 세력 압박, 넷째, 내전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국론 결집 및 새로운 대막리지로서의 입지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5) 정원주, 위의 논문, 2023, 65~67쪽.

26) 羅棟煜은 645년 고구려의 15만 대군의 편성, 편제, 군수물자 준비가 갖춰지

666년 9월 남건은 국민들과 함께 15만 병력을 거느리고 요수 일대에 주둔하였다(B-①·③·④, D-①·②). 이때 방동선과 고간이 남생을 위무하며 들이라는 고종의 조서를 명분으로 삼아 남건에게 남생의 신변을 요구하였으나, 남건은 요수 일대를 굳게 지키며 이를 거부하였다(B-④). 그리고 남건은 방동선, 고간 등의 당군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설인귀가 방동선과 고간을 후원하여 남건의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고구려군은 퇴각하였다(B-④). 이때 방동선 등의 당군이 요수를 도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남건이 일부 병력으로 요수를 도하해 방동선 등의 당군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B군에서는 고구려군이 당의 남생 구원군에게 크게 패배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다만, 이후 방동선의 추가적인 공세에 대한 기사가 없으며, 남생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보아 남건의 고구려군이 중국에는 남생 구원군의 요수 도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당의 남생 구원군이 소규모였으며, 안정적인 보급로 및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이 비록 표면적으로 남생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남건이 당의 남생의 신변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을 것이다. 즉, 666년 9월 당의 남생 구원군 출병은 고구려의 내전에 개입하고 침공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도발행위로서 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당의 남생 구원군은 회군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⁷⁾ 그러나 남생 구원군이 회군하였다고 해서

기 까지 소요된 기간을 30일로 파악하였다(羅棟煜,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 144, 2009, 102~103쪽).

27) 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1쪽. 정원주, 위의 논문, 2023, 68쪽. 다만, 이때 회군

고구려에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남건은 여전히 남생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군의 본격적인 침공이 언제 재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E군은 666년 말 당의 고구려 침공군 편성에 대한 사료이다.

E-①. [666] 겨울 10월 기유(己酉), [고종이] 명을 내려 사공(司空)·영국공(英國公) 적(勣)을 요동도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음으로써 고려(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²⁸⁾

E-②. [666] 11월 [고종이] 사공·영국공 이적(李勣)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비장(裨將) 곽대봉(郭待封) 등을 거느림으로써 고려를 정벌하게 하였다.²⁹⁾

E-③. [666] 또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 겸 안무대사(安撫大使)로 삼음으로써 글필하력(契苾何力)과 방동선(龐同善)과 더불어 힘을 합하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독고경운(獨孤卿雲)으로 말미암아 압록도(鴨渌道), 곽대봉(郭待封)을 적리도(積利道), 유인원(劉仁願)을 비열도(畢列道), 김대문(金待問)을 해곡도(海谷道)로 모두 행군총관(行軍總管)으로 삼고, 적(勣)의 절도(節度)를 받게 하였다, 연(燕)과 조(趙)의 식량을 옮겨 요동(遼東)에 저장하게 하였다.³⁰⁾

E-④. [666] 겨울 12월 기유(己酉, 18일)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상백록(司列少常伯安陸) 학처준(郝處俊)으로써 그를 돕게 하

한 남생 구원군은 667년 신성 전투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인근의 영주까지만 회군하고 대기했다가 본군과 합류한 것으로 생각한다.

28) 『구당서』 권5, 본기5, 高宗 下 乾封 원년 겨울 10월, “己酉 命司空·英國公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29)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666) 十一 命司空·英國公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率裨將郭待封等以征高麗.”

3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又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與契苾何力·龐同善并力 詔獨孤卿雲由鴨渌道 郭待封 積利道 劉仁願 畢列道 金待問 海谷道 並爲行軍總管 受勣節度 轉燕·趙食廩遼東.”

여 고려를 치게 하였다. 방동선과 글필하력 모두 요동도행군부대총관(遼東道行軍副大總管) 겸 안무대사(安撫大使)로 삼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게 하였다. 그들은 수륙(水陸) 제군총관(諸軍總管)과 아울러 운량사(運糧使)인 두의적(竇義積)과 독고경운과 곽대봉 등은 모두 적(勳)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하북(河北)의 여러 주(州)의 조부(租賦)는 모두 요동(遼東)의 군용(軍用)으로 공급하였다.³¹⁾

E-⑤. 건봉(乾封) 원년(元年, 666) 12월, 명을 내려 사공·영국공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 겸 요동안무대사로 삼고, 좌금오위장군(左金吾衛將軍) 방동선과 좌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 글필하력은 모두 예전과 같이 요동도안무대사(遼東道安撫大使)로 삼았다. 그들의 수륙제군총관(水陸諸軍總管)과 아울러 양운사(糧運使) 두의보(竇義積), 독고경운, 곽대봉은 함께 모병(募兵)하여 모두 적(勳)의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고려를 토벌하게 하였다. 하북도(河北道)의 여러 주(州)의 조세를 모아 요동으로 보내 군용(軍用)으로써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수륙(水陸)으로 길을 나눔으로써 평양(平壤)으로 향하게 하였다.³²⁾

상기한 E군에는 666년 6월 출병 때 참전했던 고간, 설인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간과 설인귀는 이후에 전개된 전투인 금산 전투와 부여성 전투에서도 활약했기 때문이다.³³⁾

31)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겨울 12월, “己酉 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司列少常伯安陸 郝處俊副之 以擊高麗 龐同善·契苾何力並爲遼東道行軍副大總管兼安撫大使如故 其水陸諸軍總管并運糧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等 並受勳處分 河北諸州租賦悉詣遼東給軍用 待封 孝格之子也.”

32) 『책부원귀』 권986, 外臣部31, 征討5, “乾封 元年 十二月 命司空英國公李勣 爲遼東道行軍大總管 兼爲遼東安撫大使 左金吾衛將軍龐同善·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 並依舊 爲遼東道安撫大使 其水陸諸軍總管 并糧運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 及募兵以上 並受勳處分 以討高麗 河北道諸州租稅 總起遼東 以給軍用 於是 水陸分道 以赴平壤.”

이때 당군은 수군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661~662년 전쟁과³⁴⁾ 달리 666년 12월 18일 편성은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수군은 보조전략으로서 보급군으로 운용되었다. 이는 당의 수군이 661~662년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많은 함선과 수군을 상실했기 때문이다.³⁵⁾

다음으로 당군의 출병 시점을 알아보자. 고종의 출병 조서를 내린 시기가 666년 10월(E-①), 11월(E-②), 12월(E-④·⑤)로 사료마다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료 F군을 살펴보자.

F-①. (乾封) 2년(667) 2월, 적(勣)이 요수(遼水)를 건너 신성(新城)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신성(新城)은 고려(高麗)의 서쪽 경계의 진성(鎭城)으로, 가장 요해(要害)이다, 만일 먼저 도모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성들은 쉽게 빼앗을 수 없소.”³⁶⁾

F-②. 이듬해(667) 정월, 적(勣)이 [군대를] 이끄는 도중에 신성에서 여러 장수들을 모아 계책을 말하기를, “신성은 적(賊)의 서쪽 변경으로 먼저 도모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 쉽게 함락할 수 없소.”³⁷⁾

33) 또한 풍사훈처럼 문헌사료에 전하지 않는 인물들도 666년 편성에 있는 것으로 보아(『馮師訓碑』, “乾封元年 制爲積利道總管 統彼舟軍.”), 추가적인 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4) 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 전략은 다음과 같았던 걸로 파악했다: 1. 아사나춘군 등이 육로를 통해 요동 방면으로 진군, 2. 소정방군 등이 해로를 통해 평양 방면으로 진군. 3. 글필하력군 등이 해로를 통해 요동과 평양의 중간지대인 압록수 이북에 상륙하여 보급기지를 4. 3을 통해 요동과 평양의 고구려군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차단. 이러한 수군 중심의 고구려 공격 전략은 태종이 죽기 전에 고안했던 것으로 그의 뒤를 이은 고종이 더욱 보완하여 성사시킨 것이다(李玖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35) 李玖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b), 152~153쪽.

36)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乾封) 二年 二月 勣度遼至新城 謂諸將曰 新城是高麗西境鎭城 最爲要害 若不先圖 餘城未易可下.”

F군에 의하면 이적이 요수를 건너는 시점은 2월(F-①) 혹은 1월(F-②)이다. 당군의 이동시간과 요수를 건너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당군이 출병한 시점은 10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⁸⁾ 이적은 요수를 건너면서 제장들에게 신성은 고구려 서변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성들도 함락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적이 이에 대해 발언한 대상인 제장들은 글필하력, 학처준, 방동선, 고간, 설인귀 등이었을 것이다. 이적이 초전부터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신성 함락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원인은 신성의 장악 여부가 당군의 전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³⁹⁾

그렇다면 당시 당군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666년 남생은 당에 헌성을 보내면서 국내성 등 6개 성 및 3개 성과 함께 투항의사를 내비쳤다. 당군의 전략은 이러한

3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明年 正月 勸引道次新城 合諸將謀曰 新城 賊西鄙 不先圖 餘城未易下.”

38) 이적의 출병시기를 666년 12월로 파악한 견해가 있으나(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4~55쪽; 정원주, 앞의 논문, 2023, 68~69쪽), 이적이 666년 1~2월에 요수를 도하한 것을 고려한다면 따르기 어렵다. 644년 11월 24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 요동도행군은(『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8년 11월 甲午) 645년 4월 5일에 신성을 공격하였고(『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4월 壬寅), 645년 2월 12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2월 庚戌) 태종의 6군은 5월 10일에 요수를 건넜다(『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5월 丁丑). 이로 보아 낙양으로부터 요수까지 행군하는 데 있어 대략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39) 이적이 초전부터 신성 공격에 매진한 원인은 몇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이적은 645년 고구려와의 전쟁 당시 신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요동성 등을 함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건재했던 신성의 압박으로 인해 패퇴한 경험이 있다. 이적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신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들도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9쪽).

남생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 우선 당군이 국내성에 주둔 중인 남생의 세력과 합류하기 위해서는 요동의 신성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요동에서 신성이 국내성으로 향하는 최단경로이기 때문이다.⁴⁰⁾ 당군은 신성을 확보한 이후 국내성 일대의 남생의 세력과 합세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을 함락하는 것이 당군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군의 전략에서 신성 함락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적이 지휘하는 당군이 요수를 건널 당시 고구려군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신성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666년 9월경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당군의 요수 도하 저지를 위해 요수에 주둔한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667년 초에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666년과 달리 요수가 결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남건 등 고구려 수뇌부에서는 결빙된 요수에서부터 당군을 저지하기 보다는 신성 등 요동방어망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며 당군을 상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건이 여전히 남생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지속적으로 요수에 주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신성의 고구려군은 무려 8~9개월 동안 당군과 치열한 수성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군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성의 공격하는데 전념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구려는 당군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남생의 세력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신성에 전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당군이 신성에 공세를 퍼붓다가도 요동성이나 건안성 혹은 부여성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성을 함

40) 노태돈, 앞의 책, 1999, 233쪽.

락한다면 당군의 고구려 내지 진입을 허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성이 8~9개월간 당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는 것으로 보아 남견이 신성 전선에 일정한 병력과 군량 그리고 무기, 군량, 병력 등 군수물자와 같은 지원을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⁴¹⁾ 당은 전력을 다해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공략이 지지 부진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Ⅲ. 667년 고구려-당의 공방전과 전선의 고착화

다음의 G군은 고종이 신라에게 고구려 전쟁에 참전할 것을 지시하고 신라가 출병한 사료이다.

G-①. (667년 7월) 당의 황제가 칙(勅)을 내려 지경(智鏡)과 愷元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遼東)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곧 지경을 차진찬(波珍滄)으로 삼고, 개원을 대아찬(大阿滄)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勅)을 내려, 일원(日原) 대아찬을 운휘장군(雲麾將軍)으로 삼으니, 왕은 (일원에게) 궁정(宮庭)에서 命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고종(高宗)이 유인원(劉仁願)과 김인태(金仁泰)에게 명하여 卑列道를 따라 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도(多谷道)와 해곡도(海谷道) 두 길을 따라 가서 평양(平壤)에서 만나게 하였다.⁴²⁾

41) 신성이 외부의 지원 없이 고립무원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徐榮教, 앞의 논문, 2021, 63쪽; 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7쪽). 그러나 당시에는 주변에도 16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고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지원 없이 단독으로 8~9개월 가량 당군과 전투를 전개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4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7월, “唐皇帝勅 以智鏡·愷元爲將軍 赴遼

G-②. (667) 가을 8월에 왕이 대각간(大角干) 金庾信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나섰다.⁴³⁾

G-①에 의하면 667년 7월 고종은 신라에게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이적이 신성에 공격을 개시한지 6~7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시점이다. 고종은 이적의 신성 공격이 부진하자, 직접 신라에게 참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종은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비열도를 따라 가게 하였다고 한다.⁴⁴⁾

고종은 신라의 군대를 징발하여 다곡도와 해곡도를 따라 평양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G-②에 의하면 문무왕이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과 함께 출병하였다고 한다. 신라가 고종의 칙서를 667년 7월에 받고 8월에 출병한 것으로 보아 평양을 공격할 군대를 편성하는 데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인원은 666년 10월에 이미 당 고종에 의해 당의 비열도 행군총관, 신라의 김대문(金待問)은 해곡도(海谷道)행군총관(行軍總管)으로 고구려 침공에 나서며 이적의 처분에 따르게 한 바 있다(E-③). 유인원과 김대문은 667년 7월이 되도록 당의 고구려 침공에 참전하지 않은 것이다.

상술했듯이 고종은 유인원과 김대문에게 이적의 처분에 따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원과 김대문이 고구려

東之役 王卽以智鏡爲波珍浪 愷元爲大阿浪 又皇帝勅 以日原大阿浪爲雲麾將軍 王命於宮庭受命.高宗命劉仁顯·金仁泰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4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7년 가을 8월,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出京.”

44) 김인태와 일원은 660년 백제 멸망 후 일원이 유인원과 함께 사비성을 지킨 인연으로 인해 유인원 휘하의 운휘장군으로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3, 125쪽).

침공에 참전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이적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⁴⁵⁾ 그러나 이적이 신성 전투에서 6~7개월 동안 신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고종이 신라에게 참전할 것을 직접 명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가 주목된다.

H. (667) 9월에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을 기다렸다.⁴⁶⁾

H에 의하면 667년 8월 고종에 의해 출병한 신라군이 한성정에 도착하여 영공, 즉 이적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로 보아 고종이 신라에게 참전을 요구할 당시 이적의 당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G-①에 의하면 고종은 신라에게 평양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신라군과 당군의 군사행동 공조는 평양

45) 만일 이적이 신라군만 배제하고 유인원의 웅진도독부만 단독으로 고구려전에 참전하게 할 경우 백제고토에서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적은 신라군과 함께 웅진도독부의 병력도 참전하지 않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4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9월, “至漢城停 以待英公.”

47) 667년 7월 당이 문무왕에게 공식적으로 군사 동원을 요청하지 않고 유인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원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원인은 신라군의 참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는 견해가 있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3, 124~126쪽). 그러나 당시 고종의 신라군 참전 요구가 유인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종이 667년 7월 신라군의 참전을 유인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차 요구한 것은 이미 666년 말에 직접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직접 재차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667년 7월 신라군 참전 요구는 666년 말의 참전 요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적의 지휘 하에서 의도적으로 한번도 동원되지 않은 신라군을 고종이 유인원을 통해 재차 참전을 요구한 것은 신라군의 참전 범위를 최소화하려하기보다는 적극 참전하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 진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종은 이적에게도 신라군과 동일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신라군이 이적의 군대를 기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당시 이적이 신라군과 군사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창 격전 중에 있던 신성 전역은 물론 다른 고구려 성들을 무시하고 압록수를 도하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격전은 신성 등 요동방어망이 아직 건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방이 요동의 고구려군으로부터 위협받고 보급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군사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이적에게 신라군과 군사행동을 함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당시 당군이 신성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 중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신라군이 한성정에서 이적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을 667년 9월경에 이적의 신성 공격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I군을 살펴보자.

I-①. (667) 드디어 [이적이] 병사를 이끌고 신성(新城)의 사남쪽에서 산에 의지해 책(柵)을 쌓아 공격을 하고 또 막기도 하자, 성 안이 군박(窘迫)해져 여러 명의 항복하는 자들이 있었다.⁴⁹⁾

I-②. (667) 드디어 [신성의] 서남쪽 산에 벽(壁)을 쌓자, 성(城)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자, 성의 사람이 추장을 묶고 나와 항복하였다. 적(勣)은 나아가 16개 성을 함락하였고, 곽대봉(郭待封)이 수군(舟師)으로 바다를

48) 당 고종과 이적은 667년 원만경 영남 유배 사건(『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年 9월, “行軍管記通事舍人元萬頃爲釋其義勣乃更遣糧仗赴之萬頃作檄高麗文曰不知守鴨綠之險·泉男建報曰 謹聞命矣 卽移兵據鴨綠津 唐兵不得渡 上聞之流萬頃於嶺南.”), 668년 가연충의 보고(『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總章 원년 2월, “侍御史洛陽 賈言忠奉使自遼東還 上問以軍事, 言忠對曰高麗必平.”)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군사에 관해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9)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遂引兵於新城西南 據山築柵 且攻且守 城中窘迫 數有降者 自此所向克捷.”

건너 평양(平壤)으로 나아가게 하였다.⁵⁰⁾

I-③. [667년 9월 14일] 드디어 성을 공격하니, 성인(城人) 사부구(師夫仇) 등이 성주(城主)를 결박하고 문을 열어 항복하였다. 적(勳)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니 16개 성을 모두 함락하였다.⁵¹⁾

I-①에 의하면 이적은 신성의 서남쪽에 있던 산에 책(柵)을 쌓아 신성의 군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한다. I-②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의 서남쪽 산에 벽(壁)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신성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책(柵)과 벽(壁)은 소규모 성채의 형태를 가진 군사방어 거점이다. 당시 신성의 고구려군과 당군의 치열한 공방전 양상은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645년 안시성 전투 양상⁵²⁾을 참조해보면 667년 신성 전투의 양상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야습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당군이 토산을 안시성의 안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쌓자, 안시성의 고구려군도 성벽을 더 높이 쌓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당군이 충차와 포석으로 안시성의 성루를 파괴하면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파괴된 부분에 목책을 쌓아 대응하였다고 한다.

5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明年 正月 勳引道次新城 合諸將謀曰 新城 賊西鄙 不先圖 餘城未易下.”

51)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遂攻之 城人師夫仇等縛城主開門 降 降 勳引兵進擊 一十六城皆下之.”

52)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是夜 高麗數百人縋城而下 上聞之 自至城下 召兵急擊 斬首數十級 高麗退走 江夏王道宗督衆築土山於城東南隅 浸逼其城 城中亦增高其城以拒之 士卒分番交戰 日六·七合 衝車礮石 壞其樓堞 城中隨立木柵以塞其缺.”

667년 신성 전투도 이와 유사하게 전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전개된 안시성 전투와 달리 신성 전투는 667년 1~2월부터 9월 14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전개되었다. 이는 안시성 전투보다 무려 4개월 이상, 8개월간 전개된 661~662년 평양성 전투보다 1개월 이상 전개된 것으로 상당한 장기전의 형태였다.

I-②에 의하면 신성의 고구려군이 ‘군박(窘迫)’해졌다고 한다. 이는 8~9개월간 전개된 장기전으로 인해 신성의 고구려 군민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졌으며, 매우 피폐해졌음을 시사한다. I-①에 의하면 이로 인해 신성에서 항복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으며, I-②에서는 그들이 신성의 추장을 묶고 항복했다고 한다. I-③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이 사람인 사부구 등이 신성의 성주를 결박하여 성문을 열고 이적에게 항복했다고 한다.

신성 내부에서는 8~9개월 동안 전개된 장기전으로 인해 항복을 주장하는 사부구 세력과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신성의 성주 세력과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적은 신성이 내부분열로 인해 스스로 항복하자, 곧장 신성 관할 하의 16개 성⁵³⁾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16개 성이 이적의 공세에 의해 일거에 쉽게 함락되었는데, 16개 성의 병력이 신성 전투에 투입되면서 16개 성의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군은 고구려 침공 전략의 선결과제였던 신성을 8~9개월 만에 서야 고전 끝에 함락하였다. 그리고 다음 행보로서 남생을 확보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해야 했다. 특히 이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종으로부터 신라군과 공조하라는 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적의 최우선순위는 압록수를 도하한 후 신

53)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68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23, 75쪽.

라군과 공조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생의 확보도 소홀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 J군의 기사를 살펴보자.

J-①. [667] [667년 9월] 신미(辛未, 14일), 이적(李勣)이 고려(高麗)의 신성(新城)을 함락하고, 글필하력(契苾何力)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 방동선(龐同善)과 고간(高侃)이 아직 신성(新城)에 있을 때, 천남건(泉男建)이 군대를 보내 그 군영을 습격하자,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설인귀(薛仁貴)가 그들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간(侃)이 나아가서 금산(金山)에 이르러, 고려(高麗)와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고려(高麗)의 무리가 승리하여 북쪽으로 쫓아왔다, 인귀(仁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로질러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깨뜨리니 5만여급의 머리를 베었다.⁵⁴⁾

J-②. 동선 등이 신성에 이르자, 밤에 적의 습격을 받았다. 인귀가 효용(驍勇)한 자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여 수백급의 머리를 베었다. 동선 등이 또 나아가 금산에 이르자, 적에게 패하고, 고려의 무리가 승세를 타고 나아갔다. 인귀가 그들의 측면을 공격하자, 적의 무리가 대패하고, 5만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 고종(高宗)이 수칙(手敕)을 내려 위로하여 말하길, “금산의 큰 전투에서 흉악한 무리가 실로 많았다. 경(卿)은 몸소 사졸(士卒)들보다 앞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분격하여, 좌충우격(左衝右擊)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이 없었다, 諸軍에게 용기를 불러들여, 이르는 곳마다 전투에서 이겼다. 마땅히 훌륭한 공업(功業)을 세웠으니, 이 명성을 보전하라.”⁵⁵⁾

J-③.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에 이르러 밤에 오랑캐[고구려]의 습격을 받

54)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辛未 李勣拔高麗之新城 使契苾何力守之 … 龐同善·高侃尙在新城 泉男建遣兵襲其營 左武衛將軍薛仁貴擊破之 侃進至金山 與高麗戰 不利 高麗乘勝逐北 仁貴引兵橫擊 大破之 斬首五萬餘級.”

55)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同善等至新城 夜爲賊所襲 仁貴領驍勇赴救 斬首數百級 同善等又進至金山 爲賊所敗 高麗乘勝而進 仁貴橫擊之 賊衆大敗 斬首五萬餘級 … 高宗手敕勞之曰 金山大陣 凶黨實繁 卿身先士卒 奮不顧命 左衝右擊 所向無前 諸軍賈勇 致斯克捷 宜善建功業 全此令名也.”

있는데, 인귀(仁貴)가 그들을 쳐서, 머리 백여급을 베었다. 동선이 나아가 금산에 이르렀으나, 오랑캐를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고려의 무리가 승세를 타고 나아가자, 인귀(仁貴)가 오랑캐를 공격하여 둘로 끊어 버려서 무리가 즉시 궤멸하였고 5천급의 머리를 베었다.…[고종이] 수조(手詔)를 내려 [설인귀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⁵⁶⁾

J-④. 3년(668) 2월, 적(勳)이 인귀(仁貴)를 거느리고 부여성(扶餘城)을 함락하자, 다른 30개성이 모두 납관(納款)하였다. [이에 앞서] 동선과 간(侃)이 신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건(男建)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습격하자, 인귀가 간을 구원하였다. 금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기지 못하자, 고려가 북을 치며 나아갔는데, 날카로움이 대단했다. 인귀가 가로 질러 [고구려군을] 쳐서 그들을 크게 깨뜨려 5만급의 머리를 베었다.⁵⁷⁾

J군은 신성의 교외에서 전개된 고구려군과 당군의 전투, 금산 전투, 당의 남생군 확보를 시기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축하여 기술한 사료이다. 우선 고구려군이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에 있을 때 그들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설인귀의 기습으로 인해 수백 명의 병력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이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당서』 설인귀전인 J-②와 J-③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J-①은 667년 9월 14일 신성의 함락 기사 이후에 기술되었으며, J-④에 의하면 방동선과 고간이 신

56) 『신당서』 권111 열전36, 薛仁貴, “至新城 夜爲虜襲 仁貴擊之 斬數百級 同善進次 金山 岫虜不敢前 高麗乘勝進 仁貴擊虜斷爲二 衆卽潰 斬馘五千 … 手詔勞勉.”

5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三年 二月 勳率仁貴拔扶餘城 它城三十皆 納款 同善 侃守新城 男建遣兵襲之 仁貴救侃 戰金山 不勝 高麗鼓而進 銳甚 仁貴 橫擊 大破之 斬首五萬級.” 이 기사가 부여성이 함락된 668년 2월에 배치된 원인은 이적과 더불어 부여성 함락의 주역인 설인귀가 이적과 함께 부여성을 함락한 계기를 전년도인 667년에 세웠던 전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성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였다(同善, 偏守新城). 따라서 해당 전투는 신성이 함락된 667년 9월 14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⁵⁸⁾ 남건이 신성을 수비하던 당군을 공격했다는 것은 신성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상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⁹⁾

신성 교외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신성이 함락된 667년 9월 14일 직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성 함락 소식이 평양성에 있던 남건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과 평양성의 고구려군이 신성으로 진군하는 이동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1일 행군속도는 평균 12km, 빠르면 24km이며,⁶⁰⁾ 唐代 문서조달 속도는 평균 100리, 간선도로를 걷 주요 도시의 경우 하루에 최대 500리를 간다고 한다.⁶¹⁾

신성에서 평양성까지의 거리는 약 511km이다.⁶²⁾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평양성에 문서를 조달하는 신성의 사자가 평양성으로 가는 데 3~11일, 평양성의 군대가 신성으로 행군하는 데 21~42일이 소요될 것이다.⁶³⁾ 다만, 당시 신성과 주변 16개 성이 함락된 긴

58) 금산 전투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신성 함락 이후 설(노태돈, 앞의 책, 2009, 215쪽 ; 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5~66쪽), 666년 9월 설(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6~57쪽), 신성 전투 도중 설(정원주, 앞의 논문, 2022, 72~73쪽)이 있다.

59) 남건은 글필하력 등이 신성에 부재한 상황을 포착하여 신성을 지키는 당군의 병력이 약체화되었다는 판단하에 신성 탈환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서영교, 위의 논문, 2021, 64쪽).

60) 袁庭棟, 『解秘中國古代戰爭』, 山東畫報出版社, 2008, 89쪽.

61) 中村裕一, 「敍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7, 1988.

62) 신성에서 평양성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撫順-瀋陽-遼陽-本(溪)-丹東-義州-龍川-宣川-定州-安州-肅川-平壤이다(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36~237쪽 ;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12-3, 2013, 134쪽).

63) 이민수, 「662년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 재구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104~105쪽.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최단 경로로 신속히 행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성의 사자가 평양성의 남건에게 패전보를 전달하고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6~11일, 그리고 인근 성들의 병력을 소집하여 편제와 편성을 갖추고 필요한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데 대략 3일,⁶⁴⁾ 평양성의 고구려군이 신성까지의 행군 기간을 21~30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이 타당하다면 남건의 고구려군이 신성에 당도한 시점은 10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볼 수 있다.⁶⁵⁾

J-②, ③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군은 당군의 군영에 야습을 감행하였는데, 설인귀가 거느린 당군의 지원으로 인해 100명 단위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당시 당의 신성 수비 책임자는 글필하락이었는데(J-①), 그가 설인귀를 지원군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고구려군이 당군의 군영을 야습했던 것으로 보아 당군은 신성을 수비하면서도 신성 주변에도 군영을 설치하여 고구려군의 반격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성 교외에 구축된 당군의 군영을 습격한 고구려군 전사자의 규모가 100명(J-②)에서 수백명(J-③)이었던 것으로 보아 남건은 소규모 병력으로 야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건이 본격적으로 신성 탈환전을 시도하기에 앞서 소규모 병력으로 당군의 군영을 기습한 것은 당군의 동태와 전력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64) 羅棟煜은 645년 고구려의 15만 대군의 편성, 편제, 군수물자 준비가 갖춰지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30일로 파악하였다(羅棟煜,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 144, 2009, 102~103쪽).

65) 남소, 목저, 창암 3개 성의 병력이 신성 탈환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徐榮敎, 앞의 논문, 2021, 65~66쪽). 그러나 이들 3개 성은 처려근지급의 성으로 옥살급처럼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성이 아니었으므로 3개 성의 병력이 5만 명 이상이 동원된 신성 탈환군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와 당의 본격적인 전투는 금산에서 전개되었다. 양군의 대 규모 회전이 전개된 금산은 현재 정확한 비정이 어렵다. 다만, 당군의 이후 행보로 보아 신성에서 소자하 유역으로 가는 경로상에 소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구려군의 병력은 전사자 규모가 5만 명 혹은 5천 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최소 수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J-②의 수칙에서 고종이 고구려군의 규모에 대해 실로 많았다(實繁)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대규모였을 것이다.

당군의 병력 규모는 기록의 부재로 인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종이 고구려군의 규모를 많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 보다는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고구려군 보다 규모가 작았다는 것으로 양군의 대회전이 전개된 전투인 만큼 당군의 규모도 상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산 전투는 신성 교외 전투가 끝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성 교외 전투에서 남건이 중앙에서 보낸 고구려군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신성을 수비하는 당군의 입장에서 이들의 본진을 확실히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측의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성 교외 전투의 고구려군은 당의 신성 수비 병력을 금산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전술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⁶⁶⁾

금산 전투는 당의 방동선과 고간이 군대를 이끌고 금산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J-③에 의하면 방동선은 군대를 이끌고 금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선공은 고구려군이 시작했을 것이다. 이처럼 당군의 기선을 제압한 고구려군은 방동선과 고간의 당군과 전

66) 徐榮教, 앞의 논문, 2021, 65쪽. 徐榮教도 신성 교외 전투에 대해 고구려의 유인 전술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투를 벌여 승리하였다(J군).

고구려군은 승전의 여세를 몰아 북을 치면서 날카로운 기세로(J-④) 패주하는 당군을 북쪽까지 추격하였다(J-①). 그러나 신성 교외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이 갑자기 나타나 추격하는 고구려군의 측면을 공격하여(J-①, ②, ④) 고구려군의 전열을 둘로 분산시켰다(J-③).

설인귀의 측면 기습에 의해 전열이 분산된 고구려군은 재정비할 틈도 없이 즉시 궤멸하고(J-③), 무려 5만 명⁶⁷⁾이나 전사할 정도로 대패하게 된 것이다. 남건의 대병력을 동원한 신성 탈환 시도는 금산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 완전히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 커다란 여파를 초래하였다. 아래 K군을 살펴보도록 하자.

K-①. [667] [설인귀가] 남소(南蘇)·목저(木底)·창암(蒼巖) 3개 성을 함락하고 천남생(泉男生)의 군대와 더불어 합했다.⁶⁸⁾

K-②. [설인귀가] 드디어 그들의 남소·목저·창암 등 3성을 함락하고, 비로소 남생(男生)과 함께 서로 만났다.⁶⁹⁾

K-③. 남소·목저·창암 3개 성을 함락하고,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경략하고, [이로 인해 부여성에서] 적(勣)과 함께 만난 것이다.⁷⁰⁾

67) 『신당서』 설인귀전에는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를 5천 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외에 모든 사료에서는 당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를 5만 명으로 기재하였다. 설인귀는 금산 전투의 전공으로 인해 당 고종은 직접 이를 치하하는 수칙을 내렸을 정도였으며, 수칙에서 금산 전투를 두고 大陣 즉 큰 전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당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는 5천 명보다 5만 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68)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拔南蘇·木底·蒼巖三城 與泉男生軍會.”

69)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遂拔其南蘇·木底·蒼巖等三城 始與男生相會.”

7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拔南蘇 木底 蒼岩三城 引兵略地 與勣會.”

K-④. 이때 고려(高麗)의 군사 15만 무리가 요수(遼水)에 주둔하였으며, 말갈(靺鞨)의 수만 무리를 끌어들여 남소성(南蘇城)에 웅거하자, 하력(何力)이 분격(奮擊)하여 그들을 깨뜨리고 만급의 머리를 베고, 승세를 타고 나아가 8개 성을 함락하였다.⁷¹⁾

상기한 K군은 고구려가 금산 전투 패전의 여파로 인해 소자하 유역과 남생이 당군에게 점령된 것에 대해 전하고 있다. 우선 K-①~③에 의하면 고구려가 금산 전투 패전 직후 설인귀 등의 당군이 남소, 목저, 창암성 3개 성을 함락하였다고 한다.⁷²⁾ 그리고 K-④에 의하면 고구려가 말갈군 수만 명을 끌어들여 남소성에 웅거하게 하였다고 한다. K군에 전하는 기사만 보았을 때 남소, 목저, 창암성 등은 당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함락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성들이 처음부터 당군을 적대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L군을 살펴보자.

L-①. [666년] 공은 국내성(國內城) 등 6성의 10여 만호를 이끌고 호적문서를 원문(輓門)에 바쳤다. 또 목저성(木底城) 등 3성이 황제의 교화를 바라며 아울러 귀순하였다. 작고 위태로운 무리들이 나날이 궁박해지고 다달이 위축되었다. 2년(667)에 조칙을 받들어 공이 입조하였다.⁷³⁾

71)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契苾何力, “時高麗兵十五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 破之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구당서』, 계필하력전에 서는 8개 성이 아닌 7개 성으로 1개의 차이가 있다(『구당서』 권109, 열전59, 契苾何力,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

72) 徐榮教는 남소·목저·창암 3성이 농성전을 전개하였다면 일거에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3성 병력이 이미 앞선 금산 전투에 동원되었다가 소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徐榮教, 앞의 논문, 2021, 65~66쪽).

73) 「泉男生墓誌」, “乾封 元年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대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 兼使持節按撫大使 領本蕃兵 共大總管契苾何力等 相知經略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 書籍輓門 又有木底等三城 希風共款 蕞尔危矣 日窮月蹙 二年 奉勅追公入朝 總章 元年 授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菟郡開

L-②. [666년] [고종이] 조서를 내려 글필하력(契苾何力)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게 하자, 남생(男生)은 [죽음을] 면하고 평양도행군대총관(平壤道行軍大總管) 겸 지절(持節) 안무대사(安撫大使)에 제수되었으며, [남생은] 가물(哥勿)·남소(南蘇)·창암(倉巖) 등의 성(城)을 들고 항복하였다.⁷⁴⁾

L군은 666년 남생이 처음 당에게 내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L-①에 의하면 남생은 헌성을 통해 국내성 등 6성의 10여만 호 호적과 함께 내부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목저성 등 3개성도 함께 당에 내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L-②는 남생이 666년에 당에 내부할 때 동조한 성들의 이름을 가물, 남소, 창암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9개 성 가운데 국내성, 목저성, 남소성, 창암성, 가물성 5개 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666년 남생은 9개 성의 세력과 함께 당에 내부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K-④에서 글필하력이 함락하였다는 남소성 등 8개 성과 규모가 비슷하다. 이때 남생이 주둔하던 국내성은 당군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락된 성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666년 당시 남생과 함께 당에 내부하려고 한 9개 성들 가운데 남생이 주둔하던 국내성을 제외한 8개 성들은 남생과의 연계를 단절하고, 고구려 즉, 남건에게 다시 귀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남건이 군사적으로 재탈환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⁷⁵⁾ 그렇다

國公 食邑二千戶 餘官如故.”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신당서』 천남생전에 기술되어 있다(『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鉤七事”).

74)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鉤七事.”

75) 노태돈, 앞의 책, 2009, 215쪽.

면 이들 8개 성 세력이 자발적인 의지로 다시 고구려에 귀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당에게 내부할 여건만 조성된다면 당군에게 항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8개 성 특히 남소성은 수만 명의 말갈군과 함께 당군과 끝까지 전투를 치르다가 1만 명이 전사하면서 함락되었으며,⁷⁶⁾ 다른 성들도 당군의 공세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는 8개 성이 666년에는 남생에게 동조하였으나, 모종의 원인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재차 고구려에 귀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8개 성이 남건에게 귀복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성 전투가 8~9개월 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신성이 당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함락되지 않자, 남생에게 동조하여 당에게 귀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666년 8개 성의 성주들이 남생에게 동조하여 당에게 내부하고자 한 결정이 남생과 긴밀한 관계였던 일부 주요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즉, 당에게 내부하는 것이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 세력에 의해 다시 고구려로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남건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금산 전투에서 승전한 당군은 국내성을 제외한 8개 성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투에는 신성의 수비를 맡았던 글필하력과 금산 전투의 주역인 설인귀가 참전하였다. 그러나 방동선과 고간이 참전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76) 667년 고구려가 남소성에 수만 명의 말갈 병력을 주둔시켰다 것은 흑수말갈을 제외한 말갈의 병력 대부분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李玟洙, 「高句麗 遺民 李他仁의 族源과 柵城 褥薩 授與 배경에 대한 고찰」 『大丘史學』 128, 2017, 164~165쪽).

이로 보아 글필하력은 방동선과 고간에게 신성의 수비를 위임하고 남소성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K-①~③에서는 설인귀가 남소, 목저, 창암성 3개 성만 함락 후 남생의 군대와 합류한 것으로 기록한 것과 달리 K-④에서는 글필하력이 남소성 전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성들을 함락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설인귀는 전투 초반에 글필하력과 함께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을 공격하여 함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생의 신변이 확보가 되자, 글필하력은 설인귀를 남생과 함께 우선 신성으로 돌아가게 한 후 남생을 고종에게 보내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⁷⁷⁾ 글필하력은 남생과 설인귀를 신성으로 보낸 후에도 다른 5개의 성도 함락했기 때문에 함락한 성의 개수가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글필하력과 설인귀가 소자하 유역 및 국내성 권역과 남생의 신변을 확보⁷⁸⁾하는 동안 이적은 신라군과 합류하고자 압록수 일대에 진군한 것으로 여겨진다.⁷⁹⁾ 아래 M을 살펴보자.

77) 「泉男生墓誌」에 의하면 남생은 667년에 당에 입조하였다(「泉男生墓誌」, “二年奉勅追公入朝”).

78) 당군은 신성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국내성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영역을 남북으로 양단하는 형세를 구축하였다. 당군은 이 축을 중심으로 점령지의 폭을 확대하면서 고구려의 숨통을 조였다(노태돈, 앞의 책, 2009, 215쪽). 또한 남생의 항복과 함께 요동에서 국내성으로 가는 길이 확보되어 뻘뻘하게 성이 들어서 있는 요동방어선을 직접적으로 돌파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로운 진격로가 확보된 셈이라 할 수 있다(임진수, 앞의 논문, 2024, 47쪽).

79) 노태돈은 이적이 신성을 함락한 9월 14일 이후 요동성-오골성-대행성 경로로 10월 2일 평양성 북쪽 200리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노태돈, 2009, 215~216쪽). 이에 대해 당군이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요동성과 오골성을 장악해야 하는데, 당군이 대성인 요동성과 오골성을 함락했다는 기사는 없으며 신성 함락인 9월 14일부터 10월 2일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요동성과 오골성을 장악하는

M. 곽대봉(郭待封)이 수군으로 다른 길로부터 평양(平壤)으로 향하니, 적(勳)이 별장(別將) 풍사본(馮師本)을 보내 군량과 무기를 싣고 그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사본의 배가 깨져서, 시기를 놓쳤다. 대봉의 군중(軍中)은 굶주리고 군색해져서 문서를 만들어 적(勳)에게 주고자 했으나, 오랑캐가 얻어서 보고 그 허실(虛實)을 알까봐 두려워서, 마침내 이합시(離合詩)를 만들어 적(勳)에게 주었다. 적(勳)이 화나서 말하기를, “군사(軍事)가 마야흐로 시급한데 어찌 시를 쓰는가? 반드시, 그의 목을 벨 것이오.” 행군관기(行軍管記) 통사사인(通事舍人) 원만경(元萬頃)이 그 뜻을 해석하니, 적(勳)이 마침내 다시 군량과 무기를 그에게 향하게 하였다. 만경이 ‘격고려문(檄高麗文)’을 지어 말하기를, “압록(鴨綠)의 험함을 지키는지 알 수 없소.” 천남건(泉男建)이 답하여 말하기를, “삼가 명을 듣겠습니다.” [남건이] 즉시 군대를 옮겨 압록진(鴨綠津)에서 웅거하니, 당병(唐兵)이 [압록수를] 건널 수 없었다. 황상이 이를 듣고 만경을 영남(嶺南)으로 유배 보냈다.⁸⁰⁾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임기환, 2022, 67쪽). 그러나 10월 2일이라는 구체적인 연월일이 정확히 기록된 『삼국사기』를 부정하기 어렵다(徐榮教, 2022(a), 7쪽). 게다가 이적은 이미 신성이라는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굳이 요동성 함락에 연연하지 않고 곧장 압록수 일대로 진격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이적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요동성이 전투 없이 이적에게 투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80)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龐同善·高侃尙在新城 泉男建遣兵襲其營 左武衛將軍薛仁貴擊破之 侃進至金山 與高麗戰 不利 高麗乘勝逐北 仁貴引兵橫擊 大破之 斬首五萬餘級 拔南蘇·木底·蒼巖三城 與泉男生軍合 郭待封以水軍自別道趣平壤 勣遣別將馮師本載糧仗以資之 師本船破 失期 待封軍中飢窘 欲作書與勣 恐爲虜所得 知其虛實 乃作離合詩以與勣 勣怒曰 軍事方急 何以詩爲 必斬之 行軍管記通事舍人元 萬頃爲釋其義 勣乃更遣糧仗赴之 萬頃作檄高麗文曰 不知守鴨綠之險 泉男建報曰 謹聞命矣 卽移兵據鴨綠津 唐兵不得渡 上聞之 流萬頃於嶺南.”

M에 의하면 광대봉이 수군으로 평양에 진군하자, 이적이 별장 풍사본에게 군량과 무기를 싣고 광대봉에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풍사본의 배가 깨지면서 결국 광대봉의 수군은 굶주리게 되었다. 이에 광대봉은 이러한 상황이 고구려군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이적에게 이합시를 보내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접한 이적이 광대봉에게 다시 무기와 군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당군은 글필하력과 설인귀의 활약으로 인해 국내성 유역을 장악한 상황이었다. 육로로 진군했던 이적이 수군을 운용하여 광대봉에게 군수물자를 지급한 적 있고, 재차 지급하려 했다는 것은 이적이 압록수 일대의 수운을 장악하여 활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당시 광대봉의 소재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N에 의하면 광대봉의 수군은 별도로 평양으로 향했다고 했으므로 광대봉의 소재지는 일견 평양으로 볼 여지도 있다.⁸¹⁾ 다만, 당시 당군의 최종 목적지는 수군뿐만이 아니라 육군도 평양이었다(E-⑤). 본래 당의 수륙군 모두 고구려의 멸망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대봉이 평양으로 향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대봉의 수군의 최종 목적지가 평양일 뿐 처음부터 평양으로 진군했을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혹여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에 상륙한다면 고구려군에 의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에서 광대봉이 고구려군의 활동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아 광대봉은 고구려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⁸²⁾ 또한 M에서는 광대봉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려 했

81) 김용만, 앞의 책, 2004, 296~297쪽 ; 서영교, 앞의 논문, 2021, 71~74쪽.

82)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광대봉의 수군이 도리어 본인들에게 필요한 물자조차 없어 굶주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당의 고구려 침공

던 풍사본의 배가 깨졌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 풍사본의 배가 풍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깨졌다는 견해가 있으나,⁸³⁾ 고구려군의 공격에 의해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⁸⁴⁾ 광대봉의 수군은 이적이 소재한 압록수로부터 군수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곳에 상륙 후 소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N을 살펴보자.

N. [667] 겨울 10월 2일에 영공(英公)이 평양성(平壤城)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영공이] 이동혜(余同兮) 촌주(村主) 대나마(大奈麻) 강심(江深)을 뽑아 보내니, [강심이] 거란(契丹) 기병(騎兵)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성(漢城)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독촉하므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⁸⁵⁾

N에 의하면 667년 10월 2일 이적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했다고 한다. 평양성 북쪽 200리는 지금의 청천강 유역이다.⁸⁶⁾ 그런데 M에 의하면 이적은 667년에 압록수를 도하하지 못했다. 따라서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한 당군을 이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여러 패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임진수, 2024, 54쪽).

83) 서영교, 위의 논문, 2021, 72쪽.

84) 이상훈, 앞의 논문, 2018(b), 21쪽 각주 57.

8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7년 10월, “十月 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余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含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大王從之.”

86) 평양 이북 200리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을 의미한다. 직선거리로 80km 위치는 청천강 북안의 박천군 일대에 해당한다. 당시 교통로를 감안할 때 청천강 남안의 안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주가 아니더라도 청천강 일대임은 분명하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8(b), 14쪽).

이를 감안한다면 667년 10월 2일에 청천강 유역에 도착한 이적의 실체는 이적의 지시를 받은 광대봉의 수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⁷⁾ 즉, 압록수 일대에 도착한 이적은 압록수 수운을 활용하여 청천강 일대에 주둔 중인 광대봉의 수군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적이 압록수 수운을 통래 광대봉에게 군수물자 조달을 성공하자, 원만경이 남건에게 『격고려문』을 보내면서 압록의 협함을 지킬 줄 모른다고 조소하였다. 이에 남건은 즉시 병력을 압록진에서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도하를 저지하였다.⁸⁸⁾ 이때 압록진의 소재지를 압록수 남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남건이 원만경의 조소를 접한 이후에야 압록수 남안에 군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661년 남생은 수만 명의 병력으로 압록수 이남에서 당군의 도하를 저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러한 군사적인 경험으로 보아

87) 池内宏, 앞의 책, 1960. 380~381쪽.

88) 이때 648년 당의 박작성, 대행성 침공시 오골성과 안시성에서 지원군을 파병한 사례와 비교하여 667년은 이와 달리 요동 방어체제와 국내성 방어체제가 무너지자 오골성 자체의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이 되어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임진수, 앞의 논문, 2024, 58쪽). 일견 타당하나, 648년에는 당군으로부터 대행성과 박작성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골성과 안시성에서 이를 구원하고자 파병한 것이다. 반면 667년에는 이적이 압록수 일대까지 진군만 했을 뿐 아직 대행성과, 박작성이 당군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미 신성 등이 당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오골성의 병력이 선불리 압록수 방면으로 파병한다면 오히려 오골성이 함락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89)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高宗, “高麗 蓋蘇文遣其子男生以精兵數萬守鴨綠水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冰大合 何力引衆乘冰渡水 鼓譟而進 高麗大潰 追奔數十里 斬首三萬級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 乃還.” 661년 연개소문은 압록수에 당군이 오기 전에 이미 남생에게 수만명의 정예군을 주어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였다. 남생은 661년에 막리지겸 삼군대장군(莫離支兼三軍大將軍)에 취임하였다. 661년 전쟁은 평양, 요동, 압록수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남생은 압록수 방어전의 야전군 사령관을 맡은 것은 것이다. 남생의 군대 구

남건은 압록수 남안에 이미 상당수의 병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만경이 남건에게 압록의 험함을 지킬 줄 모른다는 조소의 의미는 고구려의 압록수 남안 방어의 허술함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만경은 오히려 남건의 압록수 북안 방비가 허술함을 조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원만경은 고구려의 압록수 방어가 남안에만 집중된 상황을 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압록수 북안까지 도달한 이적 휘하의 풍사본 등의 수군이 압록수에서 청천강 일대까지 활동하던 원인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남건의 압록진 방어로 인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작전은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당시 압록수 이북은 당군에 의해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일대가 점거되었으나, 대행성이나 오골성 등의 고구려의 요충지는 건재한 상황이었다.⁹⁰⁾ 따라서 이적이 압록수 북안까지 도달했다고는 하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앞서 광대봉에게 향하던 풍사본의 배가 깨진 원인을 고구려군의 공격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압록수 이북 고구려 성들의 병력이 풍사본의 배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

광대봉이 고구려군을 두려워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압록수 일대에서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⁹¹⁾ 이러한 상황에서 남건이 압록수 이북의 압록진에도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성은 연개소문이 파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군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연개소문은 648년에 대행성(大行城)·박작성(泊灼城)이 위기에 처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생을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이북 보급기지 확보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이민수,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軍史』 122, 2022(c), 211~212쪽).

90) 압록강 하류에서 대행성 - 박작성의 군대를 제압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임진수, 앞의 논문, 2024, 58쪽).

91) 광대봉은 水陸諸軍總管과 運糧使를 겸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적이 군량과 무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당시 당 수군에게 어떤 불리한 전투 상황들이 은폐되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갖게 한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2, 60쪽).

이적과 광대봉의 연계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O를 살펴보자.

O. [667] 11월 11일에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영공(英公)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벼(粟) 500석을 하사하였다.⁹²⁾

O에 의하면 667년 11월 11일 문무왕의 신라군이 장새까지 이르렀으나, 이적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회군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성 이북 200리 지점의 청천강 일대에 있던 당군의 실체는 광대봉의 수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광대봉은 남건이 압록수 북안인 압록진에도 병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청천강 일대에 계속 주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광대봉은 고구려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되어 고립무원에 처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건의 압록진 병력 배치는 광대봉의 수군 회군을 유도하고, 이적 본대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한 것이다. 즉, 고구려는 압록수의 남북 양안에서 당군을 차단함에 따라 전선이 압록수 이남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군은 고구려군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를 저지(사료 M)한 직후의 전황을 전하는 사료이다.⁹³⁾

9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7년 11월, “十一月 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 仍授江深位級 賜粟五百石.”

93) 임기환은 이적의 학처준의 군사 활동(P) 기사 이후에 압록수 도하 시도(M) 기사를 배치하고(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8~60쪽), 사건의 선후관계를 이리한 배치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임기환, 위의 논문, 2022, 65~68쪽). 그러나 『자치통감』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압록수 도하 시도(M) 기사 이후에 학처준의 군사 활동(P)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임기환의 사료 배치 기준은 따르기 어렵다.

P-①. 郝處俊이 高麗의 성 아래에 있었는데, 아직 列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고려가 갑자기 이르니 軍中이 크게 놀랐으나, 처준은 胡牀에서 뗏뗏이 乾糲를 먹으면서 은밀히 정예를 뽑아 그들을 쳐서 패배시키니, 장사들이 그의 대담한 지략에 복종하였다.⁹⁴⁾

P-②. 학처준이 安市城의 아래에 있었는데, 아직 列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 30,000명이 갑자기 엄습하여, 이르니 [학처준의] 軍中이 크게 놀랐다. 처준은 胡牀에서 뗏뗏이 乾糲를 먹으면서 은밀히 정예를 뽑아 그들을 쳐서 패배시켰다.⁹⁵⁾

P-①은 『자치통감』이며, P-②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이다. 두 사료는 기본적인 문장구조가 대동소이할 뿐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P-1에서는 당시의 전장을 단순히 고려의 성으로 기술하고, 고구려군의 병력 규모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나, P-②는 당시의 전장이 안시성이었으며, 고구려군의 병력 규모를 3만 명으로 기술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시에 이 기사와 관련된 고구려 측 독자적인 전승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단지 ‘안시성’과 ‘3만’이라는 내용만 전하는 전승 자료가 있다고 상정하기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⁹⁶⁾

다만, 고구려군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를 저지한 전황을 고려한다면 이적은 평양성으로 진격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는 안시성, 건안성 등

94)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郝處俊在高麗城下, 未及成列. 高麗奄至, 軍中大駭, 處俊據胡床, 方食乾糲, 潛簡精銳, 擊敗之, 將士服其膽略.”

9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6년 9월, “郝處俊在安市城下, 未及成列, 我軍三萬掩至, 軍中大駭. 處俊據胡床, 方食乾糲, 簡精銳, 擊敗之.”

96) 『삼국사기』 편찬시에 이 기사와 관련된 고구려측 독자적인 전승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단지 ‘안시성’과 ‘3만’이라는 내용만 전하는 전승 자료가 있다고 상정하기에도 의문이 있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2, 60쪽).

후방인 요동에 배치된 고구려군의 위협을 도외시한 무리한 진격이었다.⁹⁷⁾ 이적이 재차 압록수 도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⁹⁸⁾ 이적의 부장인 학처준의 군사 활동 기사는 이적 군의 이러한 정황을 전하는 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P-②에 전하는 당군의 안시성 공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⁹⁹⁾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 주둔했다는 것은 이적 군의 목표가 안시성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달리 말하자면, 건안성이 아직까지 존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⁰⁰⁾

97) 안시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671년 이후에야 당군에게 함락되었다(『자치통감』 권 202, 당기18, 高宗 威亨 2년 가을 7월, “公可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不攻, 者也.”).

98) 만일 이적이 압록수 일대에서 장기간 주둔하며 지속적으로 압록수 도하를 시도했다면 후방의 고구려군으로부터 배후를 습격당할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99) 임기환은 학처준의 군대가 요동의 고구려 성을 공략에 대해 신성을 후원하려는 고구려 다른 성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당군의 신성 공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술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처준이 공격한 고구려성이 요동 방어의 요충성인 요동성이나 안시성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임기환, 앞의 논문, 2022, 58~60쪽). 학처준의 안시성 공격 기사에 대한 임기환의 견해는 본문의 논지전개와 다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전황으로 보았을 때 학처준의 안시성 공격 기사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100)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이적은 태종에게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공격했을 시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보급로를 차단할 것을 우려하여 안시성을 먼저 함락한 후에 건안성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즉 당군의 안시성 공격은 건안성을 보다 원활하게 함락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에 태종은 이세적의 전략을 수렴하면서 다음 행로를 안시성 공격으로 결정한 바 있다(『자치통감』 권 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對曰, 建安在南, 安市在北, 吾軍糧皆在遼東, 今踰安市而攻建安, 若賊斷吾運道, 將若之何. 斷, 丁管翻. 不如先攻安市, 安市下, 則鼓行而取建安耳. 上曰以公爲將, 將, 卽亮翻. 安得不用公策. 勿誤吾事. 世勣遂攻安市.”).

만일 건안성이 당에 투항한 상황이었다면, 건안성의 북쪽에 있던 안시성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¹⁰¹⁾ 즉, 이적은 건안성을 함락 후 나아가 오골성을 함락하여 재차 압록수 도하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P군에서는 학처준이 고구려군 3만 명의 기습을 물리쳤다고는 하나, 안시성 함락에 대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의 일회성 기습을 물리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구려군 3만 명은 당군의 안시성 함락을 저지하였다. 이 고구려군 3만 명은 처려근지급 성인 안시성¹⁰²⁾의 병력이라기보다는 오골성 등의 지원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⁰³⁾ 고구려는 안시성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건안성과 오골성을 사수하고 당군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구려 멸망 전쟁(666~668)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666~667년의 전황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그 아들들인 남생과 동생들(남건, 남산)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국내성

101)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태종이 이적에게 말한 것처럼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함락한다면 안시성의 전략적 가치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자치통감』 권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公可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不攻, 者也.”).

102) 노태돈, 앞의 책, 1999, 247~248쪽.

103) 이와 관련하여 648년 설만철군이 압록수 이북을 공격할 당시 박작성의 구원군 3만 명은 오골성, 안지성(안시성)에서 차출한 요동의 군대였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구당서』 권69, 列傳19 薛萬徹 ; 『신당서』 권94, 列傳19, 薛萬徹 ; 『책부원구』 권985, 外臣部30 征討4).

에 주둔하던 남생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아들인 현성을 당에 보내 투항 의사를 전했다. 이에 당 고종은 666년 6월 7일 남생 구원군을 파병하였다. 형인 남생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새로운 집권자 된 남건은 당의 출병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수에 주둔하였다. 666년 9월 고구려군과 당의 남생 구원군은 요수 일대에서 한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며, 당군은 남생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회군하였다.

이후 666년 10월 당은 대규모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듬해인 667년 1~2월 요수를 도하한 당군의 전략은 신성 함락 후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확보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것이었다. 고구려 신성의 군대는 당군의 침공에 맞서 무려 8~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667년 9월 14일 함락되었다.

신성을 함락한 당군은 전력을 분산하여 이적은 압록수 일대로 남진하였다. 글필하력, 방동선, 고간, 설인귀는 신성을 방어하면서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장악하고 남생의 신변을 확보하였다. 고구려는 압록수 일대로 진군한 이적의 당군에 맞서 당군의 압록수 도하를 차단하고, 전선의 확장을 저지하였다. 이후 당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안시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를 간파하여 학처준의 군대를 기습하기도 하면서 당군의 안시성 함락을 저지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건안성과 오골성을 사수하고 당군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670년대 이후 고구려 유민과 신라·당 관계

| 김강훈

670년대 이후 고구려 유민과 신라·당 관계

김 강 훈*

- I. 머리말
- II. 673년 후반 고구려 유민과 나당전쟁
- III.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과 고구려 고지의 정세
- IV. 보덕국(674~683)의 존망과 신라·당 관계
- 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인들은 668년 9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하면서 마침내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한 기나긴 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인식하였다.¹⁾ 그러나 신라-당 관계는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원활하지

* 사동중학교 교사.

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遂破平壤 克成大功 於此新羅兵士竝云 自征伐已經九年 人力殫盡 終始平兩國 累代長望 今日乃成.”

못하였고,²⁾ 신라와 맞닿아 있는 서북한(西北韓) 일대는 당의 지배 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으로 불안정하였다.³⁾ 신라와 당은 전후 영토 처리와 국제 질서에 대한 구상이 달랐기에,⁴⁾ 고구려 멸망은 전쟁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인에게 보장왕의 항복과 평양성 함락은 곧 고구려의 멸망으로 인식되었다.⁵⁾ 당의 지배 정책에 협조 내지 순응하는 고구려 유민도 있었지만, 그들과 달리 당의 지배에서 이탈하거나 저항하는 유민들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영토·인민·자원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하거나 상대국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이 아닌 고구려 부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검모잠은 한성(漢城)에서 안승을 국왕으로 세우며 일시적이거나 고구려 부흥을 이루었다.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각각 동주도행군총관, 연산도행군총관에 임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다.⁶⁾ 검모잠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안승을 왕으로 세웠음을 알리고 신라의 번병(藩屏)이 되기를 맹세하며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

2) 이와 관련하여, 당대 묘지명을 활용해 660년 사비성 함락 후 당군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계획하였음을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 669년 2월 안승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는 기록(『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10, 총장 2년 2월,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은 사실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지배 체제에 불만을 가진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유입되어 간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4) 신라는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반해, 당은 백제·고구려 고지(故地)뿐만 아니라 신라 영역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5) 검모잠이 신라에 보내 애고문(哀告文)(『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6월)에는 고구려를 ‘멸국(滅國)’으로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하였다[我國先王以失道見滅]’고 하였다.

6)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고려, “大長鉗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備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왕으로 책봉하며 지원을 약속하였다.⁷⁾ 이제까지 서북한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나당연합군이 대결하던 상황이 종결되고,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의 연합군이 당군과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부흥세력은 673년 윤5월 호로하(瓠瀾河) 서쪽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근거지를 상실한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이주하였다.⁸⁾ 그러나 당군의 군사행동은 종결되지 않았고 우잠성(牛岑城), 대양성(大楊城), 동자성(童子城)을 공격하는 등 673년 말까지 이어졌다.⁹⁾

지금까지 이 전투에 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기년을 조정하여 672년 및 675년에 일어난 전투로 이해하기도 하고,¹⁰⁾ 당군이 고구려 유민을 쫓아 신라 영내로 진입했다가 패배하자, 우잠성에서 고구려 유민이 재차 봉기했다고 보기도 한다.¹¹⁾ 최근에는 당군이 한강 하류 유역에서 후퇴하며 발생한 전투로 보는 연구¹²⁾, 당군이 신라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예성강 유역, 한강 하류, 북한강 상류 등 세 방면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¹³⁾가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고구려 유민의 신라 이주라는 측면에

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6월, 7월.

8)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4년 윤5월,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瀾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겨울.

10)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2, 1930, 82~85쪽, 111~116쪽.

11)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1983, 64쪽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 75-1, 2016, 117~118쪽.

12)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94~98쪽.

13)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 2권(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89쪽.

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674년 2월 당 고종은 유인계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대대적인 신라 원정을 추진하였다.¹⁴⁾ 그런데 한반도에서 당군의 군사행동은 675년 2월에서야 확인된다. 이를 나당전쟁의 소강기로 파악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서역의 정세,¹⁵⁾ 당군의 원정 준비,¹⁶⁾ 당 조정의 권력 구도¹⁷⁾ 등이 제기되었다.¹⁸⁾ 각 견해가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구려 고지(故地)의 정세에 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헌에는 674년 서북한 지역의 정세를 분석할 기록이 부족하지만, 당대 금석문에서 당시 고구려 고지의 상황을 반영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673~674년 신라로 들어간 고구려 유민은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일대에 집단 안치되었다. 이를 대체로 보덕국(報德國)이라 한다.¹⁹⁾ 신라가 보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처 및 정책에 대해서는

14) 『신당서』 권3, 본기3, 고종 상원 원년 2월 임오, “劉仁軌爲雞林道行軍大總管 以伐新羅.”

15)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190~194쪽.

16)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194~197쪽.

17) 曹凌, 「唐·新羅戰爭史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79~85쪽.

18) 拜根興, 「“唐羅戰爭”始末及涉及問題」, 『石刻墓誌與唐代東亞交流研究』, 科學出版社, 2015, 162~166쪽에서도 계림도행군의 출정이 늦추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 ‘보덕국’은 신라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책봉한 데서 비롯된 명칭인데, 사료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 용어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필자는 ‘보덕국’을 대체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덕국’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보덕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1966 ; 金壽泰, 「統一期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 임기환,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2003 ; 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2010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

주로 신라의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하지만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의 존재가 나당전쟁의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⁰⁾ 고구려 유민-당, 고구려 유민-신라, 신라-당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신라가 7세기 중반부터 당제(唐制)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²¹⁾ 당의 내부(內附) 이민족 규정도 검토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덕국의 존재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보덕국의 해체 과정과 보덕성민의 반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Ⅱ. 673년 후반 고구려 유민과 나당전쟁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은 이에 맞서 각 지역에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를 책임지고 있던 안동도호 설인귀뿐만 아니라 당 고종 및 중앙 관료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669년 4월 고구려 유민에 대한 대규모 사민 조칙을 내리며 그 배경으로 이반자(離叛者)를 지목하거나,²²⁾ 669년 8월

渚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정원주,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 110, 2019 등이 있다.

20)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 신은이, 「羅唐戰爭의 전개와 報德國」, 『嶺南學』 84, 2023.

21) 한준수,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2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고종 총장 2년 4월, “高麗之民多離叛者 敕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당 고종의 순행을 만류하며 부여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거론한²³⁾ 바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조정이 가장 중대하게 인식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검모잠의 거병이었다.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총관에 임명하며 2개의 행군을 파견하였고 양방을 보내 고구려 유민을 위무하게 하였다.²⁴⁾ 전에 없던 조치를 내린 데서, 당 조정이 검모잠의 부흥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것은 당시까지 일어났던 고구려 유민의 저항과 달리,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왕 안승은 고구려 멸망이라는 전과(戰果)를 부정하는 동시에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유민의 저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검모잠과 안승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은 결국 당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결전으로 언급되는 것이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에서의 전투였다(이하 호로하 서쪽 전투).²⁶⁾ 고구려 부흥군은 이근행

23) 『당회요』 권27, 행행, “總章二年八月一日 詔以十月幸涼州 … 詳刑大夫來公敏曰陛下巡幸涼州 遐宣王略 求之故實 未虧令典 但隨時度事 臣下竊有所疑 既是明制施行 所以不敢塵黷 奉勅顧問 敢不盡言 近高麗雖平 扶餘尙梗 … .” 이 기록에 대한 분석은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城 圈域의 부흥운동」, 『大丘史學』 127, 2017, 42~59쪽 참조.

24)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고려, “大長鉞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侃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25) 김수진, 「670년 평양 일대 고구려 유민의 남하와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실학』 72, 2020, 7쪽.

26) 『구당서』 권5, 본기5, 고종 하 함형 4년 윤5월 정묘, “燕山道總管李謹行破高麗叛黨於靑蘆河之西 高麗平壤餘衆遁入新羅.”; 『책부원귀』 권358, 장수부19, 입공10, “李謹行爲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 咸亨四年 大破高麗叛徒於靑蘆河之西 俘獲數千人 自是平壤餘衆 走投新羅.”; 『자치통감』 권202, 당기17, 고종 함형 4년 윤5월,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靑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전장으로 기록된 ‘호로하 서쪽’은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개성 방면

이 이끄는 당군과 싸워 큰 피해를 입으며 패하였고,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로 이주하였다. 『신당서』 고려열전에서는 이를 두고 ‘그리하여 4년 만에 평정하였다[凡四年乃平]’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 조정이 고구려 유민의 저항을 최종 진압하였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간과 이근행이 이끈 당 행군은 어떻게 되었을까? 행군은 대외 원정과 같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임시로 조직된 군단이기 때문에, 본래 임무가 종결되면 본국으로 귀환하고 행군은 해체해야 한다.²⁷⁾ 그런데 호로하 서쪽 전투 후에도 당군의 군사행동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 A. ① (9월) 왕이 대아찬 철천(徹川)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② 당병(唐兵)이 말갈·거란병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왔는데, 무릇 아홉 번 싸워 우리 군사가 이겨 2천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병 중 호로(瓠蘆)와 왕봉(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 ③ 겨울, ㉠당병이 고구려 우잠성(牛岑城)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거란·말갈병은 대양성(大楊城)과 동자성(童子城)을 공격하여 멸하였다.²⁸⁾

으로 추정하거나(池內宏, 앞의 논문, 1930, 81쪽), 연천 무등리~호로그루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임용환,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자료집, 2013, 125쪽) 등이 있다.

27) 『신당서』 권50, 지40, 병, “若四方有事 則命將以出 事解輒罷 兵散于府 將歸于朝.”

2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九月) 王遣大阿浪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蘆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冬 唐兵攻高句麗牛岑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우선 673년 9월 문무왕은 대야찬 철천 등에게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도록 하였다(A-①). 서해 방면에서 당 수군의 공격 내지 군수품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는 신라가 당군의 침입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전투가 일어난 사실은 A-②에서 확인된다. 당병이 말갈·거란병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으나, 9번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였다. 이 전투를 중국 사료의 호로하 서쪽 전투와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⁹⁾ 그러나 당군의 구성, 전장, 전투의 시기와 승패가 다르기에, 이 견해를 따르기에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당군이 호로하를 넘어 신라로 망명하는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다가 일어난 전투³⁰⁾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③은 673년 겨울 당병이 고구려 우잠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으며, 거란·말갈병이 대양성, 동자성을 공격하여 멸하였다는 기록이다. 먼저 각 성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다. 우잠성은 신라 우봉군(牛峯郡)의 고구려 지명인 우잠군(牛岑郡)의 치소로 추정되며,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북한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으로 비정된다.³¹⁾ 대양성은 한강·임진강 하구 인근으로 추정하기도³²⁾ 하지만, 회양의 옛 지명인 고구려 대양관군(大陽管郡), 신라 대양군(大陽郡)을 근거로 회양으로 비정되고 있다.³³⁾ 구체적으로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하현

29) 盧泰敦,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1997, 13쪽.

30) 古畑徹, 앞의 논문, 1983, 64쪽 ; 井上直樹, 앞의 논문, 2016, 117~118쪽.

31)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35쪽, 256쪽.

32) 津田左右吉, 「唐羅交戰地理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306쪽 ;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113쪽.

33) 『대동지지』 권15, 회양조에 A-③-㉠를 전재하고 대양성을 회양의 고려시기 지

리 일대(북한 강원도 금강군 현리)로 볼 수 있다.³⁴⁾ 동자성은 동성현(童城縣)의 고구려 지명인 동자홀현(童子忽縣)과 연결되기에³⁵⁾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일대로 비정된다.³⁶⁾

〈그림 1〉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의 위치와 자비령로



명인 장양(長楊)이라고 주석하였다. 『아방강역고』 말갈고에서도 A-③-㉠을 제시하며 대양성을 회양이라 주석하였다.

34)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앞의 책, 1997, 235쪽, 278쪽.

35) 津田左右吉, 앞의 책, 1913, 306쪽 ; 池內宏, 앞의 논문, 1930, 113쪽.

36)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앞의 책, 1997, 235쪽, 245쪽. 동성현의 치소성을 현재 김포시 하성면의 동성산고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朴宙炫, 『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 『韓國史論』 4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152쪽). 한편 최근에 대양성·동자성 전투를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작전으로 이해하면서, 동자성을 강원도 회양에 근접한 고성(高城) 지역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윤경진,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 2017, 265쪽). 두 전투가 동일한 작전 범주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감이나, 지명의 유사성만 보자면 김포 일대가 더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기존 견해와 같이 동자성을 김포로 비정하면서 당군이 한강 하류와 강원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친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A-③ 기사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고구려 우잠성’이다. 비록 고구려 부흥세력이 호로하 서쪽 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세가 당군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전히 임진강 이북 지역에 고구려 부흥세력이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양성과 동자성을 고구려 유민의 거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반면 신라성으로 보기도 한다. 대양성과 동자성을 고구려 유민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A-③의 ㉠과 ㉡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행동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일찍이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A-③의 ㉠과 ㉡을 분리하여, ㉠은 672년에 발생한 전투로 이해하고, ㉡은 A-①·②와 함께 675년의 일로 파악하였다.³⁷⁾ 이는 『삼국사기』의 독자 기록보다 중국측 기록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나당전쟁에 관한 기록은 중국측 기록보다 『삼국사기』가 더 자세하며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기에³⁸⁾ 따르기 어렵다.

A-②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란·말갈병은 독자적으로 활동한 세력이 아니라 당에 의해 동원된 변병(蕃兵)이었다.³⁹⁾ 나당전쟁기 거란·말갈병 또는 말갈이 단독으로 전투를 벌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군의 명령 내지 작전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A-③ 기사에서 당병과

37)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82~85쪽, 111~116쪽.

38) 존·씨·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최근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만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적지 않고 기년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중국 사서의 기록과 대응하면서도 내용이 더 상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구려 부흥운동 연구의 기본 자료는 신라본기의 기록이라고 하였다(임기환,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94, 2024).

39)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2006.

거란·말갈병은 동일한 전략 하에서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을 공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대양성과 동자성이 고구려 유민의 거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하는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인들이 백제부흥세력 및 웅진도독부와 치른 전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신라인들은 백제 유민이나 웅진도독부가 점거하고 있는 성이나 지역의 점유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백제 유민의 지도자를 밝히는 경우이다.⁴⁰⁾ 다음으로 백제의 남은 적/무리[百濟餘賊/百濟殘賊/百濟殘衆] 등으로 지칭하는 사례이다.⁴¹⁾ 그리고 백제 ○○성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⁴²⁾ 이중 A-③과 유사한 사례로 다음 기록이 참고가 된다.

B.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을 목 베었다. 또 거물성과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덕안성을 공격하여 1,070명을 목 베었다.⁴³⁾

4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8월, “佐平正武聚衆庄豆尸原嶽 抄掠唐羅人.”;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賊臣福信 起於江西 取集餘燼 圍逼府城 先破外柵 摠奪軍資 復攻府城 幾將陷沒 又於府城側近四處 作城圍守 於此 府城不得出入.” 등

4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9월, “百濟餘賊入泗泚 謀掠生降人.”;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8월, “大王領諸將 至始館谷停留 □使來告曰 百濟殘賊 據龜山城遮路 不可前 大王先遣使諭之 不服” 등.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6월, “遣將軍竹旨等 領兵踐百濟加林城禾.”;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정월, “王遣將攻百濟古省城 克之.” 등

4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2월,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663년 2월 신라군은 백제부흥세력을 공격하여 거열성을 빼앗고 거물성과 사평성의 항복을 받아 냈으며 덕안성에서는 1,070명의 목을 베며 승리를 하였다. 신라군이 공격한 대상을 백제 거열성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거물성, 사평성, 덕안성에 대해서는 점유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백제 ○○성’으로 기록하고 그 뒤에는 ‘백제’를 생략한 것이다.

이러한 필법을 고려한다면, 고구려 유민이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A-③에서 먼저 기재되는 우잠성만 ‘고구려 우잠성’으로 표기하고, 대양성과 동자성은 ‘고구려’를 생략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양성과 동자성이 신라의 영역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 고구려 유민들이 잇달아 신라로 도망갔다는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성을 거점으로 한 고구려 부흥세력의 세력권은 대체로 황해도 일대로 추정된다. 고구려 부흥군·신라군과 당군의 충돌 지점을 살펴보면, 당군은 주로 자비령로(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개성-과주)를 남진 경로로 이용하였다고 생각된다.⁴⁴⁾ 당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빼앗기고 점차 세력권이 축소되던 와중에, 호로하 서쪽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임진강 유역의 주요 도강처는 당군이 통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 유민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신라로 이주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먼저 황해도 동부 산간지대나 임진강 상류 지역에 거주하던 고구

44) 윤성호, 「나당전쟁기 칠중성 전투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61, 2024 (b), 247~248쪽.

려 유민 중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북부 지역, 즉 영서지방 북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는 672년 우수주(牛首州)에 우수주삼천당, 우수주서, 우수주계당을 설치하면서, 우수주를 영서 지역과 영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교두보로 삼는 조치를 시행하였다.⁴⁵⁾ 그리고 673년 비열홀주를 우수주로 옮기는 등 동북방면의 전선을 재조정하였다.⁴⁶⁾ 이는 나당전쟁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예측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672~673년 강원 일대에서 전방위적인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병력 확보는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⁴⁷⁾ 이때 신라로 내부한 고구려 유민은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신라는 이들을 강원 일대 주요 성곽에 배치하여 방어력 증강에 활용했다고 추정된다. 673년 겨울 대양성 전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란·말갈병은 기본적으로 강원 지역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강원 일대에 새롭게 조직된 군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⁴⁸⁾

한성을 포함한 황해도 서남부 지역의 유민들은 임진강을 건너 신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해로를 통해 경기 서부

45)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한국학논총』, 2017.

46)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대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307~310쪽.

47) 문무왕대는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된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이 강구되었다(李文基, 「新羅 文武王代の 軍事政策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32, 2004, 190~199쪽).

48) 대양성 전투 이후 당군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이 보이지 않기에, 우수주 일대의 군사조직 강화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110, 2023, 240~241쪽).

해안 일대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고구려 유민들이 황해도 일대의 항구와 포구를 출발해⁴⁹⁾ 해로를 이용하여 신라 영내로 이주하였다면, 신라는 이들을 강화, 인천 등 경기 서부 지역에 안치하였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동자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사료 A-①에서 병선 100척으로 서해를 지키게 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달 국원성 등 8개 성을 쌓아 방어체계를 구축한⁵⁰⁾ 바와 연동하면서, 당 수군이 해로를 통해 신라로 들어온 고구려 유민을 추격할 것에 대비하는 성격을 함께 지녔다고 할 수 있다.

660년 당군 13만 명이 산둥반도의 내주(萊州)를 출발하여 서해를 건너 덕물도에 도착한⁵¹⁾ 이래로, 당이 바다를 통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다. 더욱이 나당전쟁 초기 당 수군은 경기만 북부일대 등 서해에서 활동하였고, 신라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⁵²⁾ 따라서 신라는 서해안 특히 경기만 일대의 군비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며, 이 지역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은 신라군의 전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673년 9월 당병, 말갈·거란병은 신라 영역 내로 들어온 고구려 유민 세력을 추격하며 신라의 변경을 침

49) 예컨대 해주 지역은 해양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동시에 북쪽으로 신원-봉산-평양으로 통하기에 육상교통에서도 요충지라 할 수 있다(徐日範, 『北韓地域 高句麗山城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51쪽). 조선 영조대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해주의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남쪽으로 큰 바다와 접하고 북쪽으로 서관(평안도와 황해도)을 공제하니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이다(南跨大海 北控西關 陸海之要衝也).”라고 기술하였다.

5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9월 “築國原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達含郡主岑城居烈州萬興寺山城敵良州骨爭峴城.”

5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3월, 5월 26일.

52) 이상훈,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 37, 2011 ; 이상훈, 앞의 책, 2012, 154~176쪽.

입하였고, 공략 대상은 경기 서부 해안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안치된 유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라는 이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는데, 특히 당병 중 호로하와 왕봉하에 빠져 죽은 자가 많다는 기록은 당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675년 2월 당군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는데, 말갈병은 바다로 가서 남쪽 경계를 공략하였다.⁵³⁾ 여기서 말갈병은 수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⁴⁾ 그리고 675년 9월 천성 전투에서 신라는 당의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았는데, 여기서 당 수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⁵⁵⁾ 이에 비해 673년 9월 기사에서 당 수군이 동원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당병은 호로하와 왕봉하를 도하(渡河)하는 과정에서 빠져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⁵⁶⁾

임진강 이북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교통로는 자비령로를 따라 이동하여 적성을 통해 동두천-양주-서울로 이어지는 길이다.⁵⁷⁾ 당군이 이 교통로를 행군하기 위해서는 칠중성과 양주 분지 일대의 신라 성곽을 차례로 점령해야 하였다. 따라서 당군은 신라의 방어체계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경기 서부 해안 지역으로 진군

53)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신라,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54)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114쪽. 구체적으로 말갈 수군이 임진강을 거슬러 우포(牛浦)에 상륙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병희·서영교,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軍史』 118, 2021, 62~64쪽).

5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당군은 전선을 임진강에서 한강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했다고 이해된다(이상훈, 앞의 책, 2012, 213~218쪽).

56)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258쪽.

57)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49~261쪽.

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했을 것이다. 아마도 연천 호로고루 일대를 흐르는 호로하를 건너 파주-고양 방면으로 남하하여 행주 인근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경로를 선택한 것 같다.⁵⁸⁾ 고양시 행주동 일대로 비정되는 우왕현(遇王縣)이 왕봉현(王逢縣)으로 불렸기에, 왕봉하는 행주산성 일대의 한강 하류를 가리킨다는⁵⁹⁾ 점에서 방증된다. 당군은 왕봉하를 건너 한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신라군에 막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호로·왕봉 두 강에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이해된다.

당군이 크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은 황해도 일대 고구려 유민들이 재차 거병하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우잠성이 그러하였다. 당군은 673년 겨울 우잠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유민의 항복을 받아 내며 임진강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였다. 한편 당군은 거란·말갈병을 동원해 경기 서부 해안 지역 및 영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투 결과, 당군은 대양성과 동자성을 멸(滅)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을 함락하였다는 의미이지만, 우잠성 전투 결과를 ‘항(降)’으로 기록한 것과 비교가 된다. 즉 대양성과 동자성의 고구려 유민은 투항이 아닌 끝까지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패배하였다.⁶⁰⁾

58)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136쪽 지도에서 당군의 남진 경로를 호로하(마전)-파주-왕봉하(고양)로 표기하고 있다.

59)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앞의 책, 1997, 235쪽.

60) 675년 적목성 전투가 참고가 된다. 말갈이 적목성을 공격하자 현령 탈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맞서 싸웠지만, 결국 힘이 다해 모두 죽고 말았다. 이를 말갈이 적목성을 ‘멸(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Ⅲ.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과 고구려 고지의 정세

비록 동자성과 대양성에 안치되었던 고구려 유민은 당군의 공격을 받고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신라 영역 내에는 당의 지배를 수용하지 않는 고구려 유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674년 2월 당 고종은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비난하며 유인궤를 계림도행군대총관에 임명하고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⁶¹⁾ 그런데 계림도행군은 곧바로 파견되지 않았다.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C. 낙성공(樂成公)이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니 천거하여 장수로 삼았다. 공(公)에게 조를 내려 지절(持節) 계림도총관(鷄林道總管)으로 삼았으나, 군(軍)이 멈추어 가지 않았다. 사주자사(沙州刺史)에 제수되었으나 이르기 전에 바꾸어 숙주자사에 임명되었다.⁶²⁾

이는 7세기 후반 서역 방면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왕방익(王方翼)⁶³⁾의 신도비 중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낙성공(樂成公) 즉 유인궤가 신라를 정벌할 때, 왕방익은 유인궤의 추천으로 계림도총관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계림도행군의 출정이 멈추면서, 그는 사주자사에 제수되었고 다시 숙주자사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674년 2월 이후 당 조정이 모종의 연유로 계림도행군의 출정을 중지하였

61) 『책부원귀』 권986, 외신부31, 정토5 ; 『당회요』 권95, 신라.

62) 『全唐文』 권228, 「唐故夏州都督太原王公神道碑」, “樂成公東討新羅 薦爲將師 詔公持節鷄林道總管 軍停不行 授沙州刺史 未至 改拜肅州.”

63) 왕방익은 『당서』에 입전된 인물이다. 왕방익 열전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현준·이진선, 「『舊唐書』·『新唐書』王方翼傳 譯註」, 『新羅史學報』 28, 2013 및 朴沼陽平, 「王方翼攷-『舊唐書』 卷185 良吏王方翼列傳譯注を中心として」, 『帝京大學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 20, 2021 참조.

음을 알 수 있다.⁶⁴⁾ 그리고 675년 2월 전투가 재개되기까지 1년여 동안 전쟁은 소강기를 맞게 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구려 고지의 정세부터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674년 안동도호부 치소의 위치이다. 다음 기록은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에서 안동도호부의 이전에 관해 『실록(實錄)』을 인용한 부분이다.

- D. 『실록』에서 함형 원년(670) 양방과 고간이 안순(安舜)을 토벌하고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주(遼東州)로 옮겼다고 한다. 의봉 원년(676) 2월 갑술, 고구려의 남은 무리(高麗餘衆)가 반란을 일으키자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겼다고 한다.⁶⁵⁾

『자치통감고이』에는 670년 양방과 고간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주로 옮겼다는 『실록(實錄)』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책부원귀』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⁶⁶⁾ 또 『신당서』 고려열전에서 양방이 고구려 유민을 안무하였으며 고간이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고 한다.⁶⁷⁾ 따라서 동주도행군총관 고간은 설인귀의 뒤를 이어 안동도호에 임명되었고,⁶⁸⁾ 검모잠의 거병으로 평양 일대에

64) 拜根興, 앞의 책, 2015, 162쪽.

65) 『자치통감고이』 권10, 당기(唐紀)2, 의봉 원년 2월, “實錄 咸亨元年 楊昉高侃討安舜 始拔安東都護府 自平壤城移於遼東州 儀鳳元年二月甲戌 以高麗餘衆反叛 移安東都護府於遼東城.”

66)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척토(拓土), “楊防爲司平太常伯 往安東 安撫高麗餘衆 時有高麗酋長鉏牟岑 率衆反叛 立高藏外孫安舜爲主 詔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發兵以討之 安舜遽殺鉏牟岑 走投新羅 防侃始拔安東都護府 自平壤城移於遼東州.”

6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舜殺鉏牟岑走新羅 侃徙都護府治遼東州.”

68)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1997, 62쪽 ;

서 당의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676년 2월 당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기는 조치를 다시 시행하였다. 이는 사료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안동도호부가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긴 뒤에 재차 평양성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⁶⁹⁾

669년 설인귀의 신성 이치(移治), 670년 고간에 의한 도호부치(都護府治)의 요동주 이전 등의 사례를 볼 때, 안동도호부는 부흥운동 진압의 군사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⁷⁰⁾ 따라서 안동도호부가 다시 평양으로 이전된 시기의 상한은 고간과 이근행이 지휘하는 당군이 평양에 이르러 8개의 군영을 건설하고 주둔한 672년 8월로 추정할 수 있다.⁷¹⁾ 이후 당군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고간의 행적이 674년부터 확인되지 않기 에,⁷²⁾ 672년 8월부터 673년 겨울 사이에 안동도호부는 요동성에서

김종복,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9, 2003, 23쪽.

69) 日野開三郎, 「小高句麗國の研究(1)」, 『史淵』 63, 1954, 40~41쪽에서 ①670년 요동주로 이전했던 안동도호부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676년 요동으로 옮겨갔을 가능성, ②670년의 이전은 임시 조치였고 676년의 이전은 임시 조치를 공식화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日野開三郎은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었다.

70)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217쪽.

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7월,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72) 674년 1월 유인제가 계림도대총관에, 이근행과 이필이 부총관에 임명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필이 고간을 대신하여 당병을 통솔하게 되었다고 이해된다(김종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89쪽). 또는 당이 674년 정월 유인제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토벌하게 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하였던 행군은 해체하였고 고간은 당으로 귀환했다고 추정한다(여호규·拜根興,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

평양성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⁷³⁾ 그렇다면 674년 나당전쟁의 소강기에 안동도호부는 평양성에 있었던 것이다.

고간의 후임으로 안동도호에 임명된 인물을 추정하는데 다음 기록이 참고가 된다.

E. 북정(北庭)에 일이 없으니 세 차례 표문으로 공(功)을 알렸다. 동쪽이 아직 편안하지 않으니 다시 8조의 공적을 쌓도록 은청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 안동도호(安東都護)에 배수되었다. 오부(五部)의 변읍(邊邑)을 다스리고 구종(九種)의 유민을 모으니, 열은 별[微陽]이 따듯하게 비추어 곡식이 자라나고, 큰 파도가 사라져 바다가 고요해졌다.⁷⁴⁾

사료 E는 당대 무장이었던 굴돌전(屈突詮)의 묘지명 중 일부이다. 그는 고구려-당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⁷⁵⁾ 범양현개국후(范陽縣開國侯)에 봉해지고 하주도독(夏州都督)에 임명되었다. 다음 관력이 안동도호인데, ‘동쪽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임명 이유였다. 그리고 굴돌전은 안동도호로서 ‘오부(五部)의 변읍(邊邑)을 다스리고 구종(九種)의 유민을 모았다.’ 오부와 구종은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⁷⁶⁾ 즉 굴돌전은 고구려 고지를 안

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2017, 84쪽).

73) 674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일시적인 평온이 찾아오자, 당이 요동에서 평양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겼다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梁炳龍,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1997, 51~52쪽).

74) 「屈突詮墓誌銘」, “北庭無事 旣聞三表之功 東隅未康 北佇八條之績 拜銀青光祿大夫安東都護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微陽煦而谷春 巨浪銷而海謐.”(吳鋼 主編, 『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 三秦出版社, 2006, 65~68쪽;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17쪽).

75) 李獻奇·周錚, 「武周屈突詮墓誌考釋」, 『中原文物』 2002-3, 2002, 58쪽.

76)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 123쪽.

무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⁷⁷⁾

묘지명의 기록만으로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재임한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설인귀의 후임으로 672~673년경 임명되어 674년 모친상을 당하기까지 재임하였다는 견해,⁷⁸⁾ 설인귀가 670년 4월 토번 전선에 투입되자, 그 후임으로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임명되었고 673년경 고간이 굴돌전의 후임으로 안동도호가 되었다는 견해,⁷⁹⁾ 굴돌전은 고간의 후임이며 재임기간을 673~675년으로 추정하는 견해⁸⁰⁾ 등이 제기되었다. 앞서 설인귀의 뒤를 이어 고간이 안동도호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674년 초 당이 동방에 파견한 행군을 재편성하면서 고간은 귀환하게 되었고, 굴돌전이 새롭게 안동도호로 파견되었다고 파악된다.

674년 초 굴돌전이 안동도호에 임명될 즈음에 안동부도호(安東副都護)를 맡고 있던 □영(□永)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그의 묘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F. 군의 휘는 영(永)이고 자는 룡(隆)이다. … 요(遼)를 정벌하라는 명이 있으니 다시 유격장군(游擊將軍) 좌금오위(左金吾衛) 주양부좌과의(周陽府左果毅)를 배수받았다. 다시 정원장군(定遠將軍) □□위(□□衛) 화지부절충(華池府折衝) 상주국(上柱國) 검교안동부도호(檢校安東副都護)로 옮겨졌다. 대신으로 나라를 걱정하였고, □□하지 못하고 뜻있는 선비로 명예롭게 목숨을 바치니 마원(馬援)과 같이 강건하였다. 상원 원년(674) 봄 2월 1일 병으로 안동부(安東府)의 관사에서 죽으니 나이가 58세였다.⁸¹⁾

77) 曹凌, 「고구려의 멸망에서 나당전쟁 발발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4, 2017, 129쪽.

78) 李獻奇·周錚, 앞의 논문, 2002, 58쪽.

79) 曹凌, 앞의 논문, 2017, 129쪽.

80) 辛時代, 「唐代安東都護府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40쪽.

81) 「□永墓誌銘」, “君諱永 字有隆 … □命征遼 還拜游擊將軍 左金吾衛 周陽府左果

이에 따르면 □영은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였으며, 고구려 멸망 후에는 검교안동부도호에 임명되었다. 그가 안동부도호에 임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병으로 안동도호부 관사에서 사망하였기에 안동부도호의 직임을 수행하던 중 죽음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674년 초 안동도호가 고간에서 굴돌전으로 교체되고 안동부도호는 관사에서 사망하면서, 안동도호부의 수뇌부가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안동도호에 임명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무장 출신으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이었고, 굴돌전도 이에 해당한다.⁸²⁾ 그런데 「굴돌전묘지명」에는 안동도호 재임기 군사적 활약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찬자가 묘주의 공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기술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상세히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674년 나당전쟁이 소강상태였다는 사실과 연결한다면, 서북한 일대 고구려 고지에서 안동도호부 진수군의 군사 활동이 그다지 없었음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물론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지배층에 대한 압송, 부강자(富强者)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민, 4년여 동안의 부흥운동 등으로 서북한 일대는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소모가 진행되었다. 신라로 도망가지 않고 현지에 남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당의 지배를 소극적이거나 수용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서북한 일대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력

毅 又遷定遠將軍 □□衛 華池府折衝 上柱國 檢校安東副都護 大臣憂國 □□未□志士殉名 馬援當逞 以上元元年春二月一日 寢疾薨於安東府之官舍也 春秋五十有八。”(周紹良·趙超 編, 『唐代墓誌彙編』, 上海古籍出版社, 1992, 1589~1590쪽 ; 권덕영 외, 앞의 책, 2015, 566쪽).

82) 程尼娜, 「唐代安東都護府研究」, 『社會科學輯刊』 2005-6, 2005, 129쪽 ; 辛時代,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3, 50쪽.

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일대에서 군사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기록을 보면 당군의 공세 및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주춤하게 된 다른 이유가 확인된다.

G. 공의 휘(諱)는 효빈, 자(字)는 순, 성은 육(陸)이며 하남 낙양인이다. … 일찍이 함형 연간에 당군[王師]이 요(遼)를 정벌하자 공(公)은 참가하였는데 군사(軍事)였다. 벗인 태원 출신 왕수(王守義)가 해동(海東)에서 역(疫)에 걸렸다. 길이 험하고 도적들이 가로막으니 병세(兵勢)가 위급하였다. 공이 홀로 위급한 중에도 상(喪)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⁸³⁾

위 사료는 당대 인물인 육효빈(陸孝斌)의 신도비 가운데 일부이다. 그는 당군이 함형 연간에 요(遼)를 공격할 때 참전하였다. 함형 연호는 670년 3월부터 674년 8월까지 사용되었다. 요(遼)는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⁸⁴⁾ 따라서 육효빈은 670년 4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당군에 소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⁵⁾ 그런데 그의 벗인 왕수(王守義)가 해동에서 역(疫)에 걸렸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즉 육효빈과 왕수(王守義)는 함께 당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고구려 부흥운동을

83) 『전당문』 권228, 「唐故贈齊州司馬陸公神道碑」, “公諱孝斌 字順 姓陸 河南洛陽人也 … 初咸亨中 王師征遼 公參是軍事 友人太原王守義遇疫於海東 路艱寇阻 兵危勢急 公獨顛沛致喪 歸其井邑 … .”

84) 권덕영, 앞의 논문, 2014, 119~120쪽.

85) 권덕영,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2008, 61~62쪽에서는 침공 시기가 나당전쟁이 치열하였던 670년대 초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벌 대상인 요(遼)를 신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670년대 초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요(遼)는 고구려 고지 내지 고구려 유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진압하던 중, 왕수위가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던 것이다.

7세기 만주와 한반도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전쟁은 전염병의 유행을 야기하였다.⁸⁶⁾ 대규모 인적 자원의 집결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기본 배경이 되었다. 당군은 대백제·고구려전에서 전염병을 경험하였고, 군량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군은 부족한 군량 및 의약품을 신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군이 고구려 멸망 후 서북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당시에 기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⁸⁷⁾ 현지에서 군량을 원활히 수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당전쟁으로 신라로부터의 원조도 끊어지게 되었으며, 신라 수군에 의해 보급선이 침몰되기까지 하였다.⁸⁸⁾ 결국 당군은 만성적인 군량 부족에 시달렸다고 추정되며, 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유행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왕수위가 감염된 역(疫)의 구체적인 병명(病名)을 알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염성과 유행성을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당 행군 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양산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더구나 서북한 지역의 기근과 군량·의약품 부족은 당 행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서북한 지역 고구려 유민들도 전염병에서 비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재지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안동도호부 아래의 기미 지배 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차후 진행될 신라에 대한 공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따라서 674년 안동도호부는 수뇌부 교

86) 이현숙, 「7세기 신라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87) 신라는 669년 5월 천정군, 비열홀군, 각련군의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9년 5월). 672년에도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굶주렸다고 한다(『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8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10월 6일.

체로 인해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했을뿐더러 전염병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급선무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 조정은 서북한 일대의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674년 나당 전쟁이 소강기를 맞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IV. 보덕국(674~683)의 존망과 신라·당 관계

674년 2월 당 고종은 신라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유인케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또 하나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당에 머물고 있던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아 문무왕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서를 내린 배경에는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과 백제 고지에 취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사료 H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는 사료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원문을 제시한다.

H. ① 時新羅王金法敏既納高麗叛亡之衆 又封百濟故地 漸使人守之⁸⁹⁾

② 新羅王金法敏既納高句麗叛亡之衆 又封百濟故地 遣兵守之⁹⁰⁾

③ 納高麗叛衆 略百濟地守之⁹¹⁾

④ 時新羅王法敏既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⁹²⁾

⑤ 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⁹³⁾

89) 『책부원귀』 권986, 외신부31, 정토5.

90) 『당회요』 권95, 신라.

91) 『신당서』 권220, 열전145,동이 신라.

92)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상원 원년 정월 임오.

9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 정월.

사료 H는 당이 두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일단 각 기록에서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H-①(『책부원귀』)과 H-②(『당회요』)가 ‘高(句)麗叛亡之衆’이라고 표현한 것을, H-③(『신당서』 신라전), H-④(『자치통감』), H-⑤(『삼국사기』)는 축약하여 ‘高(句)麗叛衆’이라고 하였다. 이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 고구려 유민이 잇달아 신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여 신라 영역 내로 들어간 당군은 신라군의 비호를 받던 고구려 유민의 목격하였지만, 신라군에 패배하면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당이 신라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무왕이 백제 고지에 취한 조치는 ‘又封百濟故地’라고 하여 H-①과 H-②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H-③은 이를 ‘略百濟地’로, H-④·⑤는 ‘又據百濟故地’로 기록하고 있다. ‘封’이 ‘略/據’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封’과 ‘略/據’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封’과 ‘略/據’의 주체 내지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⁹⁴⁾ 7세기 중반 신라는 백제 멸망 및

94) 예를 들어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83, 184쪽에서는 H-⑤를 “왕이 고구려의 반중(叛衆)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고지를 점거하여 관인으로 지키게 하였더니”로 해석하였다. 정구복 외,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14쪽에서는 “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니”로 번역하였다. 한편 권중달 옮김, 『자치통감』 21: 당시대2, 삼화, 2009, 466쪽에서는 H-④를 “신라왕 김법민은 이미 고려의 배반한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를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하였다.

백제 고지 확보를 전쟁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신라는 백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부흥운동 진압에 적극 나선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당군과의 대결도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웅진도독부는 백제 고지에서 축출되었고, 673년 신라가 백제 고지에 수비군을 다시 두는⁹⁵⁾ 등 백제 고지에서 신라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 고종은 신라가 백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라 정벌에 나섰다는 이해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라가 백제 고지와 유민을 취했다는 점은 이미 670년 당에 알려져 있었고, 당 고종이 노하여 신라 사신이 당에 억류되는 이유가 되었다.⁹⁶⁾ 그리고 웅진도독부는 672년에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새삼스레 674년 2월에 당 고종이 재차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더구나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인’ 것이 673년 윤5월 이후의 일을 반영한 것이라면, 신라가 백제 고지에 실시한 정책도 새롭게 취득한 정보였다고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⁹⁷⁾

성서(成書) 시기도 고려 대상이다. 『책부원귀』와 『당회요』가 『신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H-③이 H-

9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初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

9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정월,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于園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97) 예컨대, H-③을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2, 1990, 610쪽에서 “[신라에서] 고[구]려의 항거하는 무리들을 받아들여 [옛] 백제 땅을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譯註) 中國 正史 東夷傳4)晉書~新五代史 新羅』, 2020, 135쪽에서 “[신라에서] 고[구]려의 저항하는 무리들을 받아서 [옛] 백제땅을 빼앗아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하였다.

①·②를 전체적으로 축약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74년 2월 기록 전체로 보자면, 『자치통감』은 『책부원귀』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개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자치통감』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H-①·②의 서술처럼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封)하였다’는 것이 원래 기록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⁹⁸⁾

논의가 다소 장황하였는데, 정리하면 674년 초 당 고종은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封)하였으며, 군사를 보내 그들을 지키게 하였다’는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에 당 고종은 대노하여 유인케를 보내 신라를 토벌하게 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는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을 백제 고지에 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봉(封)’에 ‘토지를 주어 제후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라가 고구려 유민에게 백제 토지를 주어 지키게 하였다고 해석한 견해가 주목된다.⁹⁹⁾ 즉 ‘봉(封)’을 제후로 삼아 땅을 내어준다는 ‘봉강(封疆)’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후로 봉한 대상은 안승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에게 내어준 땅은 금마저로 이해된다. 다만 이를 670년에 이루어진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이나 안승의 금마저 안치로¹⁰⁰⁾ 보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당 고종이 674년 2월 조서를 내리면서 명분으로

98) 『당회요』 중 당 고조~덕종대의 기록은 이미 당대에 정리된 『회요』가 수록된 것이고 『당회요』가 원사료를 모았다는 점에서, 『당회요』의 나당전쟁 기록이 당시 당의 역사서술 태도와 인식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참고가 된다(최진열, 「당전·후기 나당전쟁 서술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6, 2017, 140~141쪽).

99) 신은이, 앞의 논문, 2023, 126쪽.

100)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249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23, 126~127쪽.

삼은 것은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 전투 이후에 신라가 고구려 유민에게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이다.¹⁰¹⁾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는 673년 윤5월 이후 내부한 고구려 유민을 경기 서부 해안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 당군의 침입을 유발하였다. 비록 당군을 격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이 나당 간에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치 방식, 안치 지역,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백제 고지에 봉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지 않고 금마저에 집단적으로 안치하였다.¹⁰²⁾ 666년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로 귀부하자, 왕도·주·부에 나누어 안치하였다는¹⁰³⁾ 점과 비교된다. 신라가 고구려 유민 세력을 해체하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집단적으로 안치한 배경은 무엇일까?

「답설인귀서」에 따르면 신라는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영유해야 할 영토에 관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가 ‘평양 이남(平壤以南) 백제토지(百濟土地)’이다.¹⁰⁴⁾ 이는 ‘평양 이남 고구려

101) 이는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 집단의 신라 이주 및 금마저 안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된다.

102) 684년 고구려 유민들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켜 신라군에 맞서 격렬히 저항한 점이나 686년 보덕성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창설한 바에서, 보덕국 주민들이 금마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6년 12월,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戶七百六十三口三千五百四十三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糧料家舍 安置王都及州府 其八城完 並遣士卒鎮守.”

10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大王報書云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羅乎兩國

토지’와 ‘백제 토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⁰⁵⁾ 신라인들은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약속한 바를 믿고 백제, 고구려 정벌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본래 신라의 영역이었던 지역이다. 예컨대 신라는 비열성을 둘러싸고 당과 갈등을 빚었다. 신라는 비열성이 본래 신라의 영역인데[本是新羅], 고구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고 주장하며, 당이 이 지역을 안동도호부로 편입시킨 조치에 반발하였다.¹⁰⁶⁾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 즉 황해도 일대는 첫 번째 조건에 따라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고지 전역을 지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검모잠이 소형 다식을 보내 한성에서 안승을 왕으로 세웠음을 알리고, 신라의 번병이 되겠다는 맹세를 한 것은 신라인들에게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토지에 대한 권한은 그 토지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완성된다. 당 고종이 신라가 백제의 토지와 유민을 마음대로 취한다고 힐난한 것이¹⁰⁷⁾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라가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食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105)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여러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윤진석,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 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참조.

10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又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 又取此城 還與高麗 且新羅自平百濟 迄定高麗 盡忠効力 不負國家 未知何罪 一朝遺弃 雖有如此冤枉 終無反叛之心.”

10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정월,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면서,¹⁰⁸⁾ 평양 이남 지역의 고구려 유민 세력이 신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북한 일대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내부하였다. 비록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대한 영향력은 상실되었지만, 신라가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인민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유민을 각지에 분산 배치하여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신라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장차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를 신라 영역으로 확보하는 명분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었다.

또한 신라가 이 지역을 영유하게 된다면, 고구려 유민은 지역 재건을 위해 투입될 첫 번째 대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는 장기간의 전쟁과 대규모 사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가 황폐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673년 윤5월 이후 신라로 귀부한 고구려 유민은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라에게 명분과 실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존재였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라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 보다 집단 안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가 내부한 고구려 유민에게 취한 조치는 674년 9월

于圓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108)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 사학보』 51, 2021, 186쪽에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의 봉기를 지원한 배경은 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평양 이남의 고구려 고지와 유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책봉한 것이다.¹⁰⁹⁾ 보덕왕의 의미는 신라왕의 덕에 보답하라는 뜻으로, 고구려왕 칭호에 비해 신라에 대한 종속도가 높아졌다고 이해하고 있다.¹¹⁰⁾ 이후 안승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칭한다.¹¹¹⁾ 반면 안승은 스스로를 고구려왕이라 하고¹¹²⁾, 『일본서기』에는 ‘고려’가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이 682년까지 확인된다. 안승이 보덕왕에 봉해졌지만, 여전히 고(구)려를 나라 이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¹¹³⁾ 그렇다면 신라는 보덕왕 칭호를 안승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보덕왕 칭호를 신라-고구려 유민 관계에서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고구려 유민 문제가 당이 신라를 공격하는 명분이 된 점을 고려하면, 신라-당 관계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할 때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이 토벌의 대상으로 지목한 검모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당과 타협의

10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 9월, “封安勝爲報德王.”

110) 盧泰敦, 「對渤海 日本國書에 云謂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620쪽 ; 金壽泰, 앞의 논문, 1994, 349~350쪽 ;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93쪽.

11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3월, “以金銀器及雜綵百段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 ;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13일, “報德王遣使小兄首德皆 賀平逆賊.” ;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10월,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11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5월,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表曰 … .” 다만 안승은 보덕왕 칭호를 홀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어지는 상표문에 “… 매년 특별한 은택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每荷殊澤 欲報無階] …”라는 문장은 ‘보덕’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3)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74~77쪽.

여지를 열어두었으며,¹¹⁴⁾ 안승의 고구려왕 책문에 당 연호를 사용한 것¹¹⁵⁾ 등을 들 수 있다. 즉 신라는 안승을 책봉하고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나당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를 바라지는 않았고 여전히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고 있었다.

보덕왕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 정벌은 천하 평정의 완성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¹¹⁶⁾ 따라서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의 저항은 천하 평정이 완결되지 못한 증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이 만주·한반도 일대에 투입한 행군의 파견 이유로 고구려 유민이 제시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¹¹⁷⁾ 그렇다면 신라 영역 내 고구려왕은 당의 천하 평정을 부정하는 존재였고, 당이 신라를 공격할 명분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왕 대신 공식적으로 보덕왕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희석하고자 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당에게 신라를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다.¹¹⁸⁾ 하지만 안승이 신라왕에게 고구려왕을 자칭하고 신라의 관할·통제 하에 진행된 외교에서 ‘고려’ 국호를 사용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보덕왕 책봉은 당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기만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14) 방용철, 「文武王의 安勝 책봉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3, 2021.

115)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57쪽.

116) 최현화,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2006, 166~168쪽 ; 이기천, 「당의 입장에서 본 신라의 통일」, 『역사비평』 130, 2020, 245~256쪽.

117) 동주도·연산도행군의 파견 이유는 검모잠의 변경 침입 또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다. 설인귀가 계림도행군총관에 임명된 이유는 고구려 유민의 반란이었다(『구당서』 권83, 열전33, 설인귀 “尋而高麗衆相率復叛 詔起仁貴爲鷄林道總管以經略之”).

118)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249쪽.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나당전쟁이 종결되면서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당은 676년 2월 요동성으로 옮겼던 안동도호부 치소를 다시 677년 2월 신성(新城)으로 옮기고, 동시에 보장왕을 요동주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안무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당 내지로 사민되었던 고구려 유민을 요동으로 귀환시켰다.¹¹⁹⁾ 일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고구려 유민의 자치가 허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당은 677년 연남생을 안동도호부로 파견하여 주현의 개편, 조세·역역의 경감, 구휼 실시 등을 추진하게 하였다.¹²⁰⁾ 즉 연남생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며 보장왕과 유민 사회를 감시·통제하였던 것이다.¹²¹⁾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배경은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 정벌의 전진기지로 만드려는 데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¹²²⁾ 하지만 이러한 당의 지배정책은 곧장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구려 고지의 정세는 계속 불안정하였다고 여겨진다.

I. 군(君)의 휘(諱)는 자양(子陽)이고 자(字)는 명원(明遠)이다. 하동 해인(解人)이다. … 남중(南中)에서 거듭 청하니 하늘의 뜻을 글에 실어 조

119)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의봉 2년 2월, “以工部尙書高藏爲遼東州都督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衆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 …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120) 『신당서』 권110, 열전35, 제이변장 천남생, “儀鳳二年 詔安撫遼東 并置州縣 招流冗 平斂賦 罷力役 民悅其寬.”; 「천남생묘지명」, “儀鳳二年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卹隱 襁負如歸 劃野 疎疆 奠川知正.”(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95쪽).

121)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 -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的 集團을 중심으로 -, 『韓沽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83쪽 ; 김종복, 앞의 논문, 2003, 31쪽 ; 여호규·拜根興, 앞의 논문, 2017, 86쪽.

122) 盧泰敦, 앞의 논문, 1981, 82쪽 ; 古畑徹, 앞의 논문, 1983, 14~18쪽 ; 김종복, 앞의 논문, 2003, 28~29쪽 ; 여호규·拜根興, 앞의 논문, 2017, 85쪽.

산대부(朝散大夫) 요부(姚府) 장사(長史)를 제수하였다. … 요(遼)가 일찍이 평정되었으나 유민들이 아직 거세었다. 공을 세움이 특별하고 실로 어짐을 지니고 있으니 안동도호부 장사에 제수되었다. 영명한 모략과 비결로 세상을 구제하니 삼한이 교화를 우리르고 구종(九種)이 인자함에 귀의하였다. 때마침 풍진(風疹)에 거둑 걸리니 병으로 휴양하고자 생각하였다. 표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니 은혜로운 조서로 허락하였다.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가 어그러지고 되갚고자 우리를 속이니, 병으로 드러누워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프게도 꿈을 꿀 뿐이었다. 나이 62세에 영롱 2년(681) 8월 15일 유주(幽州) 계현(薊縣)의 여관에서 돌아가셨다.¹²³⁾

이는 당 관인 유자양(柳子陽)의 묘지명 중 일부이다. 그는 익부(益府) 호조참군(戶曹參軍)을 시작으로 노주(潞州) 상당현(上黨縣) 등 세 지역의 현령과 충주(忠州) 장사(長史), 요부(姚府) 장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안동도호부 장사를 역임하였다.

그가 안동도호부 장사에 재임한 시기를 추정하는데 그의 처 황보씨(皇甫氏)의 묘지명이 참고가 된다.¹²⁴⁾ 그녀는 의봉 2년(677) 8월 8일 장안 만년현에 있는 사제(私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해인 의봉 3년(678) 5월 17일 장사되었다. 그런데 묘지명의 수제(首題)에

123) 「柳子陽墓誌銘」, “君諱子陽 字明遠 河東解人也 … 南中國請 載簡天心 授朝散大夫 姚府長史 … 遼服初平 遺屯尚梗 式遏之寄 實佇賢良 除安東都護府長史 英略濟時 深機拯物 三韓仰化 九種歸仁 屬風疹累侵 思閑養疾 表請致仕 恩詔許焉 既而乾坤反德 報復我欺 寢疾弥留 俄悲夢已 春秋六十二 以永隆二年八月十五日 薨於幽州薊縣之行舍.”(胡戟·榮新江,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2012, 244~245쪽).

124) 「柳子陽故妻皇甫氏墓誌銘」, “大唐前朝散大夫守姚州都督府長史輕車都尉壽陵縣開國侯柳子陽故妻皇甫氏墓誌銘并序 … 儀鳳二年六月遘疾 八月八日卒於萬年縣崇義里之私第 時年五十七 粵三年五月十七日 葬于雍州明堂縣洪原鄉少陵原.”(胡戟·榮新江, 앞의 책, 2012, 212~213쪽).

그녀의 남편인 유자양의 관직을 요주도독부(姚州都督府) 장사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678년 전반까지 유자양은 현 운남성 요안현(姚安縣)에 두어졌던 요주도독부 장사에 있었으며, 빠르면 678년 후반에 안동도호부 장사에 제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안동도호부 장사로 재임 중 풍진(風疹)에 걸려 치료를 위해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영릉(永隆) 2년(681) 8월 15일 62세의 나이로 유주(幽州) 계현(薊縣)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를 종합하면, 유자양은 최대 678년 후반~681년 전반 안동도호부 장사에 재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자양의 묘지명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안동도호부 장사에 임명된 이유이다. 요(遼) 즉 고구려를 평정하였지만 여전히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묘주가 파견되었다고 한다.¹²⁵⁾ 이는 당의 입장에서 678년 후반에 여전히 요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였으며 당의 지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를 재공격하려는 당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이다.¹²⁶⁾

요동으로 돌아온 보장왕이 말갈과 연대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꾀하다가 발각되면서 요동 지역의 정세는 더욱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당

125) 묘지명에서 당의 지배 체제에 맞서는 고구려 유민의 양상을 ‘상경(尙梗)’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669년 양주로 순행하려는 당 고종을 만류하면서 내공민이 고구려 고지의 정세를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표현인 ‘부여상경(扶餘尙梗)’과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126) 678년 9월 당 조정에서는 신라 정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 고종은 군사를 내어 신라를 토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장문관이 토번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하며 신라 정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의봉 3년 9월). 이를 바탕으로 당시 당이 동방의 신라보다 서방의 토번을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다만 「유자양묘지명」을 통해 당이 신라 정벌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배경으로 요동 지역의 불안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은 보장왕을 소환하였고 고구려 유민 중 빈약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재차 당 내지로 사민하면서 저항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하였다.¹²⁷⁾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보장왕이 개요(開耀) 원년(681) 공주(邛州)로 소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¹²⁸⁾ 개요 원년은 여기서만 확인된다. 나당전쟁 이후 신라가 요동 지역의 정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가 요동 지역의 정세를 민감하게 탐지하였음을 시사한다.¹²⁹⁾

680년 3월 문무왕은 안승을 신라 왕실 여성과 혼인하게 하였다.¹³⁰⁾ 안승의 보덕왕 책봉에 이어서, 보덕국이 신라에 더욱 종속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¹³¹⁾ 다만 혼인정책이 복속뿐만 아니라 화친, 동맹, 원조 등 다양한 목적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676년 이후 당은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를 다시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이어졌다.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요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면 당군이 요동 지역을 중간 거점으로 하여 한반도로 진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신라 측에게

127) 『구당서』 권199, 열전149,동이 고려, “王至遼東謀叛 潛與靺鞨通 事覺 召還 配流邛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128)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개요 원년, “王至遼東 謀叛 潛與靺鞨通 開耀元年 召還邛州.”

129) 김강훈, 앞의 책, 2022, 283~284쪽.

1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3월, “以金銀器及雜綵百段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

131) 盧泰敦, 앞의 논문, 1985, 620쪽 ; 金壽泰, 앞의 논문, 1994, 350쪽. 植田喜兵成智은 안승이 문무왕에게 보낸 상표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신라왕과 안승의 명분적 상하관계가 더욱 명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60~261쪽).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동 지역의 혼란상이 보덕국 주민을 자극하거나 당군의 파견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요동 지역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보덕국을 신라 체제 내로 흡수하는 동시에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승의 혼인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³²⁾

신라가 보덕국을 통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소국 통합의 경험이 집약되어 있었다.¹³³⁾ 하지만 신라가 당율(唐律)을 토대로 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며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는¹³⁴⁾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이 내부한 이민족을 대상으로 제정한 각종 규정을 신라가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중 부세 규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J-①. 사이(四夷)의 항호(降戶)는 관향에 부적(附籍)하고 10년을 급복(給復)한다.¹³⁵⁾

J-②. 무릇 내부한 후 낳은 자식은 곧 백성과 동일하므로 변호(蕃胡)가 될 수 없다.¹³⁶⁾

132) 김강훈, 앞의 책, 2022, 282~284쪽.

133)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70쪽 ;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270쪽.

134) 한준수, 앞의 책, 2012 ; 김덕원,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 학보』 49, 2020 ; 박수정,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제도 수용과 그 의미」, 『신라 사학보』 52, 2021. 신라는 나당전쟁 기간에도 당을 제도 정비의 모범으로 인식하고 당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달구벌 移都의 추진과 兩京制」, 『北岳史論』 15, 2022, 109~110쪽).

135) 『신당서』 권51, 지41, 식화1, “四夷降戶 附以寬鄉 給復十年.”

136) 『당육전』 권3, 상서호부, “凡內附後所生子 卽同百姓 不得爲蕃戶也.”

당의 영역 밖에 존재하던 이민족이 당 내지로 귀부하면 화외인(化外人)에서 화내인(化內人)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당 황제의 지배를 받는 백성(百姓)이 된 것으로, 율령에서 부과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세 납부였다. 사이항호(四夷降戶)를 관향에 안치하고 호적에 편성하는 조치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민족이 당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0년 동안 부세를 면제하는¹³⁷⁾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J-①).¹³⁸⁾ 한편 이민족이 내부한 후에 태어난 자식은 변호(蕃胡)가 아닌 당 백성으로 간주되었다(J-②). 즉 당은 이주 1세대에 한하여 10년간 부세를 면제했던 것이다.¹³⁹⁾

일본도 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며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681년 8월 일본에서는 고구려·백제 유민에 대한 10년간의 부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대신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자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종신토록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¹⁴⁰⁾ 이는 유민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유민의 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시행된 정책이었다.¹⁴¹⁾

137) 급복(給復)은 일정 기간 조세·부역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다(全海宗, 「歸化에 대한 小考-東洋古代史에 있어서의 그 意義-」, 『白山學報』 13, 1972, 5쪽).

138) 당에서 J-①을 비롯하여 내부한 이민족을 대상으로 한 부세 규정에 관해서는 石見清裕, 「唐の内附異民族對象規定をめぐって」,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 李基天, 「唐 前期 境内 異民族 支配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79~93쪽 참조.

139) 金秀鎭,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44쪽.

140)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0년 8월 병자, “詔三韓諸人曰 先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歸化初年俱來之子孫 並課役悉免焉.”; 박윤선, 「도일 백제유민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 83, 2012, 98~99쪽; 金秀鎭,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7, 146쪽.

141) 김영심,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2022, 322~324쪽.

보덕국 주민에 대한 부세 수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료에 직접 드러나는 바가 없다. 보덕국이 형식적이거나 독립국의 면모를 지녔다는 점, 신라가 당의 제도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당과 동일한 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라에서도 내부한 고구려 유민에게 부세 면제 혜택을 주었다고 이해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당과 일본에서 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규정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보덕국 주민들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69년 당 내지로 대규모 사민이 이루어질 때, 당은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상기 규정을 널리 알렸을 것이다. 그리고 보덕국의 대일 외교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고구려 유민의 처지에 대한 정보도 계속 수집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덕국 주민들이 당·일본으로 귀부한 고구려 유민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신라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을 것이다.¹⁴²⁾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은 여러 면에서 신라에서 효용성이 있는 존재였다. 그렇기에 당과 대립하는 요인이 됨에도 보덕국은 성립·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대 왕실이 형식적이거나 독립국의 면모를 지닌 보덕국을 계속 용납하기는 쉽지 않았다.¹⁴³⁾ 하지만 신라가 책봉한 보덕왕과 그로 성립된 보덕국을 신라가 부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

142) 물론 보덕국 자체에서 부세 수취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컨대 보덕국은 독자적 무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기에, 본래 고구려 규정에 의거하여 군역 부담이 지워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43)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武幢의 설치와 麗濟 유민」,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168쪽.

다.¹⁴⁴⁾ 따라서 신라는 보덕국을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J-①의 규정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당과 일본에서는 내부한 이민족에게 10년 동안 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에 안착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들은 더 이상 이민족이 아닌 황제나 천황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안승은 674년 9월 보덕왕에 책봉되고, 683년 10월 신라 관등과 김씨 성을 사여받고 왕경으로 이거하게 되었다.¹⁴⁵⁾ 보덕왕에 책봉된지 10년째 되는 해에 그는 진골 신분에 편입되어 신라왕의 신하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J-①의 규정이 안승을 고구려 유민에서 신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듬해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다.¹⁴⁶⁾ 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덕국의 해체였다.¹⁴⁷⁾ 비록 외양 뿐이기는 했으나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 거주하며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고유한 삶을 지켜나가던 공간이¹⁴⁸⁾ 해체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반란이라는 극단적 행위가 표출되는 데는 심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요인도 필수적이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금마저에 존재했던 관리의 존재가 주목된다. 대문(大文)은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는데, 고구려 유민들은 이를 목격하고 관리를 죽이며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

144)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62쪽.

14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10월,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14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0월,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147) 정선여,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2013, 41쪽.

148) 한준수,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 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 201, 2023, 16~17쪽.

서 관리는 대문의 반란 시도를 저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던 자로 신라 조정에서 파견된 인물일 것이다. 안승이 신라 왕경으로 이거하면서 보덕국의 관등, 관직을 소지한 인물들도 함께 왕경으로 옮겨가 신라 관등, 관직을 받았을 것이다. 그 빈자리는 신라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대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금마저는 고구려 출신의 관인이 아니라 신라 관인의 행정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고구려 유민의 신라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¹⁴⁹⁾ 그동안 누렸던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부세 수취와 역역 징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백제 고지는 오랜 전쟁으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은 백제 고지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¹⁵⁰⁾ 현재 익산 지역은 비옥한 평야 지대이지만, 1920년대 만경강 제방을 축조하기 이전에는 현재 왕궁리 일대까지 해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⁵¹⁾ 익산 지역의 백제 사비기 유적 대부분이 해발 20m 이상의 구릉 말단부에 분포하는¹⁵²⁾ 것도 고대 시기 금마저 일대가 밀물에 의한 범람이나 홍수에 취약하였음을 말해준다. 고구려 유민들은 농업 생산 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금마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부세 면세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입장한 처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는 반란을 일으키는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149) 한준수, 앞의 논문, 2018, 168쪽.

150) 한준수, 앞의 논문, 2023, 18~25쪽.

151) 익산시, 『익산고도보존계획』, 2009, 24쪽.

152) 홍보식, 「익산 왕궁·금마지역의 백제 사비기 유적 입지와 토지 활용 양상」, 『중앙고고연구』 32, 2020.

V. 맺음말

673년 윤5월 고구려 부흥군은 호로하(瓠瀾河) 서쪽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근거지를 상실한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이주하였다. 황해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은 육·해로를 통해 영서 지역 및 경기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신라는 이들을 대양성, 동자성 등에 배치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였다. 당군은 임진강(호로하)-과주-고양-한강 하류(왕봉하) 방면으로 고구려 유민을 추격하였으나, 신라군은 이들을 격퇴하였다. 당군이 크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은 황해도 일대 고구려 유민들이 재차 거병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당군은 고구려 유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고, 673년 겨울 우잠성, 대양성, 동자성의 고구려 유민은 당군에 패배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 유민을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일대로 집단 안치하였다.

당은 674년 2월 유인궐을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군사활동은 675년 2월에서야 확인된다. 674년은 나당전쟁의 소강기였던 것이다. 당시 안동도호부는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다시 옮겨져 있었다. 674년 2월 안동도호는 고간에서 굴돌전으로 교체되었는데,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안동부도호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안동도호부의 수뇌부가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육효빈신도비」에 따르면 670~673년 서북한 일대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대규모 인적 자원이 집결하고 지속적인 기근, 군량·의약품의 부족 현상은 당군 내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구려 유민 사회도 전염병을 비켜갈 수 없었다. 이는 674년에 나당전쟁이 소강기를 맞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674년 2월 당이 신라를 정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백제 고지에 봉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하는 고구려 유민 집단을 금마저에 집단 배치한 것이 당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674년 9월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당은 고구려 정벌을 천하 평정의 완성이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에 책봉함으로써 고구려 유민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희석시켜 당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은 677년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 정책을 전환하며 요동 지역을 안정시켜 신라 정벌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자양묘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보장왕은 말갈과 연대하며 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라는 요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승과 신라 왕실 여성의 혼인을 추진하여,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동시에 신라 체제 내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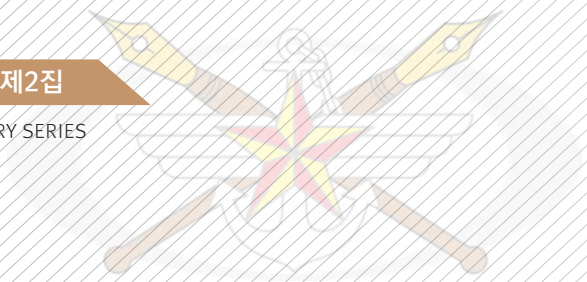
보덕국은 신라왕에게 효용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집권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대 왕실이 자치적인 면모를 지닌 보덕국을 계속 용납하기는 어려웠다. 신라는 보덕국 해체의 명분으로 10년간 부세 면제 규정을 활용하였다. 신라는 당 율령에서 내부한지 이민족에게 10년 동안 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받아들여 보덕국 주민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신라로 내부한지 10년이 지난 고구려 유민은 이제 완전한 신라민으로 전환되어야 하였다. 이에 683년 안승은 신라 관등과 김씨 성을 사여 받고 경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듬해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보덕국 해체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과 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이 자리잡고 있었다.

2부

신라의 삼국통일 여정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신라 한주 관방시설 정비의 군사사적 의미

| 윤성호

신라 한주 관방시설 정비의 군사사적 의미

윤 성 호*

- I. 머리말
- II. 신라 북진기 주요 거점의 축성
- III. 7세기를 전후한 동시다발적 관방시설의 축조
- IV. 신라 한주 관방체계의 역할과 의미
- V. 결론

I. 머리말

군사사적 입장에서 관방시설의 현황과 특징은 거시적으로 해당 세력의 전략을 이해하고 미시적으로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전술과 전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대 한강유역은 백제-고구려-신라가 순차적으로 지배하였고, 각국의 충돌 과정에서 세부적인 경계의 변화도 잦았다. 이러한 이유에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서 한강유역에는 많은 수의 관방시설이 축조되었고, 이전 세력이 축조한 관방시설을 새롭게 진출한 세력이 보수하여 재사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강유역의 관방시설의 초축시기와 이후 수개축과 운영 양상은 해당 지역의 점유 세력의 지배방식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관방시설의 초축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료에 등장하는 성을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관방시설에 정확하게 비정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다. 고고학적으로 관방시설의 잔존 유구는 폐기된 시점의 모습이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최후 사용단계의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초축시기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한 편년이 어려운 잔편 일부만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 검토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의 관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진행되었고,²⁾ 이를 전후하여 개별 관방시설에 대한 발굴조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개별적인 관방시설의 연구를 종합하여 시기별 관방체계의 구축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군사시설의 배치와 각국의 대치양상과 경계의 파악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강유역 신라의 관방시설의 축조 시기나 분포양상, 주변유적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³⁾ 그리고 한강 유역의 관방시설을 종합하여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시도되었고,⁴⁾ 관

2) 백종오·김병희·김주홍,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2001 ; 유재춘, 「江原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과 課題」, 『학예지』 8, 2001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예비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22.

3) 심광주,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2002 ; 황보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 2020.

4) 안성현,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성곽유산의 연

방시설의 가시권이나 경관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제출되었다.⁵⁾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관방시설의 양상을 검토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기왕의 조사와 연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는 전체 관방시설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축조 주체나 수개축 양상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추후 조사를 통해서 관방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가 새롭게 확보한 영역은 상당히 넓다. 신라의 영역화 과정에서 대백제전을 위한 중부 이남지역, 영동 지역 안정화를 위한 비열홀 지역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공간적으로 6세기 중반에 설치한 신주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신주의 범위에서도 7세기 중반에 우수주가 분리되면서 성립된 한산주이고, 이후 한주로 개칭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방시설의 정비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겠다.⁶⁾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6세기 중반~후반의 북진기에 우선적으로 축조된 관방시설의 특징을 2장에서

구성과의 보존정비 방향(2018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2018 ; 「사적으로 본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성곽», 『한국의 성곽유산 I』,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5) 이정범, 「한강유역의 고대 산성과 활용 주체 -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남 역사 총서』 4, 하남역사박물관, 2022.

6)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의하면 757년을 기준으로 한주는 1소경, 27군, 46현으로 구성되지만, 본고에서는 668년 고구려 멸망 이전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임진강-한탄강 이남, 남쪽으로 곡교천 이북, 동쪽으로 남한강 이서 지역에 해당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나당전쟁이 진행된 7세기 후반까지 축조되거나 개보수된 관방시설의 특징을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한강유역을 포함한 한주 일대의 관방시설의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기 이후에 관방시설의 행정치소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통하여 한산주 관방시설의 의미를 검토해 보겠다.

Ⅱ. 신라 북진기 주요 거점의 축성

신라가 백제와 함께 북진하여, 553년에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유역의 신북속지에 설치한 신주는 광역의 주에 해당한다. 주 치소의 지명으로 붙여진 협의의 주를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후대에 확인되는 한주(한산주)의 치소인 하남 이성산성과 춘궁동 일대가 신주의 치소가 위치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⁷⁾

물론 후대의 치소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설치된 신주의 지역명의 주를 북한산주 설치 이후에 설치된 남천주를 소급하여 치소인 이천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⁸⁾ 또한 한강 진출의 전진 기지였던 국원에 주치가 설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⁹⁾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신주의 치소로 보기 어렵다.

6세기 중반 이후를 신라의 북진기로 설정한다면, 이 시기에 주의 치소이면서 정의 군사가 주둔하는 지역에는 어떠한 관방시설이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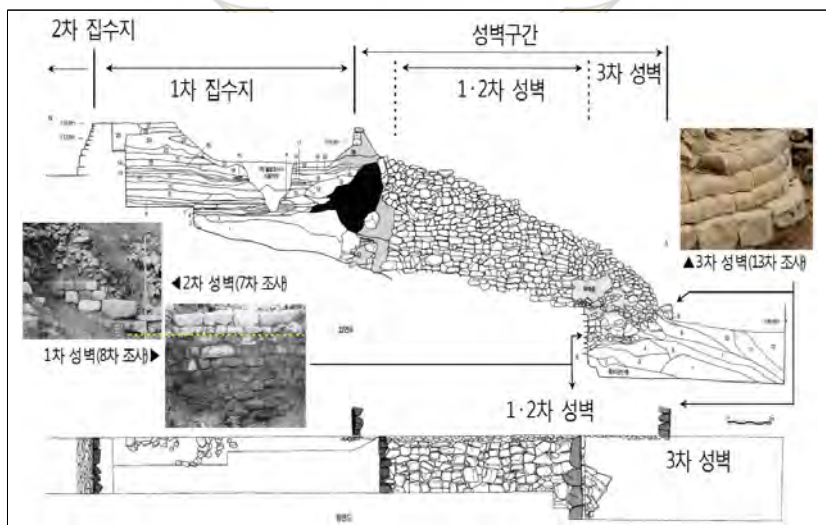
7)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三次發掘調查報告書』, 1991, 29쪽; 皇甫慶, 1999, 「新州 位置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53, 1999, 236~243쪽.

8)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98~99쪽.

9)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15쪽.

재하였을 것이다. 553년 직후에 축성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하남 이성산성에서 이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성산성이 처음 축조되었을 당시의 성벽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수축된 3차성벽 내측에 존재한다. 1차성벽이 붕괴되자, 상부에 2차 성벽으로 수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차 성벽은 다시 무너진 기존 성벽 외측에 쌓아서 1, 2차 성벽으로 덮고 있는 상태이다. 초축성벽의 축조 시기는 1차 집수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저부 정치층을 공유하고 있다(도판1·2).

〈도판 1〉 하남 이성산성 집수지 및 성벽 도면¹⁰⁾



이성산성 A지구 1차 집수지에서는 6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는 고배 뚜껑과 완이 확인되었다.¹¹⁾ 1차 성벽은 편마암 계통의 장방형

10) 漢陽大學校 博物館, 『二聖山城 -第8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0, 31쪽 도면4 편집.

11) 漢陽大學校, 『二聖山城 -二次發掘調査 中間報告書-』, 1988, 52~68쪽; 심광주,

석재를 모서리를 다듬지 않고 바른층쌓기 하였고, 기저부에는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기단보축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6세기 중반 신라성의 축성법과 맥을 같이한다.¹²⁾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시점에 주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남한상 상류에서 한강 하류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관할하는 구역이었다. 현재 지명으로 충주, 진천, 음성, 죽산, 이천, 여주, 용인, 서울 강남(백제의 한성), 서울 강북(고구려의 남평양) 지역과 북한강 유역의 강원도 영서 지역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주요 지점에 신라가 동시에 축성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축성에는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신라가 신복속지의 주민을 바로 축성에 동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5세기 중반 백두대간을 넘어서 보은 삼년산성과 이성산성을 수축할 때 일선(선산)에서 정부 3천명을 동원하였다.¹³⁾ 신라의 북진기 보다 조금 뒤에 신라가 서진하여 안라국을 복속한 뒤에는 함안 성산산성의 축조를 위해서 하주와 상주의 물자가 이동한 상황을 목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진기 초반에는 신라의 상주 등지에서 동원한 인력으로

「三國時代 城郭과 二聖山城」, 『二聖山城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기념 특별전-』, 한양대학교박물관, 2006, 81~82쪽; 沈秀貞, 『二聖山城 出土 新羅土器 研究』, 漢陽大學校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2012, 82~95쪽.

12) 심광주, 「하남 이성산성의 축성법과 축성시기」, 『하남 역사 총서』 1, 2019, 하남 역사박물관, 522~523쪽. 관방시설의 특징을 파악하는 구조적인 지표로 성벽과 부가시설, 성 내부시설 등이 있다. 축성과 관련된 기술적 변화가 반영된 면석의 가공수법(편마암계→화강암계, 면석 가공↑)과 축조방식(허튼층쌓기→바른층쌓기, 켜기돌 사용↓)은 석축산성 편년에 유의미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심종훈, 『신라 석축산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75~95쪽).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智麻立干 8년(486).

거점이 되는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축성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산성의 경우에는 신주의 치소성으로 북진 직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도판 2〉 이성산성 초축성벽



〈도판 3〉 당성 1차성벽



한편 신라가 564년에 북제에 사신을 파견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중간에 위치한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모험을 감행한 주목적은 수계의 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일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국 교섭을 위한 독자적 항구의 확보도 중요한 동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의 북위 사신 파견 기사를 통해서 신라가 북진 후 서해안 지역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라가 한강 하류를 통해서 서해로 진입하려면 예성강 하구에서 고구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한강 하류에서 백제와 경계로 추정되는 안성천 이남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남양만에 주목하였다. 남양만은 백제 한성기 후반에 이미 무역항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부도를 지나면 덕적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25년(564).

후대의 일이지만 660년에 당의 소정방이 산동반도 성산에서 덕물도로 연결되는 황해중부횡단항로를 통해 백제에 상륙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양만에 위치한 화성 당성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당성은 정상부와 동쪽 계곡을 감싸는 토성으로 된 통일신라시대 2차성과 정상부 북서사면을 감싸는 둘레 약 600m의 석축성인 1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차 성벽 체성부는 이성산성의 초축성벽과 유사한 장방형의 편마암을 바른층쌓기를 하였다(도판3). 1차 성벽 서벽 외성벽의 와적층 등에서는 6세기 후반경의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¹⁵⁾ 기와는 토기를 소성하는 방식으로 두께가 얇은 특징을 보이는데, 왕경에서도 초창기 기와의 특징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외벽 축조 방식은 이성산성 1차성벽과 유사하지만, 출토 유물은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라는 북진 이후에 소경이 설치된 국원에서 남한강을 따라 주치소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교통로와 함께 국원-당성, 주치소-당성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교통로의 요충지에 관방시설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교통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안성 죽주산성과 용인 할미산성이 주목된다.

안성 죽주산성은 중성, 내성, 외성의 복합성이다. 내성과 외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이고, 고려-조선시대에 수축하였으나 하부에 신라의 초축성벽이 남은 곳은 중성이다. 중성의 신라 초축 성벽은 계단식으로 조성한 기저부에 지대석 없이 편마암 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은 장방형 면석을 바른층 쌓기로 올렸는데, 성벽은 이성

15)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 -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2018, 158~167쪽. 앞서 2차 조사 당시 상부 트랜치에서 삼각집선문에 원점문이 시문된 뚜껑편이 확인되었다(漢陽大學校博物館, 『唐城-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1, 175쪽).

산성과 당성의 초축성벽과 동일하다(도판4).¹⁶⁾ 따라서 안성 죽주산성은 국원소경에서 남한강 수계를 따라 연결되는 남북축과 당성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므로 북진기의 이른 시기에 축성되었을 것이다.¹⁷⁾

용인 할미산성은 둘레 661m의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할미산성의 서벽은 기저부를 계단식으로 정지하고, 편마암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은 세장방형의 판석에 가까운 면석을 ‘품(品)’자형으로 바른 층쌓기하였다. 배수구를 포함하는 동벽 면석의 축조 방식은 서벽에 비해서 거친편인데, 이성산성, 당성, 죽주산성의 초축성벽 면석과 유사하다(도판5).

〈도판 4〉 안성 죽주산성 초축부



〈도판 5〉 용인 할미산성 동벽



할미산성에서도 성벽 기저부나 축조당시 문화층을 통해서 정확한 축조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성 내부에서 6세기 중반~후반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6세기 후

16)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Ⅳ)내 유적』, 2017;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Ⅴ)내 유적』, 51~55쪽.

17) 서영일, 「안성 죽주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안성 죽주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안성시·한국고대학회, 2015, 39~42쪽 ; 황보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 186~188쪽.

반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할미산성 내부에서 기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¹⁸⁾ 성벽의 축조 방식과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성의 특징은 할미산성이 7세기 이후에 재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조기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단기간 사용된 할미산성은 6세기 중반~후반 한강유역 신라성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⁹⁾

〈도판 6〉 용인 할미산성과 주요 신라 다각형 건물지



할미산성에서는 6각 또는 8각의 다각건물지 3동이 조사되었다(도판6).²⁰⁾ 다각건물지의 조성 목적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많다.

18) 경기도박물관, 『龍仁할미산성 試掘調査報告書』, 2005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할미山城(Ⅱ)-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4 ; 『용인 할미山城(Ⅳ)』, 2017.

19) 白種伍, 「신라 북진기 할미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新羅史學報』 6, 2006, 28~29쪽 ; 현남주, 「할미산성을 통해 본 신라의 영역화 과정」, 『용인의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화 -할미산성과 석성산성』, 한국고대학회, 2013, 29쪽 ; 서영일, 『신라 북진기 한강유역과 용인 할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110~112쪽.

20) 한국문화유산연구원, 『龍仁 할미山城(Ⅳ)』, 2017; 『龍仁 할미山城(Ⅴ)』, 2018.

기왕의 연구에서 8각은 팔괘와 관련하여 여덟 번째 불인 미륵 신앙과 연결하고, 6각은 신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조신과 관련된 제의와 관련된다는 견해도 있다.²¹⁾

고구려의 경우 환도산성 내에서 5세기대 다각형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찰에서 다각형 건물지도 확인된바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7세기대에 구황동 연지 유적에서 6각건물지가 조성되었고, 나정에서는 7세기대 8각건물지도 확인되었다.

하남 이성산성에서도 다각형 건물지가 조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D지구에서 8각건물지 1동, 9각건물지 2동, 12각 건물지 1동이 조사되었는데, 모두 고구려 멸망 이후인 8세기 이후에 치소성 내에 제사시설이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더 후대이지만 음성망이산성에서 9세기대의 8각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 주치소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다각건물지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미산성은 바로 남양만의 당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것이며, 주치소의 역할에 버금가는 제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 곳임을 알 수 있다.²²⁾

요컨대 신라는 국원-죽산-이천, 용인을 통하여 화성-남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안성 죽주산성과 용인 할미산성을 축성하였던 것이며, 대중국 항로와 관련된 교통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강 유역을 따라 춘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도 방어선이 연결된다(도판7). 여기서 신라가 북방 지역으

21) 이상국, 「용인 할미산성 다각형 건물지의 구조와 특징」,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91~94쪽.

22) 568년에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한다. 신주의 주치소가 이천 설봉산성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 당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감안한다면, 할미산성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로 영토를 확장한 초기의 목표가 한강유역의 장악과 대중국 교통로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6세기 중반경에는 고구려와 접경인 한강 이북과 임진강 일대에 대하여 동시에 관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7〉 6세기 중후반 신라의 관방시설 구축 현황



Ⅲ. 7세기를 전후한 동시다발적 관방시설의 축조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유역을 진출한 이후에 고구려가 서서히 반격을 시작하였고, 신라는 한강 이북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를 통해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신라의 북한산성인 아차산성이다.²³⁾ 신주의 치소가 한강 이북에 위치하였을 때 설치된 곳이 북한산주로 추정되는데, 아직 6세기 중반에 북한산

23)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c), 306~308쪽.

주의 치소로 아차산성이 초축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아차산성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6세기 중반의 축성기법을 보이지만 면석이 정방형에 가깝고 바른층쌓기된 외벽이 남문 수구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다(도판8·9). 그리고 서성벽 기저부에서 6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원점문에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토기편등이 확인되었다.²⁴⁾ 따라서 늦어도 이 시점에는 관방시설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렇다면 이러한 아차산성의 조사 성과는 고구려 온달의 공격을 방어한 사건이나 7세기 초반에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을 진평왕까지 출정하여 막아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²⁶⁾

〈도판 8〉 서울 아차산성 외벽의 수개축양상²⁷⁾

수개축 양상				
외벽 축조양상	쌓기돌 多	쌓기돌 少 바른층쌓기 品茶형쌓기 면맞춤	조잡해지는 경향성	허튼층쌓기 줄눈 안맞음 틈새 多
성돌	장방형 거칠게 치석 모따기 없음	장방형 정교한 치석 모따기	성돌 재사용 + 거칠게 치석	성돌 재사용 자연석 혼재
경사 각도	84°	87~90°	70°	70°

24) 한강문화재연구원, 『아차산성 - 장대지 일대 유적-』, 2020, 639~643쪽.

25) 박가영, 「서울 아차산성의 축조과정과 시기 고찰」, 『서울과 역사』 114, 2023, 120~122쪽.

2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25년(564).

한편 아차산성과 함께 6세기 후반부터 한강유역 전체에서 신라는 관방시설을 본격적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관방시설의 축조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대고구려 방어체계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신라가 신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상황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는 방어선을 한강에서 임진강 남안으로 북상하고자 하였다. 한강에서 임진강 방면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는 중랑천과 양주분지를 통해서 연천방향으로 통과하는 남북축의 도로이다. 또한 양주분지의 남쪽으로 감악산의 동쪽과 서쪽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의 교통로는 양주분지의 입구에서 교차한다. 이러한 교통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곳에 양주 대모산성이 위치한다.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조사에서 성벽의 양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백제가 남긴 유구와 유물도 확인되었다.²⁸⁾ 고구려가 남진했을 때의 대모산성의 운영 여부도 명확하지 않지만, 신라의 초축성벽은 아차산성 초축성벽과 유사하여 6세기 후반 이후에 현재의 석축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도판9).²⁹⁾

이에 앞서 고구려는 양주 분지를 둘러싸고 아차산 일대와 연결되

27) 박가영, 앞의 논문, 2023, 94쪽 그림2.

28)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990 ; 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 동문지, 서문지-』, 2002 ; 기호문화재연구원,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 8·9차 발굴조사 보고서 합본-』, 2021 ;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 10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2 ;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 1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3.

29) 심광주, 「楊州 大母山城의 築造方法과 築城時期」,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4, 92~95쪽 ; 심재연, 「양주 대모산성 출토 삼국·통일신라 시대 토기의 검토」,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4, 222쪽 ; 김용,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선사와 고대』 74, 2024, 259~267쪽.

는 대규모 보루군을 조성하고, 임진강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방어하였다. 신라는 양주 천보산 보루군과 불곡산 보루군과 인접한 지점에 대모산성을 축성하여 신라의 한강 일대 최북단 거점으로 사용한 것이다(도판10). 이와 같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신라는 한강이 북 지역의 경우에는 양주분지 일대까지 관방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도판 9〉 서울 아차산성 남벽



〈도판 10〉 양주 대모산성 동벽



한편 한강 이남 지역에서 안양천 일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곳에 위치한 서울 호암산성이 주목된다. 호암산성은 동벽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에 그쳤지만 남서벽의 경우에는 보축기단과 세장방형의 면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호암산성도 6세기 후반에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⁰⁾ 특히 호암산성 아래 안양천의 평탄지에서 조사된 대규모 취락 유적과 초축시기가 연동될 것이다.

30) 한우물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산성으로 추정되었으나(서울大學校博物館, 『한우물 -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1990), 지표조사 과정에서 정연하게 치석된 면석 이전에 조성된 초축 성벽도 확인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호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4, 82~86쪽; 손설빈·임태용, 「호암산성 성벽과 제2우물지 발굴성과」, 『서울 호암산성, 그 여정과 도약(학술대회 자료집)』, 한강문화재연구원, 2024, 29~32쪽).

서울 독산동 유적에서는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유구, 수혈건물지 23기, 굴립주 건물지 99기, 초석 건물지 3기 등이 확인되었다.³¹⁾ 인접한 시흥동 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 12기, 적심건물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시흥동 유적에서도 출토된 고배와 부가구연대 부장경호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하므로 독산동 유적과 연결되는 유적이다.³²⁾

독산동 유적은 6세기 후반에서 조성되기 시작하여 장기간 사용된 취락이라기 보다는 단기간 사용되고 폐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수의 굴립주 건물지가 구획을 이루며 일부 중복되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유구는 창고 시설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양천 동안에 인접하여 위치한 유적지에 대규모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를 통해서 호암산성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성인 호암산성과 평지의 군사적 성격이 강한 취락시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유적은 한강 이북지역에서 신라 방어선의 북상과 함께 서해안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안양천을 통하여 수원까지 연결되는 교통로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도 구축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³⁾

이와 함께 서해안 방면에도 다수의 관방 시설들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 이남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성

31) 거래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독산동 유적』, 2016, 591~593쪽.

32) 頭流文化研究院, 『서울 시흥동 유적 -서울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한전선) 내 유적-』, 2023.

33) 윤성호, 「서울 호암산성의 운영과 기능의 변화」, 『선사와 고대』 75, 2024(a), 142~145쪽.

격이 확인된 관방시설은 김포 문수산성,³⁴⁾ 수안산성,³⁵⁾ 인천 계양산성,³⁶⁾ 문학산성,³⁷⁾ 안산 성태산성³⁸⁾이 당성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군의 상륙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성 이남 지역에서는 아산만을 통해 상륙하는 백제군에 대비하고자 평택 자미산성을 축조하였다.³⁹⁾

다음으로 양주분지 북쪽의 관방시설 정비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 낭비성 전투이다. 신라는 629년에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⁴⁰⁾ 한산주 북쪽에서 서울-양주-포천을 거쳐 철원에서 안협을 통하여 평양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안변까지 연결되는 교통로(삼방로)가 교차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천일대는 신라와 고구려에게 모두 중요한 요충지였다.

포천의 옛 지명이 낭성군(臂城郡)(마홀, 馬忽)인데, 포천 반월성 장대지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受蟹口草)’명 기와가 출토되었다.⁴¹⁾

34) 高麗文化財研究院, 『金浦 德浦津 附. 金浦 文殊山城』, 2017.

35) 중부고고학연구소, 『김포 수안산성 성곽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4.

36)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계양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2008 ; 겨레문화재연구원, 『계양산성』 II, 2011 ; 『계양산성』 III, 2016; 『계양산성』 IV, 2017 ; 『계양산성』 V, 2019 ; 『계양산성』 VI, 2019; 『계양산성』 VII, 2022 ; 김진웅, 「인천 계양산성의 조사현황과 성과」, 『선사와 고대』 65, 2021.

37) 국토문화재연구원,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2021.

38) 한양대학교박물관, 『성태산성 - 시굴조사 보고서-』, 2021 ; 이정철·황보경, 「안산 성태산성의 조사 성과와 성격 고찰」, 『동양학』 91, 2023.

39) 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51년(629) ; 권20, 고구려본기8, 榮留王 12년(629), 권41, 열전1, 金庾信 上.

41)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蟹口單〉 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 1996, 14~18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 종합보고서(I)-』, 2004, 245쪽 ; 田中俊明, 「廣州船里出土文字銘文の解釋と意義」, 『古代文

이러한 점에서 포천이 고구려의 마홀이고, 비성과 낭비성을 연결하여 포천 반월성을 낭비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다.⁴²⁾

포천 반월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 유물들이 모두 출토되었다.⁴³⁾ 고구려 유물은 서치성과 장대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는데, 유물의 분포상과 입지를 통하여 장대지 주변에 보루와 같은 소규모 관방시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혹은 고구려가 최종적으로 조성된 반월성의 일부 구역을 7세기 초반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⁴⁴⁾

포천 반월성을 동벽 조사구간에서 아차산성의 초축구간 면석에 비해서 모서리가 치석된 화강암 재질의 정방형 면석이 확인된다. 이러한 면석을 통하여 반월성의 축조 시기가 7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도판11).

신라가 포천 지역으로 북상한 시기를 사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변 유적 배치를 통해서 이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반월성에서 철원방면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포천 성동리 산성이 위치한다. 성동리 산성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하여

化』 56, 2004, 45~46쪽. 하남 선리 출토 명문와를 참고하면 ‘馬忽受蟹口草’로 판독할 수 있다.

42)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9, 1995 ;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43~249쪽 ; 박종서, 「高句麗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132~143쪽;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179~181쪽.

4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4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2009 ; 『포천 반월성 남북』, 2019 ;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 2009, 35~45쪽.

4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4, 533~534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96~97쪽.

다량의 신라 유물이 확인되었다.⁴⁵⁾ 이중에서도 수습된 단각고배를 기준으로 성동리 산성을 6세기 후반에 신라가 초축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⁴⁶⁾ 실제로 남벽의 잔존 구간은 편마암 계통의 모서리를 치석하지 않은 면석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6세기 후반에 조성된 관방시설의 축조 기법과 유사하다(도판12).

〈도판 11〉 포천 반월성 동벽

〈도판 12〉 포천 성동리산성 남벽



그리고 성동리 산성의 남서쪽 하단에 위치한 성동리 마을 유적에서는 4~5세기 백제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는데, 2호 주거지 북동쪽의 주혈에서는 고구려 토기편도 수습되었다. 그리고 신라 주거지도 2기가 조사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이 6세기 후반경을 중심연대로 한다는 점에서 신라가 북진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마을로 볼 수 있다.⁴⁷⁾

물론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론하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

45) 수습된 유물을 백제나 고구려 토기편으로 설명한 보고가 있지만(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7, 34~36쪽), 유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6) 白種伍, 「抱川 城東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296~297쪽.

47) 경기도박물관,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163~166쪽.

다. 신라가 북진기에 포천까지 북상하였다가, 568년 남천주로 옮겼던 시기에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혹은 603년 북한산주 재설치를 전후하여 다시 확보하였다가 우명산성(춘천 봉의산성)을 상실한 608년 이후에 포천 지역을 상실하였을 수도 있다. 그 후에 고구려가 반월성에 보루를 설치하여 통제하였으나, 629년에 대대적인 군사를 동원하여 탈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신라는 포천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신라의 서북 변경은 신라와 고구려가 모두 안정적으로 완전한 행정적인 지배를 할 수 없는 군사적인 완충지대로 629년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신라의 낭비성의 확보를 통하여 종결되었다. 따라서 포천 반월성은 629년 이후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신라는 포천 반월성 북쪽에서 영평천 유역의 포천 성동리 산성, 연천 대전리 산성 뿐만 아니라,⁵⁰⁾ 철원 할미성, 동주산성, 성산성도 신라가 운용하게 되면서 한탄강 유역까지 확보하였다.⁵¹⁾

이어서 임진강 유역의 관방시설도 살펴보자.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요충지에 파주 오두산성이 위치한다. 오두산성은 훼손이 심하고 조사가 미진하여 초축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신라는

48) 방유리, 앞의 논문, 2009, 31쪽.

49) 권순진,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33~34쪽.

50) 연천 대전리 산성은 양주 대모산성의 초축보다 늦은 7세기 전반 이후에 축조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심광주,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전리 산성 학술회의-대전리 산성, 매초성 인가』, 경기문화재단, 2013, 56~63쪽).

51)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312~319쪽.

한강유역을 확보한 직후에 임진강 하구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두산성 인근의 파주 성동리 고분군을 통해서 6세기 중반 경에 오두산성도 함께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²⁾ 다만 오두산성 내성의 동벽의 부분적인 조사 구간에 세 장방형의 편마암계통의 면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면석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인다(도판13).⁵³⁾ 오두산성과 함께 한강 북안에서 한강분류를 통제하는 고양 행주산성과 한강 남안의 서울 양천고성의 초축성벽도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⁵⁴⁾

<도판 13> 파주 오두산성 동벽

<도판 14> 파주 칠중성 서벽



임진강 남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인 칠중성의 축조 시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라의 칠중성 운영은 임진강 남안도

52)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54~57쪽.

53)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8 ;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2차 학술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54) 한얼문화재연구원, 『서울 양천고성지』, 2016 ; 『서울 양천고성지』 II, 2019 ; 윤성호, 「한강유역 고대 관방유적 조사·연구 현황 - 고양 떡절산토성과 서울 양천고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34, 2023, 44~48쪽. 행주산성 초축성벽의 축성 시기를 양천고성 보다 조금 후행하는 7세기 전반~중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한양문화재연구원, 『高陽 幸州山城』, 2021, 289쪽).

전체를 신라가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칠중성은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축시기를 검토하기 어렵다. 다만 잔존구간의 서벽 면석과 보축성벽은 7세기 전반 이후의 특징을 보인다(도판14).⁵⁵⁾ 그렇다면 칠중성은 낭비성의 확보 이후에 신라가 석축성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7세기 전반에 신라가 다시 북진을 시도하였고, 임진강-한탄강을 경계로 630년대 이후부터 고구려와 대치하며 최전방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고구려 멸망 이전에 임진강 북쪽의 파주 덕진산성, 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등의 고구려 관방시설에서 신라가 점유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⁵⁶⁾ 지표조사를 통하여 신라 토기와 와편이 수습된 봉서산성, 이잔미성, 아미성, 수철성, 군자산성, 옥녀봉산성은 초축시기를 밝혀야겠지만 대체로 630년대 이후에 신라가 초축하거나 고구려성을 재사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임진강-한탄강을 두고 신라와 고구려가 상호 견제하는 양상이 되었다. 고구려는 임진강-한탄강 북안에서 거점성과 위성을 조합한 관계인 선상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신라는 임진강-한탄강 남안에서 주성과 보조성을 조합한 삼각형방어체계로 대치하였다.⁵⁷⁾ 이러한 신라의 관방체계는 타지역에서도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축성을 통해서 신라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북진을 막아내었고, 최종적으로 한강 유역을 지켜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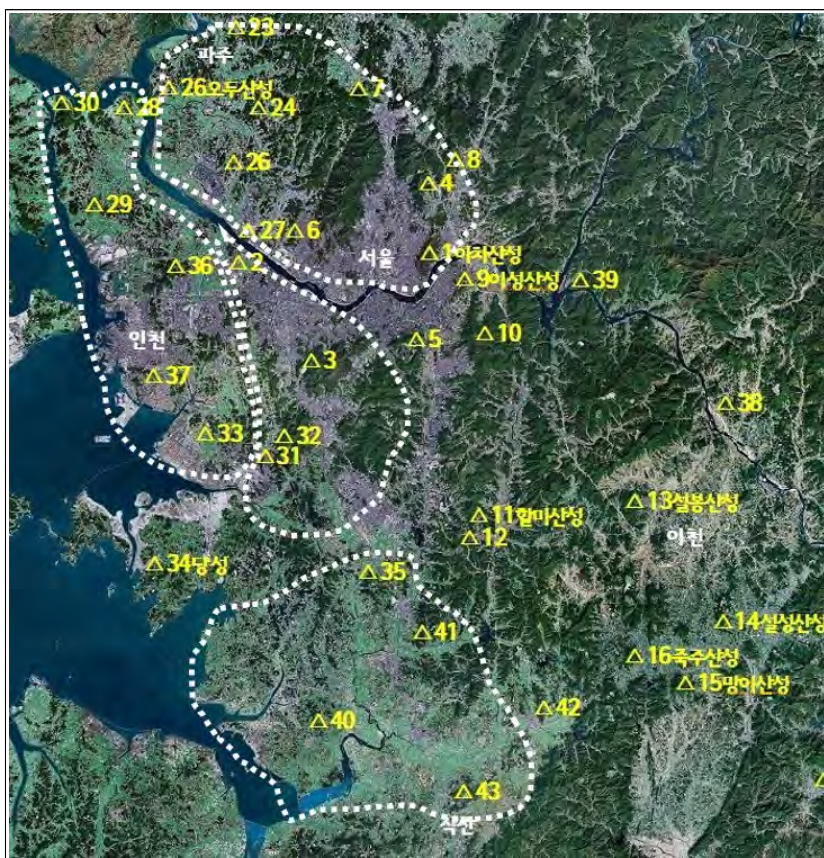
5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 경강문화재연구원, 『坡州 七重城 -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22.

56)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군사』 110, 2019(b), 137~140쪽.

57) 白種伍, 「南漢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294쪽.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노력을 통한 영역지배의 강화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도판 15〉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한강유역 관방체계



요컨대 신라가 한강유역에서 본격적으로 관방시설을 축조한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이다. 이 시기는 6세기 중반 직후에 국원-주치소, 국원-당성, 주치소-당성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축조된 관방체계가 확장되었다.

한강 이북은 북한산성(아차산성)과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한강이 북~양주분지 일대(중랑천 수계)에 관방체계가 형성되었고, 한강 이남의 안양천 수계과 서해안 지역에 관방체계가 구축되었다. 629년 낭비성 전투 이후에는 임진강-한탄강 남안(영평천 일대)까지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관방체계는 고구려 멸망시까지 고구려에 대한 방어선이 되었다(도판15).⁵⁸⁾

IV. 신라 한주 관방체계의 역할과 의미

행정적인 치소의 성격과 함께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관방시설의 축조는 국가 권력의 침투가 전제되는 사업이다.⁵⁹⁾ 활발한 축성은 그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⁶⁰⁾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축성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축조한 관방시설과 차이가 있다.

신라에 앞서 고구려는 5세기대에 백제와 충돌이 벌어진 예성강 이서 지역에 대형 산성을 쌓았지만, 임진강과 한강유역에는 소규모 보루들을 교통로를 따라 설치하였다.⁶¹⁾ 한강유역을 확보한 신라는

58)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 山城과 關防體系』, 고구려 연구회, 1999; 白種伍, 앞의 논문, 2007;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64~67쪽.

59) 俞元載, 『『三國史記』 築城記事 分析』, 『湖西史學』 12, 1984, 2쪽.

60) 축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진흥왕 6년(545)에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에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각지의 축성과 관련된 내용의 기술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었다(井上秀雄,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金東旭·金森襄作 譯, 『古代韓國史(古代朝鮮)』, 日新社, 1981, 164~165쪽).

61) 徐日範, 『北韓地域 高句麗山城 研究』, 檀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117~167쪽; 양시은,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2016, 208~209쪽, 224~225쪽.

소규모의 보루를 운영하기 보다는 이미 5세기 후반에 소백산맥을 넘어서 보은 삼년산성, 영월 정양산성과 같이 일정 기간 수성전이 가능한 대규모 성곽을 쌓았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방어위주의 전쟁을 벌였다.⁶²⁾ 이러한 전략은 관방시설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미 조성되었던 백제나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서울 아차산성, 인천 계양산성, 포천 반월성, 파주 칠중성과 같이 고구려 유물이 신라유물과 함께 출토되는 산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에서 명확하게 고구려의 유구로 밝혀진 것은 없다. 또한 한성기 백제의 유물이 출토되는 양주 대모산성,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에서 고구려가 점령하여 재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백제가 초축한 산성이라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했을 때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라는 관방시설을 새로운 장소에 신축하거나 이전에 있던 관방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다.

신라의 관방시설은 교통로를 따라서 상호 가시권이 확보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축조되었다.⁶³⁾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북진기에 신주와 북한산주가 운영되던 치소와 국원에서 당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중심지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천주가 설치되어 한강 이북

고구려가 임진강 이남에 소규모 보루만 쌓은 것은 신라를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李仁哲,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新羅文化』 24, 2004, 21쪽).

62)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2, 100~101쪽.

63) 서울-경기 및 인천 지역에 있는 관방시설은 336개소, 강원도 일대에는 90개소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신라가 6세기 중반 이후부터 한주를 운영한 시기에 운영된 산성이 49개소, 북한강 일대의 우수주의 경우 8개소로가 파악된다.

지역을 고구려와의 공방이 벌어진 후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양주 분지 북쪽과 영평천 이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성이 진행되었다. 단, 단기간에 집중적인 축성이 진행되면서 관방시설의 둘레나 성벽의 높이는 축소되는 특징도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축성이 가능했던 것은 신라 왕경의 대대적인 관방시설 정비와 연결된다.

진평왕 13년(591)에는 남산성(南山城)을 쌓았고, 진평왕 14년(593)에는 명활성과 서형산성을 수축하였다.⁶⁴⁾ 남산성 축조는 『남산신성비』를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의 ‘신성(新城)’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새로운 성’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진평왕 5년(583) 선부의 설치를 시작으로 진평왕 13년(591) 영객부의 설치까지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이 마무리되는 이해에 남산신성이 축조되는 것은 새로운 지배체제의 면모를 과시하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⁶⁵⁾

그리고 『남산신성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3년 이내에 무너지면 그 책임을 묻는다(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는 서약을 기입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라 관방시설에서 성벽이 자주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산신성비』에서는 축성과 관련된 장인의 명칭이 등장한다. [1비]에서는 ‘면착상(面捉上)’, ‘문착상(門捉上)’, ‘소석착상(小石捉上)’,

6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13년(591)·15년(593).

65) 朱甫噉, 「南山新城의 築造와 南山新城碑 -第9碑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0·11, 1994, 39쪽. 『三國史記』에는 ‘築南山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나(『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13년(591)), 『南山新城碑』에 ‘南山新城’으로 나오며, 『明活山城碑』에는 ‘作城’으로 표현되어 있다.

[2비]에서는 ‘면석착인(面石捉人)’, ‘□석착인(□石捉人)’, ‘소석착인(小石捉人)’, [3비]에서는 ‘면석착상인(面石捉上人)’, ‘□석착인(□石捉人)’, ‘소석착상인(小石捉上人)’, [4비]에서는 ‘□석착상인(□石捉上人)’, ‘소석착상인(小石捉上人)’, [9비]에서는 ‘면착(面捉)’, ‘□착인(□捉人)’, ‘소석착인(小石捉人)’이 확인된다. 즉, 종합해보면 ‘□석착상인’은 석공을 지칭하는데, 석공도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장인은 면석을 다루는 장인(面石捉上人), 문지를 만드는 장인(門石捉上人), 채석 또는 뒷채움석을 담당한 장인(小石捉上人)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1>).⁶⁶⁾

〈표 1〉 『남산신성비』의 석공 표기방식

구분	면석	문지	뒷채움석
1비	面捉上	門捉上	小石捉上
2비	面石捉人	□石捉人	小石捉人
3비	面石捉上人	□石捉人	小石捉上人
4비	□石捉上人		小石捉上人
9비	面捉	□捉人	小石捉人

그리고 [2비]에서는 소석착인의 관등은 피일(외위 10위)이다. [3비]의 소석착인이 경위인 소오(외위 16위)에 해당하고, [3비]의 면석착인의 관등은 대오(외위 15위)로 한등급 높다. 이러한 점에서 외벽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면석을 치석하는 장인의 중요성을 높게 인정받았던 것도 알 수 있다.⁶⁷⁾

66) 해당 내용을 기술자로 파악하지 않고, 촌락의 행정을 담당한 재지세력자로 파악한 견해도 있지만(朱甫暉,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舍』,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47~49쪽), 기술자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李銖勳, 『6세기 新羅의 村落과 匠人集團』, 『釜山史學』 27, 1994, 8~23쪽).

67) 『남산신성비』 9비에서는 面拓, □拓人, 小石拓人이 확인되는데, 面拓의 관등이

또한 비문에 축성을 담당한 인물의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지명도 확인된다. 『남산신성비』 [1비]의 아랑(阿郎), 아랑촌(阿郎村)은 신라가 복속한 안라가야(함안) 지역, 노함촌(奴含村)은 의령, 칠토□(柒吐□)는 함안 칠원에 해당한다. [2비]의 아대혜촌(阿大兮村)과 구리성(仇利城)은 옥천, 답대지촌(答大支村)은 상주로 비정된다.⁶⁸⁾ 종합해보면 [1비]는 하주, [2비]는 상주 지역에서 동원된 인력이 축성을 담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의 한강유역의 남천주에서 인력을 동원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역에 동원된 인원이 왕경과 자신의 연고지를 오가며 축성기술도 전국적으로 공유되었을 것이다.⁶⁹⁾

앞서 언급한 듯이 신라의 북진 직후인 6세기 중반에 신복속지의 재지민을 신속하게 재편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지점에만 관방시설이 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6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남진을 막아내고, 관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복속지의 인력도 동원하였을 것이고, 표준화된 축성기술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주에는 축성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대장척당(大匠尺幢)’이 확인된

阿尺이고 나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面拓이 다른 비의 面石拓上人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등이 외위 11위인 阿尺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68)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974, 11쪽; 李明植, 「慶州 南山新城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07~111쪽.

69) 앞서 살펴본 화성 당성의 1차성벽은 편마암 계통의 할석으로 축조되었는데, 대형 할석의 비율이 주변 관방시설에 비해 높다. 이러한 형태는 경주 명활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축조집단이 축성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견해가 있다(안성현, 앞의 논문, 2021, 80쪽)

다.⁷⁰⁾ ‘대장척’의 명칭으로 볼 때 축성과 관련된 일종의 공병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⁷¹⁾ 특히 한주에 대장척당주 1명, 한산정에 대장척감 1명이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무관조가 정리된 기준 시기가 신라 하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대당과 정제의 군관직 중 일부는 신라 하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그대로 유지된 것이 파악한 견해도 있다.⁷²⁾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한강유역의 축성이 집중되는 점도 이 시기 한주에 별도의 축성 담당 군사 조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한주에서 신라의 축성과 관방체계 구축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성을 위해 동원된 인력의 파악과 동원을 통해서 한주에 대한 지배가 정치해지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관방체계는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응하면서 한강 유역을 사수하고 최종적으로 양국을 멸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나당전쟁기에는 임진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나당전쟁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신라는 임진강 이북 지역과 대동강 이남지역에서 당군과 충돌하였다. 나당전쟁 초반의 주요 전장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 신라가 진출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고지였다.

7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71) 심광주, 앞의 논문, 2002, 228쪽.

72) 대당과 정제의 군관직 중 일부는 신라 하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흥왕대 설치된 監舍知와 軍師幢主, 자비마립간대에 설치된 將軍을 비롯하여, 감사지, 군사당주와 인원규정이 같고 무관조 기록의 연결성 등으로 보아서 軍師監, 大匠尺幢主와 大匠尺監도 그 이전에 성립되었던 군관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180~181쪽).

고구려는 임진강 이북에 일정한 간격으로 보루를 설치하여 도하가 용이한 여울을 통제하였고, 신라는 임진강 이남에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독립된 구릉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산성을 축조하여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신라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대동강 이남의 영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전쟁으로 고구려의 지배층과 주민이 사민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인력을 이용하여 신라의 관방체계에 맞게 관방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신라가 한강유역의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확보한 직후인 6세기 중반의 상황보다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고구려는 주방어방향에 해당하는 평양의 북쪽과 요동 지역에 관방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인 신라와 접한 남쪽 변경의 관방체계는 다르게 구성되었다. 예성강 이북지역에서 대동강 이남까지는 주요 거점에 둘레 2km이상의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였지만, 임진강 북안을 중심으로 강안평지성과 소규모 보루를 배치한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⁷³⁾ 기왕에 무력에서 강세인 고구려와 약세인 신라는 서로 관방체계가 상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결국 신라는 기존 전쟁방식과 다르게 청야입보의 수성전이 아니라 평지에서 당군과 충돌하였다. 신라는 석문전투에서 당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이후 전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방어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라는 당과 전쟁을 치루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어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술의 수립이 시급해졌다.

신라는 672년에 주장성(남한산성)을 축조하여 한강 이남의 방어선을 정비하였다.⁷⁴⁾ 그리고 673년에는 서형산성을 쌓는 등 왕경 외곽

73) 양시은, 앞의 책, 2016, 207~209쪽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80~83쪽.

74) 中原文化財研究所, 『南漢山城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2007 ; 권창혁,

의 방어선도 정비하고,⁷⁵⁾ 국원성을 포함하여 왕경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에도 대대적인 축성을 진행하였다.⁷⁶⁾ 신라가 고구려와 대치중에 구축한 임진강-한탄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결국 당군은 신라가 구축한 임진강-한탄강의 방어선을 거의 돌파하지 못하고 회군하였다. 여기서 6~7세기에 신라가 구축한 한강유역 관방체계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⁷⁷⁾

〈표 2〉 신라 경덕왕 16년(757) 9주의 영현수

주		군		현		소경
경덕왕 개칭	개칭전	지리지	본기	지리지	본기	
한주	한산주	28	27	49	46	중원경(국원경)
삭주	수약주	12	11	26	27	북원경
명주	하서주	9	9	25	25	
상주	사벌주	10	10	31	30	
양주	삼량주	12	12	34	34	금관경
강주	청주	11	11	30	27	
웅주	웅천주	13	13	29	29	서원경
전주	완산주	10	10	31	31	남원경
무주	무진주	15	14	43	44	
(9)		(120)	(117)	(298)	(293)	(5)
한주 / 9주×100		23.2%	23%	16.4%	15.7%	
(한주+삭주) / 9주×100		33.3%	32.5%	25.2%	24.9%	

「나당전쟁기 漢山州의 關防體系 정비와 晝長城의 位相」, 『軍史』 129, 2023, 297~298쪽.

7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2년(672)·13년(673).

76) 신라는 기존의 성과 신축된 성을 연계하여 방어선을 설정한 것인데, 제1방어선에서는 칠중성이 거점성으로 활용되었다(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探求』 23, 2016(b), 83~88쪽).

77) 윤성호, 「나당전쟁기 칠중성 전투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61, 2024(b), 260~263쪽.

나당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관방시설은 군사적인 성격보다 행정치소의 성격이 강화되었다.⁷⁸⁾ 주치소에 해당하는 서울 아차산성, 이천 설봉산성, 하남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주요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은 통일신라 이후에 군현에 해당하는 치소성(군현성)이 되었다. 이러한 성곽에서는 다량의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문서행정에 사용된 벼루 등이 출토되고 있다.

한주에 밀집된 관방시설은 전쟁 이후에 치소로 전환되면서, 통일 이후 편제된 9주에서 군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수의 행정 단위가 배치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표2).⁷⁹⁾



지금까지 신라의 북진기 이후인 6세기 중반부터 통일기의 한주 일대의 신라 관방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라는 6세기 중반에는 신복속지에 대한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치소와 대중국 해상 교통로의 출발점이 연결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였다. 이때 하남 이성산성, 화성 당성, 안성 죽주산성, 용인 할미산성이 가장 먼저 정비되었다.

6세기 후반에는 고구려가 다시 신라에 대해 공격을 하여 한강 이

78) 박성현,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0.

79)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8, 269~2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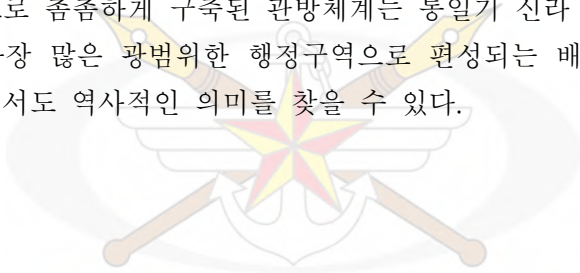
북 지역의 상황이 불안해 졌다. 신라는 고구려 온달의 아단성 공격이나 7세기 초의 동일한 지점인 북한산성 전투를 통해 한강 이북지역부터 회복하려는 고구려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는 한주 일대의 대민지배를 확립하고 대고구려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까지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아차산성을 중심으로 중랑천 수계에서 양주 분지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대모산성까지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과 함께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안양천 수계를 중심으로 호암산성을 대표하는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과 한강 하구의 주요 요충지에도 축성이 진행되었으며, 한주 남부에 해당하는 안성천 유역으로도 관방체계가 확장되었다.

신라는 629년에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한 이후에 방어선을 임진강-한탄강 남안까지 북상하였다. 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부터 임진강 중간의 요충지인 철중성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에 축성을 통하여 임진강-한탄강 북안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마주하며 상호 경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방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으며,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한주 일대에 신라는 몇 차례의 단계를 거치면서 관방체계를 완성해 나갔다. 이러한 관방체계가 다시 주목받는 시기는 나당전쟁기이다. 나당전쟁 초반에 신라는 임진강이북 지역에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당군과 대치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신라가 신속하게 관방체계를 구축할 수 없었다. 고구려의 관방체계는 신라의 상황과 달랐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당군을 막아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신라는 결국 석문 전투에서 평지를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참패하고,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신라는 기왕에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임진강-한탄강선으로 방어선을 후퇴하고, 관방시설을 보강하였다. 또한 주장성을 대표로 임진강-한탄강에서 왕경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의 관방시설을 보강하였다. 이렇게 신라는 관방체계를 재정비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당군은 결국 몇 차례의 공세를 시도하였으나 신라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주 일대의 관방체계의 구축이 지니는 군사사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당전쟁 이후 평화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강 유역에 구축한 관방시설은 행정치소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한주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구축된 관방체계는 통일가 신라 한주의 영현수가 가장 많은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편성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삼국통일전쟁기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

| 송영대

삼국통일전쟁기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

송 영 대*

- I. 머리말
- II. 김유신의 전략 입안과 활용
- III. 김유신의 전투 전개와 전술 운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新羅)는 삼국통일(三國統一)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략(戰略)과 전술(戰術)을 개발하고 전쟁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신라의 전략과 전술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나 김유신(金庾信)의 활동에서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도 이러한 그의 전과(戰果)를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인지하여 「열전(列傳)」에서 상·중·하 3권을 할양하여 업적을 기술하였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전쟁 기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각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펼쳤다. 기존의 연구는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전체적인 전쟁이나 각 전투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식으로 이행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략과 전술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략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이행되었다. 리텔 하트의 간접접근전략을 활용하여 전쟁 양상을 파악한 사례가 있고,¹⁾ 6~7세기 신라의 전략으로 기만전략·화전양면전략·해상전략을 거론한 사례도 있다.²⁾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전략으로 기만전략을 고찰한 사례도 있으며,³⁾ 신라군의 양동작전과 당군의 양공작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략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⁴⁾ 아울러 신라의 한산주 방어전략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연구도 이행되었다.⁵⁾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술에 대해서는 기록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연구만 이행되었다. 김유신의 전술과 관련하여 첩자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행되었으며,⁶⁾ 6~7세기 신라의 전술로 분산배치전술과 기습전술·단기돌격전술·유인전술과 의병지계·간첩 활용 전술로 구분하

1) 나승균, 「나제전쟁에서의 간접접근전략 연구: 나·당연합국과 백제군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 30, 2012.

2) 송영대, 「6~7세기 신라의 전략·전술 입안과 활용」, 『韓國史研究』 169, 2015(a).

3) 이상훈,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 멸망」, 『역사와 실학』 59, 2016(d).

4) 이재준, 「나·당 연합군의 침공전략과 백제의 대응」, 『韓國軍事學論集』 72, 2016(b).

5)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6) 金瑛洙,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62, 2007.

여 파악한 연구도 있다.⁷⁾ 무기를 통해 전술을 파악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⁸⁾ 기병전술을 크게 기병단독전술(騎兵單獨戰術)과 보기합동전술(步騎合同戰術)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도 있다.⁹⁾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은 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삼국통일의 군사전략이라는 주제로 다룬 연구서가 있다.¹⁰⁾ 김유신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많다. 이를테면 황산벌 전투,¹¹⁾ 평양으로의 군량 수송작전,¹²⁾ 북한산성 전투,¹³⁾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¹⁴⁾를 고찰한 연구들이 이행되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전쟁 때 수많은 전투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고구려 멸망 이후에 태대각간(太太角干)의 직위에 올랐으며,¹⁵⁾ 사후에는 흥무대왕(興武大王)이라는 왕호(王號)가 추존되기까지 하였

7) 송영대, 앞의 논문, 2015(a).

8) 이준성, 「서양, 중국, 한국에서의 쇄녀(노)의 역사와 전술적 운용 고찰」, 『군사연구』 137, 2014 ; 송영대, 「『삼국사기』를 통해 본 6~7세기 신라의 무기체계」, 『사학연구』 117, 2015(b).

9) 柳昌煥, 「三國時代 騎兵과 騎兵戰術」, 『韓國考古學報』 76, 2010.

10)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2002.

11) 윤일영, 「황산벌 전투: 黃山原·三營·三道의 위치, 戰鬪配置·經過·結果」, 『군사학연구』 9, 2011 ; 문동석, 「660년 7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 『新羅史學報』 38, 2016 ; 이상훈,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60, 2021.

12)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 노양규, 「662년 식량수송작전을 통해 본 김유신 장군의 활동과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2-2, 2013.

13) 이상훈,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 2016(c).

14) 이민수, 「662년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 재구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1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8년,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대角干 仁問대角干.”

다.¹⁶⁾ 김유신이 태대각간이라는 직위를 받게 된 사유에 대해 「직관지(職官志)」에서는 원모(元謀)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⁷⁾ 「김유신전(金庾信傳)」에서는 당(唐) 태종(太宗)이 김춘추(金春秋)에게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다고 하자, 김춘추는 김유신에 대하여 재지(才智)가 있다고 하였다.¹⁸⁾ 즉 김유신은 지모(智謀)가 뛰어난 장군으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지장(智將)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삼국시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이번 연구에서는 김유신의 전투 수행을 분석하고, 지장으로서의 면모를 어떤 식으로 발휘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김유신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전투에서의 전개 양상도 파악하고자 한다.

Ⅱ. 김유신의 전략 입안과 활용

군사학에서 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군사 등 통합된 전력을 운용하는 방법이나 전략’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소 큰 개념이며, 전쟁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전쟁 수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전쟁 수단들을 설정된 목표에 집중시키는 방책’이라고

16)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後興德大王封公爲興武大王.”

17)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太대角干, “太대角干【或云太대舒發翰】文武王八年 滅高句麗 授留守金庾信以太대角干 賞其元謀也 於前十七位及太대角干之上 加此位 以示殊尤之禮.”

18)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太宗皇帝曰 聞爾國庾信之名 其爲人也如何 對曰 庾信雖少有才智 若不籍天威 豈易除鄰患.”

할 수 있다.¹⁹⁾ 즉 전략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유신은 지장으로서 여러 전략을 입안하여 전투에 적용하였다. 전략은 전쟁의 방향을 크게 설정하였을 때,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전투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전쟁은 국가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다보니, 김유신만의 전략을 크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러 전투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김유신의 전략으로 크게 3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기만전략과 삼도운용전략, 그리고 간첩 활용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전략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만전략

기만전략은 적을 속여 아군에게 유리한 전황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사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은 물론 때로는 아군도 속여야 한다. 김유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던 인물이었다. 다음 장에서 언급할 전술 중에서도 기만의 범주에 해당할만한 사항으로 위장전술과 역습전술이 있지만, 이는 전투 단위에서 펼쳐진 것이기에 기만전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펼친 기만전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642년 김춘추 구출작전이 있다. 642년 8월에 신라는 대야성(大耶城)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가 경남 합천을 장악하게 되었다. 합천에는 황강(黃江)이 흐르며, 이는 낙동강(洛東江)으로 합류하여 상류로 올라가면 경주로 직공(直功)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신라가 수세(守勢)에 물리고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古陀炤娘)과 사위 김

19) 이태규,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품석(金品釋)이 사망하게 되자, 김춘추는 642년 겨울에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다짐하였다.²⁰⁾

당시 신라는 백제의 위협 때문에 급하게 고구려에게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제동맹(羅濟同盟)으로 고구려에게 대항하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의 영토를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호시탐탐 이 일대의 회복을 원하였다. 온달(溫達)이 남진(南進)하여 전사(戰死)한 것도 신라에게 빼앗긴 강역(疆域)을 회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을 고스란히 들어줄 수만은 없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에게 죽령(竹嶺) 서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곳은 고구려가 원하던 고토(故土)였고, 이 일대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신라와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만큼, 신라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김춘추의 청병(請兵)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²¹⁾ 김춘추는 당시 신라의 이찬(伊飡)이라는 고위직이었지만, 단독으로 영토의 할양까지 관장할 수 있는 직위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측과 갈등이 생겨서 김춘추는 별관(別館)에 유폐되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도 「신라본기(新羅本紀)」와 「김유신전」의 기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김부식(金富軾)은 이에 대해 고기(古記)의 기록이므로 별도로 수록한다고 밝혔다. 두

2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浪品釋 舍知竹竹·龍石等死之 冬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浪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 便詣王曰 臣願奉使高句麗 請兵以報怨於百濟 王許之.”

21) 김덕원,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2016, 141쪽.

기록이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에서 김유신이 등장한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확인된다.

우선 「신라본기」에서는 김춘추가 몰래 사람을 보내 선덕여왕(善德女王)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이에 왕은 대장군(大將軍) 김유신에게 결사대 1만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김유신이 한강(漢江)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서자, 보장왕(寶藏王)이 김춘추를 놓아 보냈다고 하였다.²²⁾

반면 「김유신전」에서는 김춘추가 선도해(先道解)의 조언으로 별주부전(鼃主簿傳)의 사례에 따라 귀국하게 된다면, 왕에게 죽령 서복을 할양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춘추가 고구려로 들어간지 60일이 지나자, 김유신이 군사 3천 명을 선발하여 출동 기일을 정했다고 하였다. 이 소식이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德昌)을 통해 고구려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장왕은 김유신의 할양 약속과 김유신의 진군을 모두 고려하여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여겨 김춘추를 신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²³⁾

그렇다면 이 당시 김유신은 실제로 1만 혹은 3천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로 진군하고자 하였을까? 사실 두 기록으로 보았을 때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전쟁을 개시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善德王 11년, “春秋潛使人告本國王 王命大將軍金庾信 領死士一萬人赴之 庾信行軍過漢江 入高句麗南境 麗王聞之 放春秋以還.”

23)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春秋聞其言 喻其意 移書於王曰 二嶺 本大國地分 臣歸國 請吾王還之 謂予不信 有如皦日 王迺悅焉 春秋入高句麗 過六旬未還 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相語曰 吾聞 見危致命 臨難忘身者 烈士之志也 夫一人致死當百人 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 則可以橫行天下 今國之賢相 被他國之拘執 其可畏不犯難乎 於是 衆人曰 雖出萬死一生之中 敢不從將軍之令乎 遂請王 以定行期 時高句麗諜者浮屠德昌 使告於王 王前聞春秋盟辭 又聞諜者之言 不敢復留 厚禮而歸之 及出境 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圖遁死耳.”

쉽지 않다. 1만의 병력은 진평왕 때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입할 당시 왕이 직접 이끌고 방어한 병력에 해당한다.²⁴⁾ 즉 1만 혹은 3천의 병력은 본격적인 원정에 나서기에는 많은 병력이 아니며, 일부 국지적인 전역(戰役)에서 활용할 병력에 해당한다. 더구나 백제가 대야성을 차지한 상황에서, 신라로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신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지만 고구려로서도 당시 한반도 남부에 대대적으로 수세(守勢)를 갖추기에는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당과의 전쟁 대비로 상당수의 병력이 북쪽과 평양성 일대에 포진되어 있었으며, 남부에는 소규모의 주둔 병력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유신에 이끄는 1만 혹은 3천의 군대는 본격적인 싸움을 주도하기는 어렵더라도, 고구려 일부 영토를 공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때문에 김유신은 소규모 병력이라도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사전에 김춘추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김춘추는 고구려로 가기 전에 김유신과 만나,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곧 60일이라는 기한을 상정해 놓고,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김유신이 나서달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김유신은 군대를 준비하여 진격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물론 고구려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김춘추와 김유신 단둘이 결정하고 시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고구려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병력이 열세였으며,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즉 김유신이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 일종의 허장성세(虛張聲勢)이며, 기만전략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2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25년, “二十五年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있다. 고구려의 간첩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들을 역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당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신라와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병력을 크게 분산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군대를 준비하여 김춘추의 안전한 귀국을 도모한 판단이 바로 기만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삼도운용전략

삼도운용전략(三道運用戰略)은 군대를 3군으로 분산시켜 진군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의미한다.²⁵⁾ 고대부터 삼군(三軍)은 군대의 기본적인 구성 체제로 알려져 있었다. 삼군은 전체 군대라는 뜻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周)의 제도에서 천자는 6군(軍)을, 제후는 3군(軍)을 보유한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²⁶⁾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전체 군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국가의 전군(全軍)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선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오자(吳子)』에서도 제(齊)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공격하고 위협하여 쫓으면 그 진영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즉 3군으로 병력을 분산시켜 상대의 여러 방면을 공격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25)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분산배치전술로 이해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 기록을 반영하고, 전투의 수행이 아닌 전쟁의 수행에서 전략이 세워졌다고 판단하여 삼도운용전략으로 명명(命名)하였음을 밝힌다. 송영대, 앞의 논문, 2015(a), 52쪽.

26) 손무 著, 유동환 譯, 『손자병법』, 홍익출판사, 1999, 87쪽, 주석 15번.

27) 『吳子』「料敵」, “夫齊性剛 其國富 君臣驕奢而簡於細民 其政寬而祿不均 一陳兩心 前重後輕 故重而不堅 擊此之道 必三分之 獵其左右 脅而從之 其陳可壞.”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譯註 孫武子直解 吳子直解』, 전통문화연구회, 2012, 403쪽.

김유신도 군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크게 3군으로 나누어 싸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진군 방향을 서로 달리하여, 적시(適時)에 합세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삼도운용전략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A-①. 3월에 백제의 장군 의직(義直)이 서쪽의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腰車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압독주(押督州)의 도독(都督)인 유신(庾信)에게 명하여 (대책을) 도모하게 하였다. 유신은 이에 사졸(士卒)을 타이르고 격려하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대항하자 유신은 군사를 3갈래로 나누어 협격(挾擊)하였다. 백제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자 유신이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왕이 기뻐하여 사졸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²⁸⁾

A-②. 가을 7월 9일에 김유신(金庾信) 등이 황산(黃山)의 별관으로 진군하자 백제의 장군 계백(槎伯)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3군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3길로 나누어 4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병사들은 힘이 다 하였다.²⁹⁾

A-①은 648년 3월에 있었던 요거성전투, A-②는 660년 7월에 있었던 황산벌전투이다. 두 기록에서는 모두 삼도(三道)로 나누어 싸웠다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모두 신라군이 백제군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분산하여 운용한 것에 해당한다. A-①은 신라 영

2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 “三月 百濟將軍義直 侵西邊 陷腰車等一十餘城 王患之 命押督州都督庾信以謀之 庾信於是 訓勵士卒 將以發行 義直拒之 庾信分軍爲三道 夾擊之 百濟兵敗走 庾信追北 殺之幾盡 王悅賞賜士卒有差.”

2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秋七月九日 庾信等進軍於黃山之原 百濟將軍槎伯 擁兵而至 先據嶮 設三營以待 庾信等 分軍爲三道 四戰不利 士卒力竭.”

토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신라군이 익숙한 루트를 활용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반면 A-②는 백제 영토 내에서 백제가 사전(事前)에 진영을 구축한 상태에서 전투가 전개된 것이다.³⁰⁾ 백제의 진영에 맞춰 신라도 3도로 나누어 공격에 들어갔지만, 이미 험지(險地)를 선점한 백제군이었기에 쉽게 밀리지 않고 신라군에게 대응하였다. 신라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도로 군대를 나누어 운용하면서 백제군을 공격하여, 백제군 내부에서의 호응을 막으려고 하였다.³¹⁾ 당시 신라군은 소정방(蘇定方)과의 집결 때문에 신속하게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백제는 그러한 신라의 다급한 대처에 익숙한 지형을 바탕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라군은 반굴(盤屈)과 관창(官昌)을 통한 돌격전술을 펼친 이후에야 황산별전투에서의 승기(勝機)를 잡을 수 있었다.

삼도운용전략은 군사 운용을 다각도로 전개시켜 승기를 잡기 위해 마련된 전략이었다. 아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개된 경우나 여러 곳의 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되었다. 이 전략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성패(成敗)가 엇갈리는 면이 있었으며, 김유신도 삼도운용전략을 통해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워 다른 전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30) 계백이 설치한 3곳의 진영 즉 삼영(三營)의 위치에 대해서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 백제군 3영의 위치를 비정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간격이 있는 각각의 산성이 아닌 논산 청동리산성 곳곳에 진영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상훈, 앞의 논문, 2021, 89~93쪽.

31) 3도를 인천리(仁川里)에서 황산리(黃山里)로 가는 접근로 중에서 3곳을 설정하여 살펴보고 위치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윤일영, 앞의 논문, 2011, 25~26쪽. 반면 3도라는 것을 세 방향으로 인지하고, 반드시 별개의 3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상훈, 위의 논문, 2021, 95쪽.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649년 석토성(石吐城) 전투에서는 3군을 5도로 나누어 백제에게 요격한 사례도 있다.³²⁾ 다만 이 경우에는 지난번의 삼도운용 전략과 유사한 5도로 진군하여 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승부를 내지 않아 양군의 인적 손실이 매우 컸다.³³⁾ 결국 반간계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절에서 상세한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간첩 활용 전략

김유신은 간첩(間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다수 구사하였다. 『손자병법(孫子兵法)』 용간편(用間篇)에 따르면 간첩은 크게 향간(鄉間, 因間)·내간(內間)·반간(反間)·사간(死間)·생간(生間)이 있다고 한다.³⁴⁾ 여기에서 향간은 적의 고장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간은 적의 벼슬아치를 포섭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며, 반간은 적의 간첩을 매수하거나 역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⁵⁾ 김유신은 향간·내간·반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간첩 전략을 펼친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⁶⁾

32)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太和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陳春·天存等將軍 出禦之 分三軍爲五道 擊之 互相勝負 經旬不解 至於僵屍滿野 流血浮杵.”

33)李文基, 「648·649년 신라의 對百濟戰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a), 224쪽.

34) 『孫子兵法』 권11, 用間, “故用間有五 有鄉間·有內間·有反間·有死間·有生間 五間俱起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寶也 鄉間者 因其鄉人而用之 內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 死間者 爲誑事于外 令吾間知之 而傳于敵 生間者 反報也”.

35)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앞의 책, 2012, 353~355쪽.

36) 기존 연구에서도 내간과 반간을 통해 신라가 간첩 활용 전술을 사용하였음을

B-①. 김유신 등의 행렬이 양오(楊隩)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적국(敵國)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에게 배와 비단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고 가버렸다. 유신은 양오에 진영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인문·양도 및 (김유신의) 아들 군승 등을 보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뜻으로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힘껏 싸울 수 없었다. 이에 군량을 얻게 되자 곧 당나라로 돌아갔다.³⁷⁾

B-②. 조미갑(租未押)이 틈을 엿보아 알려 말하였다. “지난번에 죄가 두려워 감히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유신이 저를 타일러 향후에 당신께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으니,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겠소.’라고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임자(任子)가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고, 조미갑은 두려워하고 물러갔다. 처벌을 기다린 지 몇 달 만에 임자가 그를 불러서 묻기를, “네가 지난번 이야기한 유신의 말이 어떠한 것이더냐?”라고 하였다. 조미갑은 놀라 두려워하며 지난번에 말한 것과 같이 답하였다. 임자가 “네가 전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았으니, 돌아가 그렇게 고하여도 좋다.”고 말하였다. 마침내 돌아와 아울러 안팎 사정까지 이야기하였는데, 정말로 모두 다 자세하였다. 이에 (백제를) 병합할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³⁸⁾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다. 송영대, 앞의 논문, 2015(a), 60~62쪽. 그렇지만 간첩의 활용은 개별 전투의 사례보다 전쟁의 측면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첩 활용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 37)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庾信等行抵楊隩 見一老人問之 具悉敵國消息 賜之布帛 辭不受而去 庾信營楊隩 遣解漢語者仁問 良圖及子軍勝等 達唐營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迴唐.”
- 38)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租未押伺間報曰 前者 畏罪不敢直言 其實往新羅還來 庾信諭我 來告於君曰 邦國興亡 不可先知 若君國亡 則君依於我國 我國亡 則吾依於君國 任子聞之 嘿然無言 租未押惶懼而退 待罪數月 任子喚而問之

B-③. 마침내 왕에게 청하여 출병 날짜를 정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첩자(諜者)인 승려 덕창(德昌)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왕에게 (김유신의 출병 소식을) 알렸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세를 들은 데다가 또한 첩자의 말을 듣고 나니, 감히 다시 (춘추를) 억류하지 못하고 후하게 예우하여 돌려보냈다. (춘추가 고구려의) 국경을 벗어나자, 호송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나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군사를 청하러 왔던 것인데, 대왕께서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토지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대왕께 글을 올린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³⁹⁾

B-④. 2년(649) 가을 8월에 백제장군 은상(殷相)이 석토성(石吐城) 등 7성을 공격해 오니, 왕이 유신과 죽지(竹旨)·진춘(陳春)·천존(天存) 등 장군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들을 막게 하였다. 3군(三軍)을 나누어 다섯 방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승부가 열흘이 지나도록 나지 않았다. 엮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고, 흐르는 피가 절굿공이를 띄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도살성(道薩城) 아래에 주둔하며 말을 쉬게 하고 군사들을 잘 먹여 다시 공격을 꾀하였다. 이때 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유신의 군막을 지나가자, 장수와 병사들이 이를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유신은 “이는 족히 괴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엽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체하고 감히 누구인지 물어보지 말라.”고 말하였다. 또 사람을 시켜 진영 안을 돌아다니며, “진지를 굳게 지키며 움직이지 마라. 내일 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결전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첩자가 이를 듣고 돌아가 은상에게

曰 汝前說庾信之言 若何 租末埤驚恐而對 如前所言 任子曰 爾所傳 我已悉知 可歸告之 遂來說兼及中外之事 丁寧詳悉 於是愈急并吞之謀”

- 39)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於是 衆人曰 雖出萬死一生之中 敢不從將軍之令乎 遂請王 以定行期 時高句麗諜者浮屠德昌 使告於王 王前聞春秋盟辭 又聞諜者之言 不敢復留 厚禮而歸之 及出境 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晷遣死耳.”

알렸다. 은상 등은 군사의 증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장군인 달솔(達率) 정중(正仲)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았으며, 좌평(佐平) 은상과 달솔 자견(自堅) 등 10명과 병졸 8,980명을 죽이고, 말 10,000필과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다. 그 밖의 (획득한) 각종 기계(器械)들도 이와 비슷하였다.⁴⁰⁾

김유신이 향간을 사용한 것은 B-①, 즉 662년에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할 때의 상황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양오의 고구려 노인이 김유신에게 고구려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⁴¹⁾ 이 노인이 당시 어떠한 사실들을 전해주었는지, 기록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고구려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고구려의 정세나 주변의 상황, 진군로 및 주요 지점의 지형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고구

40)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陳春·一天存等將軍 出禦之 分三軍爲五道 擊之 互相勝負 經旬不解 至於僵屍滿野 流血浮杵 於是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舉 時有水鳥東飛 過庾信之幕 將士見之 以爲不祥 庾信曰 此不足怪也 謂衆曰 今日必有百濟人來 謀汝等 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援軍至 然後決戰 諜者聞之 歸報殷相 殷相等謂有加兵 不能不疑懼 於是庾信等一時奮擊 大克之 生獲將軍 達率正仲·士卒一百人 斬佐平殷相·達率自堅等十人及卒八千九百八十人 獲馬一萬匹·鎧一千八百領 其他器械稱是 及歸還 路見百濟佐平正福與卒一千人來降 皆放之 任其所往 至京城 大王迎門 勞慰優厚.” 이와 유사한 맥락의 기사는 신라본기 제5 진덕왕(眞德王) 3년조와 백제본기 제6 의자왕(義慈王) 9년조에서도 확인되나, 본고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김유신전」을 따른다. 해당 사건의 연대는 태화(太和) 2년으로 보아 648년으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의 연대와 대조하여 649년으로 파악하였다. 정구복 등 5인 역주,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672쪽, 주석 1번.

41) 金瑛洙, 앞의 논문, 2007, 58쪽, 주석 76번.

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김유신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의 내간계(內間計)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B-②의 기록이 있다. 부산현령(夫山縣令)이었던 급찬(級漣) 조미갑(租未甲)이 백제에 잡혀들어가 가노(家奴)가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신라와 백제를 오가면서 임자(任子)를 통해 백제의 사정을 김유신에게 전달하였다. 임자를 포섭하였다는 것은 신라측에서 백제 고위층을 통해 백제 내부의 정부를 수집하였다는 뜻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김유신이었으며, 김유신은 백제 내부의 정황을 파악하여 군사를 움직이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유신의 임자 포섭은 내간계의 원리를 고스란히 적용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이 반간계(反間計)를 사용한 사례는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하였던 기만전략의 사례 즉 김춘추 구출과 관련하여서도 김유신은 간첩을 활용하였다. B-③에 따르면 김유신이 선덕여왕에게 요청하여 군사 충돌 기일을 정하였고, 이를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알아채서, 사람을 시켜 보장왕에게 아뢰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김유신이 의도적으로 덕창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은 당시 김춘추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국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국경 지역에는 상대국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간첩이 배치된 사례가 많았다. 김유신은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처럼 허장성세를 보인 것이다. 김유신의 의도대로 이 소식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김춘추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간첩의 존재를 상정하고 일부러 출병(出兵)을 크게 홍보하면서, 고구려의 내부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B-④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649년 8월 도살성 전투에서도 반간계가 활용되었다. 도살성 전투는 백제군이 간첩을 보낼 것을 미리 알아채고, 이를 역이용하여 승리한 사례에 해당한다. 물새[水鳥]의 움직임을 통해 간첩이 올 것을 알아챘다고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나 백제나 서로에게 간첩을 보내 내부 정탐을 하고 있던 상황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에게 군사적 변화가 있으면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고, 수성전(守城戰)을 하고 있던 김유신은 역정보를 이용하여 백제군의 군심(軍心)을 동요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김유신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하였고, 신라군에 압도될 것을 두려워하는 백제군을 향해 성문을 열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하였다. 백제군의 입장에서도 장기간의 원정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공격이 오니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이는 결국 백제군이 대패를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⁴²⁾

이 외에도 「김유신전」에서 661년 봄과 6월 기록 사이에 중추절(仲秋節) 즉 추석(秋夕) 때의 기록이 삽입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김유신이 추석 저녁에 자제들과 대문 밖에 있는데, 서쪽에서 사람이 접근

42) 이 당시 고구려의 선도해를 신라가 진작에 고구려에 심어 놓은 내간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춘추가 고구려행에 앞서 사전에 첩자 파견이나 고구려 내부 주요 인사와 사전 접촉을 하는 식의 첩보 활동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金瑛洙, 앞의 논문, 2007, 54쪽. 본 연구에서는 선도해의 경우 김유신에게 협조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간첩 사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간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43) 기존 연구에서도 당시 김유신이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타개책으로 첩자를 활용한 것은 그가 군사에 있어서 첩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金瑛洙, 앞의 논문, 2007, 56쪽.

하는 것을 보고 고구려 간첩임을 눈치챘다고 하였다. 김유신이 그 간첩을 마주하였는데, 간첩임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책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위로하고 돌려보냈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가 소국(小國)이긴 하나 김유신이 재상으로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기록은 삼국시대에 활발한 첩보전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앞서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라 왕경(王京)에까지 고구려 간첩이 잠입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유신은 이러한 간첩의 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태연하게 행동하였다. 간첩을 붙잡기보다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도리어 고구려인들이 신라를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다양한 간첩이 활약하고 있었다. 김유신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에서 간첩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라 역시도 간첩을 다수 파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첩을 통한 정보전이 활발하였던 시기였기에, 김유신은 간첩을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고, 특히나 역정보를 활용한 반간계를 통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국의 사람을 간첩으로 활용하는 향간과 내간을 이용하여 정세를 파악하고 전쟁에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44)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庾信嘗以中秋夜 領子弟立大門外 忽有人從西來 庾信知高句麗諜者 呼使之前曰 而國有底事乎 其人俯而不敢對 庾信曰 無畏也 但以實告 又不言 庾信告之曰 吾國王 上不違天意 下不失人心 百姓欣然 皆樂其業 今爾見之 往告而國人 遂慰送之 麗人聞之曰 新羅雖小國 庾信爲相 不可輕也.”

Ⅲ. 김유신의 전투 전개와 전술 운용

전략과 전술은 그 부분이 쉽지 않다. 전략은 전술로 구성되고, 전술은 전략을 기초로 선택되거나 수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⁴⁵⁾ 현대 군사학에서 전술이란 군단급 이하의 전술제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과학과 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전략과 전술은 큰 틀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보니 그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전략은 전쟁의 수행에서 채택되었던 정책이며, 전술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전투의 승리를 위해 수행하였던 방법들을 전술로 규정하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김유신은 삼국통일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전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운용하였다. 김유신은 젊은 시절에 참전하였던 낭비성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이때마다 승리하며 공을 세웠다. 이번 절에서는 김유신의 전투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서 운용하였던 전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신의 전술로는 돌격전술·기습전술·위장전술·포위전술·역습전술을 거론할 수 있다.

1. 돌격전술

김유신의 돌격전술(突擊戰術)로는 크게 3가지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629년의 낭비성전투, 647년의 무산성 구원 전투, 660년 황산벌

45) B.A.프리드먼 著, 진중근·신의철·장찬규·모영진 共譯, 『전술의 정석』, 길찾기, 2023, 22쪽.

46) 성형권, 『전술의 기초』, 마인드북스, 2023, 50쪽.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기록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상세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전투 중에 돌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①. 건복 46년 기축(己丑, 629) 가을 8월에 (진평)왕이 이찬(伊漣) 임말리(任末里), 파진찬(波珍漣) 용춘(龍春)·백룡(白龍), 소판(蘇判) 대인(大因)·서현(舒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습격해와 우리 편이 패하여 죽은 자가 많았고, 군사들[衆]의 사기가 꺾여 다시 싸울 마음이 없었다. 유신이 이때 중당당주(中幢幢主)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패하였습니니다. 제가 평생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투에 임하여 용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듣건대,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갓옷이 바로 펴지고, 버리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하였으니, 제가 버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타고 검을 빼어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승세를 타 분발하여 공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1,000명을 사로잡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⁴⁷⁾

C-②. 겨울 10월에 백제군이 와서 무산성(茂山城), 감물성(甘勿城), 동잠성(桐岑城) 등 3성을 포위하자, (진덕)왕은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47)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己丑秋八月 王遣伊漣任末里 波珍漣龍春·白龍 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麗人出兵逆擊之 吾人失利 死者衆多 衆心折衄 無復鬪心 庾信 時爲中幢幢主 進於父前 脫胄而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盖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洒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 斬將軍 提其首而來 我軍見之 乘勝奮擊 斬殺五千餘級 生擒一千人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10,000을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백제군과) 힘써 싸워 (신라군의) 기운이 다 떨어졌다. 유신이 비령자(丕寧子)에게 말하기를, “오늘 일이 다급해졌다. 네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마음[衆心]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비령자가 절하며 말하기를,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마침내 적을 향해 나아가니, 아들 거진(擧眞)과 그 집의 노비[家奴]인 함절(含節)이 (그를) 따라 (적의) 검과 창에 부딪치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받아 고무되어 앞다퉈 나아가 적병(賊兵)을 크게 물리치고 3천여 명을 목 베었다.⁴⁸⁾

C-③. 장군 흠순(欽純)이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라고 하였다. 반굴이 말하기를, “삼가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곧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좌장군(左將軍) 품일(品日)이 아들 관장(官狀) 【또는 관창(官昌)이라고도 하였다.】을 불러서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열여섯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삼군(三軍)의 모범이 되리라!”라고 하였다. 관장이 “예!”라고 하고는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들고서 곧바로 적진으로 달려갔으나 적에게 사로잡혀서 산 채로 계백에게 끌려갔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서 차마 해치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장정[壯士]들이랴!”라 하고 살려서 보내도록 하였다. 관장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

48)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冬十月 百濟兵來圍茂山·甘勿·桐岑等三城 王遣庾信 率步騎一萬拒之 苦戰氣竭 庾信謂丕寧子曰 今日之事急矣 非子 誰能激衆心乎 丕寧子拜曰 敢不惟命之從 遂赴敵 子擧眞及家奴合節隨之 突劒戟 力戰死之 軍士望之 感勵爭進 大敗賊兵 斬首三千餘級.”

장수를 베지도 못하고 깃발을 뽑아오지도 못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쥐어 마
시고 다시 적진으로 가서 날새게 싸웠는데, 계백이 사로잡아 머리를
베고 말안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품일이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피
에 옷소매를 적시며 말하기를,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
나!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삼군(三軍)
이 (이를) 보고 슬퍼하고 한탄하여 죽을 마음을 먹고 복을 치고 고함
을 지르며 진격하자 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계백은 죽고, 좌평
(佐平) 충상(忠常)과 상영(常永)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다.⁴⁹⁾

C-①은 629년 8월에 일어난 낭비성전투로, 이는 김유신이 처음으
로 참전한 전투에 해당한다.⁵⁰⁾ 김유신은 아버지 김서현과 함께 전투
에 출전하였으며, 고구려군을 상대로 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김유신은 스스로 적진으로 돌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당

4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將軍欽純謂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盤屈曰 謹聞命矣 乃入陣 力戰死 左將軍品日 喚
子官狀【一云官昌】 立於馬前 指諸將曰 吾兒年纔十六 志氣頗勇 今日之役 能爲三軍
標的乎 △△官狀曰 唯 以甲馬單槍 徑赴敵陣 爲賊所擒 生致塔伯 塔伯俾脫胄 愛其
少且勇 不忍加害 乃嘆曰 新羅不可敵也 少年尙如此 況壯士乎 乃許生還 官狀告父
曰 吾入敵中 不能斬將擐旗者 非畏死也 言訖 以手掬井水飲之 更向敵陣疾鬪 塔伯
擒斬首 繫馬鞍以送之 品日執其首 流血濕袂 曰 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 幸矣 三
軍見之 慷慨有死志 鼓噪進擊 百濟衆大敗 塔伯死之 虜佐平忠常·常永等二十餘人.”

50) 낭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논쟁이 되고 있다. 낭비성의 위치를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
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181쪽. 이와 달리 『삼국사기』와 『삼국사
절요(三國史節要)』·『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낭비성은 청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낭비성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 산41에 소재한 743m의 산성으로 비정한 것이다. 이도
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132~135쪽.

시 김유신이 어느 정도 병력과 함께 돌격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김유신이 적진으로 돌격하고 복귀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를 계기로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가 승리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의 병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즉 김유신은 홀로 적진으로 돌격하였기보다 소규모의 부대로 돌격에 성공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⁵¹⁾

돌격전술은 상대방의 진영으로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적진을 붕괴하는 전술에 해당한다. 보병을 위주로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기병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병을 위주로 돌격이 이루어졌다. 7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돌격에 대한 대응 즉 대기병전(對騎兵戰)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기병전은 장창(長槍)이나 상노(床弩)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적군의 돌격을 저지하여 아군의 방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병전이 발달한 이후에는 돌격은 위험성을 크게 갖는 전술이었지만, 성공하게 될 경우 적진(敵陣)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큰 전술이었다. 김유신도 이를 노려 적진으로 돌격하고,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어 귀환한 것이었다. 본인의 경험 때문인지, 돌격의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김유신은 돌격전술을 크게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C-②에 따르면 비령자와 거진, 합절은 모두 돌격으로 나아갔고,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군사들이 감명을 받게 하였다. 사실 기록만 봐서는 돌격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싸웠기 때문에 돌격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

51) 당시 김유신의 행적에 대해 김유신 열전의 저본 자료인 『행록(行錄)』의 편찬 의도를 고려하였을 때, 김유신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행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183쪽.

다. 또한 단순히 비령자만 진격한 것이 아닌 아들과 가노(家奴)까지 함께 나섰다는 점으로 볼 때, 비령자 가문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투에 나선 한 가문이 모두 적진으로 돌격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 여러 군사들이 감명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C-③은 660년 7월 9일 황산벌전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A-2에 이어지는 기록이다. 반굴과 관창은 기록 상으로는 단기(單騎)로 돌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도 그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소규모 병력을 이루어서 돌격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크다. 물론 승리를 위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목적이 강했겠지만, 백제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⁵³⁾ 또한 관창에 대한 기록을 보았을 때, 이들이 중무장(重武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백이 관창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투구를 벗겼다는 점에서도 무장은 단단히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갑마단창(甲馬單槍)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사

52) 비령자와 거진, 합절이 기록된 『삼국사기』 열전7의 내용은 국가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상위에 두는 강렬한 국가의식과 불굴의 전투의지, 자기희생 정신과 순국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신라인들에게 전해졌고, 신라인들의 의식 세계에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중훈,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 『三國史記』 列傳 7에 실린 新羅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논문집』 25, 2004, 149쪽.

53) 기존 연구에서는 ‘갑마단창(甲馬單槍)’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기돌격전술(單騎突擊戰術)로 파악하였다. 송영대, 앞의 논문, 2015(a), 58쪽. 기록 상으로는 그러하지만, 전투의 양상에 영향을 주려면 홀로 돌격하기보다도 소규모의 병력으로 돌격을 하여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화랑과 낭도가 함께 돌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 역시도 말갑옷을 갖춘 중장기병(重裝騎兵)임을 의미한다. 즉 반 굴이나 관창은 낭도(郎徒)들과 함께 백제군을 향해 돌격전술을 펼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유신은 돌격전술을 통해 성공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에게도 전세(戰勢)의 역전을 위해 돌격전술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돌격전술은 적의 진영을 흐트러트리고, 군심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전술이다. 하지만 이 당시는 대기병전이 발달하였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돌격전술 중에 목숨을 바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의 돌격전술은 죽음을 각오한 돌격으로 아군의 사기 고양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강조하다보니, 기록에서는 몇몇 인물 혹은 소수의 사람이 돌격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습전술

김유신의 기습전술(奇襲戰術)로는 648년 옥문곡전투와 664년 사비성전투의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사비성전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당시 전투의 정황으로 볼 때 기습전술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할 수 있다.

D-①. 마침내 (유신)이 주(州)의 군사[州兵]를 가려 뽑아 훈련시켜 적에게 나아가 대량성(大梁城, 대야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이에] 맞서 대항하였다. 일부러 패해 도주하며 이기지 못한 척하고 옥문곡(玉門谷)에 이르렀다. 백제가 가볍게 여겨 대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복병(伏兵)을 일으켜 그 앞과 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쳐 백제 장군 8인을 사로잡고, 1,000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군주(軍主) 품석(品釋)과 그의 아내 김씨(金氏)의 유해(遺骸)가 너희 나라 감옥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비장(裨將) 8명이 나에게 잡혀 엉금엉금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두 사람의 유해를 보내 살아 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였다. 백제 중상(仲常)[또는 충상(忠常)이라고도 쓴다.] 좌평(佐平)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라인의 유해를 남겨 두어도 이로울 게 전혀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신라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장군) 8명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음이 저들에게 있고[曲在彼], 사리에 맞음이 우리에게 있으니[直在我],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 관에 넣어 보냈다. 유신이 말하기를 “앞사귀 하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무성한 수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티끌 하나가 쌓인다고 하여도 큰 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는 8명이 살아 (백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⁵⁴⁾

D-②. 인덕(麟德) 원년인 갑자년(664)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 사비성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다. 웅주(熊州) 도독(都督)이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을 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여러 날 동안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를 가려 사람과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이런 까닭에 싸울 수 없었다. (웅진도독부에서) 백산(伯山)을 보내 이 일을 알려오니, 유신이 백산에게 은밀한 계책을 주어서 반란군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⁵⁵⁾

54)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遂簡練州兵赴敵 至大梁城外 百濟逆拒之 佯北不勝 至玉門谷 百濟輕之 大率衆來 伏發擊其前後 大敗之 獲百濟將軍八人 斬獲一千級 於是 使告百濟將軍曰 我軍主品釋及其妻金氏之骨 埋於爾國獄中 今爾裨將八人 見捉於我 匍匐請命 我以狐豹首丘山之意 未忍殺之 今爾送死二人之骨 易生八人 可乎 百濟仲常【一作忠常】佐平言於王曰 羅人骸骨 留之無益 可以送之 若羅人失信 不還我八人 則曲在彼 直在我 何患之有 乃掘品釋夫妻之骨 櫛而送之 庾信曰 一葉落 茂林無所損 一塵集 大山無所增 許八人生還.”

55)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麟德元年甲子三月 百濟餘衆 又聚泗泚城反

D-①은 648년에 일어난 옥문곡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김유신전」은 물론 「백제본기(百濟本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648년 4월에 백제군이 옥문곡(玉門谷)으로 진군(進軍)하여 김유신과 2번 싸워 대패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⁵⁶⁾ D-①에 따르면 신라군은 거짓 패배하여 옥문곡으로 후퇴하였고, 백제가 이를 추격하자 복병(伏兵)을 동원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성과로 신라군은 대야성의 군주(軍主)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의 유골과 8명의 백제 장군을 교환했다고 기재하였다.

D-①과 「백제본기」는 서로의 진군 주체가 엇갈리게 기술되었다. 「백제본기」에서는 백제군이 진군하였다고 밝혔음에 비해, D-①에서는 신라군이 대야성 즉 대야성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라본기」의 기록을 보아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648년 3월에 백제의 의직(義直)이 신라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腰車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고, 이에 맞서 압독주(押督州) 도독(都督) 김유신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⁷⁾ 여기에서 김유신이 대응할 때 사용한 것이 앞서 언급한 삼도운용전략이었다. 당시 삼도운용전략을 통해 백제군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옥문곡으로 백제군을 유인하여 기습전술을 펼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백제본기」에서는 삼도운용전략으로 패배한 1회의 전투와 옥문곡에서의 패배 1회를 합쳐 2회의

叛 熊州都督發所管兵士攻之 累日霧塞 不辨人物 是故不能戰 使伯山來告之 庾信授之陰謀 以克之”

56)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8년, “夏四月 進軍於玉門谷 新羅將軍庾信逆之 再戰大敗之”

5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 “三月 百濟將軍義直侵西邊 陷腰車等一十餘城 王患之 命押督州都督庾信以謀之 庾信於是 訓勵士卒 將以發行 義直拒之 庾信分軍爲三道 夾擊之 百濟兵敗走 庾信追北 殺之幾盡 王悅 賞賜士卒有差.”

대패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백제군은 요거성 등 10여 성을 공략하여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다. 이때 김유신은 백제의 군대가 승리에 취해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백제군을 유리한 지형으로 끌여들여 격파하자는 전술을 취하게 되었다. 그 장소로 설정한 곳이 옥문곡이었다.⁵⁸⁾ 옥문곡에 미리 복병을 배치하고, 거짓 패배하여 의도적으로 옥문곡으로 퇴각하였다.⁵⁹⁾ 백제군은 신라군을 전멸시킬 기회라고 생각하여 추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유신에게 현혹되어 유인된 셈이었다.⁶⁰⁾ 당시 백제는 신라군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원정군을 모두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군은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백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당시 원정군을 이끌고 있던 주요 장군들을 거의 모두 사로잡았다는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유리한 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D-

58) 옥문곡을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경주시 서쪽 건천읍에 있는 부산(富山) 아래에 있었다던 여근곡(女根谷)과 유사한 곳으로 볼 수도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善德王 知幾三事, “二於靈廟寺玉門池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怪之問於王 王急命角干闕川·彌吞等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問女根谷必有賊兵掩取殺之 二角干既受命各率千人問西郊 富山下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來藏於彼並取殺之 百濟將軍毛召者藏於南山嶺石上又圍而射之殪 又有後兵一千二百人來亦擊而殺之一無孑遺.”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야성과의 거리 등을 들어 서로 다른 곳으로 보고 있다. 金榮官,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20, 2010, 140쪽, 주석 114번.

59) 옥문곡의 위치로 경북 함천군 가야면 구원리 지역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李文基, 앞의 논문, 2016, 221쪽, 61번. 성주 동쪽 인근 여근내(汝斤乃)의 경우 지명의 음운이 같은 것이 주목되었지만, 지리적 조건이 맞지 않고 대야성으로부터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가야면 구원리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장창은, 「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18쪽.

60) 李文基, 위의 논문, 2016, 222쪽.

①은 이러한 김유신의 전공(戰功)을 높이 사서 옥문곡전투를 기록하여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서 김품석과 고타소랑의 시신을 인계받았다는 것은 김춘추의 복수를 해주었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더욱 강조하여 기록한 것이다.

김유신의 기습전술은 D-②에 기록된 664년 3월 사비성전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라본기」에서도 사비산성(泗沘山城)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는 간략한 기록이 확인된다.⁶¹⁾ 사비성전투는 당의 웅진도독부에서 진압해야 하였던 싸움이었지만, 쉽사리 진압하지 못하여 신라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⁶²⁾ 기록만 봐서는 당시 김유신의 전술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었다는 점이 주요 힌트가 된다. 실제로 부여 일대는 상대습도(相對濕度)가 전 관측지점이 연평균 75%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⁶³⁾

부여는 백마강을 끼고 있다보니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신라군은 백제군과 사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하면서 지형 정보를 파악하였고, 사비성도 계속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는 더이상 낯선 지역이 아니었다. 김유신은 백제군이 안개로 인하여 신라군이 쉬이 접근하지 못하기에 방심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진입이 쉬운 쪽으로 기습 공격하라고 모책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하여 웅주도독의 군대가 백제군을 공격하였고, 결국 김유신의 계책 덕분에 승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4년, “三月 百濟殘衆據泗沘山城叛 熊州都督發兵 攻破之.”

62)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664년 사비산성 전투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25, 2018, 95쪽.

63) 扶餘郡誌編纂委員會, 『扶餘郡誌』, 1987, 34쪽.

기습전술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공격하는 것이 주안점에 해당한다. 648년 옥문곡전투는 백제군이 신라군의 계책에 빠져 거짓승리에 자만하여 추격하다가 되려 신라군의 기습으로 대패를 하게 된 사례이다. 664년 사비성전투는 김유신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안개를 역이용하여 기습하는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김유신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전술로 승리를 거두어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3. 위장전술

위장전술(偽裝戰術)은 아군의 형세를 숨겨서 적이 속게 만들고, 이를 역이용하여 공격하여 승리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김유신은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에서 위장전술로 승리를 하였으며, 660년에는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①. 비담 등은 명활성(明活城)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월성(月城)에다 진영(陣營)을 구축하여 10일 동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였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였다. 자정 무렵[丙夜]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이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는 아마 여주(女主)가 패할 징조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대왕이 듣고 매우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 … 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길거리에서,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을 전하게 하여, 적군(賊軍)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흰 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 이에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해 용기를 내어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해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九族)을 죽였다.⁶⁴⁾ E-②.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자,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리 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다미공(多美公)이 나아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백제 사람인 것처럼 속이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히고 마치 적의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유신이 말하길, “이 말은 취할 만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 당나라 사람들이 염탐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백제 왕과 신료 93명, 졸(卒) 20,000명을 붙잡아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다.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⁶⁵⁾

E-①에서 확인되는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김유신전」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본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짧게 기술된 것에 비해,⁶⁶⁾ 「김유신전」 즉 E-①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고대인들에게 길흉(吉凶)은 매우 중요한

64)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十六年丁未 是善德王末年 眞德王元年也 大臣毗曇·廉宗 謂女主不能善理舉兵欲廢之 王自內禦之 毗曇等屯於明活城 王師營於月城 攻守十日 不解 丙夜 大星落於月城 毗曇等謂士卒曰 吾聞落星之下 必有流血 此殆女主敗績之兆也 士卒呼吼 聲振天地 大王聞之 恐懼失次 … 乃造偶人 抱大載於風鳶而颺之 若上天然 翌日 使人傳言於路曰 昨夜落星還上 使賊軍疑焉 又刑白馬 祭於落星之地 … 於是 督諸將卒 奮擊之 毗曇等敗走 追斬之 夷九族.”

65)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唐人既滅百濟 營於泗沘之丘 陰謀侵新羅 我王知之 召羣臣問策 多美公進曰 令我民詐爲百濟之人 服其服 若欲爲賊者 唐人必擊之 因與之戰 可以得志矣 庾信曰 斯言可取 請從之 … 唐人謀知我有備 虜百濟王及臣寮九十三人·卒二萬人 以九月三日 自泗沘泛船而歸 留郎將劉仁願等 鎮守之.”

6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6년, “十六年 春正月 毗曇·廉宗等謂 女主不能善理 因謀叛舉兵 不克.”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중국 정사의 오행지(五行志)도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길흉을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지 해석한 것이다.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일컬어졌으며, 특히나 월성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담과 염종은 여왕 통치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며,⁶⁷⁾ 별이 떨어졌다는 징조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에 이를 크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비담과 염종의 발언은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군대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컸다. 그렇지만 김유신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즉 별이 떨어진 상황을 위장하여, 도리어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수를 쓴 것이었다. 불타는 허수아비를 매단 연을 올려 보내면서, 서라벌의 사람들이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대로 통하게 되었다. 비담과 염종의 주장과 배치되는 일이 지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도리어 길흉이 전환(轉換)되었다고 인지하게 되어 김유신의 군대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었다. 김유신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의 사기를 내리고, 아군의 사기를 끌어 올려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제사 또한 하늘과 자신이 통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군의 사기를 끌어 올리려는 목적 때문에 수행한 것이었다.

김유신은 이처럼 자연 현상과 적군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하는 작전을 자주 펼쳤다. 앞선 사례 이외에 E-

67) 김명준, 「선덕여왕(善德女王) 대 「풍요(風謠)」의 불교정치적 의미」, 『우리文學研究』 39, 2013, 15~16쪽.

②에서 확인되는 660년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획을 펼친 것도 유사한 위장전술의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 당군은 고구려 정복을 위하여 백제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에 나당전쟁까지 치른 것을 보아서는 고구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풍사훈묘지명(馮師訓墓誌銘)』에서는 659년에 소정방이 계림도대총관(雞林道大總管)으로 제수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를 통해 당이 신라를 정복할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⁶⁸⁾ 위의 기록은 김유신이 당의 정복 야욕을 일찍부터 눈치를 챘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미공의 계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백제의 영역에서는 조국회복전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⁶⁹⁾ 본격적으로 백제의 조국회복전쟁이 전개되기 이전에, 신라로서는 당의 시선을 분산시켜 신라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인의 옷을 입고 당에게 저항하는 연출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의 구체적인 행동은 기록이 영세하다보니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중심으로 백제인으로 행세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 다양한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망국의 한을 가진 백제인의 저항이 당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조국회복전쟁의 기반을 조성하였던

68) 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83~384쪽.

69) 일반적으로 조국회복전쟁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백제부흥운동이라 일컫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부흥(復興)’은 ‘중흥(重興)’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진흥(振興)이나 중흥(中興)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칭한다면 조국회복(祖國回復)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국회복전쟁(祖國回復戰爭)이라 명명하였다. 이도학, 2010, 326~330쪽.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당은 신라와의 협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했으며, 백제 멸망 직후 신라마저 정복하려는 야욕을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었다.

4. 포위전술

전쟁에서 포위(包圍)는 한 쪽의 군대가 다른 쪽의 군대의 사방을 에워싸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위하는 측은 수세(守勢)인 쪽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야 포위전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포위전술은 야전(野戰)에서 수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다수는 수성(守城)하는 방어측을 상대하는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김유신은 여러 공성전(攻城戰)을 수행하였지만, 포위전술을 펼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661년 웅산성전투에서 포위를 펼친 사례가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문무왕의 군대가 남천주(南川州)에 이르렀을 때, 당군의 유인원(劉仁願)은 사비에서 배를 태워 해포(鞋浦)에 이르러 하륙하여 남천주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이때 백제의 군대가 웅산성(瓮山城)에 주둔하여 진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김유신이 군대를 진격하여 성을 포위하여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백제군은 싸울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며 저항하였다. 결국 김유신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쳐서 공격하였으며, 문무왕은 이를 바라보며 군대를 격려하여 승리하게 되었다.⁷⁰⁾ 「신라본기」에서는 9월 25일에 웅산성을 포

70)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於是 文武大王率庾信·仁問·文訓等 發大兵 向高句麗 行次南川州 鎮守劉仁願 以所領兵 自泗沘泛船 至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 時有司報 前路有百濟殘賊 屯聚瓮山城遮路 不可直前 於是 庾信以兵進而圍城 使人 近城下 與賊將語曰 而國不興 致大國之討 順命者賞 不順命者戮 今汝等獨守孤城 欲何爲乎 終必塗地 不如出降 非獨存命 富貴可期也 賊高聲唱曰 雖蕞爾小城 兵食 俱足 士卒義勇 寧爲死戰 誓不生降 庾信笑曰 窮鳥困獸 猶知自救 此之謂也 乃揮旗 鳴鼓 攻之 大王登高見戰士 淚語激勵之 士皆奮突 鋒刃不顧 九月二十七日城陷 捉

위하고, 27일에 대책(大柵)을 불태워 수천명을 죽여 항복시켰다고 기록하였다.⁷¹⁾

조국회복전쟁을 수행하던 백제군은 신라의 진로를 가로막았다.⁷²⁾ 이때 김유신은 먼저 투항을 권유하였다. 투항의 권유는 안전하고 손쉽게 지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군세(軍勢)와 인심(人心)을 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투항의 권유를 들은 상대방은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지만, 투항 권유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상대방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여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김유신은 이를 노려서 먼저 투항을 권유하였던 것이다.

이후 김유신은 웅산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였다. 포위하여 공격하기만 하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측은 상대의 공격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 공자(功者)는 방자(防者)의 입장에서 방어가 우세한 지점과 미비한 지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공격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단기간에 전투를 끝낼 것인지 고찰해야 한다. 수성전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공격측의 경우도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 즉 큰 목적의 방비가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화재를 일으켜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목적은 상대의 공격을 막고 아군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불

賊將戮之 放其民 論功賞賚將士 劉仁願亦分絹有差 於是 饗士秣馬 欲往會唐兵.”

7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원년,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論功 賜角干伊瀆爲揚管者劍 通瀆·波珍瀆·大阿瀆爲揚管者戟 已下各一品位.”

72) 당시 신라가 진격 방향을 바꾸어서 웅산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 백제와 당의 협상 분위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병남,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2013, 63쪽.

길이 방어측 전체를 에워싸는 역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김유신은 이를 노렸던 것이고, 결국 백제군의 방어가 무너지자 포위하던 군대를 성내로 진격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포위전술은 시간과 인력의 소요가 심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병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역습전술

역습(逆襲)은 상대의 공격에 맞서 거꾸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추격하면서 공격하는 적에게 맞서서 반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역습은 사전에 전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퇴각 시에도 질서정연하고 전투에 임할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역습은 상대의 공격 시점과 장소 등을 사전에 모두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도 계획해야 가능한 전술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익숙한 지형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상대방의 진영에 허술한 틈이 생기거나, 상대의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역습전술은 662년 김유신의 군량수송작전 이후 신라군의 퇴각 때 역습을 통해 고구려의 군대를 공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김유신은 소정방이 평양을 공격하였을 때 군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보니, 문무왕의 명령을 받아 군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김인문(金仁問)·진복(眞服)·김양도(金良圖) 등 9명의 장군과 평양까지 진군하였다고 하였다. 군량을 받은 소정방은 식량이 떨어지고 군사가 피곤하여 당으로 귀국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군사를 매복하여 신라군이 돌아가는 길에 공격하고자 하였

다. 김유신은 북과 북채를 모든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아 땔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하고, 땔나무를 쌓아 태워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하고 밤중에 표하(瓢河) 주변에서 군사를 쉬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이를 알고 추격하자, 김유신은 만노(萬弩)를 발사하고 여러 당(幢)의 장병을 독려하고 나누어 출발하여 역습하였다. 결국 장군 1명을 사로잡고 1만 여 명의 목을 베는 등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⁷³⁾ 『신라본기』에서는 662년 1월에 수레 2천여 대에 쌀 4,000석과 조 22,000석을 평양으로 운반하게 시켰다. 소정방이 퇴각한 이후에 김유신은 군대를 이끌고 과천(瓢川)을 건넜는데, 고구려 군대가 추적하자 군대를 되돌려 맞서 싸워 1만 여 급의 목을 베고, 소형(小兄) 아달해(阿達兮) 등을 사로잡았으며 병계(兵械)가 만을 헤아릴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⁷⁴⁾

662년의 군량수송작전에서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한 이후, 당군이 퇴각하고 신라군도 철수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신라군의 철수를 예상하고 부대를 배치하였다가, 신라의 기만으로 인하여 뒤늦게 추격하였다.⁷⁵⁾ 기록에서는 표하(과천)에서 고구려군에 대항하여 신라군이 역습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퇴각하는 길에 김

73)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問·眞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糧 入高句麗之界 …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 時麗人伏兵 欲要擊我軍於歸路 庾信以鼓及桴繫羣牛腰尾 使揮擊有聲 又積柴草燃之 使煙火不絕 夜半潛行至瓢河 急渡岸休兵 麗人知之來追 庾信使萬弩俱發 麗軍且退 率勵諸幢將士分發 拒擊敗之 生禽將軍一人 斬首一萬餘級 王聞之 遣使勞之 及至 賞賜封邑·爵位有差.”

7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川 高句麗兵追之 迴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兄阿達兮等 得兵械萬數.”

75) 김유신의 소를 이용한 기만 및 신라군의 퇴각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 연구에서는 야음을 틈타 황주와 송림 사이 즉 남쪽의 다곡로를 이용하여 고구려군의 허를 찌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16~118쪽.

유신은 북과 북채를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았다고 하였는데, 군량을 수송하는데 동원하였던 소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뿔나무를 쌓아 불태우면서 이동하는 것은 상대에서 고의적으로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상대방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의병지계(疑兵之計)로 볼 수 있다.⁷⁶⁾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추격에 만노를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만노에 대해서는 수많은 화살이 함께 발사되는 병기로 이해하기도 하며, 1만 명이 한꺼번에 노를 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천보노(千步弩)와 같이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명의 상대에게 수많은 화살을 발사하는 무기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즉 고구려군의 추격로를 상정하고, 이에 맞춰 미리 만노를 준비하여 대기하고, 일정한 구간에 고구려군이 진입하였을 때 일제히 발사하는 식으로 역습을 가한 것이다. 김유신이 펼친 포위섬멸전의 결과 고구려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달해 1명을 제외한 소형 관등 이상의 지휘부가 대부분 몰살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⁷⁷⁾

역습은 상대방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전술이다. 김유신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 시점을 유도하였다.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강가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본다면, 고구려군이 도하(渡河)한 이후에 전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도하할 경우 군사의 대열이 정돈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병력의 분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라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공격

76) 송영대, 앞의 논문, 2015(a), 60쪽.

77) 이민수, 앞의 논문, 2022, 114쪽.

한 것이고, 여기에서 성공하여 고구려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Ⅳ. 맺음말

김유신은 30년 넘게 전쟁을 경험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그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 신라군을 승리하게 하였다. 결국 그러한 그의 노력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유신이 입안하고 수행한 전략과 전술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전략으로는 기만전략·삼도운용전략·간첩 활용 전략으로 구분하고, 전술로는 돌격전술·기습전술·위장전술·포위전술·역습전술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략과 전술은 상대방을 속여서 아군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전쟁 혹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방책이다. 기만전략은 상대를 속인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탕이 된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42년 김춘추 구출작전이 있다. 김춘추는 대야성 전투 이후 백제에 복수하기 위하여 고구려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지만, 되려 죽령 서북의 땅을 내놓으라는 고구려의 요청을 받고 억류되었다. 이때 김춘추가 선도해의 제안에 따라 별주부전의 사례를 거론하고, 김유신이 국경에서 병력을 움직여서 김춘추가 구출될 수 있었다.

삼도운용전략은 군대를 3군으로 분산시켜 적을 공격하는 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648년 3월에 백제가 요거성을 비롯하여 10여 성을 함락하자, 김유신이 이에 대항

하는 과정에서 3도로 나누어 의직의 군대를 격파한 사례가 있다. 또한 660년 황산벌전투에서도 백제군에 맞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4번 싸우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진군 방향을 달리하면서도 적시에 공격하는 전략이다보니, 이 외에도 여러 군으로 나누어 싸운 사례가 확인된다.

간첩활용전략은 크게 향간·내간·반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간계와 관련하여 김유신의 군대가 양오에 이르렀을 때 노인을 통해 정보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내간계와 관련하여 김유신은 백제의 좌평 임자를 통해 백제 내부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반간계와 관련해서는 김춘추 구출작전에서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을 통해 김유신의 군사적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고구려가 포착하게 한 사례가 있다. 또한 649년 8월 도살성 전투에서 김유신은 간첩이 올 때 즈음에 군중(軍中)에 내일 원군이 온다는 정보를 알려 백제가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일시에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사례가 있다.

김유신의 돌격전술은 629년 낭비성전투, 627년 무산성 구원 전투, 660년 황산벌전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낭비성전투에서는 김유신이 직접 적진으로 돌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무산성 구원 전투에서는 비령자·거진·합절이 돌격하였고, 이를 본 신라군이 격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황산벌전투에서도 반굴과 관창의 활약으로 신라군이 분전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기습전술의 사례로는 648년 옥문곡전투와 664년 사비성전투가 있다. 김유신은 백제군에게 거짓 패배하여 이기지 못하는 척 하면서 옥문곡으로 후퇴하였고, 백제군이 추격하자 복병을 동원하여 앞뒤로 공격하여 물리쳤다. 사비성전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안개로 인하여 사람과 물건을 분별하지 못할 때 김유신의 명에 따라 신라군이 은밀하게 기동하여 승리하였다.

위장전술은 아군의 형세를 숨겨 적을 속게 만들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술이다.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의 사례나 660년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책에서 선보인 바 있다. 비담과 염종의 난 때 월성으로 별이 떨어지자, 도리어 허수아비를 불에 태워 연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서 아군의 사기를 드높여 승리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뒤 당이 신라를 공격할 꾀새를 보이자, 백제인의 옷을 입고 당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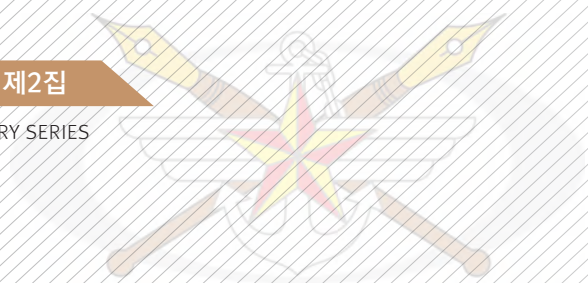
포위전술은 상대를 에워싸서 공격하는 전술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661년 웅산성전투가 있다. 김유신은 백제군에게 항복을 권유하여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대책을 불태워 항복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역습전술은 상대의 공격에 맞서 역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62년 김유신의 군량수송작전 이후 신라군의 퇴각 때 고구려의 군대를 역습한 사례가 있다. 신라군은 표하(과천)를 건너고 고구려 군대가 추격할 때, 만노를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일제히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이처럼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김유신의 군사적 성과는 김유신 개인의 능력도 컸지만, 그동안 신라가 삼국 간의 항쟁에서 축적하였던 수많은 전쟁 경험도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와 싸웠으며, 패배하더라도 이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차후에 이길 수 있을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 전술은 단기간에 육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즉 신라의 역대 전쟁 성과에 대해 치밀한 검토를 하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김유신이 이를 종합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삼국통일 후 신라 6정·10정의 재편과 운용

| 홍성열

삼국통일 후 신라 6정·10정의 재편과 운용

홍 성 열*

- I. 머리말
- II. 신문왕대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10정
- III. 신라 중대 정(停)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고대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운용된 군사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조직을 전하는 자료는 희소하며, 신라의 군사조직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0 잡지(雜志)9 직관(職官) 하(下) 무관(武官)(이하 무관조)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무관조에 나타나는 신라 군사조직은 총 23개이다.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군사조직이 6정(六停)이다. 6정은 진흥왕 5년(544) 대당(大幢)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된 귀당(貴幢), 한산정(漢山停), 우수정(牛首停), 하서정(河西停), 완산정(完山停) 등 총 6개의 부대로 구성되는 군사조직이다. 이들은 삼국통일 이전 중고기 시기 신라의 대표적인 군단으로 대외적 팽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6정은 삼국통일 이후에 그 체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기에 축소 또는 해체되었고, 대신 9서당(九誓幢)과 10정(十停), 특히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中代)의 핵심 지방군사조직이라고 보고 있는 10정이 6정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보고 있다.²⁾ 그런데 정말 6정이 삼국통일 이후 해체되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6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완비된 시기는 6정을 이루는 군사조직 중 하주정(下州停)이 완산정으로 개편된 신문왕 5년(685)이며,³⁾ 10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완비된 시기는 신문왕 5년(685)~신문왕 7년(687)로 보고 있다.⁴⁾ 이

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1982, 340쪽 ; 주보돈,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 1987, 29쪽 ; 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71쪽.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 통일신라, 탐구당, 2003, 139쪽 ; 이영호,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5-신라의 왕권강화와 발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06쪽.

3) 이문기는 군호(軍號) 6정의 성립은 신라 군사조직이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시기이며 가장 마지막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완비된 완산정의 설치시기로 보고 있다(이문기, 「新羅 中古期 『停』制의 成立과 展開」, 『大丘史學』 44, 1993, 13~14쪽 ; 앞의 책 1997, 81~82쪽). 한편 신라 중고기 말 신라가 왕경 일대를 포함한 6개의 광역주로 정비되면서 6정 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견해(강봉룡,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 1990, 73쪽)도 있으나 필자는 이문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따르고자 한다.

4)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66~367쪽 ; 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의 군사조직을 창설하고 개편을 완료하자마자 그 군사조직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군사조직으로 개편했다는 것인데, 많은 시간과 공력이 소모되는 체제 개편을 이렇게 곧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신라 중고기 핵심군사조직이며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 시 큰 역할을 담당했던 6정이 전쟁 이후 신라 군사조직 재편 과정에서 해체되었는지, 아니면 존치되었는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만약 6정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 운용되었다면, 중대에는 6정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또한 같은 정 이름을 사용하는 10정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10정이 6정의 역할을 이어 받은 군사조직인지, 다른 조직이라면 6정과 10정의 지휘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Ⅱ. 신문왕대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10정

문무왕 16년(676), 기벌포(伎伐浦) 전투를 끝으로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였다.⁵⁾ 약 35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⁶⁾ 문무왕과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신문왕은 삼국통일에 따른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217쪽 : 『신라중대 올령정지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114쪽 ; 이경섭,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탐라문화』 59, 2018, 120쪽. 다만 최범호는 10정 설치 마무리가 백제영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문무왕 5년(665)경에 설치를 끝냈다고 보았다(최범호,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10정(停)의 역할」,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6(24-1), 2023b, 162쪽).

5)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3, 227쪽.

6)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51~53쪽.

영역의 확대에 따라 여러 제도를 개편하고 정비하였다.⁷⁾ 이 과정에서 군사조직 역시 개편이 이루어졌다.

A.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들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주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니, 혼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관리와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 변경의 성(城)·진(鎭)을 지키는 일과 주현(州縣)의 세금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율령격식(律令格式)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치도록 하라.⁸⁾

A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무왕 21년(681) 유조(遺詔) 기사의 일 부분이다. 문무왕의 유조기사를 통해, 문무왕은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역과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여러차례 사면을 시행하고 개인 채무 탕감 등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⁹⁾ A에서 군대와 관련된 부분이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다”라는 부분과 “변경의 성·진을 지키는 일을 긴요한 것이 아니면 폐지하라” 하는 부분이다. 이 대목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으니 군대를 줄이고 병장기를 농기구로 다시 제조하여 병사들을 농사에 종사시키라는 부분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제4

7) 이상훈, 「군사조직과 그 운용」,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8-신라의 통치제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a).

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21년(681), “鑄兵戈爲農器 驅黎元於仁壽 薄賦省徭 家給人足 民間安堵 域內無虞 倉廩積於丘山 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 無負於土人 … 其邊城鎭遏 及州縣課稅 於事非要者 並宜量廢 律令格式 有不便者 即便改張 布告遠近 令知此意 主者施行.”

9) 조법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23~26쪽.

탑상(塔像) 무장사미타전(鑒藏寺彌陀展)조의 삼국통일 이후 태종무열왕이 계곡에 병기와 무구를 숨겨서 무장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전쟁 이후 신라가 군대와 관련된 사업을 축소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¹⁰⁾

그런데 문무왕의 유조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당전쟁이 종료된 이후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축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676년의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나당전쟁이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고, 나당전쟁 이후에도 당은 지속적으로 신라를 침공하여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신라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 동안 증설한 군사조직을 다시 축소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무관조에서는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군사조직이 증치되는 모습이 보이며, 오히려 군사조직이 폐지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1>은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 시기 창설된 군사조직과 나당전쟁 종전 이후 창설된 군사조직을 정리한 것이다.¹²⁾

10) 『삼국유사』 권3, 塔像4, 鑒藏寺彌陀展, “諺傳 太宗統三已後藏兵鑒於谷中 因名之.”

11) 임기환, 「신라의 삼국통일-대내의 정세변동과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고대사』 1, 푸른역사, 2016, 172~173쪽; 홍성열, 「신라 중대 한산주 2정의 설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b), 63쪽.

12) 홍성열, 앞의 논문, 2022(b), 63쪽의 표를 수정 개재하였다. 군사조직 설치 기록 중 5주서(五州誓)의 경우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모두 문무왕 12년(672)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末松保和는 5주서의 명칭에 사용된 주의 이름을 볼 때 한산주서·하서주서만 문무왕 12년에 설치되었고, 우수주서는 문무왕 13년(673), 청주서·완산주서는 신문왕 5년(685)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末松保和, 1954, 앞의 논문, 367~370쪽).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서도 이 의견에 따라 설치연도를 구분하였다. 삼변수당의 경우 신문왕 10년(690)에 군단화 된 것이고

〈표 1〉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660~676) 및 나당전쟁 이후 설치된 군사조직

	No.	연대	설치	계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	1	문무왕 11년(671)	중당(仲幢)	14
	2	문무왕 12년(672)	백금서당(白衿誓幢) 우수주계당(牛首州罽幢)	
			한산주서(漢山州誓) 우수주삼천당(牛首州三千幢)	
			하서주서(河西州誓) 나토군삼천당(奈吐郡三千幢)	
			장창당(長槍幢)	
	3	문무왕 13년(673)	귀당(貴幢: 상주정에서 변경) 우수정(牛首停) 우수주서(牛首州誓)	
나당전쟁 이후	4	문무왕 14년(674)	백금무당(白衿武幢)	16
	5	문무왕 15년(675)	구칠당(仇七幢) 나생군삼천당(奈生郡三千幢)	
	1	문무왕 17년(677)	자금서당(紫衿誓幢: 낭당에서 변경)	
	2	신문왕 3년(683)	황금서당(黃衿誓幢) 흑금서당(黑衿誓幢)	
	3	신문왕 5년(685)	완산정(完山停)	
			청주서(靑州誓) 완산주서(完山州誓)	
	4	신문왕 6년(686)	벽금서당(碧衿誓幢) 적금서당(赤衿誓幢)	
			적금무당(赤衿武幢)	
	5	신문왕 7년(687)	청금서당(靑衿誓幢) 황금무당(黃衿武幢)	
	6	신문왕 9년(689)	개지극당(皆知戟幢)	
	7	신문왕 10년(690)	3변수당(三邊守幢: 漢山邊, 牛首邊, 河西邊)	
	8	효소왕 2년(693)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에서 변경)	

문무왕 후반기(668~673)에 이미 그 구성 군사조직은 존재했다는 견해도 있으나(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구성부대의 설치연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삼국사기』 무관조에 기록된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다. 또 자금서당·비금서당은 낭당·장창당에서 부대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이를 단순히 부대의 명칭 변경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군사조직에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대의 지휘체계, 편제 등이 함께 개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대 신설과 동등하게 보도록 하겠다. 귀당은 상주정과 병존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나, 무관조 기록에는 상주정이 귀당으로 개칭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 역시 부대 신설과 마찬가지로 보아 표에 추가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설치된 군사조직이 14개, 전쟁 종료 이후 설치된 군사조직이 16개로 나타난다. 전쟁 종료 이후 창설된 군사조직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서당 구성부대 중 8개 부대가 나당전쟁 이후에 신설되었고, 북변을 지키는 경계부대인 3번수당도 나당전쟁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곧 신라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군사조직을 폐지하기보다는 더욱 증강하였고, 이와 함께 증강한 군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복수의 군사조직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묶어 군단화하거나, 왕경과 지방에 같은 성격의 군사조직을 각각 설치하여 왕경·지방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소모병(召募兵)으로 구성된 군사조직을 확대하였다.¹³⁾ 이는 한편으로 넓어진 영토와 증가한 백성을 통치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였다.¹⁴⁾

이 과정에서 신라 중고기 핵심 군사조직으로 활동했던 6정의 재편 및 정비도 이루어졌다. 6정은 무관조에 나오는 군사조직 중 그 설치연대가 가장 오래된 군사조직으로, 6정을 구성하는 예하 조직인 대당의 경우 진흥왕 5년(544)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6정을 구성하는 다른 군사조직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진흥왕대에 창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치연대가 오래된 만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부터 삼국통일전쟁, 나당전쟁까지 그 활동상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6정에 관한 연구는 신라 중고기 시기 활동 모습에 집

13) 이문기,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한국군사사』 II, 육군본부(군사연구소), 2012, 193~223쪽.

14) 홍주희, 「新羅幢停의 形成과 構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5쪽 ; 이문기, 앞의 논문, 1999 : 앞의 책, 2012, 204쪽 ; 이상훈, 앞의 책, 2016, 313쪽.

중되고 있으며,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시기의 6정에 대한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나 중고기 및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 시기의 6정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략하다.¹⁵⁾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6정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의 입장 차에서 나온 것인데,¹⁶⁾ 연구자 대다수가 6정이 통일 이후에 해체되었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잠깐 존재했다가 다른 군사

15) 6정 관련 연구로는 末松保和,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43-12, 1932 :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朝鮮學報』 11-12, 1957·1958 : 『新羅史基礎研究』, 東出判, 1974 ; 김철준, 『韓國古代國家發達史』, 春秋文庫, 1975 : 『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이기백,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學報』 3, 1977 :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1978 ; 李成市, 「新羅六停의 再檢討」, 『朝鮮學報』 92, 1979 :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2022 ; 강봉룡, 「新羅 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 『한국사론』 16, 1987 : 앞의 논문, 1990 ; 이문기, 「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 29, 1986 : 앞의 책, 1997 ; 주보돈, 앞의 논문, 1987 ; 최원식, 「軍事力の 增強과 軍事的 基盤」,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경상북도·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 이명식, 「新羅 統一期の 軍事組織」,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 이인철, 「新羅 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 54, 1989 :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 노근석,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 전덕재, 「신라 하대 진의 설치와 성격」, 『軍史』 35, 1997 :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 변화와 군주(軍主)」, 『역사와 현실』 40, 2001 : 『신라지방통치제도사』, 학연문화사, 2023 ; 서영교,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대하여」, 『신라문화』 17-18, 2000 : 『新羅 軍事史 新研究』, 은서, 2016 ; 김중수,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한국사연구』 126, 2004 : 『한국 고대·중세 군사제도사』, 국학자료원, 2020 ; 한준수, 앞의 논문, 2005 : 앞의 책, 2012 ; 최상기,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 運用」, 『한국사론』 59, 2013 ; 최경신, 「6세기 신라의 軍主와 광역 州의 관계」, 『중원문화연구』 26, 2018 : 「6세기 신라 軍主의 군단과 그 역할」, 『중원문화연구』 27, 2019 ; 최병호, 「新羅 上州·下州의 이동 과정과 운영」, 『전북사학』 53, 2018 :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군사 지리적 관계」,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 2023(a) : 앞의 논문, 2023(b) ; 신범규, 「신라 중고기 軍事制度의 정비와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등이 있다.

16) 전덕재, 위의 논문, 1997, 47쪽.

조직으로 재편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6정을 삼국통일 이전 신라 중고기 시기의 대표 군사조직으로만 보는 시선이 강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6정은 해체되지 않고, 부대개편과 정비를 통해 삼국통일 이후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B. 6정. 첫째는 대당(大幢)이다. 진흥왕(眞興王) 5년(5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금(衿)의 색깔은 자백(紫白)이다. 둘째는 상주정(上州停)이다. 진흥왕 13년(552)에 설치하였다. 문무왕(文武王) 13년(673)에 이르러 이름을 귀당(貴幢)으로 바꾸었다. 금의 색깔은 청적(靑赤)이다. 셋째는 한산정(漢山停)이다. 본래 신주정(新州停)이었다. 진흥왕 29년(568)에 신주정을 없애고 남천정(南川停)을 설치하였다. 진평왕(眞平王) 26년(604)에 남천정을 없애고 한산정을 설치하였다. 금의 색깔은 황청(黃靑)이다. 넷째는 우수정(牛首停)이다. 본래 비열홀정(比烈忽停)이었다. 문무왕 13년(673)에 비열홀정을 없애고 우수정을 설치하였다. 금의 색깔은 녹색(綠白)이다. 다섯째는 하서정(河西停)이다. 본래 실직정(悉直停)이었다. 태종왕(太宗王) 5년(658)에 실직정을 없애고 하서정을 설치하였다. 금의 색깔은 녹색(綠白)이다. 여섯째는 완산정(完山停)이다. 본래 하주정(下州停)이었다.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하주정을 없애고 완산정을 설치하였다. 금의 색깔은 백자(白紫)다.¹⁸⁾

17) 삼국통일 이후 6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논지를 진행한 연구자는 이명식, 전덕재, 김종수, 최범호 등이 있다. 이명식은 6정이 통일기에 조직이 더욱 보강되어 신라의 핵심적인 군제로 발전하였고 신라 군사조직의 골간(骨幹)을 이루었다고 인식하였다(이명식, 앞의 논문, 1988, 71~72쪽). 전덕재는 6정이 9서당과 함께 통일 이후에도 전시에 동원되는 행군군단(行軍軍團)으로 활용하였다고 파악하였다(전덕재, 앞의 논문, 1997, 48~49쪽). 김종수는 6정이 9서당, 10정 등과 함께 삼국통일 이후 7세기 후반 대대적으로 전개된 군제개편 작업의 결과 성립된 전시 체제 및 행군조직으로 보았다(김종수, 앞의 책, 2020, 152쪽). 최범호는 6정이 영토확장과정에서 동원을 위한 전략적인 체제로 역할을 하다 통일 이후에 지방이 9주 체제로 완비되자 주치에 상주하는 치안부대인 주치정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최범호, 앞의 논문, 2023b, 168~169쪽).

18)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六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B는 『삼국사기』 무관조에 기록된 6정 관련 기사이다. 6정 관련 기사는 6정을 구성하는 6개 군사조직의 명칭과 설치연대,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언급되는 완산정(完山亭)을 살펴보자. 완산정의 경우 신문왕 5년(685) 이전에 존재 하던 하주정을 해체하고 설치한 조직이다. 6정 구성 군사조직 중 하나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신라 중대시기에 설치된 것이다. 6정이라는 명칭은 그를 구성하는 6개의 부대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6정과 같이 복수의 구성부대로 이루어진 9서당, 10정 같은 군사조직들도 마찬가지다. 즉 군단을 구성하는 부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설치된 부대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야 군호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6정의 성립은 신문왕 5년(685) 완산정의 설치와 더불어 완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²⁰⁾

한편 무관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료계통과 찬술 방식, 서술대상의 시기 등을 놓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무관조를 구성하는 부분인 시위부(侍衛府), 제군관(諸軍官), 범군호(凡軍號), 금·화(衿·花)의 사료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²¹⁾ 그 중 23군호가 작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 改爲貴幢 衿色靑赤 三曰漢山停 牟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 罷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六年 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靑 四曰牛首停 牟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牟悉直停 太宗王五年 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兎山停 牟下州停 神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兎山停 衿色白紫.”

19) 이문기, 앞의 논문, 2012, 201쪽.

20) 이문기, 앞의 책, 1997, 81~82쪽.

21) 무관조 사료적 성격 및 무관조 구성부분에 대한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末松保和, 앞의 논문, 1932 : 앞의 책, 1954 ; 井上秀雄, 앞의 논문, 1957·1958 : 앞의 책 1974 ; 이문기,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史料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15, 1990 : 앞의 책, 1997 : 앞의 책, 2012 ; 홍승우, 「『三國史記』職官志 武官

성된 범군호의 사료 성격과 찬술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의견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는데, 범군호에 기록된 군호가 신라 전시기의 군호를 모두 모아 기록되었다는 견해와,²²⁾ 특정시기에 존재했던 군호가 정리되어 있다는 견해이다.²³⁾ 이 두 의견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의견, 즉 23군호가 특정시기에 존재한 군호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삼국사기』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C-① 진평왕(眞平王) 건복(建福) 41년 갑신 겨울 10월에, 백제가 대거 쳐들어왔는데, 군사를 나누어 속함(速含)·앵잠(櫻岑)·기잠(岐岑)·봉잠(烽岑)·기현(旗懸)·혈책(穴柵) 등 여섯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왕이 상주(上州)·하주(下州)·귀당(貴幢)·법당(法幢)·서당(誓幢) 5군(軍)에 명하여 가서 구하도록 하였다.²⁴⁾

條의 기재방식과 典據資料, 『史學研究』 117, 2015 ; 박수정,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 - 계군관·범군호 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86, 2019 :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참조.

22) 末松保和의 경우 23군호에 신라 중고기, 중대, 하대 등 각 시기의 군사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11쪽), 이인철은 末松保和보다 그 시기를 좁혀 신라 중고기와 통일기 군사조직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이인철, 앞의 책, 1993, 325~358쪽). 박수정은 특정시기에 성립된 부대명을 일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이미 산실된 자료를 후대에 재정리한 것이 범군호라고 보았다(박수정, 앞의 논문, 2017, 86쪽).

23) 井上秀雄는 신문왕 10년(690)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리된 자료를 재정리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곧 범군호에서 보이는 군호는 동시에 병존한 것으로 이라고 하였으며(井上秀雄, 앞의 책, 1974, 137쪽), 이문기도 이에 동의하여 신라 특정 시기에 병존하고 있던 군사조직을 정리해 둔 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고 보았다(이문기, 앞의 책, 1997, 53~55쪽: 앞의 책, 2012, 195쪽).

24) 『삼국사기』 권47, 열전7 訥催, “眞平王建福四十一年甲申冬十月 百濟大舉來侵 分

C-② 태종대왕(太宗大王)때 백제가 와서 조천성(助川城)을 정벌하자, 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나가 싸웠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에 도옥(道玉)이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승려가 된 자는 ‘먼저 학술에 정진하여 본성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 도(道)의 쓰임을 일으켜 타인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모습만 승려와 유사할 뿐, 한 가지 선(善)도 취할 것이 없다. 종군하여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만 같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승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며 이름을 취도(驍徒)로 바꾸었는데, 의미는 달려가서 군인들의 무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병부(兵部)에 가서 삼천幢(三千幢)에 속하기를 청하였고, 마침내 군대를 따라 적지에 이르렀다. … 25)

C-①은 진평왕 46년(624) 백제군이 신라를 침범하여 속함성 등 6성을 공격해오자 상주정 등 5군을 보내 구원하도록 한 기사이다. 여기서 6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군부대로 ‘법당’이 보이는데, 법당의 경우 범군호에는 기록되지 않은 군사조직이다. 한편 제군관 부분에서는 법당주(法幢主), 법당감(法幢監), 법당두상(法幢頭上), 법당화척(法幢火尺), 법당벽주(法幢辟主) 등 법당 명칭이 들어간 5개의 군관직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법당’이라는 하나의 군사조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관당(百官幢), 경여갑당(京餘甲幢), 군사당(軍師幢) 등 개별 군사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법당’명칭을 사용하는 단일 군사조직이 적어도 진평왕대까지는 존재했지만, 그 이후 무관

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冗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 25) 『삼국사기』 권47, 열전7, 驍徒, “太宗大王時 百濟來伐助川城 大王興師出戰未決 於是 道玉語其徒曰 “吾聞 ‘爲僧者 上則精術業 以復性 次則起道用 以益他’ 我形似桑門而已 無一善可取 不如從軍 殺身以報國” 脫法衣 著戎服 改名曰驍徒 意謂馳驍而爲徒也 乃詣兵部 請屬三千幢 遂隨軍赴敵場.”

조 범군호의 자료가 작성될 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군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⁶⁾

C-②는 태종무열왕대 백제가 조천성을 공격해오자 승려 도옥이 환속하여 취도라는 이름으로 ‘삼천당’에 입대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삼천당’이라는 이름의 군사조직이 태종무열왕 시기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관조 범군호 부분에서는 ‘삼천당’이라는 군사조직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10정의 이칭(異稱)으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삼천당’도 마찬가지로 범군호 자료가 정리될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0정으로 변화하여 이칭으로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범군호 부분은 신라 전체 시기의 군사조직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닌, 특정 시기에 존재했던 군사조직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그렇다면, 6정이 완비되자마자 10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도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료의 성격으로 보아, 6정·10정은 별개의 군사조직으로 병존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정이 10정으로 계승·발전하였다는 견해는 6세기 중반 이후 삼국의 각축과 함께 신라가 팽창하면서 이동을 거듭하다가 군사적 요충지에 주둔한 지방 군사조직이 6정이고,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제도가 9주 5소경 체제로 완비됨과 함께 9주마다 1개씩 배치하는 10정(한산주는 2개 정 배치)이 신라통일 이후 지방 군사조직으로 파

26) 이문기, 『『三國史記』 ‘法幢 冠稱 軍官’ 기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교육론집』 60, 2016(b).

27) 범군호 부분에서 기록한 군사조직의 존재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기, 앞의 논문, 2012, 201쪽 참조. 이문기는 범군호 조가 대체로 신문왕 5년(685)에서 효소왕 2년(693)년 경까지의 실태를 반영한 자료라고 하였다.

악되기 때문에 나온 견해이다. 즉 6정과 10정이 시기가 다르지만 지방 군사조직으로 나타나고, ‘정’ 명칭을 사용하는 유이한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 6정이 해체되고 그 기능과 역할 중 일부가 10정으로 계승,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²⁸⁾

하지만 6정과 10정을 비교해보면 두 조직의 다른 점이 많은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에서 두 군사조직을 설명하는 기사를 비교해보자. 6정을 설명하는 기사에는 6정을 구성하는 하위 군사조직에 대해 설명할 뿐 6정의 이칭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10정의 경우에는 그 이칭이 ‘삼천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삼국사기』 무관조에서 군사조직의 명칭 변화 모습이 기록된 군사조직은 전체 23개 군호 중 6정과 9서당 단 두 개뿐이다. 만약 6정이 통일 이후 10정으로 변하였다거나, 또는 그 성격이 연결되는 군사조직이었다면 6정과 9서당 구성 군사조직의 명칭 변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에 대해 기록했거나, 6정과 10정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6정과 10정이 별개의 군사조직인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10정은 진흥왕 5년(544)에 처음 설치되었으며,³⁰⁾ 중고기 태종무열왕대 그 군사활동이 사료에서 확인되고, 10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삼천당과 연관이 있는 것으

28) 김철준, 앞의 책, 1990, 63쪽 ; 주보돈, 앞의 논문, 1987, 47~48쪽 ; 한준수, 앞의 논문, 2005, 217~225쪽

29)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十停【或云 三千幢】.”

30)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진흥왕 5년(544)에 10정이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0정은 삼국통일 이후 9주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야 모든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진흥왕 5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태종무열왕 시기 활동 모습이 보이는 삼천당의 설치연대로 판단하고 있다(井上秀雄, 앞의 책, 1974, 191~192쪽 ; 이경섭, 앞의 논문, 2018, 111쪽).

로 보아야 한다.

6정과 10정의 전체 군관조직을 비교해보아도 두 조직이 계승보다는 오히려 다른 군사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삼국사기』 제군관에서 확인되는 군관직 중 6정과 10정에 속해있는 군사조직을 표로 비교한 것이다.³¹⁾

〈표 2〉 6·10정 소속 군관 비교

군단	군관	장군	대관대감	대대감	제감	감사지	소감	화척	군사당주	대장척당주	보기당주	흑의장당주	말보당주	삼천당주	군사감	대장대감	보기감	삼천감	삼천졸
6정	대당	4	5	0/3	5	1	15/6	15/6	1	1	6	30	0	2	1	6	0	0	
	상주정 (귀당)	0/4	0/5	0/2	0/5	1/0	0 15/4	0 10/4	1/0	1/0	0/4	0/22	0	2/0	1/0	0/4	0	0	
	한산정	3	4	3	4	1	15	10	1	1	6	28	0	2	1	6	0	0	
	완산정	3	4	2	4	1	13	10	1	1	4	20	0	2	1	4	0	0	
	우수정	2	4	2	4	1	13	10	1	1	4	20	0	2	1	4	0	0	
	하서정	2	4	0	4	1	12	10	1	1	0	0	0	2	1	0	0	0	
10정	음리화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고양부리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거사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삼랑화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소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마다부리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남천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꿀내근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벌력천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이화해정	0	0	1	0	0	2	2	0	0	0	0	6	0	0	0	6	15	

6정은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 기록된 군관직 31개 중 17개의 군관직이 소속되어 있다. 반면 10정은 제군관 군관직 중 대대감

31) 한준수, 앞의 논문, 2005, 228쪽; 앞의 책, 2012, 123쪽. 단 삼천졸은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는 총원과 상당 위계만 나타날 뿐인데, 이문기는 이들을 10개의 부대로 나누어 10정에 15인씩 배치하여 표를 작성하였다(앞의 책, 1997, 131쪽). 한준수도 이 견해를 따라 삼천졸을 10정에 각 15명씩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필자도 이를 따랐다.

(隊大監), 소감(少監), 화척(火尺), 삼천당주(三千幢主), 삼천감(三千監), 삼천졸(三千卒) 등 6개의 군관직만 존재한다. 여기서 10정의 이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삼천당’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삼천당주, 삼천감, 삼천졸 등 ‘삼천’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삼천’계열 군관직이 확인된다. 이 ‘삼천’계열 군관직은 6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관조 제군관 기록 군관직 중 대대감(隊大監), 소감(少監), 화척(火尺) 등 3개 군관직은 6정과 10정 모두에 소속되어 있다고 확인된다.³²⁾ 그러므로 두 군사조직이 공유하는 군관직이 존재한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6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 군관과 10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 군관은 그 병종(兵種)이 다르다. 6정의 대대감, 소감, 화척은 보병(步兵)과 관련된 군관직이다.³³⁾ 반면 10정의 대대감, 소감, 화척은 기병(騎兵, 馬兵)과 관련된 군관직이다.³⁴⁾

32)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隊大監 領馬兵 鬪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少監 眞興王二十三年置 大幢十五人 貴幢十五人 漢山停十五人 河西停十二人 牛首停十三人 完山停十三人 … 領騎兵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領步兵 大幢六人 漢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火尺 …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領騎兵 大幢六人 漢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 領步兵 共三百四十二人 位與少監同.”

33)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 6정에 둔 대대감, 소감, 화척의 숫자를 설명하면서 보병을 거느린다(領步兵)고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34)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 10정이 거느리는 대대감, 소감, 화척의 인원수를 설명하면서 기병을 거느린다(領騎兵, 領馬兵)고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서 대대감은 마병(馬兵)을 거느리는 자리와 보

한편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에 기록되어 있는 군관직 가운데 최고위 군관직은 장군(將軍)이다. 장군은 경덕왕대 추가로 장군직이 설치되었다는 웅천주정(熊川州停)을 제외하면, 6정과 9서당에만 존재한다.³⁵⁾ 만약 10정이 6정이 재편된 것이고, 그 임무를 계승한 군사조직이라면 최고위직인 장군직이 10정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흔적이 『삼국사기』 무관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곧 양 군사조직 모두에 속해있는 동일한 직책과 역할의 군관직이 없으므로, 6정이 10정으로 재편·계승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6정과 10정은 전혀 다른 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6정과 10정 내용이 기록된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 부분이 특정 시기의 존재했던 군사조직을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과, 제군관에 기록된 6정과 10정 양 군사조직에 속한 군관직을 비교했을 때, 10정이 6정을 계승한 군사조직이 아닌 별개의 군사조직으로서 병존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병(步兵)을 거느리는 자리로 구분되고, 소감과 화적은 기병(騎兵)을 거느리는 자리와 보병을 거느리는 자리로 구분된다. 여기서 같은 말을 활용하면서도 마병과 기병으로 한자를 사용한 것은 분명 양자가 구분되기 때문일 것이지만 정확히 무엇이 차별점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최상기는 대대감이 마병을 통솔한다고 한 점에서 마병이 기병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양적으로도 더 많으며, 말을 타고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에 더해, 기동 중 사격까지 가능한 병종이었고, 기병은 그러한 마병 안에서 특정한 임무 등에 의해 다시 구분된 병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최상기, 「신라 9誓幢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 - 소속 軍官의 출신과 일부 兵種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56, 2022, 80~81쪽).

- 35)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諸軍官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謂營爲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位自眞骨級浪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Ⅲ. 신라 중대 정(停)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

지금까지 6정과 10정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두 조직이 병존한 별개의 군사조직임을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통일 이후 신라 중대 6정과 10정 군사조직의 지휘계통과 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는 기록의 순서를 볼 때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부대 순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여기서 6정과 10정은 범군호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순서에 기록되고 있다. 범군호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로 기록된 군사조직은 9서당과 5주서이다. 주지하다시피 9서당은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핵심 중앙 군사조직으로 이해되며, 5주서는 서당과 관련된 군사조직으로 원(原)신라지역으로 진입하는 적을 요격하고,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 및 소경의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³⁷⁾ 두 부대는 그 임무와 역할로 유추해 볼 때 신라 군사조직에서 그 위상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군사조직 앞 부분에 기록된 6정과 10정 또한 신라 군사조직에서 그 위상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정과 10정은 『삼국사기』 무관조 범군호에서 ‘정(停)’ 글자를 사용하는 둘 뿐인 군사조직이다. 신라에서 ‘정’은 본래 ‘영(營)’, 즉 군부대의 주둔지를 뜻하는 말이다.³⁸⁾ 그러나 무관조 기록에서는 ‘정’은 지역명과 결합하여 ‘어느 지역의 군사조직’임을 나타내고 있다.³⁹⁾

36)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300쪽.

37) 홍성열, 「신라 통일기 5주서의 역할과 위상」, 『북악사론』 15, 2022(a), 81쪽.

38)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羅人謂營爲停】”

39) 홍성열, 「신라 군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고대 군사사,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산책, 2023, 186쪽.

곧 ‘정’이 처음 설치된 6세기 중엽에는 ‘주둔지’, ‘군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시기가 흘러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친 후에는 ‘정’의 뜻도 그 자체로 군사조직, 부대를 뜻하는 단어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을 쓰는 군사조직은 무관조에 기록된 23군호 가운데는 6정과 10정만 확인된다. 범군호에 기록된 23군호 중 다른 부대는 모두 ‘당(幢)’으로 끝나는 데 반해, 이 두 군사조직만 ‘정’으로 끝난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그럼 두 군사조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앞서 제시한 <표-2>를 확인해보면, 6정과 10정에 소속되어 있는 군관직 중 겹치는 부분이 없다. 공통으로 속해있는 대대감, 소감과 화척의 경우 6정은 보병을 통솔하고, 10정은 기병을 통솔하여 그 병종이 다르다. 그런데 겹치는 군관직이 없다는 부분이 두 군사조직이 병존했다는 것을 확인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부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6정은 많은 종류의 군관이 소속되어 있지만 기병관련 군관직과 ‘삼천’계열 군관직이 빠져있다. 반면 10정은 기병관련 군관직과 ‘삼천’계열 군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6정과 10정이 서로 계열과 병종이 다른 군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6정과 10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을 연결한다면, 하나의 대규모 군사조직으로도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6정·10정이 보완관계에 있으며 대규모 군사조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면, 이 두 군사조직의 위계, 즉 지휘관계는 어떠할까? 이 지휘관계는 6정과 10정에서 최고위 군관직의 관위로 확인할 수 있다.

D-① 장군(將軍)은 모두 36명이다. 대당을 관장하는 것이 4명, 귀당 4명, 한산정 3명, 완산정 3명, 하서정 2명, 우수정 2명이다. 관동이 진

꿀 상당으로부터 상신까지인 사람을 임명하였다. 녹금당 2명, 자금당 2명, 비금당 2명, 황금당 2명, 흑금당 2명, 벽금당 2명, 적금당 2명, 청금당 2명이다. 관등이 진꿀 급찬으로부터 각간까지인 사람을 임명한다. 경덕왕 때 이르러 웅천주정에 3명을 더 두었다.⁴⁰⁾

D-② 대대감(隊大監). 마병을 통솔하는 것이 계금에 1명, 음리화정에 1명, 고량부리정에 1명, 거사물정에 1명, 삼량화정에 1명, 소삼정에 1명, 미다부리정에 1명, 남천정에 1명, 골내근정에 1명, 벌력천정에 1명, 이화혜정에 1명, 녹금당 3명, 자금당 3명, 백금당 3명, 황금당 3명, 흑금당 3명, 벽금당 3명, 적금당 3명, 청금당 3명, 청주서 1명, 한산주서 1명, 완산주서에 1명이다. 보병을 통솔하는 것이 대당에 3명, 한산정에 3명, 귀당에 2명, 우수정에 2명, 완산정에 2명, 벽금당에 2명, 백금당에 2명, 황금당에 2명, 흑금당에 2명, 자금당에 2명, 적금당에 2명, 청금당에 2명, 비금당에 4명이다. 모두 70명이며, 모두 금(衿)을 붙였다. 관등이 나마에서 아찬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⁴¹⁾

D는 장군과 『삼국사기』 무관조 제군관의 장군 기사 부분과 대대감 기사 부분으로 각 군사조직별 장군직, 대대감직의 임명 숫자와

4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諸軍官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謂營爲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位自眞骨上堂至上臣爲之 綠衿幢二人 紫衿幢二人 白衿幢二人 緋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碧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位自眞骨級浪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4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隊大監 領馬兵 鬬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綠衿幢三人 紫衿幢三人 白衿幢三人 黃衿幢三人 黑衿幢三人 碧衿幢三人 赤衿幢三人 青衿幢三人 菁州誓一人 漢山州誓一人 完山州誓一人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碧衿幢二人 綠衿幢二人 白衿幢二人 黃衿幢二人, 黑衿幢二人 紫衿幢二人 赤衿幢二人 青衿幢二人 緋衿幢四人 共七十人 並著衿 位自奈麻至阿浪爲之.”

임명할 수 있는 관위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장군, 특히 6정에 임명되는 장군직의 경우 관위를 진골 상신(上臣)부터 상당(上堂)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대감은 나마(奈麻)에서 아찬(阿澹)까지의 관위를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신은 신라에서 최고 관직인 상대등(上大等)을 이야기하는데,⁴²⁾ 제2위인 이찬(伊澹) 이상의 관위를 가진 이들이 임명된다. 따라서 6정의 장군직은 신라의 높은 관위를 가진 이들만 임명될 수 있었다. 상당의 경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보통 제9위 급찬(級澹) ~ 제6위 아찬(阿澹)의 관위를 가진 자가 임명된다고 보고 있다.⁴³⁾ 따라서 6정 장군은 진골이며 제1위 이별찬 ~ 제9위 아찬 관등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었다.

대대감은 제11위 나마(奈麻) ~ 제6위 아찬 관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임명된다. 장군과 대대감의 임명 관위를 비교해보면 대대감이 상대적으로 그 관위가 낮다. 또한 대대감은 임명 조건에 골품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진골 외에 6두품, 5두품 등도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6정의 최고 무관은 장군이고, 진골 중 최상급 관인이 임명되었

42)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上大等【或云 上臣】”

43) 武田幸男, 「新羅の骨品體制事會」, 『歴史學研究』, 299, 1965 ; 정경숙, 「新羅時代の『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 48, 1985, 9쪽 ; 정덕기,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해안, 2021, 142~147쪽.

한편 ‘상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선태는 ‘당(堂)’으로 상징되는 국가 의례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 관인으로 이해하였으며(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29~30쪽), 박동명은 ‘당’ 즉 남당(南堂) 위에 올라 국왕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정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박동명, 「신라 六停 將軍의 就任資格과 그 性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9~24쪽).

다. 반면 10정의 최고 무관은 대대감이고, 상급·하급 관인이 임명되었다.⁴⁴⁾ 장관의 관위를 고려하면, 6정은 10정의 상급 부대로서 10정을 지휘·통제했다고 이해된다.

이렇게 6정이 10정의 상위 군사조직이며, 양자가 지휘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6정이 10정을 어떻게 지휘하고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10정은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이 종료되고 전국을 9개 주로 재편한 통일신라 지방제도에 맞춰 각 주에 1개 정이 설치, 운영되었다. 여기서 관할구역이 넓은 한산주에만 1개의 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2개의 정이 설치되면서 총 10개의 정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10정의 경우에는 그 관할지역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6정은 그 관할지역을 설명하기 어렵다. 6정은 왕경의 대당과 지방의 5정을 합하여 6개의 군사조직을 이야기하는데, 왕경에 위치한 대당을 제외하고 5정의 관할구역을 9주에 맞게 설정해야하기 때문이다. 9개 주로 구분된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에 지방제도에 5정의 관할구역을 대입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5정의 관할구역 설정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로이다. 신라는 소지왕 9년(487)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관도를 정비하였다.⁴⁵⁾ 우역은 중앙에서 발급한 문서나 정령(政令)이 순조롭게 지방에 도달하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역의 설치는 중앙과 지방의 인적 왕래나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망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우역의 설치와 함께 관도를 수리하고 관

44) 급찬 이상이 상급 관인·고관이고, 대나마 이하가 하급 관인·하관이다(정덕기, 2021, 앞의 책, 218~221쪽). 또 공복제의 구조상 대야찬 이상이 최상급 관인이며, 대사 이하는 최하급 관인이다(『삼국사기』 권33, 잡지2, 색목, 법흥왕제).

4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知麻立干 9년(487) 3월,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리하도록 한 것은 우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⁴⁶⁾ 이렇게 정비된 교통로는 신라의 대외확장과 지방통치에 사용되었다. 이후 신라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로가 개척되기도 하였다.

신라는 통일 이후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재편하였고,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기 위해 이 사이를 왕래하는 교통로를 정비·구축하였다. 이때 신라가 구축한 교통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권37 지리(地理)4의 ‘삼국에서 이름이 있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북해통(北海通), 염지통(鹽池通), 동해통(東海通), 해남통(海南通), 북요통(北徭通) 5개를 통일 이후 신라에 존재했던 교통로라고 판단하고 있다.⁴⁷⁾ 이 5개 교통로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왕경과 5소경, 9주를 연결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6정 중 지방에 위치한 5정은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매개로 하여 전국의 9주를 분할하여 관할구역으로 삼지 않았나 한다.

통일신라 시기에 상주에서 계립령(鷄立嶺)을 지나 충주(중원경)를 거쳐 한강유역으로 나아가는 길, 죽령(竹嶺)을 거쳐 원주(북원경)를 지나 안변으로 나아가는 길, 왕경에서 동해안을 따라 국경까지 나아

46) 주보돈, 「새로운 질서의 모색」,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2-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47) 신라의 교통로(5통)에 대한 연구는 井上秀雄, 「新羅王畿の構成」,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서영일,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 52, 1999 ;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한정훈, 「신라통일기 육상교통망과 五通」, 『釜大史學』 27, 2003 ; 「6·7세기 新羅 交通機構의 정비와 그 성격」, 『역사와 경계』 58, 2006 ;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韓國古代史研究』 63, 2011 ; 박장환,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통 시론」, 『중앙고고연구』 11, 2020 ; 이용현, 「통일신라 기간도로 5通의 방향과 범주」, 『민족문화연구』 97, 2022 참조.

가는 길, 상주에서 보은을 거쳐 피반령(皮盤嶺)을 지나 청주(서원경)를 거쳐 공주(웅진)과 대당외교사절의 교통로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당항진(黨項津)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요 간선 교통로로 존재하였다.⁴⁸⁾ 이 교통로들은 대부분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 소백산맥 이남의 본 신라지역에서 탈피하여 백제와 고구려지역으로 확장할 때 사용하던 교통로였으며,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때에도 사용하던 교통로였다. 또한 이 교통로들은 왕경과 지방, 국경과 관문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편 10정의 경우 군사적 기동로 및 교통로로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 주둔지를 설정했다.⁴⁹⁾ 따라서 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6정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왕경에 주둔하는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정의 관할지역을 설정해보면, 우선 통일 이후 9주로 개편된 지역명을 띤 군사조직이 눈에 띈다.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이 그것이다. 한산정과 우수정, 하서정은 그 군사조직 명칭과 동일한 9주 구역을 관할했다. 한산정이 관할하는 한산주는 계림령로를 지나 충주(중원경)를 거쳐 한강유역으로 가는 간선 교통로가 위치한 곳이다. 우수정이 관할한 우수주는 죽령을 거쳐 원주(북원경)를 통해 안변, 원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위치하고 있다. 하서정이 관할한 하서주는 동해안을 따라 동북 국경과 왕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자리잡고 있다.⁵⁰⁾ 따라서 한산정은 한산주를, 우수정은 우수주를, 하서정은 하서주를 관할로 하고,

48) 서영일, 앞의 책, 1999.

49) 서영일, 앞의 책, 1999, 126~173쪽 ; 한준수, 앞의 책, 2012, 118쪽.

50) 우수주·하서주에 위치한 간선교통로는 『新唐書』 卷219 列傳144 北狄渤海에 新羅道로 기록된 발해 교통로와 연결되어 발해-신라간 교역로로 이용되었다(윤재운, 「신라도의 노선과 교류」, 『高句麗渤海研究』 69, 2021).

한산정은 10정 군사조직 중 한산주 내에 주둔한 남천정·골내근정을, 우수정은 우수주 내에 주둔한 벌력천정을, 하서정은 하서주 내에 주둔한 이화혜정을 예하 관할 부대로서 통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6정을 구성하는 부대 가운데 지방에 위치한 5개 정 중 3개의 정이 북방 3개 주를 각 하나씩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경우 북방 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를 단 2개 정으로 관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신라가 지방 주둔 5정 중 3개를 북방 3개 주에 주둔하게 한 것은 신라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세력이 북방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나당전쟁이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은 신라를 침공하여 정복하겠다는 욕심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발해가 건국되기 이전까지 옛 고구려지역은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따라서 신라는 북쪽 국경 주변에 도사리는 위협에서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북방 3개 주인 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에 군부대 및 병력을 더 촘촘히 배치했다.

실제로 앞서 제시한 <표-1>을 통해 신설된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9서당 구성 군사조직과 5주서 구성 군사조직을 제외하고 우수주계당, 신삼천당(新三千幢; 우수주삼천당, 나토군삼천당, 나생군삼천당,) 3번수당(한산번, 우수번, 하서번) 등 북방 3개 주에 주둔하는 군사조직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는 북방 3개 주에 6정 중 절반인 3개 정을 배치한 것이다.

후방의 6개 주는 북방에 배치한 3개 정과 수도에 위치한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정이 구역을 나누어 관할하였을 것인데, 귀당(상주정)과 완산정(하주정)이 그것이다. 이 2개 정의 관할구역도 역시 교통로를 중점으로 하여 관할구역을 구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귀당은 상주정에서 명칭이 개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5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六停, 二曰 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

하지만 『삼국사기』 문무왕 원년(661) 7월 17일 기사에 귀당총관(貴幢總管)과 상주총관(上主總管)의 임명이 함께 확인된다.⁵²⁾ 또한 진흥왕대 대가야 정벌에서 공훈을 세운 활약했던 사다함(斯多含)이 귀당 비장(裨將)으로 임명되어 출진한 기록이 확인된다.⁵³⁾ 이와 함께 진평왕 46년(624) 백제의 신라 공격 당시 백제를 방어하던 급찬(訥儺)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국사기』 열전(列傳) 열전(列傳)에서도 상주정과 귀당이 함께 출진한 기사가 확인된다.⁵⁴⁾ 따라서 귀당은 상주정과 별도로 진흥왕 2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별개의 부대로 병존한 부대임을 알 수 있다.⁵⁵⁾

상주정과 귀당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이 일단락되고 군사조직이 개편되면서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여기서 상주정의 이름이 사라지고 귀당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옛 상주(上州)지역

武王十三年 改爲貴幢 衿色靑赤.”

5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元年(661) 秋 7월 17일,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揚管 品日·忠常·義服爲上州揚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揚管 軍官·藪世·高純爲南川州揚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揚管 文訓·眞純爲河西州揚管 眞福爲誓幢揚管 義光爲郎幢揚管 慰知爲闕衿大監.”

53) 『삼국사기』 권44, 열전4, 斯多含, “眞興王命伊滄異斯夫 襲加羅國 時斯多含年十五 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54) 『삼국사기』 권47, 열전7, 訥儺, 眞平王 建福 四十一年(624) 甲申 冬 10월, “百濟 大舉來侵 分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旌懸·冗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55) 정구복 등 5인, 『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559쪽.

56) 상주정·귀당 통합 후 귀당이란 명칭은 잔존하였다. 유관 배경으로 2가지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첫째, 6정은 보병 중심 부대이므로, 상주정·귀당 통합 시 귀당이 상주정으로 통합되나, 명칭은 귀당으로 하였다(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28쪽). 둘째, 문무왕 5년(665) 삼랑주·겨열주 설치로 상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며 상주정의 지역적 존립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이문기, 앞의 책, 1997, 117~120쪽).

을 관할구역으로 했던 부대인 상주정과 귀당이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옛 상주(上州)지역이 통합 군사조직인 귀당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귀당은 옛 상주정 관할 지역인 사벌주(沙伐州)를 관할구역으로 두었을 것이다. 사벌주는 왕경에서 출발하는 신라 교통로의 최중요 지역이다. 충주(중원경)과 한강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원주(북원경)과 안변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은 청주(서원경)을 거쳐 웅진이나 대당외교의 거점인 당항진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당은포로(唐恩浦路))의 분기점이기도 하다.⁵⁷⁾ 따라서 귀당은 이곳을 관할구역으로 주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귀당의 경우 단순히 사벌주만을 관할구역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벌주만 관할구역으로 했을 경우 북방 3주의 경우처럼 군사조직의 명칭에 관할 주의 이름을 붙여 사벌정(상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다른 명칭들과 통일성이 있다. 귀당과 상주정의 통합 후 그 명칭을 귀당으로 사용한 이유에는 사벌주가 교통로의 분기점이며 왕경으로 들어가는 최중요 지역을 지켜야 하므로 그 부대 이름처럼 충성도가 높고, 고귀한 신분 출신의 인물들로 부대 구성원을 조직해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보다는 관할구역이 사벌주 경계를 넘어 웅천주와 완산주 등 복수의 주를 관할구역으로 두었기 때문에 귀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연결해볼 수 있는 것이 각 군사조직의 금색(衿色)이다. 금은 부대 깃발·상의 도련에 붙인 무관의 위신재이며,⁵⁸⁾ 현대 군에서 사

57)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58) 정덕기, 『신라 상대 관복제도사』, 2023, 167~178쪽.

용하는 부대표지(部隊標紙)의 역할을 하였다.⁵⁹⁾ 『삼국사기』 무관조범군호에는 각 군사조직을 설명하면서 그 끝 부분에 군사조직이 사용한 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6정과 10정의 금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삼국사기』 무관조에 기록된 정 군사조직의 금색(衿色)

	군호	구성 군사조직	금색
1	6정 (六停)	대당(大幢)	자백(紫白)
		귀당(貴幢: 上州停)	청적(靑赤)
		한산정(漢山停)	황청(黃靑)
		우수정(牛首停)	녹백(綠白)
		하서정(河西停)	녹백(綠白)
		완산정(完山停)	백자(白紫)
2	10정 (十停)	음리화정(音里火停)	청(靑)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	청(靑)
		거사물정(居斯勿停)	청(靑)
		삼랑화정(參良火停)	흑(黑)
		소삼정(召參停)	흑(黑)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흑(黑)
		남천정(南川停)	황(黃)
		골내근정(骨乃斤停)	황(黃)
		벌력천정(伐力川停)	녹(綠)
		이화혜정(伊火兮停)	녹(綠)

<표 3>에서 6정과 10정의 금색을 비교해보면 6정과 10정의 금색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금색이 나타난다. 먼저 앞서 살펴본 한산정·우수정·하서정을 살펴보면, 한산정은 금색으로 황청을 사용하는 것

59) 홍성열, 앞의 논문, 2022(a), 83쪽.

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산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골내근정과 남천정은 금색으로 황색을 사용하고 있다. 한산정과 골내근정, 남천정의 금색이 완전히 같은 색을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공유하는 색이 있다는 것은 3개의 부대가 지휘계통 등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찬가지로 우수정과 하서정은 금색으로 녹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수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벌력천정과 하서정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이화혜정은 금색으로 녹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우수정·하서정과 벌력천정·이화혜정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⁶⁰⁾

그렇다면 귀당의 경우도 위 북방 3주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귀당의 금색은 청적이다. 10정 중 귀당의 금색과 공유되는 금색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은 음리화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으로 금색으로 모두 청색을 사용한다. 따라서 금색의 사례를 볼 때, 귀당은 음리화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과 지휘계통이나 체계 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구역으로 이 3개 정이 위치한 지역인 사벌주, 웅천주, 완산주 지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부분은 완산정이다. 완산정은 옛 명칭이 하주정(下州停)으로 신문왕 5년(685)에 하주정을 폐지하고 신설되었다고 한다.⁶¹⁾ 따라서 하주정이라는 명칭에서 유추하면 그 관할구역으로 옛 하주(下州)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옛 하주지역으로

60) 하서정·우수정의 금색은 같다. 그런데 하서정의 경우 6정 군사조직 중 그 군관이 없는 부분도 있으며, 군관의 수도 제일 적다. 한편으로 우수정과 하서정은 북쪽 경계지역이 안변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따라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정으로 구분했지만,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색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6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武官, “六停. … 六曰兎山停. 李下州停, 神文王五年, 罷下州停, 置兎山停. 衿色白紫.”

나타나는 곳은 삼량주(歙良州), 청주(靑州)가 있다. 삼량주는 문무왕 5년(665)에 상주와 하주의 땅을 분할하여 설치했다.⁶²⁾ 청주는 문무왕 5년(665) 하주의 영역에서 분리된 거타주(居陁州)에서 이름이 변경되거나 지역이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⁶³⁾ 따라서 하주정은 옛 하주지역이었던 삼량주와 청주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했었을 것이다.

여기에 하주정은 무진주(武珍州) 지역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삼량주, 청주, 무진주에 있는 10정 군사조직인 삼량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이 금색으로 흑색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라 남방지역 3주에 위치한 삼량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이 지휘계통 등에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지역은 왕경에서 서남지역으로 강주를 거쳐 무주로 향하는 교통로가 위치한 곳이다.⁶⁴⁾ 따라서 하주정은 귀당과 같이 주 경계를 넘어 3개의 주를 관할구역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주정을 혁파하고 두었다는 완산정은 그 이름으로만 보면 완산주를 관할구역으로 두는 군사조직으로 판단하게 한다. 완산주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옛 백제의 영토였다. 옛 하주지역이 아니다. 또한 청색의 금색을 사용하여 귀당이 관할,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사물정이 위치한 지역이다. 즉 귀당과 관할구역이 겹치게 된다. 한편으로 완산정의 금색은 백자인데, 하주정이 지휘통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남방 3주의 삼량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이 사용한 금색인 흑색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남방 3주를 관할하는

62) 『삼국사기』 권34, 잡지3, 地理, 新羅, 良州, “文武王 五年, 麟德二年割上州·下州地, 置歙良州.”

6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5년(685), 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揚管 挺居列州以置靑州 始備九州 以大阿滄 福世爲揚管”; 『삼국사기』 권34 雜志3, 地理, 新羅 康州, “神文王 五年 唐 垂拱元年 分居陁州 置靑州.”

64) 이용현, 앞의 논문, 2022, 147쪽.

6정 군사조직도 없게 된다. 하지만 이는 완산정이 설치될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완산정이 신설되기 1년 전인 신문왕 4년(684),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金馬渚)에서 고구려 유민 대문(大文)이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자, 이에 남은 세력이 관리를 죽이고 읍을 장악하는 등 반란을 일으켰고, 신라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하였다.⁶⁵⁾ 신라는 반란을 진압한 이후, 백제의 옛 지역이기도 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이곳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금마저가 속한 완산주 지역을 예의 주시하면서, 완산주 지역의 반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완산주 설치와 함께 하주정을 폐지하고 완산주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완산정을 설치한 것이다.

여기서 6정 군사조직 중 하주정을 폐지하고 완산정으로 재편한 것에 대해, 금마저 지역 반란 진압 시 하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귀당 등 다른 부대가 투입되어 진압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후 임시로 하주정을 완산정으로 재편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에 유지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⁶⁶⁾

6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4년(684) 11월.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 한편 『삼국사기』 卷47 列傳7 취도전에는 취도와 함께 나라에 목숨을 바친 두 동생 부과(夫果)와 뽕실(溥實)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있는데, 뽕실이 보덕성에서 남은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귀당 제감으로 참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다른 부대가 아닌 귀당이 진압부대로 투입된 것에 대해, 필자의 의견처럼 완산주 지역이 귀당의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반란 진압에 투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66) 한준수, 앞의 책, 2012, 110~114쪽. 한준수는 6정의 개편이 신라 중고기의 군사적 질서와 귀족의 사병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율령체제를 중심으로 한 신라 중대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었고, 이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지방제도를

그러나 하주정이 폐지되고 완산정으로 개편된 것은 하주정이 주둔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적 위협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군사조직을 이동시켜 반란 등 군사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하여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의 경우 군사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북방 경계에 바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북방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귀당은 당나라로 통하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지역 및 북방 교통로들이 분기하는 최중요 지역인 사벌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귀당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하주정의 관할구역이었던 남방 3주는 북방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낮았다. 또한 하주정의 관할구역인 삼랑주와 청주의 경우 왕경과 상당히 가까워서 군사적 문제 발생시 왕경에 주둔한 군대가 남방의 문제지역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주정이 개편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⁶⁷⁾

한편 신설된 완산정의 관할구역인 완산주 내에는 10정 군사조직 중 하나인 거사물정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거사물정은 완산주 내에 있으므로 완산정의 지휘를 받고, 사용하는 금색

9주 5소경으로 개편하는 것과 병행하여 10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 67) 이용현은 신라 교통로 중 하나인 ‘동해통’을 비정하면서, 포항·경주 이북의 동해안을 거쳐 평주를 경유하는 기간도로망을 동해통으로 비정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동해통으로 비정했던 경주 남쪽의 부산·김해·창원을 넘어 통영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곳이 소경 중 특별한 위상을 가진 금관경을 포함하고 삼랑주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왕경의 근기지역으로 취급되면서 5통의 교통로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이용현, 앞의 논문, 2022, 147~148쪽). 그렇다면 남방 3주를 담당하는 하주정이 개편되어 완산정이 되고, 남방 3주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6정 군사조직이 폐지되는 것도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은 완산정을 따라 백색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기록상에서는 귀당이 사용하고 있는 금색인 청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완산주 지역이 완산정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되었으나, 그 안의 거사물정은 귀당의 지휘통제를 따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거사물정이 위치하는 지역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으로 지정된다.⁶⁸⁾ 이 지역은 남원, 운봉을 지나 팔랑치를 넘어 경남 지역과 연결되는 내륙교통의 중추지역으로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신라를 공략하고자 이용한 교통로이기도 하다. 즉 완산주에서 청주, 사벌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통로를 통제하는 것도 거사물정의 임무 중 하나였을 것인데, 완산정은 금마저에서 일어난 반란 진압 후 후속책으로 나온 특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설치된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산주 내의 소요사태를 감시, 진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이 교통로를 통제하는 임무를 가진 거사물정은 완산정이 아닌 귀당이 지휘를 하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거사물정이 금색으로 백색이 아닌 귀당이 사용하는 금색인 청색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6정은 지방의 광역주를 관할하는 군관구의 모습을 한 군사조직으로, 10정 군사조직의 상위 부대로 위치하며 이들을 지휘했다. 6정과 10정의 지휘계통은 그 부대들이 사용한 금색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68) 거사물정이 위치한 거사물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에 비정하는 견해(안정복, 『동사강목』 권3, 上, 甲子年條), 김정호의 『靑丘圖』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에 비정하는 견해(정구복 외, 앞의 책, 2012, 569쪽),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변암면에 비정하는 견해(정구복 외, 앞의 책, 2012, 339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에 비정하는 견해(이문기, 앞의 책, 1997, 144쪽 ; 최범호, 앞의 논문, 2023, 162~163쪽) 등이 있는데, 남원시 산동면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왕경의 대당을 제외한 지방 주둔 5정은 국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북방 3주(한산주, 우수주, 하서주)에 주별로 1개씩의 정(한산정, 우수정, 하서정)을 두어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귀당은 중부지방이라 할 수 있는 사별주, 웅천주, 완산주 3개 지역을, 하주정은 남방 지역인 삼량주, 청주, 무진주를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이때 금마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신라는 반란 진압 후 이 지역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험도가 낮고, 왕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왕경의 군사들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남방 지역을 관할하는 하주정을 폐지, 완산정으로 개편하였다.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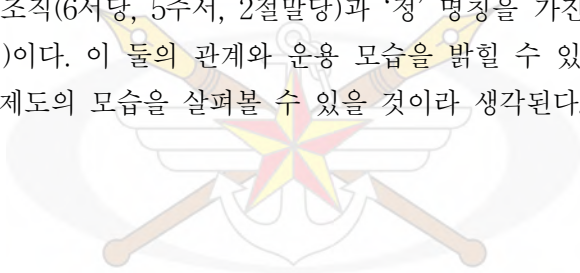
지금까지 삼국통일 이후 군사조직의 재편과 6정과 10정의 관계, 그리고 신라 중대 6정과 10정의 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삼국통일 이후에도 6정은 변화하거나 축소, 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었다. ‘정’이름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을 보았을 때 6정은 10정의 상위부대로서 10정을 지휘하였다. 6정과 10정에 소속되어 있는 군관직을 살펴보면 보병군관만 소속되어 있는 6정과 기병군관이 포함되어 있는 10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6정 중 왕경의 대당을 제외한 5정은 군관구처럼 운영되었다. 5정 중 3정은 1개의 주를 관할하나, 상주정(귀당)은 2~3개의 주를 함께 관할하였다. 6정의 관할구역은 왕경-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연관되며, 1개의 정은 교통로상 경유지를 묶어 관할하였다. 6정의 각 구성부대는 같은 금색을 쓰는 10정 군사조직을 예하에 두고 지휘하였

다. 왕경에서 출발하는 간선 교통로를 관리하기 쉬운 교통의 요지에 10정을 두고, 하나의 간선 교통로가 연결된 지역을 묶어 대당 외 지방 주둔 5정이 광역의 군관구의 모습으로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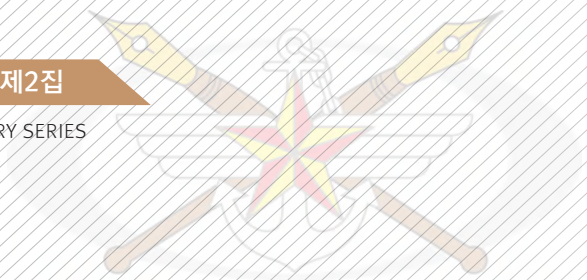
다만 완산정의 경우 금색이 백자인데 반해, 삼랑화정, 소삼정, 미다부리정은 금색이 흑색이기에 금색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하여 논지를 보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6정과 10정이 통일 이후에도 존재하여 지휘관계로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면, 삼국통일 이후 신라 중대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두 개의 군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당의 지휘를 받는 군사조직(6서당, 5주서, 2절말당)과 ‘정’ 명칭을 가진 군사조직(6정, 10정)이다. 이 둘의 관계와 운용 모습을 밝힐 수 있다면, 신라 중대 군사제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군사연구총서 제2집

MILITARY HISTORY SERIES



신라의 보덕국 경락과 일통(一統) 이념

| 권창혁

신라의 보덕국 경락과 일통(一統) 이념

권 창 혁*

- I. 머리말
- II. 문무왕 시기 고구려 유민 포섭 정책의 배경
- III. 한성 고구려국의 역할과 나당전쟁의 추이(推移)
- IV.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와 일통 이념의 구현
- V. 맺음말

I. 머리말

668년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은 기미주(靑州)를 편제하여 고구려의 영토 및 유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직후부터 고구려인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더불어, 신라 역시도 그간 당의 일방적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 아래 고구려인들의 무력투쟁을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라의 의도는 궁극적으로는 소위 ‘평양이남 백제토지(平

* 포항시청 학예연구사.

壤以南 百濟土地)’로 요약되는바 영토와 관련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으며, 결국 7년여에 걸친 나당전쟁(670~676)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나당전쟁을 추동했던 핵심축이란 고구려와 백제가 사라진 이후 그 남은 유산(즉 영토 및 유민)의 향방을 둘러싼 당과 신라라는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기왕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덕국(報德國, 혹은 한성漢城 고구려국)¹⁾의 전말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이 보덕국이 670년 안승·검모잠 등의 봉기 이래로 옛 고구려의 핵심적 영역이었던 한성(漢城, 재령) 등지의 패강(溟江) 이남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칭왕(稱王) 하는 등 668년 직후부터 빈발하였던 여러 부흥운동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신라와 연계하며 나당전쟁의 승리에 조력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신라 영내의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정착한 이래 그 국가체제의 일부로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서 신라의 ‘일통(一統)’ 과정과 그 이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게

1) 엄밀히 말하자면 674년 9월 신라에 의해 안승이 기존의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 책봉된 이후 시점(『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9월)을 기준으로 비로소 ‘보덕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처음 거병했던 670년부터 674년 이전까지의 안승 등의 세력을 과연 무엇으로 칭할지가 애매한 점이 있을 것인데,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고구려국’·‘한성고구려국’·‘부흥고구려국’ 등으로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역으로 674년 ‘보덕왕’ 책봉 이후의 시점은 포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겠지만 674년을 계기로 이들 안승 세력의 국가적 성격 및 지역적 기반, 인적 구성 등은 물론이거니와 신라와의 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김강훈, 『고구려 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188쪽), 본 연구에서는 일단 편의상 안승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보덕국’을 칭하되, 굳이 나누자면 670~674년 이전 시점까지는 ‘한성 고구려국’, 674년 이후 시점부터는 ‘보덕국’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원용하고자 한다.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만큼 이 보덕국에 대해서는 그 성립과정 및 배경,²⁾ 전반적인 활동양상,³⁾ 주요 수뇌부의 성격 및 정세 인식⁴⁾ 등을 비롯하여, 해체 및 신라로의 편입 과정⁵⁾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비단 고구려사(부흥운동) 뿐만이 아니라 신라사

-
- 2)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第2策)』, 吉川弘文館, 1960 ; 이병도, 「고구려의 일부 유민에 대한 당의 추호 정책」,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村上四男, 「新羅國と報德王安勝の小高句麗國」,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 손영중, 「고구려유민들의 반침략고국회복투쟁」,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 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림』 19, 2003 ;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 장병진, 「당의 고구려고지 지배 방식과 유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2016 ; 여호규·拜根興, 「유민 묘지명을 통해 본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 『동양학』 69, 2017 ; 방용철,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 133, 2018 ; 김수진, 「670년 평양 일대 고구려 유민의 남하와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실학』 72, 2020.
- 3) 임기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임기환,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94, 2024 ; 이채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2010 ; 조범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김강훈, 『고구려 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 4)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 29, 2018 ; 정원주, 「안승의 항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군사』 110, 2019 ; 최호원, 「고구려 검모잠·안승 세력과 대신라관계 인식」, 『신라사학보』 49, 2020.
- 5)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해성」, 『인문학연구』 78, 2009 ; 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2010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2013 ; 한준수,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 201, 2023.

의 맥락에 있어서도 나당전쟁 시기의 전략·외교적 활용,⁶⁾ 피복속민을 대상으로 한 민족 융합 및 지배정책,⁷⁾ 제도·의례·이념 및 천하관(天下觀)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상⁸⁾ 등과 같이 보덕국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사(=부흥운동)로서의 맥락과 신라사(=통일과정)으로서의 맥락에 각각 초점을 둔 두 시각은 종종 상호 대립적으로 이해되곤 했다. 다만 근래 몇몇 연구들에서도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의 역사적 의미란 애초에 서로 표리(表裏)와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관계로서 절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나당전쟁사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 보덕국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이라는 요소는 분명 정치·외교상의 이념과 명분,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의 양 측면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⁹⁾ 반대로 고구려 부흥운동사 자체

6)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총』 46, 1997 ; 신은이,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 132, 2018 ; 신은이, 2023, 「나당전쟁의 전개와 보덕국」, 『영남학』 84, 2023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高句麗の史的展開過程と東アジア』, 塙書房, 2021 ;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 植田喜兵成智, 「新羅による安勝の「高句麗王」「報德王」冊封と骨品制編入」,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7)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上)』, 일조각, 1994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2015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신라사학보』 50, 2020

8) 박초룡,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조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86, 2017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영접의례 구성」, 『신라문화』 59, 2021 ; 방용철, 「문무왕의 안승 책봉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3, 2021 ; 추명엽,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9) 양병룡, 앞의 논문, 1997, 29~30쪽 ;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68쪽 ;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40~253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23 131~134쪽.

도 나당전쟁이 계기로써 작용하였던 신라와의 협력과 민족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국 고대사의 한 단면으로서 더욱 풍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특히 고구려까지도 포괄하는 신라의 민족 융합과 통일과정으로서의 맥락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한다. 즉 이는 안승과 보덕국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신라가 당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고구려의 인적 자원(주민)과 영역, 그리고 정통성 및 계승의식 등의 요소들을 포섭해나가는 과정이자 건국 이래 주변 세력을 정복·흡수하며 성장해왔던 신라의 역사적 경험이 집대성된 사례이며, 궁극적으로는 ‘일통(一統)’이라는 중대왕권의 이념적 기반으로까지 발전·구현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략 문무왕 시기 한성 고구려국의 성립(670)부터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684)까지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으로 야기되었던 일련의 국면들과 그에 대한 신라 측의 대응이라는 역사상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중 특히 이 보덕국의 존재 자체가 고구려까지도 포괄하려는 당대 신라 왕권의 ‘일통’ 이념 구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의 측면 역시도 살펴보려 한다.

Ⅱ. 문무왕 시기 고구려 유민 포섭 정책의 배경

익히 알려진 것처럼 668년 9월 나당연합군의 평양성 함락을 계기로 당은 고구려고지 전역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위시한 기미주(羈縻州) 체제 아래 편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행과정은 직후부

터 다대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669년 무렵 이적(李積)·연남생(淵男生) 등에 의해 안동도호부가 관할할 주(州)·군(郡)을 예측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압록강 이북의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주민들이) 도망친 성(鴨綠水以北未降城·逃城)’ 등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¹⁰⁾ 당시 고구려의 영토 및 주민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히 불완전한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통제에 극렬히 반발하며 이탈 혹은 저항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던 정황이 드러난다.¹¹⁾ 다른 한편 이 같은 북방의 동향은 인접한 신라에게 있어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백제·고구려에 대한 전후 처분에 있어 신라의 기여도와 지분을 철저히 무시하며 기미주 체제로의 재편만을 밀어붙이던 당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기왕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듯이, 과거 648년 입당한 김춘추와 당 태종 간의 약정에 따르면 신라는 당의 동방전략에 협조

10) 『삼국사기』 권37, 雜志6, 地理4 三國有名未詳地分.

11) 『자치통감』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2년 4월 己酉, “高麗之民多離叛者 敕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留其貧弱者 使守安東” ; 同書 總章 2년 8월 辛亥 “御延福殿 召五品已上謂曰 自古帝王 莫不巡守 故朕欲巡視遠俗 … 自宰相以下莫敢對 詳刑大夫來公敏獨進曰 巡守雖帝王常事 然高麗新平 餘寇尚多 西邊經略 亦未息兵…” ; 특히 복속된 현지 유력자를 도독·자사·현령 등의 지방관직으로 편입시켜 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던 당대 기미주 체제의 일반적인 구조를 고려했을 때, 668년 이래 ‘유공자(有功者)’로서 안동도호부에 포섭되었던 ‘추거(酋渠)·추수(酋帥)’ 계층이 파견된 중국인(華人) 관리와의 갈등·기득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이탈·저항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이러한 ‘이반(離叛)’의 실제였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많다(김종복, 앞의 논문, 2003, 30~33쪽 ; 이정빈, 앞의 논문, 2009, 140~143쪽 ; 장병진, 앞의 논문, 2016, 129~130쪽 ; 방용철, 앞의 논문, 2018, 15~16쪽 ; 김강훈, 앞의 책, 2022, 67~70쪽).

하는 반대급부로서 ‘평양이남(平壤以南)’과 ‘백제토지(百濟土地)’의 영유, 즉 백제·고구려의 평정 및 그 영역의 분할을 합의한 바 있었다.¹²⁾ 그러나 일련의 국면 변화를 거쳐 대략 663년 이래로 당은 앞서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며 한반도 삼국 전체를 다수의 기미주 형태로 나누어 편제·지배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신라에게도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즉 664년 2월·665년 8월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백제(=웅진도독부)와 신라(=계림도독부) 사이의 회맹(會盟)이야말로 그 결정적인 계기로서 파악할 수 있다.

A-①. … 칙서에 따르면 (백제가) 이미 평정된 이후에 서로 함께 만나 맹세하라 하였는데, (신라로서는) 임존(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평정되었다곤 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또 백제는 간사한 속임수가 여러 가지라 항상 이리저리 말을 고치곤 하니 지금 비록 서로 만나 맹세한다고 하여도 이후에 크게 후회할 우환이 있을까 두려워 맹세하는 일을 멈추기를 주청하였습니다. 인덕 원년(664)에 이르러 다시금 엄한 칙서가 내려와 맹세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니, 이에 사람을 웅령(熊嶺)에 보내어 단(壇)을 쌓고 함께 만나 맹세하고, 이내 맹세한 곳을 따라 양국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백제와) 만나서 맹세한 일은 비록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나 감히 칙서를 어기지 못한 것입니다. (665년에) 또 취리산(就利山)에 단을 쌓고 칙사 유인원(劉仁願)을 맞이하여 (백제와) 피를 마시고 맹세하며 산과 강에 서약하기를 (양국의) 경계를 확정하고 꾀말을 세워 영원토록 강역으로 삼아 백성이 와서 살면서 각자 생업을 꾸려나가도록 하였습

12)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貪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新羅百姓具聞恩勅 人人畜力 家家待用 …”

니다. ...¹³⁾

A-②. 그 (맹세한) 글에 이르기를, “대당 인덕 2년(665) 세차 기축 8월 경자삭 13일 임자에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좌위대장군(左衛大將軍)·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주국(柱國) 신라왕 김범민과 사가정경(司稼正卿)·행웅진주도독(行熊津州都督) 부여융 등이 감히 황천(皇天)·후토(后土)·산과 골짜기의 여러 신명에 고하하니, 이전에 백제의 선왕은 순역(順逆)의 도리를 잃어서 이웃과의 우호를 도타이 하지 아니하고 친인척과 화목하지 아니하였으며,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서로 통하여 함께 잔인하고 난폭하게 신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니, 읍을 찢박하고 성을 도륙하여 거의 평안할 날이 없었다. 장정은 전쟁에 끌려나가 괴로워하고, 노약자는 물자를 옮김에 피폐해져서, 그 고혈이 들판의 풀을 적시고 굳어진 시신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 … 황제께서 이에 크게 노하시어 (백성들을) 위문하고 (폭군을) 주벌하는 일을 함께 행하였는데, 깃발이 일어서는 곳마다 불길이 별판을 태우고 번개와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한번 싸움으로 크게 평정되니, 쌓인 위엄이 바다 밖으로까지 전해지고 울리는 가르침이 먼 곳까지 이르렀다. … 그러나 복종하는 이를 풀어주고 배반하는 이를 벌하는 것은 선왕들의 아름다운 법이며,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이어주는 것은 옛 현인들의 공통된 규범이었다. 일은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본받아야 함은 여러 책 꾸러미 속에도 전한다. 그러므로 전 백제 태자인 사가정경 부여융을 웅진도독에 제수하여 그 제사를 지키고 고향의 선조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니, 신라에 기대고 의지하며 길이 나라를 일으킬지이다. 각자 목은 유감을 풀고 신라와 화친을 맺어 함께 황제의 명을 받들어 영원히 번복(藩服)이 될지이다. 이에 사절로 우위위

1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新羅以爲準勅 既平已後 共相盟會 任存未降 不可以爲既平 又且百濟姦詐百端 反覆不恒 今雖共相盟會 於後恐有噬臍之患 奏請停盟 至麟德元年 復降嚴勅 責不盟誓 即遣人於熊嶺 築壇共相盟會 仍於盟處 遂爲兩界 盟會之事 雖非所願 不敢違勅 又於就利山築壇 對勅使劉仁願 歃血相盟 山河爲誓 畫界立封 永爲疆界 百姓居住 各營產業 ….”

장군(右威衛將軍)·상주국(上柱國)·노성현개국공(魯城縣開國公) 유인원(劉仁願)이 친히 임하여 권유하고 황제의 뜻을 갖추어 선포하게 하였다. 혼인으로서 약조하고 맹세와 서약으로 거듭하니, 희생물을 잡아 피를 마시어 시작과 끝을 함께 도타이 하고 재해와 우환을 나누어 구휼하며 은혜를 형제와 같이 할지이다.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감히 실추시키지 말며, 이미 맹세한 이후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지킬지이다. 만약 신의를 저버리고 그 덕을 일정하게 하지 아니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그 무리를 움직여 변경의 땅을 침범한다면, 밝으신 신명이 이를 살피고 온갖 재앙을 내릴지니 그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져 남은 계통이 없도록 할 것이다...¹⁴⁾

특히 위 A-①의 「답설인거서」 중에서도 토로하고 있는바, 신라로서는 이 두 차례의 회맹이란 애초부터 결코 원한 일이 아니었던만 당의 지속적인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반쯤 강제로 참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A-②의 회맹문 내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이 시점에서 당 조정의 한반도 방면 전후 질서에 대한 구상은 즉 백제의 왕위계승자로서 부여융(扶餘隆)이 웅진도독(熊津都督)이라는 직함 아래 백제고

14) 『천지서상지』 권20, 盟誓, “其文曰 維大唐麟德二年歲次己丑八月庚子朔十三日壬子 鷄林州大都督左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柱國新羅王金法敏 司隸正卿行熊津州都督扶餘隆等 敢昭告于皇天后土山谷神祇 往者百濟先王 迷於逆順 不敦隣好 不睦親姻 結託高麗 交通倭國 共爲殘暴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丁壯苦於征役 老弱疲於轉輸 脂膏潤於野草 僵屍遍於道路 … 皇赫斯怒 共行弔伐 旌旗所指 若火燎原 電掃風驅 一戎大定 威積截於海外 聲教被於殊方 …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絕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曩冊 故授前百濟太子司隸正卿扶餘隆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新羅 恭承詔命 永爲藩服 仍遣使人右威衛將軍上柱國魯城縣開國公劉仁願 親臨勸諭 具宣成旨 約之以婚姻 申之以盟誓 刑牲歃血 共敦終始 分災恤患 恩若弟兄 奉綸言不敢失墜 既盟之後 共保歲寒 若有棄信 不恒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陲 明神鑑之 百殃是降 使其子孫不育 社稷無守 禋祀磨滅 罔有遺餘 …”

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또한 신라와도 병존하며 양국이 세세토록 당의 충실한 복속국(藩服)으로 남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사전작업으로서 비록 명목상일지언정 신라를 계림주(鷄林州)로,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으로 설정하였다.¹⁵⁾ 이는 즉 백제와 신라를 각각 당의 관리·감독 아래 동등한 위상을 지닌 두 개의 기미주로서 공인하며 필요시 양측의 분쟁을 중재할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¹⁶⁾ 물론 위 A-②의 문면에 서처럼 당은 표면상으로는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게 한다(興亡繼絶)’라는 도덕적인 수사(修辭, rhetoric)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662년 초반 무렵에 유인궤(劉仁軌)가 수립했던 전략적 구상을 토대로 대(對)고구려 공략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후방 거점으로서 당군이 백제고지를 직접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¹⁷⁾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백제고지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던 신라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그렇기에 앞

15)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3년 4월.

16) 布山和男, 「新羅文武王五年の會盟にみる新羅・唐關係」, 『駿台史學』 96, 1996, 46~49쪽.

17) 『자치통감』 권200, 唐紀16 高宗 龍朔 2년 7월 丁巳, “初仁願仁軌等屯熊津城上與之敕書 以平壤軍回 一城不可獨固 宜拔就新羅 若金法敏藉卿留鎮 宜且停彼 若其不須 卽宜泛海還也 將士咸欲西歸 仁軌曰 … 主上欲滅高麗 故先誅百濟 留兵守之 制其心腹 雖餘寇充斥而守備甚嚴 宜礪兵秣馬 擊其不意 理無不克 旣捷之後 士卒心安 然後分兵據險 開張形勢 飛表以聞 更求益兵 朝廷知其有成 必命將出師 聲援纔接 凶醜自殲 非直不棄成功 實亦永清海表 今平壤之軍旣還 熊津又拔 則百濟餘燼 不日更興 高麗逋寇 何時可滅 且今以一城之地居敵中央 苟或動足 卽爲擒虜 從入新羅 亦爲羈客 脫不如意 悔不可追 …”

18) 김영관,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 정책」, 『선사와 고대』 36, 2009, 74~76쪽.

서 A-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 조정은 고래(古來)로부터 강력한 이념적 권위를 지녔던 회맹(會盟)의 형식을 활용하면서,¹⁹⁾ 명분상으로 신라가 더 이상 백제·고구려고지를 점유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태산(泰山)의 봉선(封禪) 의례와도 연계하여 탐라·왜 등 주변국의 사절들까지도 그 현장에 입회시키며 국제적인 공인까지 얻어내었다.²⁰⁾ 결론적으로 이상의 조치들을 통해 당 조정은 명분과 실질 양 측면에서 공히 기미주 체제라는 자국 중심적 질서를 새로이 평정한 한반도 방면에 선포·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으로 신라로서는 이것이 비록 강요된 질서일지언정 그 명분과 권위로 인해 도저히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²¹⁾

그리고 이처럼 당의 통제 아래 한반도 전역이 여러 기미주로 각자 분할·병존하는 판도를 골자로 하는 일방적인 질서 재편은 668년 이래 고구려고지를 둘러싼 전후처리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으며, 신라도 다시금 여기에서 철저하게 소외·배제되었다. 일례로 당시 신라는 당의 군사정벌에 응해 대규모 병력으로 북상하면서 사수(蛇水, 보통강) 및 평양성 내외의 전투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거두었지만, 당은 그 기여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열홀(比列忽, 안변) 등지의 신라가 기존에 점유하였던 영역조차도 고구려, 즉 안동도호부 관할로 귀속시키도록 요

19) 『周禮註疏』卷36, 秋官司寇, “司盟掌盟載之法[載 盟辭也 盟者 書其辭於策 殺牲取血 坎其牲 加書於上而埋之 謂之載書也 …] 凡邦國有疑會同 則掌其盟約之載及其禮義 北面詔明神 既盟則貳 ….”

20) 『자치통감』 권201, 唐紀17, 高宗 麟德 2년 7월, “上命熊津都尉扶餘隆與新羅王法敏釋去舊怨 八月壬子 同盟于熊津城 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 會祠泰山 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21) 김영관, 앞의 논문, 2009, 80~81쪽.

구했던 것이다.²²⁾

B. …건봉 3년(668)에 대감 김보가를 바닷길로 보내어 영공(李勣)에게 이르러 처분을 받드니, 신라의 병마는 평양으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5월에 유우상(劉右相=劉仁軌)이 와서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여 함께 평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나도 한성주(漢城州)에 가서 군대를 감독하였습니다. 이때 번(蕃, 신라)·한(漢, 당)의 여러 군대가 사수(蛇水)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남건(男建)이 군대를 내어 한 번 싸움으로 결판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라의 군대가 홀로 선봉을 맡아 적의 대진(大陳)을 깨뜨리니, 평양성 안에서는 예봉이 꺾이어 기세가 위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공이 다시금 신라의 날랜 기병 500인을 뽑아서 선봉으로 성문에 돌입시키니 마침내 평양성을 깨뜨리고 큰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라의 병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처음 정벌한지 이미 9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힘이 다하였는데 마침내 두 나라를 평정하였으니 누대에 걸친 소망이 오늘에야 이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당에) 충성을 다한 은혜를 입을 것이요, 사람들은 힘쓴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공이 은밀히 말하기를 “신라는 전에 군대의 기일을 어겼으니 또한 모름지기 헤아려 정할 것이다”라고 하니 신라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공을 세운 군장(軍將)들이 모두 기록되어 조정에 들어갔는데, (당의) 수도에 이르자 곧 말하기를 “지금 신라는 아무런 공훈도 없다”라고 하여 이에 군장들이 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비열성(比列忽, 안변)은 본래 신라

22)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49~250쪽 ; 물론 이후 669년 중에 신라에 의한 동북방면 영토에 대한 진휼(賑恤) 기사가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9年 5月), 실상 안동도호부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신라가 해당 지역들을 적어도 673년 무렵까지는 계속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판단된다(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6쪽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305~306쪽).

(의 영토)였는데, 고구려가 쳐서 얻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그 성을 되찾아서 백성들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이 성을 취하여 고구려(안동도호부)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신라는 백제를 평정할 때부터 마침내 고구려를 평정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에 힘쓰며 당을 등진 적이 없었는데도 무슨 죄인지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비록 이 같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끝내 배반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²³⁾

실상 당연하겠지만 위 「답설인귀서」에서도 보이듯이 신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같은 기미주 체제 하의 질서란 십여 년에 걸쳐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모하며 백제·고구려의 평정에 공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즉 ‘진충지은盡忠之恩’과 ‘효력지상効力之賞’)조차도 없이 사실상 삼국이 대치하던 원 영토로 회귀해야만 한다는 의미였다.²⁴⁾ 그렇기에 이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강요되던 취리산 회맹 무렵에는 신라 지배층의 공통적인 인식으로서 당과의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신라의 뿔’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2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 至乾封三年 遣大監金寶嘉入海 取英公進止 奉處分 新羅兵馬 赴集平壤 至五月 劉右相來 發新羅兵馬 同赴平壤 某亦往漢城州 檢校兵馬 此時 蕃漢諸軍 揚集蛇水 男建出兵 欲決一戰 新羅兵馬 獨爲前鋒 先破大陣 平壤城中 挫鋒縮氣 於後 英公更取新羅驍騎五百人 先入城門 遂破平壤 克成大功 於此 新羅兵士並云 自征伐已經九年 人力殫盡 終始平兩國 累代長望 今日乃成 必當國蒙盡忠之恩 人受効力之賞 英公漏云 新羅前失軍期 亦須計定 新羅兵士得聞此語 更增怕懼 又立功軍將 並錄入朝 已到京下 卽云 今新羅並無功 夫軍將歸來 百姓更加怕懼 又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 又取此城 還與高麗 且新羅自平百濟迄定高麗 盡忠効力 不負國家 未知何罪 一朝遺棄 雖有如此冤枉 終無反叛之心 …”

24)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233~234쪽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9, 97~99쪽.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²⁵⁾ 즉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건 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기미주 체제가 완전히 고착되기 전에 그를 파궤(破毀)하며 처음 약속받았던 ‘평양이남과 백제토지’, 즉 고구려 및 백제 고지의 전후 처리 문제를 보다 신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견인(牽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고려하면 유민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이탈로 인해 당 기미주 체제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던 669~670년 무렵 고구려고지의 동향은 곧 신라가 절실하게 기다려오던 기회나 다름없었다. 특히나 이때 신라는 과거 당이 내세웠던바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게 한다(興亡繼絶)’라는 도덕적인 명분을 역으로 활용하며 유민들의 반당(反唐)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그를 매개로 고구려고지의 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Ⅲ. 한성 고구려국의 역할과 나당전쟁의 추이(推移)

익히 알려져 있듯이 670년 초반 신라는 자국에 대하여 번병(藩屏, 변경을 지키는 제후국)을 자처하였던 검모잠 등 고구려 유민 세력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앞서 ‘흥망계절(興亡繼絶)’의 명분 아래 고구려 왕족 안승을 다름 아닌 ‘고구려왕(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관련 사료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C-①. (총장總章) 2년 기사(669) 2월에 (보장)왕의 서자 안승(安勝)이

25) 김덕원, 「나당동맹의 파탄 과정」, 『신라사학보』 59, 2023, 257~258쪽.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다.²⁶⁾

C-②. (670년 3월) 사찬 설오유(薛烏儒)가 고구려 태□□인 □연무(太□□延武)²⁷⁾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1만을 이끌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옥골(屋骨)에 이르러 □□□하였다. 말갈병이 먼저 개둔양(皆敦壤)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름 4월 4일에 맞아 싸워 크게 이기니 목을 벤 것을 가히 헤아릴 수 없었다. 당병이 이어서 도착하니 우리 군대는 퇴각하여 백성(白城)을 지켰다.²⁸⁾

C-③. (670년 4월) 고구려의 추장 검모잠(鉗牟岑, 검모잠)이 배반하여 변경을 노략질하니 좌감문위대장군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우령군위대장군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²⁹⁾

C-④. (670년 6월) 고구려의 수림성(水臨城) 사람인 모잠 대형(牟岑 大兄)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 합하여 궁모성(窮牟城)에서부터 패강(溍江) 남쪽에 이르러 당의 관리 및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여 갔다. 서해의 사야도(史治島)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의 아들 안승(安勝)을 발견하여 한성(漢城, 재령) 안으로 맞아들여 군주로 삼아 받들었다. 소형 다식(小兄 多式) 등을 (신라에) 보내어 애절하게 고하기를 “망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興滅國 繼絕世)은 천하의 공의(公儀)이니, 오로지 대국(大國)에게 이를 바랍니다. 우리

26)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附, “(總章) 二年己巳 二月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

27) 원문이 훼손되어 글자가 보이지 않으나, 이후 680년에 보덕국에서 신라에 보낸 사절로서 그와 동일인물로 보이는 ‘대장군 태대형 연무(大將軍 太대兄 延武)’라는 인물이 나타나므로(『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20년 5월), 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28)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3월, “沙湊薛烏儒與高句麗太□□□延武各率精兵一萬 度鴨綠江 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待之 夏四月四日 對戰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29) 『신당서』 권3, 高宗本紀 咸亨 원년 4월 庚午, “高麗酋長鉗牟岑叛 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衛大將軍李謹行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나라의 선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신들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얻어 군주로 삼아 받들었습니다. 원컨대 번병(藩屏)이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거처하도록 하였다.³⁰⁾

C-⑤. 사찬 수미산(須彌山)을 보내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삼아 봉하였다. 그 책문에서 말하기를 “함형 원년 경오(670)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이 고구려의 계승자(嗣子) 안승에게 명(命)을 전한다. 그대(公)의 태조(太祖)이신 중모왕(中牟王)은 쌓은 덕(德)이 북쪽 산(北山)과 같고 세운 공(功)이 남쪽 바다(南海)와 같아서 위엄 있는 풍모(威風)가 청구(靑丘)에 떨쳤으며 어진 가르침(仁教)이 현토(玄菟)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이어지고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땅을 개척한 것은 1,000리가 되었고 (나라를 이어온) 햇수는 거의 800년이 되었다. 남건(男建)·남산(男産) 형제의 때에 이르러 재앙이 병풍 안에서 일어나고 골육(骨肉) 간에 틈이 생겨 집안과 나라가 깨어져 없어지고 종묘와 사직이 흔적도 없어지니 살아있는 사람은 혼란에 빠져 마음 둘 곳조차 없었다. 공은 산야에서 위난을 피하다가 홀몸으로 이웃 나라에 의탁하였으니, 떠돌아다니며 겪은 고생은 진문공(晉文公)의 자취와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위후(衛侯, 위선공衛宣公)의 일과 같다. 대저 백성에게는 주인이 없을 수가 없으니, 하늘(皇天)은 반드시 돌보라는 명(眷命)을 내리는 법이다. 선왕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그대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면 누구인가. 삼가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마침내 책명을 펼쳐 공을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아 옛 실마리를 이어 흥하게 하고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섬기면서 공경하고 또 공경하라. 겸하여 땀 2천석과 갑옷을 갖춘

30)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6월,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哀告曰 興滅國繼絕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奉以爲君 願作藩屏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말 1필과 능직물(綾) 5필과 면(絹)·세포(細布) 각 10필과 비단(綿) 15칭을 보내니 왕은 이를 받으라.”라고 하였다.³¹⁾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C군 사료상에 보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670년대 이전, 아마도 669년 무렵부터 신라는 이미 안승 혹은 (고)연무를 비롯한 고구려계 고위층 인물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저항 및 이탈을 은밀히 후원·조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신라가 원해왔던바 한반도 내 당 기미주 질서의 붕괴 및 고구려고지(특히 패강 이남 방면)에 대한 신라 측 영향력의 부식(扶植)을 계획하였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즉 기왕에도 몇 차례 지적된 바 669년 4월 신라로 향했던 안승과의 접촉(C-①), 혹은 고구려 유민 세력과 신라군 간의 연계가 최초로 표면상에 드러났던 670년 3~4월의 옥골·개돈양 전투(C-②)에서부터 마치 여기에 호응하듯 그 직후 발발한 검모잠의 봉기 및 남하(C-③·C-④), 이후 670년 6~8월 안승의 웅립 및 그에 대한 공식적인 고구려왕 책봉(C-⑤)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여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다기보다는 이 모두가 철저하게 기획된 전략적인 포석(布石)에 가깝다는 의심을 떨치기가 힘들기 때

31)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8월, “遣沙浪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公太祖中牟王 積德北山 立刃南海 威風振於青丘 仁教被於玄菟 子孫相繼 本支不絕 開地千里 年將八百 至於建產兄弟 禍起蕭牆 釁成骨肉 家國破亡 宗社湮滅 生人波蕩 無所託心 公避危難於山野 投單身於鄰國 流離辛苦 迹同晉文 更興亡國 事等衛侯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唯公而已 主於祭祀非公而誰 謹遣使一吉浪金順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四 綿十五稱 王其領之.”

문이다.³²⁾ 무엇보다도 때마침 당과 신라 간의 군사·외교적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던 이 669~670년이라는 시점, 아울러 신라와 인접해 있던 한성(漢城, 재령) 등지의 폐강(溟江) 이남 방면이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시공간적인 측면 역시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 과정 배후에는 신라의 명백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여지가 있다. 즉 C-① 기사에 보이는 669년 초 안승의 신라 내투(來投) 등의 사례를 볼 때, 적어도 해당 시점에 신라가 안승 등의 세력과 접촉하면서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³³⁾ 아울러 C-②의 옥골·개돈양 전투 당시 신라군과 연합한 고구려 측 지휘관으로 언급되는 ‘태대형(고)연무’의 사례 역시도 그 경로 및 행군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집단 또한 669년 무렵이나 그 이전부터 이미 신라와 접촉·연계를 취하고 있었으리라 추정이 가능하다.³⁴⁾ 뿐만 아니라 이 고연무 집단의 세력 기반 및 활동 범위 역시도 본래 한성 일대였으리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³⁵⁾ 따라서 669년 시점에 이 한성(漢城, 재령)을 비롯한 폐강 이남 방면을 중심으로 안승과 고연무 등의 고구려계 유민 집단, 그리고 신라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의 형성을 상

32)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80~183쪽.

33)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669년 초반 시점에 안승이 신라와 처음으로 접촉하면서 투항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실현되지는 못하고 당의 강제 사민을 피해 ‘서해 사야도’에 은거했던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안승이 거느렸다고 하는 ‘4천여 호’라는 규모는 당시에 세력 기반으로 삼고자 시도했던 한성(漢城) 일대 광범위한 권역의 유민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강훈, 앞의 책, 2022, 133~136쪽).

34)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2~8쪽 ;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과 설오유 부대」, 『역사교육논집』 45, 2010, 258~259쪽.

35) 이정빈, 앞의 논문, 2009, 144~145쪽.

정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670년 초반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압록강 도하작전 및 검모잠의 거병이라는 연쇄반응이 촉발됨에 따라, 요동 방면에서 남하한 검모잠 집단과 한성 방면의 고연무 집단이 신라의 후원 아래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계승자(嗣子)’로서 공인된 안승의 존재를 매개로 결합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이라는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졌던 셈이다.³⁶⁾

그런데 신라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을 적극 후원했던 것일까? 우선 실질적인 전략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성 고구려국 스스로가 자처했던 대로 신라의 ‘번병

36) 특히 『당회요(唐會要)』나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서는 670년 4월 시점의 기사 중에 검모잠의 거병부터 안승의 응립, 검모잠의 살해 및 안승의 신라 망명까지의 장기간의 모든 추이가 한꺼번에 압축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C-③의 『신당서(新唐書)』 본기 기사와 대조해보면 이 670년 4월은 곧 검모잠이 최초로 거병하여 ‘구변(寇邊)’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였으며, 그를 인지한 당 조정에서 연산도·동주도행군의 토벌군을 편성했던 시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임기환, 앞의 책, 2004, 329~331쪽;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46~147쪽;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5~96쪽;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78~182쪽; 김강훈, 앞의 책, 2022, 81~88쪽). 아울러 최근 이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로 언급되는 궁모성(窮牟城) 등을 요동 방면의 개모성(蓋牟城, 선양) 등으로 비정하며 검모잠 집단이 이후 안승·고연무 세력과의 접촉 및 신라와의 연계를 위해 패강 이남 방면으로 남하했던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들도 제기된 바 있는데(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2, 2014, 68~76쪽; 이상훈, 앞의 논문, 2023, 139~141쪽; 김강훈, 앞의 책, 2022, 88~115쪽), 그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군의 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던 옥골·개돈양 전투 역시 이러한 검모잠의 거병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C-②에서 보듯 이 설요유·고연무 등이 큰 전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병이 도착하자 더 이상 교전을 확대하지 않고 빠르게 철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이들의 작전 목적이 검모잠의 거병 및 패강 방면으로의 남하를 지원·엄호하는데 한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83~186쪽).

(藩屏)’으로서 서북방면의 최전방에 자리 잡아 예상되는 당의 침공 경로를 한정시키고 그 시기 역시 지연시키면서 북방전선을 상당 기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³⁷⁾ 특히 한성 고구려국이라는 정통성을 갖춘 구심점의 등장을 계기로 고구려인들의 항쟁 역시도 가깝게는 옛 수도인 평양 인근에서부터 멀게는 안시성 등 요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던 정황이 나타난다. 이는 결국 요동-서북방면의 육로를 통한 당군의 남하를 극히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³⁸⁾ 이 와중에(670~672) 신라로서는 백제고지를 전격적으로 장악하는 한편,³⁹⁾ 임진강·한강 유역 등의 북방 변경

37) 같은 시기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원산만 일대의 장악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즉 이 한성 고구려국 및 신라 관할 하의 비열홀·천정군 등지를 각각 서북방면과 동북방면에서 당군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전선의 두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무렵 신라가 구상했던 대전략이었으리라 생각된다(권창혁, 앞의 논문, 2019, 305~309쪽).

38) 670년 초반 처음 편성되었던 고간·이근행의 2개 행군 4만 병력은 실상 671년 후반까지도 안시성(安市城) 등 요동 방면의 저항 세력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구당서』 권84, 列傳34, 郝處俊 ;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2년 7월 乙未朔.). 더하여 이 시점에서 고간·양방 등이 본래 평양에 소재하던 안동도호부를 요동 방면으로 이전했던 조치도 확인된다(『책부원귀』 권429, 將帥部90, 拓土 ;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또한 671년·672년경 한반도에 진입한 고간 등의 행군이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던 지점으로서 평양성 자체, 그리고 그에 인접하여 대동강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점성들로 비정되는 마읍성(서학산성)·한시성(적두산성) 등이 언급되는데(『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6년 9월 ; 同王 7년 7·8월), 이는 역으로 당시까지 이러한 지점들이 당군의 적대세력(즉 고구려군, 혹은 신라군)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는 의미인 만큼 한성 고구려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이 적어도 평양 인근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3~154쪽 ;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 2017, 312~313쪽 ; 이상훈, 「나당전쟁기 고구려 한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아시아고대학』 67, 2022, 236~245쪽 ;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92쪽 ; 김강훈, 앞의 책, 2022, 168~181쪽).

39)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7월,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湊儒

에 대한 방어망 및 보급체계 등을 확충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⁴⁰⁾ 또한 이 시점에 당군은 육상을 통한 한반도 방면 진입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부득이 해상을 통해 제한적인 공세 혹은 보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 수군이 이를 차단·격퇴하는 과정에서 서북한 연안 등 현지의 방어체계 및 지리를 잘 아는 한성 고구려국의 조력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⁴¹⁾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신라에게 있어 한성 고구려국이란 나당 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과 이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나 당이 강요하던 한반도 방면 기미주 체제에 대항하는 한편, 신라가 자국을 중심으로 역내의 제(諸)집단을 하위에 복속·통합할 수 있는 논리로서도 이 한성 고구려국의 사례를 적극 활

敦於熊津都督府請和不從乃遣司馬禰軍窺覘王知謀我止禰軍不送舉兵討百濟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攻取城六十三徙其人於內地天存竹旨等取城七斬首二千軍官文穎取城十二擊狄兵斬首七千級獲戰馬兵械甚多…”

40) 관련하여 주장성(畫長城, 남한산성)·국원성(國原城, 대림산성) 등과 같이 나당 전쟁 중 한산주(漢山州) 관내에 신·증축된 대규모 성곽들의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성곽들은 그 축성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669~672년 사이에 이미 계획 및 착공이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축조 목적 또한 입보용 방어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하여 한성 고구려국 지원 등을 위해 북방으로 투입될 인력 및 물자의 집결·보급 등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권창혁, 「나당전쟁기 한산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군사』 129, 2023, 292~298쪽).

41) 김강훈, 앞의 책, 2022, 176~177쪽; 특히 이 시기 신라가 ‘문두루비밀법(文豆婁秘密法)’으로 당군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하였다는 기록에서 연안에 나타난 당군 함대를 발견하고 그 동향을 신라 조정에 알린 주체로서 현지의 고구려 세력으로 추정되는 ‘정주(貞州, 현 개풍군 일대)에서 보낸 사자[貞州使]’가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삼국유사』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비록 설화적인 요소로 윤색되어 있긴 하지만 나당전쟁 시기 황해 연안에 걸친 신라 수군의 활동에 있어서 한성 고구려국과의 협조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용하였다는 점은 재차 주목할 만하다. 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성 고구려국, 즉 고구려의 재건이란 ‘한반도 삼국에 대한 기미주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수년간에 걸친 당의 구상과 정책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였다. 그리고 C-④·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신라가 상위의 ‘대국(大國)’을 자처하며 책봉 등의 의례를 거쳐 공인하였다는 사실 역시도 추후 고구려의 영토와 정통성 등에 대해 신라도 어떠한 연고권 혹은 지분을 주장할 여지도 남기는 것이기도 했다.⁴²⁾ 애초에 당은 회맹의 강요나 신라군의 공헌을 일체 묵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라가 백제·고구려고지에 진출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두었다. 그러한 만큼, 신라로서는 당의 명분과 논리를 우회하면서 고구려고지 등에 진출·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는 ‘청구靑丘’, ‘삼한三韓’, ‘해동삼국海東三國’ 등으로 표상되던 한반도 방면의 전후 질서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멀리 당 조정이 아니라 바로 신라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선언으로도 파악할 여지가 있다.⁴³⁾ 말하자면 이 ‘고구려왕’에 대한

42)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88~89쪽 ; 이재석, 앞의 논문, 2010, 39~40쪽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50~54쪽.

43) 최근 당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삼국지(三國志)』·『후한서(後漢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고조선 및 사군(四郡)의 옛 땅’으로 인식되던 평양 일대부터 그와 밀접한 관계 아래 ‘삼한’으로 지칭되던 한반도 중·남부까지 고대 한반도의 역사 지리적 공간 전반을 포괄하는 세계관으로서 ‘표상(表象)으로서의 삼한’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즉 7세기 무렵의 신라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영토인 ‘평양이남과 백제토지’이자 중국과 구별되는 ‘아세계(我世界)’로서 ‘일통(一統)’을 달성해야할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어 참고가 된다(기경량,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 128, 2019, 211~225쪽).

신라의 책봉은 사실상 이전 당이 강요했던 취리산 회맹의 패러디(parody)로서, 당이 내세우던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도록 한다(興亡繼絶)’라는 명분을 역으로 신라가 고구려(한성 고구려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되갚아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념적 측면에서 이러한 ‘흥망계절(興亡繼絶)’이란 왕자(王者)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책무이자 그러한 존재만이 실현할 수 있는 천하의 ‘공의(公義)’로서 인식되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⁴⁴⁾ 그렇다면 이른바 ‘해동천하(海東天下)’, 혹은 ‘표상으로서의 삼한(三韓)’이라는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큼은 곧 신라의 ‘대왕(大王)’이야말로 그러한 도덕적 위상과 실현시킬 힘을 보유한 ‘왕자(王者)’로서의 면모를 갖춘 존재라는 점을 고취·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⁵⁾

또한 익히 지적된바 이 시기 대왜(對倭) 외교에 있어서도 신라 사절단과 ‘고려(高麗)’의 사절단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왜국(倭國)에 파견되어 있거나 혹은 이 ‘고려(高麗)’의 사절단 중에 신라 측의 관인이 송사(送使)의 형태로 포함되던 양상도 많은 참고가 된

44) 즉 이 ‘흥망계절(興亡繼絶)’이란 하(夏)·상(商) 전대왕조의 후예를 우대했던 주 무왕(周武王)의 덕을 칭송한 『논어(論語)』 「요왈편(堯曰篇)」의 구절에서 유래한 관념으로, 춘추시대 이래 이는 동아시아 세계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관례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및 수·당대를 거쳐 이왕후(二王後)라는 형태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박초롱, 앞의 논문, 2017, 119쪽~137쪽). 그러한 만큼 취리산 회맹 당시에도 당 조정은 표면상 그 같은 수사를 내세우면서 외세의 권위와 의미를 한층 드높이는 한편 천하의 질서를 주재하는 왕자(王者)로서의 위상을 구현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추명엽, 앞의 논문, 2022, 39~40쪽), 이것이 당장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을지언정 신라에게 있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

45) 임기환, 앞의 책, 2004, 335쪽 ; 박초롱, 앞의 논문, 2017, 139~142쪽.

다.⁴⁶⁾ 즉 관련하여 과거의 강국 고구려조차도 하위에 거느릴 정도로 명실상부 한반도 방면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신라의 위세를 왜국 측에 인식시키려는 조치로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⁴⁷⁾ 이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라가 ‘고구려왕’의 책봉을 매개

46) ‘고려(高麗)’, 즉 한성 고구려국 혹은 보덕국의 대왜 사절 파견 시 신라 송사(送使)가 동행했던 사례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이제석, 앞의 논문, 2010, 43쪽 각주 17에서 발췌 및 수정 보완함).

연대	고구려 사절	신라 송사	비고
671년 정월	上部 大相 可婁	-	-고구려의 可婁 등은 8월 중 귀국. -670년 10월 신라에서는 沙湊 金萬物 등을 파견, 12월 귀국.
672년 5월	前部 富加拏	-	-672년 11월에는 신라에서는 金押實 등이 파견, 築紫에서 향응을 받고 12월 귀국. -高麗 富加拏의 별도의 귀국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월 중 金押實의 귀국편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
673년 8월	上部 位頭大兄 邯子 前部 大兄 碩干	韓奈末 金利益	-673년 6월부터 신라에서는 金承元·金薩儒 등이 파견되어 있었음. 송사로는 貴干 寶 등이 동행하여 직후 귀국. -金承元은 9월 難波 入京 후 향응, 11월 입자일에 귀국. -신라의 金薩儒, 고구려의 邯子 등은 11월 입신일에 築紫에서 향응, 정황상 이때 함께 귀국한 것으로 추정
675년 3월	大兄 富干 大兄 多武	級浪 朴勤修 大奈末 金美質	-신라의 朴勤修 등은 고구려의 富干와 동일한 입국기사 중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송사로 추정 -675년 2월부터 신라에서는 王子 金忠元 등이 파견되어 있었음. 송사로 奈末 金風那 등이 동행하여 3월 중 귀국. -金忠元 등은 4월에 難波 入京, 이후 8월 병신일에 難波에서 귀국. -고구려의 富干 일행(*송사 朴勤修 등 포함)은 8월 기해일에 築紫에서 향응 후 귀국.
676년 11월	後部 主簿 阿于 前部 大兄 德富	大奈末 金楊原	-같은 시기 신라에서는 沙湊 金淸平 등이 파견되어 있었음. 송사로는 奈末 被珍那 등이 동행하였으며 숙신(肅愼) 사람 7인도 동행하였음. -金淸平 등은 677년 3월 難波로 입경하였으며, 송사 등은 4월 築紫에서 귀국. 정황상 고구려의 阿于 일행도 이때 築紫에서 동행하여 귀국한 것으로 추정. -金淸平 등은 677년 8월 귀국.

로 얻고자 했던 대내외적인 명분 및 이념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신라가 당을 종주(宗主)로 하는 기존의 동아시아 천하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거나 혹은 당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 했다는 등의 이른바 ‘자주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외교상 완곡어법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답설인귀서」에서도 일단은 ‘끝내 배반하려는 마음은 없다(終無反叛之心)’라고 술회하였던 점도 그러하다. 즉 신라는 비록 명목상이긴 해도 당대의 국제적인 관례상 당 조정이 가지는 권위를 존중하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고구려·백제 양국 평정 과정에서의 수많은 기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당 태종이 직접 약조했던 ‘평양이남 백제토지’의 할양 등의 문제를 재론(再論)하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설정된 일정 권역(즉 ‘삼한’ 혹은 ‘해동’)에서만은 신라를 가장 우위에 두고 전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신라의 의지에 따라 이 방면의 전후 정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이것이 「답설인귀서」 전체를 관통하는 요체이자 당 조정에 대한 신라

679 년 2월	上部 大相 桓父 下部 大相 師需婁	奈末 甘勿那	-679년 10월에는 신라에서 阿湌 金項那 등이 파견, 680년 6월에 귀국. 정황상 고구려의 桓父 등은 여기에 동행하여 귀국한 것으로 추정. -680년 11월에는 신라에서 沙湌 金若弼 등이 파견, 681년 6월에 築紫에서 항응, 681년 8월에 귀국. -고구려의 卬間 등은 681년 5월 築紫에서 항응 후 귀국. -682년 8월 築紫에서 항응, 정황상 이때 귀국으로 추정.
680 년 5월	南部 大使 卯間 西部 大兄 俊德	奈末 考那	
682 년 6월	下部 助有卦婁毛切 大古昂加	大那末 金釋起	

47) 이재석, 앞의 논문, 2010, 43~49쪽.

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신라는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목·의례상의 종주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언정,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을 중심으로 설정한 한반도 역내에서 만큼은 여타 제(諸)세력을 평정·복속시킨 우월한 위상을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해계모니를 장악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앞서 C-⑤의 안승에 대한 책봉문 중에 ‘이웃나라(隣國)’, ‘형제(昆弟)’와 같은 일견 대등한 관계가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왕’이 ‘하늘(皇天)’을 대리하여 ‘고구려왕’을 ‘책봉(冊封)’한다는 명백한 상하 위계가 동시에 발현되던 일견 이중적이고 모호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⁴⁸⁾

이처럼 당시 신라에게 있어 한성 고구려국의 존속이란 실질적인 전략과 이념상의 명분 양 측면에서 공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한 만큼 671~672년 무렵부터 당군의 한반도 방면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한성 고구려국을 위해 신라가 총력을 기울여 대규모 지원 병력을 파견하였던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듯이 672년 8월의 석문전투를 비롯한 여러

48) 추명엽, 앞의 논문, 2022, 45~46쪽 ;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54~257쪽 ; 아울러 당에서도 주변국에 대해 언제나 종藩(宗藩) 관계로서의 번신례(藩臣禮)의 원칙만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며, 토번(吐蕃)·위구르(回紇)의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구생례(舅甥禮)·형제례(兄弟禮) 등 구속력이 얇은 명목상의 일가(一家)로서의 상하 위계에 그치는 외교관계 및 의례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완석, 「당대 국제관계와 외교체제의 변용」, 『중국중세사연구』 38, 2015, 230~243쪽). 한편 그러한 만큼 이 시기 신라의 경우에도 한성 고구려국, 그리고 이후의 보덕국에 대해 시기와 상황을 달리하며 안승을 매개로 일종의 형제례(兄弟禮) 혹은 구생례(舅甥禮)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 참고가 된다(최희준, 「7세기 신라의 영접의례 구성-당·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9, 2021, 96~97쪽).

전투에서 신라-고구려 연합군은 잇따라 당군에게 참패하였다.⁴⁹⁾ 그에 따라 신라로서는 기존에 구상하였던 북방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즉 한성 고구려국의 존속을 전제로 이들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평양(패강) 이남’, 더 정확하게는 평양 일대-원산만 일대를 잇는 두 축선 이하의 권역에 대한 당의 간섭 배제 및 신라의 영향력 강화를 달성한다는 전쟁 초반의 대전략은 이미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⁵⁰⁾ 실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신라군은 김유신(595~673)의 조언에 따라 요해처(要害處)의 수성(守城)을 위주로 하는 지구전 전략을 채택하였으며,⁵¹⁾ 그에 따라 왕경으로 통하는 주요 남하 경로에 걸쳐 대규모 성곽을 신축 혹은 수·개축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수세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⁵²⁾ 더 나아가 동북방면으로는 비열홀(안변) 일대까지 진출해 있던 주(州, 정亭)를 후방의 우수주(牛首州, 춘천)로 이동시키는 한편,⁵³⁾ 서북방면으로는 호로하(임진강)·왕봉하(한강 하류)를 경계로 삼아 당군과 교전하는 등,⁵⁴⁾ 대(對) 북방 전선 역시 전반적으로 퇴축하는 모습도 나타난다.⁵⁵⁾

49)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2년 7·8월 ; 同書 권42, 列傳3, 金庾信 下附 金元述 ; 『구당서』 권5, 本紀5 高宗 下 咸亨 3년 是冬 ;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3년 12월.

50) 권창혁, 앞의 논문, 2019, 308~309쪽 ;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96~198쪽.

51) 『삼국사기』 권42, 列傳3, 金庾信 下附 金元述, “...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 對曰 唐人之謀 不可測也 宜使將卒 各守要害...”

52)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 65~69쪽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 82~88쪽.

53)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六停, “... 四曰 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54)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9월, “唐兵與靺鞨契丹兵 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瀘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55) 권창혁, 앞의 논문, 2019, 307~308쪽 ;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97~198쪽.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의 지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성 고구려국 역시도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어 당군의 추격을 피해 신라 영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그 양상을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①. (함형 4년, 673) 윤5월 정묘에 연산도총관(燕山道總管) 이근행(李謹行)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들을 호로하(瓠盧河)의 서쪽에서 크게 깨뜨렸다. 고구려의 평양(平壤)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달아나 신라로 들어갔다.⁵⁷⁾

D-②. 이근행은 연산도총관·우령군대장군이 되어 함형 4년(673)에 호로하의 서쪽에서 크게 깨뜨리고 수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로부터 평양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달아나 신라에 투항하였다.⁵⁸⁾

D-③. 총장 2년(669)에 고구려 백성 3만 명을 강(江, 강남江南)·회(淮, 회남淮南)·산남(山南)으로 옮겼다. 대장 검모잠(鉗牟岑, 검모잠)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하여 보장왕의 외손 안순(安舜,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조서를 내려 고간을 동주도(東州道), 이근행을 연산도(燕山道)로 아울러 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사평태상백(司平太常伯) 양방(楊昉)을 보내어 (고구려의) 망하고 남은 무리를 거두어 달래도록 하였다.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고간은 도호부의 치소(治所)를 요동주(遼東州)로 옮기고 (고구려의) 반란군을 안시성(安市城)에서 깨뜨리고 또 천산(泉山)에서 패배시키며 신라의 원병 2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은 (고구려군을) 발로하(發盧河)에서 깨뜨리고 다시 싸워서 사로잡고 귀를 벤 것이 1만이 넘었다. 이에 평양의 쇠약해진 잔당들은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여 연이어 신라로 달아나니, 그리하여 4년 만에 이내 평정되었다.⁵⁹⁾

56) 김강훈, 앞의 책, 2022, 185~186쪽.

57) 『구당서』 권5, 本紀5 高宗 下 咸亨 4년, “閏五月丁卯 燕山道總管李謹行 破高麗叛黨於瓠盧河之西 高麗平壤餘衆 遁入新羅.”

58) 『책부원귀』 권358, 將帥部19 立功11, “李謹行 爲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 咸亨四年 大破高麗叛徒於瓠盧河之西 俘獲數千人 自是平壤餘衆 走投新羅.”

59)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總章二年 徙高麗民三萬於江淮江南 大長鉗

특히 위 D군 사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673년 윤5월 이근행이 ‘호로하의 서쪽(瓠盧河之西)’, 즉 신라와의 국경지대인 임진강 북안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크게 격파하자 그로 인해 이후 ‘평양에 남아있던 무리(平壤餘衆, 혹은 平壤殘)들이 군대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빠져 신라로 달아났다는 내용을 전한다. 또한 669년 이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추이를 서술한 D-3의 『신당서(新唐書)』 열전의 경우에는 ‘4년 만에 이내 평정되었다(凡四年乃平)’라고 부연하여, 이 673년의 전투를 계기로 한성 고구려국의 소멸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당 측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⁶⁰⁾ 여기의 ‘고려평양여중(高麗平壤餘衆)’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전부터의 여러 정황이나 옛 수도인 평양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안승이나 고연무 등의 한성 고구려국 수뇌부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⁶¹⁾ 그렇다면 D군 기사들의 내용이란 적어도 해당 시점까지는 한성 고구려국이 형식상이거나 존속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전황 악화 및 군사력 소모를 버티지 못하고 서북방면의 원 근거지를 벗어나 신라에 의탁하여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던 상황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무렵 기존의 북방 전선을 상당 부분 퇴축·조정시키면서 본토를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던 신라의 전략상 변화를

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偁 東州道 李謹行 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舜殺鉗牟岑走新羅 偁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于發盧河 再戰 俘馘萬計 於是平壤殘不能軍 相率奔新羅 凡四年乃平。”

60) 김강훈, 앞의 책, 2022, 185~186쪽.

61)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 이후 어느 시점에서 국왕의 권위 확립 등을 위해 안승의 주도로 한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강훈, 앞의 책, 2022, 169~170쪽).

고려하면, 본래 그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신라 영내로의 이동 자체가 신라 측의 제안이나 요구를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 C-④나 D-③과 같이 여러 사료상에서 670년 초반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안승의 신라 내 투 및 금마저 안치 등은 실상 위와 같은 673년 윤5월 전투 이후의 상황들을 소급하여 혼입(混入)시킨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⁶²⁾ 물론 사료의 서술을 그대로 따라서 이 모두를 670년 초반에 일어난 사건들로 보는 견해들도 아직은 적지 않다.⁶³⁾ 그러나 그 같은 사료들의 서술 방식 등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이는 아마도 D-③ 등의 경우처럼 하나의 기사 중에 장기간에 걸친 사건의 경과를 일괄하여 기술하며 또 여러 다양한 증거들을 수합·반

62) 손영종, 앞의 책, 2000, 151~152쪽 ; 임기환, 앞의 책, 2004, 328~336쪽 ; 정선여, 앞의 논문, 2010, 86~90쪽 ;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9~164쪽 ; 방용철, 앞의 논문, 2021, 216~218쪽 ; 권창혁, 앞의 논문, 2021, 180쪽 ; 김강훈, 앞의 책, 2022, 185~186쪽.

다만 검모잠의 피살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권 수립 직후인 670년 8월 무렵으로 추정하는 견해(김강훈, 앞의 책, 2022, 161~162쪽)와 신라 내투를 전후한 672~673년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하는 견해로 나뉜다(손영종, 앞의 책, 2000, 151쪽 ;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60쪽 ; 방용철, 앞의 논문, 2022, 217~218쪽). 후술하겠지만 한성 고구려국 내부에서도 대체로 안승·고연무와 같은 고위층과 검모잠과 같은 중하층 실력자 사이에 특히 대(對)신라 관계를 둘러싼 인식과 노선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파악한다면, 실제 그것이 직접적인 대립으로 드러날 만한 상황은 고구려고지를 떠나 신라 영내로 이동해야 했을 673년 이후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안승에 의한 검모잠 살해 시점 역시 후자 쪽의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한다.

63) 池内宏, 앞의 책, 1960, 261~266쪽 ; 村上四男, 앞의 책, 1976, 225~226쪽 ;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7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18, 9~11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23, 111~115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51~53쪽 ; 김수진, 앞의 논문, 2020, 20~26쪽 ; 井上直樹, 앞의 책, 2021, 429~432쪽 ;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43~244쪽.

영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두찬(杜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⁶⁴⁾ 아울러 여타의 정확을 고려해 보더라도, 정권 성립 직후인 670년부터 이미 주요 인사가 살해되고 국왕이 타국 영내로 망명할 정도로 내분 및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이후 서북방면의 현지에는 사실상 수뇌부가 와해된 잔여 세력만이 남은 채로 신라와 연계를 유지하거나 당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으리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역시 납득이 어려운 것이다.⁶⁵⁾ 즉 안승은 670년 즉위한 이래 한성 고구려국의 국왕으로서 673년 무렵까지도 평양·한성 등지의 고구려고지에 머물면서 부흥운동을 지도하였으나, 673년 윤5월의 결정적인 패전

64) 권창혁, 2021, 앞의 논문, 180~182쪽 ; 특히 『통전(通典)』·『당회요(唐會要)』 등의 선행하는 문헌들에서는 안승의 김모잠 살해 및 신라 내투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통전』 권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 『당회요』 권73, 安東都護府), 한편 『책부원귀(冊府元龜)』 장수부(將帥部)에서는 고간(高侃) 등의 행군 편성 이래 장기간의 추이를 서술하면서 명확한 일시는 기재되지 않은 채로 안승의 김모잠 살해 및 망명 관련 내용이 삽입되었다(『책부원귀』 권429, 將帥部90, 拓土 楊防). 최종적으로 이 시점을 670년으로 편년한 것은 다름 아닌 『자치통감(資治通鑑)』이었다(『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원년 4월). 유통 과정 및 전거 등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앞서의 다양한 전거자료들을 통합하여 편년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본래 장기간의 추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괄 670년의 단일 기사 중에 합쳐서 정리해버린 탓에 두찬(杜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65) 아울러 671년 7월 무렵 작성된 『설인귀서(薛仁貴書)』에서도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과 관련한 안승의 행보를 ‘북쪽 해안(北岸)’에 머무르며 신라가 오히려 이를 ‘외부의 원군(外援)’으로 여긴다고 언급하였던 만큼(『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설인귀서」, “...又高麗安勝 年尙幼冲 遺壑殘郭 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 匪堪襟帶之重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 特爲外援 斯何謬也...”),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당시 안승이 신라의 영역 바깥, 즉 고구려고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재차 방증된다(임기환, 앞의 책, 2004, 330~331쪽 ;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9쪽 ; 김강훈, 앞의 책, 2022, 174~175쪽).

이후 살아남은 한성 고구려국의 잔여 세력(아마도 4,000여 호 남짓 규모의)을 인솔하여 동맹인 신라 영내로 이동, 신라 측과의 협의를 거쳐 673년 후반~674년 초반 무렵에야 비로소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행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74년 9월 신라는 안승에 대하여 ‘보덕왕’으로 다시금 책봉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 (674년 9월) 안승을 책봉하여 보덕왕(報德王)으로 삼았다. 【(문무왕) 10년(670)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지금 다시 책봉한 것이다. ‘보덕(報德)’이라는 말이 명(命)에 따라 귀의한다는 말 등과 같은지 혹은 지명인지는 알지 못한다.】⁶⁶⁾

기왕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이 674년의 ‘보덕국(왕)’ 책봉은 그 명칭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이전보다도 신라에 대한 종속적인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었다.⁶⁷⁾ 아울러 신라의 입장에서 이

66)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9월, “封安勝爲報德王. 【十年 封安勝高句麗王 今再封 不知報德之言 若歸命等耶 或地名耶.】”

67) 이 ‘보덕(報德)’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의 ‘곧음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는다(以直報怨 以德報德)’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즉 신라왕이 베푼 은혜를 덕으로 갚으라는 전형적인 시혜자로서의 표현으로 파악된다(조범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2015, 『한국고대사연구』 78, 113~114쪽). 다른 한편 이를 당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 실제적·정치적 책봉관계인 본국왕(本國王)과 의례적·이념적 칭호인 덕화왕(德化王)의 개념(金子修一,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2001, 175~176쪽)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들도 있다(李成市, 「6~8世紀の東アジアと東アジア世界」, 『日本歴史(2)』, 岩波書店, 2014, 233쪽 : 김강훈, 앞의 책, 2022, 188쪽). 그와 같이 본다면 신라는 안승과의 관계에 대해 고구려왕(한성 고구려국) 책봉 시점에서는 ‘본국왕’을, 이 보덕국왕 책봉 시점에서는 ‘덕화왕’으로서의

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가급적 탈색시킴으로서 당 조정과의 외교적인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복안이기도 하였으리라 이해된다.⁶⁸⁾ 즉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과 어느 한쪽이 멸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극단적인 총력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념상으로는 당의 천하질서를 수용하되 그 중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한정해서 만큼은 신라의 역내 헤게모니를 인정받는 것이었던 만큼 굳이 필요 이상으로 당 조정을 자극하는 요소는 회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부흥운동의 기세에 편승하며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적극적·공세적인 북방전략의 결과 도리어 672~673년에 걸쳐 일련의 참패를 맛보았던 신라로서는 당과의 협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직전인 674년 1월 무렵에 당 조정에서는 이미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협력 등을 문제 삼아 대규모 행군을 편성하며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전면적인 침공을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⁶⁹⁾ 이후 이어진 보덕왕

관계 및 대우를 상정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68) 익히 지적된바 671년 작성한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에서도 신라 측은 당이 지목했던 한성 고구려국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해당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당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植田喜兵成智,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설인귀·문무왕서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 85, 2023, 107쪽). 그렇다면 ‘한성 고구려국’이라는 실체가 사실상 소멸한 이 674년 시점에서 ‘고구려왕’이라는 기왕의 정체성을 대체하여 굳이 ‘보덕왕’이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다시금 부여한 것 역시도 앞서의 맥락과 같이 숙적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라면 극히 신경질적으로 나오던 당 조정의 반응을 의식한 조치였을 개연성이 상정된다.
- 69)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上元 원년 1월 壬午,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 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討新羅 時新羅王法敏 旣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책봉 조치 역시 그에 대한 신라 측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672~673년의 상황을 거치며 서북방면의 근거지를 대부분 상실한 채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던 한성 고구려국의 잔여 세력은 이제 실질적인 전략의 측면에서는 더이상 활용할 만한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옛 고구려의 공인된 계승자이면서도 신라 ‘대왕’에게 자발적으로 귀의·복속하였다는 이중적인 위상을 가진 존재인 안승을 매개로 삼은 명분 및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가치만이 남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신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본래 서북방면에서 이들 고구려 유민 집단의 군사적 역할(즉 ‘외원外援’)에 대한 기대감 하에 ‘형제(昆弟)’, ‘이웃나라(隣國)’처럼 열린 상하관계를 내포하되 어느 정도는 대등한 동맹 관계로서의 성격도 남아있었던 것이 670년의 ‘고구려왕’ 책봉이었다. 그러나 673년 이래로는 그러한 전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 영내에 고구려 유민들이 대단위로 유입·정착하여 자치를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상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라도 그 수장과의 상하 위계를 다시금 자리매김하며 신라 ‘대왕’ 아래의 번국(臣후), 즉 군신관계로의 전환을 꾀해야만 했던 것이 674년의 ‘보덕왕’ 책봉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674년을 전후하여 보덕국에서는 국왕 안승 스스로도 신라에 대해 ‘신(臣)’을 자칭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도 재차 주목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와 일통 이념의 구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군의 한반도 방면 남하가 본격화된 672~674년 이래 한성 고구려국은 사실상 소멸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D군 사료에서처럼 안승을 위시한 잔여 세력이 호로하(임진강)를 건너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던 정황이 나타난다. 군이 비유하자면 이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바 전화(戰禍)를 피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무장 난민 집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이질적인 정체성 및 전투력을 유지한 대규모 고구려계 주민 집단의 유입 자체는 신라 측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상정 가능하다. 일례로 식량이나 질병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하여 문화 및 관습의 차이로 인한 기존 신라 주민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로서는 더더욱 영내로 유입되고 있던 이들 고구려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인데, 신라에 의한 보덕국의 형성 및 금마저(익산) 안치를 그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으리라 본다. 즉 이러한 고구려인들은 곧바로 자국민으로 흡수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무분별하게 왕경이나 여타 신라 영역 내에 자유롭게 정착하도록 허용하기도 난망한 일이었다. 따라서 신라 조정에서는 안승 등의 친(親)신라적인 지도층을 매개로 이들 고구려인 집단을 일괄하여 명목상 신라에 복속된 번국의 형태로 편제하는 한편, 금마저라는 특정 변경 지역에 집단적으로 안치하도록 함으로서 통제 혹은 감시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⁷⁰⁾ 아울러 기왕에 익히 지적되어온 바와

70) 다른 한편 금마저, 즉 익산 일대의 지형적 특성 역시 남북 방면으로는 금강 하

같이 이 금마저라는 지역은 무왕 대 이래 백제의 핵심지역으로서 백제 계통의 재지세력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여기에 고구려인을 새로이 정착시키며 상호 간 견제에 따른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유도했으리라 이해할 여지도 있겠다.⁷¹⁾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들 고구려인을 구태여 기존 신라인들의 거주 지역에 정착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보다는, 차라리 비록 새로이 확보하였을지언정 아직은 확실한 통제가 어려웠을 백제고지 방면의 변경으로 보내어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양측 모두가 자연히 소모·약화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라로서는 더 나아가 이를 단초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이들 고구려인들을 점차 체제 내로 흡수·동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674년 이래 당의 전면 침공이 예고되면서 나당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불리 고구려인들을 자극하며 불필요한 내부적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 역사가급적 피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적어도 나당전쟁이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깝게 일단락될 때까지는 ‘신라 영내에서 일정 범위의 자치가 허용된 번국(藩國)’으로서의 보덕국이라는 일견 과도기적인 형태

류와 만경강의 두 수계 사이에 둘러싸이고 동쪽 방면으로는 금산·무주·진안 등지의 산간 지역과 인접하였기에 서해안 방면의 해로를 제외하면 공간적인 확장 및 외부와의 연계 등이 어려운 폐쇄적인 형세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조법중, 앞의 논문, 2015, 115~117쪽). 그렇다면 이 역시도 신라가 보덕국을 안치할 지역으로 굳이 금마저를 택하였던 이유 중 하나로서, 위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이동 및 확장에 대한 제약과 함께 감시·통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리라 본다.

7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1982, 299~300쪽; 김수태, 앞의 논문, 1993, 347~348쪽; 조법중, 앞의 논문, 2015, 101~114쪽.

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678년 당 조정에서는 장문관(張文瓘)의 간언에 따라 신라 재침공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는데,⁷²⁾ 아마도 그러한 당 측의 동향이 알려짐에 따라 신라에서도 679년에 이르러 왕경의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더불어 ‘의봉사년개토(儀鳳四年皆土)’ 명문와를 제작하는 등 영토확장 및 ‘일통(一統)’의 달성을 기념하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⁷³⁾

그런데 대략 이 무렵부터 그간 보류되어 왔던 보덕국의 처분 문제도 신라 조정 내에서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반도 역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대국(大國)’으로서의 신라의 위상과 권위를 드러내는 이념적 요소에서 보덕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역할 및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⁷⁴⁾ 무엇보다도 문무왕 스스로가 이 보덕왕(=고구려왕) 안승을 직접 책봉하며 정권 수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장본인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도록 한다(興滅國 繼絕世)’라는 정통성 및 도덕적 명분을 공언하기도 했다. 만약 이를 한순간에 뒤집고 자신의 손으로 보덕국을 완전히 없앤다면 막대한 정치적 부담과 권위의 손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72) 『구당서』 권85, 列傳35 張文瓘; 『자치통감』 卷202, 唐紀18 高宗 儀鳳 3년 9월.

73) 최민희,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를 통해 본 신라의 통일의식과 통일기념」, 『경주사학』 21, 2002, 7~12쪽; 최민희,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의 ‘개토’ 재론-‘납읍오행’론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343~347쪽.

74)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특히 673년경 신라 정계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유신의 유언(遺言)으로서도 이러한 언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어도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해서는 신라 왕실 및 지배층의 공통된 인식으로서 한반도 방면(즉 삼한=삼국) 전체를 아우르는 ‘일통’에 대한 개념과 그 필요성이 비로소 점차 형성·대두하기 시작하였으리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김수태, 앞의 논문, 2014, 54~60쪽).

것이다. 과거 나당전쟁 중 신라 측이 「답설인귀서」를 통해 당 측의 식언(食言)과 토사구팽(兔死狗烹)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보덕국의 처분 여하에 따라 역으로 신라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의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 여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까지 신라가 내세우던 대내외적인 명분들이 상당 부분 무의미한 공염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문무왕 생전에는 이 보덕국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이 상정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680년 초에 이루어진 보덕왕 안승과 신라 왕실 간의 국혼(國婚)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F-①. (문무왕 20년, 680) 3월에 금·은 그릇 및 채색 비단 100단을 보덕왕 안승에게 내려주고 마침내 왕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혹은 잡찬 김의관의 딸이라고도 한다.】(대왕이) 내려준 교서에서 이르기를 “인륜(人倫)의 근본은 부부관계가 우선인 바이고, 왕화(王化)의 기틀은 후사를 잇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법이다. 왕의 등지가 공허하고 닭울음소리가 마음속에 있으니, 안에서 보필하는 뜻을 오래 비워두고 집안을 일으키는 일을 영영 빠뜨리는 것은 아니 될 일이다. 이제 좋은 때와 좋은 날짜에 삼가 옛 법도를 따라 과인의 조카딸(姝女)을 배필로 삼도록 하나니, 왕은 마땅히 마음과 뜻을 모두 도타이 하여 법식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자손이 극히 무성하여 오래도록 번성하는 것이 반석과도 같게 할지어다.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⁷⁵⁾

F-②. (문무왕 20년, 680) 여름 5월에 고구려왕이 대장군 연무 등으로

7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20년 3월, “三月 以金銀器及雜綵百段 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一云 逆瀾金義官之女也】 下教書曰 人倫之本 夫婦攸先 王化之基 繼嗣爲主 王鵲巢位曠 雞鳴在心 不可久空內輔之儀 永闕起家之業 今良辰吉日 率順舊章 以寡人妹女爲伉儷 王宜共敦心義 式奉宗祧 克茂子孫 永豐盤石 豈不盛歟 豈不美歟.”

하여금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신(臣) 안승이 아뢰입니다. 대아찬 김관장이 이르러 교지(敎旨)를 받들어 선포하고 아울러 (대왕의) 외조카딸을 이 미천한 고을(下畵)의 안주인으로 삼으라는 교서(敎書)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내 4월 15일에 이곳에 이르렀으니 기쁘고 두려운 마음이 서로 섞이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황제(요임금)가 딸을 규(嬀, 순임금)에 내려보내고, 주나라 왕실의 공주가 제나라에 가게 된 것은 본디 성스러운 덕을 떨치니 범재(凡才)라도 관계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신(臣)은 본래 용렬한 무리로 행실과 능력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요행히 좋은 운수를 맞이하여 성스러운 교화에 몸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매번 특별한 은택을 받으니 보답하고자 하여도 길이 없습니다. 거듭 대왕의 총애(天寵)를 입어 이처럼 가까운 인척이 되는 은택을 내리시니 마침내 무성한 꽃으로 경사스러움을 드러내고 정숙하고 화목한 덕을 이루어서 좋은 달 좋은 때에 누추한 집안으로 시집온다고 하니 억 년 간에도 만나기 힘든 행운을 하루 아침에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라던 일은 아니었으나 뜻밖의 기쁨입니다. 어찌 단지 한두 사람의 부형(父兄)만이 실로 이러한 은택을 입겠습니까? 선조 이하부터 모두가 영예로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신(臣)은 아직 교지(敎旨)를 직접 받지 못하여 감히 직접 조알(朝謁)하지는 못하나,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길 바가 없어 삼가 신(臣)의 대장군인 태대형 연무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어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⁷⁶⁾

무엇보다도 이 사료 F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라 ‘대왕’과 ‘보덕왕(고구려왕)’ 사이의 ‘군신(君臣)’ 관계의 설정에 따른 위계질서가 이미 명확하게 자리 잡힌 양상이 드러난다. 즉 F-②에서 안승의 답

7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20년 5월, “夏五月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表曰 臣安勝言 大阿湊金官長至 奉宣敎旨 并賜敎書 以外生公 爲下邑內主 仍以四月十五日至此 喜懼交懷 罔知攸實 竊以帝女降嬀 王姬適齊 本揚聖德 匪關凡才 臣本庸流 行能無算 幸逢昌運 沐浴聖化 每荷殊澤 欲報無增 重蒙天寵 降此姻親 遂卽穠華表慶 肅離成德 吉月令辰 言歸弊館 億載難遇 一朝獲申 事非望始 喜出意表 豈惟一二父兄 實受其賜 其自先祖已下 寔寵喜之 臣未蒙敎旨 不敢直朝 無任悅豫之至 謹遣臣大將軍太兄延武 奉表以聞。”

서 자체를 신하가 군주에게 상주(上奏)하는 형식인 ‘표(表)’로 지칭할 뿐 아니라 안승 스스로도 ‘신(臣)’을 자처하고 있는 점, 아울러 신라왕이 내려준 문서를 ‘교지(教旨)·교서(敎書)’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상대를 높이기 위한 수식(修飾)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신라 ‘대왕’의 행적을 요(堯)·순(舜)이나 주(周)나라 왕실과 같은 고사(故事)상의 성인(聖人)이나 천자(天子)들의 행적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유하고 있는 점 역시도 그러하다. 이는 즉 당시의 신라 왕권과 보덕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를 위시하여 신라 왕권이 대내적으로는 어떠한 위상을 지향하고자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명목상 자치 국가의 외형 자체는 남겨두되 신라 조정에 의해 책봉된 ‘번국의 제후’로서 보덕국과의 군신관계를 한층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덕국이 마치 옛 ‘왕자(王者)’를 방불케 하는 신라 왕실의 위덕(威德)과 천하관(天下觀)을 드러내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서 충실하게 활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혼인을 매개로 국왕 안승 자신, 더 나아가 후손들까지도 신라 왕실의 친·인척으로서 강하게 결속시키며 그를 포석(布石)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진전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실상 기왕에도 신라는 이러한 전략을 대단히 익숙하게 활용한바 있었다. 즉 과거 가야 제국(諸國) 등을 대상으로 했던 정복·흡수의 과정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G-①. (법흥왕 9년, 522) 가야국(伽倻國)의 왕이 사절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⁷⁷⁾

7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法興王 9년 3월,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飡

G-②. (529년) … 가라국(伽羅國)의 왕이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마침내 자식까지 보았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아물러 100명을 시종으로 삼아 보내었는데 받아서 여러 현(縣)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의관(衣冠)을 입도록 하였다. 아리사등(阿利斯等)이 그 복식이 바뀐 것을 책망하여 사절을 보내어 불러 모아 돌아가게 하였다. 신라가 크게 수치로 여겨 (생각을) 바꾸어 왕녀를 되돌아가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초빙한 바에 따라 우리가 문득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와 같으니 청컨대 왕녀를 되돌려 보내라”라고 하였다. 가라국의 기부리지가(己富利知伽)【상세하지 않다】가 답하여 말하기를 “합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식까지 있으니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라고 하였다. (신라가 이를 빌미로) 마침내 그 길목에 있는 도가(刀伽)·고파(古跛)·포나모라(布那牟羅)의 3성(城)을 함락시키고 또 북쪽 국경의 5성(城)도 함락시켰다.…⁷⁸⁾

G-③. …신라 제30대 법민왕 때에 이르러 용삭 원년(661) 신유 3월 어느 날에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짐은 가야국(伽倻國) 시조(元君, 수로왕)의 9대손이신 구충왕(仇衝王)이 본국에 항복할 때 거느리고 오신 아들인 세종(世宗)의 아들인 술우공(率友公)의 아들인 서운(庶云) 잡간의 딸 문명황후(文明皇后)께서 낳으신 바이다. 그러므로 (가야국) 시조는 본인에게 15대 조상이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일찍이 (신라에) 패한 바 되었으나 그 무덤과 사당은 지금도 여전히 있으므로 종조(宗祧)에 합하여 제사를 잇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 옛 궁궐터에 사절을 보내어 사당 근처의 좋은 밭(上田) 30경(頃)을 (제사에) 이바지할 비용(供營之資)으로 삼아 왕위전(王位田)이라 호칭하고 본토(本土)에 부속하도록 하였다.

比助夫之妹送之.”

- 78) 『일본서기』 권17 繼體 23년 3월, “…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讎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 古跛 布那牟羅 三城 亦拔北境五城 ….”

(수로)왕의 17대손인 갱세(廣世) 급간(級干)이 삼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하며 매년 때맞추어 술과 단술을 빚고 떡과 밥, 차와 과실 등을 여럿 베풀어 제사 지내는 것이 해마다 끊이지 않도록 하였다.…아름답도다, 문무왕【법민왕의 시호이다】께서 선조를 받드니 효성스럽고 또 효성스럽도다. 멸망하여 끊어진 제사를 이어서 다시금 행하였도다.…⁷⁹⁾

위 사료 G-①·②의 경우 6세기경 법흥왕 시기 대가야(현 고령) 왕실과의 국혼을 가야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식·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설령 혼인관계가 파기되었더라도 오히려 그를 영토 점령의 명분으로서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는 이때의 국혼으로 탄생한 ‘자식’을 곧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전하는 ‘도설지왕(道設智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⁸⁰⁾ 즉 「단양 적성비」(550년 비정)·「창녕 척경비」(561년 추정) 등 같은 시기 금석문 중에서도 동일인물로 보이는 ‘도설지(道設智)’·‘도설지(都設智)’ 등이 진흥왕을 수행하던 사해부(沙喙部) 소속의 관료로 등장하고 있는바, ‘신라에 편입된 귀족(진골)’이면서 동시에 ‘대가야 왕실과의 혈연관계 및 정통성’도 갖춘 이 ‘도설지’라는 존재가 신라에 의해 대가야 정복과 점령 통치를 위한 매개체,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괴뢰(傀儡)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⁸¹⁾ 물론 더욱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대가야의 국왕이었던

79) 『삼국유사』 권2, 紀異2 駕洛國記, “ … 泊新羅第三十王法敏 龍朔元年辛酉三月日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衡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庶云臣干之女文明皇后 寔生我者 茲故元君於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 今尚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趾 □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 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 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體 設以餅飯茶菓庶羞等 奠年年不墜…美矣哉 文武王【法敏王諡也】先奉尊祖 孝乎惟孝 繼泯絕之祀 復行之也 ….”

80) 『삼국사기』 권34, 雜志3 地理1 新羅 康州 高靈郡.

‘도설지왕’과 신라 관료였던 ‘도설지’를 동일 인물로 확정하는 것에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⁸²⁾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라의 대가야 정복 과정에서 정략결혼에 따른 명분의 확보, 그리고 혈연이나 인척관계 등을 매개로 삼은 친(親)신라적 인사의 포섭 및 회유와 같은 다양한 정치·전략적 수단이 동원되었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상정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사료 G-③의 경우는 같은 시기 문무왕 스스로가 모계를 통한 가야국(금관국/금관가야, 현 김해) 왕실과의 혈연관계를 공언함과 동시에, 그 시조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후원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종조(宗祧)’에 합하도록 하였다는 언급(合于宗祧)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설적으로 수로왕을 비롯한 (금관)가야 계통을 문무왕, 즉 당시 신라 왕실의 조상으로 인정하여 신라의 ‘종묘(宗廟)’에 합쳐서 제사하도록 한 조치로 이해하곤 한다.⁸³⁾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신라가 아닌 가야의 종묘 혹은 사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며,⁸⁴⁾ ‘종조(宗祧)’를 용례 상 명확한 제도 혹은 건축물로서의 종묘는 아닌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세대(世代)나 왕계(王系) 자체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합우종조(合于宗祧)’는 수로왕 이래 (금관)가야의 역대 왕계 전체를 일괄 합쳐서 수로왕릉 인근에

81)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 81, 1996, 22~26쪽.

82) 이재환, 「가야계 ‘신라인’의 활동과 위상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213~214쪽.

83)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123~129쪽 ; 채미하,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추존」, 『한국사학보』 61, 2015, 429~430쪽.

84)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 41·42, 1999, 43쪽 ;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303~304쪽.

서 제사를 다시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해준 정도의 의미로서 파악된다.⁸⁵⁾ 그러나 해당 사료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종조(宗祧)’가 말그대로 왕실의 세계(世系)를 의미하는 관념적인 표현일 경우 오히려 신라 왕실, 정확하게는 무열왕-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중대 왕실의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것이 단순히 가야 역대 왕대를 일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 앞뒤로 굳이 가야 왕실과 신라 왕실(=문무왕)과의 동조(同祖)의 일가(一家)로서의 혈연관계를 몇 차례나 강조할 이유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합우종조(合于宗祧)’란 익히 알려진 김유신 가문과의 통혼(通婚)을 통한 친속(親屬) 관계를 매개로 그들이 보유 하던 (금관)가야의 혈통과 정통성까지도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이식·통합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한반도 역내에 존재했던 모든 세력을 복속·통합하고 그 ‘흥망계절(興亡繼絕)’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최상위의 존재로서 자리 잡은 신라 왕실의 위덕(威德)을 과시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작용하였으리라는 지적들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⁸⁶⁾

다소 논의가 장황해졌지만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은 결국 보덕국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연속선상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신라는 안승과의 국혼 및 친속 관계의 설정을 통해 보덕국의 핵심 집단을 친(親)신라적 인사로 포섭하는 한편, 더 나아가 향후 장기적·점진적으로 그들이 담보하던 옛 고구려의 정통성(즉 종조宗祧)까지도 신라 왕실 계통을 이루는 한 부분, 즉 일

85) 박초롱, 앞의 논문, 2017, 127~131쪽.

86) 박남수, 앞의 논문, 2016, 303~309쪽 ; 박초롱, 앞의 논문, 2017, 137~139쪽.

가(一家)로서 온전히 이식·귀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 및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익히 지적되던바 여기에는 건국 이래 진한 소국이나 가야제국 등의 주변 세력을 흡수·통합하며 성장해 왔던 과거 신라 역사상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총동원되었던 셈이다.⁸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무왕대의 보덕국 통합 정책이란 명목상 영내에서 자치를 행하는 번국으로서 보덕국의 외형 자체는 남겨두되, 정략결혼 등을 통한 장기적·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런데 681년 문무왕의 사망과 신문왕의 즉위를 계기로 신라의 대(對) 보덕국 정책 기조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무왕대건 신문왕대건 언젠가 보덕국을 신라의 체제 내로 완전히 통합한다는 목표는 마찬가지였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신문왕대에 들어서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층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추진되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문왕대에는 이 보덕국에 대하여 번국으로서의 외형조차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해체·흡수하면서 국왕 안승 이하 고위층 핵심 집단은 신라의 관료(官僚)로서, 그 주민들은 신라의 공민(公民)으로서 직접 편입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기왕에 논의되어 왔던 것처럼, 신문왕대에 들어서서는 왕권 강화 정책 및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확립, 그리고 그에 발맞춘 제도적 개혁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제들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⁸⁸⁾ 관련하여

87)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67~68쪽; 이미경, 앞의 논문, 2015, 22~23쪽.

88) 이를 흔히 ‘전제왕권’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거나(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102~111쪽; 김수태,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96, 1~7쪽), 혹은 ‘중앙집권적 (귀족)관료제 or 지배체제’ 등의 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영하, 「신라 중대왕권의 기반과 지향」, 『한국사학보』 16, 2004, 35~40쪽; 하

당시 신라 국가 내부적으로도 골품 귀족과 같이 타고난 지위에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인 특권을 억누르는 반면, 초월적이고 신성한 왕권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일률적인 서열화 된 조직체계에 편제되어 복무·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료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새로이 요구되는 이른바 ‘(귀족의) 관료화’로 지칭할 수 있는 양상이 대두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⁸⁹⁾ 이는 특히 그러한 정치적 방향성에 가장 반발하는 구(舊)세대 진골 귀족 세력이었으리라 추정되는 김흠돌 및 김군관 등을 진압·숙청(681.8)하면서 내외(内外)와 사방(四方)에 널리 포고하였던 아래 교서(敎書)의 문맥상에서도 면면히 드러나는 기조이기도 했다.

H-①. … 적(賊)의 우두머리 흠돌과 흥원, 진공 등은 관위(官位)에 재주
로서 나아간 것도 아니고 관직(官職)도 실로 은혜를 입어 올라간 것인데
도 처음부터 끝까지 극진히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질고 의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복과 위세를 지어내고 거만하게 관료

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2006, 298~309쪽 ; 한준수, 『신라중대 율령 정치사연구』, 서경문화사, 2012, 12~14쪽). 물론 이른바 ‘중대 전제왕권론’의 세부적인 개념 설정 및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논쟁과 비판이 있어왔다(해당 주제에 관한 상세한 연구사는 이영호, 「신라 집사부의 설치와 중시」, 『국사관논총』 69, 1996 ; 하일식, 「신라 ‘전제정치’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책, 2006 ; 최영진, 「신라 중대 전제왕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2, 2020 등의 여러 논저 참조 바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적인 용어로 규정하건 문무~신문왕 시기에 이르러 분명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왕권강화 및 중앙집권·관료화를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것이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자체는 분명 신라 정치사의 측면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89) 이기백, 앞의 책, 1974, 166~167쪽 ; 김수태, 앞의 책, 1996, 15쪽 ; 박명호,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31, 2008, 59~69쪽.

(官僚)들을 업신여기며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다. ...⁹⁰⁾
H-②. ... 윗사람을 섬기는 법도는 충(忠)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관직을 맡은 자의 의리는 두 마음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한다. 병부령(兵
部令) 이찬(伊飡) 군관은 반서(班序)로 말미암아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
데도, 능히 (임금을) 보좌(拾遺)하여 빠진 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조
정에 결백한 절개를 나타내지도 못하였으며, (나랏일에) 목숨을 맡기고 몸
을 잊어 사직(社稷)에 진실한 정성을 드러내지도 못하였다. 이에 적신(賊
臣) 흠돌 등과 더불어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꾸미는 일을 알면서도
일찍이 고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 공의(公
義)를 위해 순절할 뜻도 저버린 것이다. 어찌 재상(宰輔)의 무거운 자
리에 두어 나라의 규범(憲章)을 더럽히겠는가? 마땅히 무리와 함께 내쳐
서 뒷사람들(後進)에게 징계(懲誡)토록 할 것이다. ...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布告)하여 모든 이가 알게 하라.⁹¹⁾

그런데 이러한 신문왕대 중앙 정계(政界)의 큰 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덕국과 그 국왕 안승 역시도 왕권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화·
관료제 확립이라는 당대 신라 조정의 지상 명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설령
아무리 신라 ‘대왕’에 복속된 신하(제후)를 자처할지언정 보덕국의
존재 자체는 영내 자치가 허용된 특수한 위상으로 인해 고구려계

9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16일, “... 賊首欽突與元眞功等 位
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愼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
上下 ...”

9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28일, “...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
之義 不二爲宗 兵部令伊飡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拾遺 補闕效素 節於朝
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既無憂國
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弃 以懲後進 ... 布告遠近 使
共知之.”

주민들에게 있어 이미 사라진 고국의 기억과 정체성을 계속 떠올리고 유지하도록 하는 최후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674년경부터 보덕국(왕)으로의 책봉을 통해 신라 ‘대왕’의 신하로서의 종속적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며 ‘고구려’의 기존 정체성을 상당 부분 탈색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긴 했다. 그러나 해당 사료(F-②)처럼 신라 측의 공식 기록에서조차 ‘보덕왕’과 ‘고구려왕’의 직함 표기가 서로 혼용되고 있을 만큼, 그러한 ‘고구려’로서의 기억과 정체성 자체는 결코 쉽게 탈색되는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본 측의 인식이 반영되었을 여지도 있긴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과의 외교 활동에서도 보덕국이 ‘고려(고구려)’를 자칭하며 또한 일본이나 신라 등의 타국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신라라는 단일한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역내의 ‘일통(一統)’을 완성하며, 대내적으로는 초월화·신성화된 왕권과 그를 보좌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구축한다는 이 시기 신라 사회의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 아래서는 결국 늦든 빠르든 보덕국은 해체되어 국가의 일원적인 통치 질서의 일부로서 완전히 흡수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나 즉위 직후부터 김흠돌의 난과 같이 왕권에 대한 반발과 도전을 실제로 경험하였던 신문왕의 개인적인 동기로서도, 더더욱 보덕국의 해체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한층 근본적으로, 그리고 조급하게 추진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상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⁹²⁾

92) 관련하여 김흠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덕국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으나(김수태, 앞의 책, 1996, 30쪽;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 난의 재검토」, 『대구사학』 58, 1999, 23~27쪽), 그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 보덕국의 해체는 무엇보다도 대당(對唐) 관계의 개선과 그를 통한 국제 정세상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타협점의 제시로도 이해된다.⁹³⁾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지만, 676년 나당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적어도 678년 무렵 까지도 이어지면서 신라와 당의 관계는 소원한 채 냉각기가 지속되었다.⁹⁴⁾ 당연하게도 신라로서는 당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긴장을 언제까지고 유지하는 것은 심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 전쟁 당사자였던 문무왕의 사망과 신왕(新王)의 즉위를 계기로 신라 측에서 먼저 대당 관계의 복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거 675년 시점에 이미 신라 측의 ‘사죄와 공물’을 관대히 받아들여 삭제했던 문무왕의 관작을 복구해줌으로서 나당전쟁 자체도 그대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여러 기록에서 보이는 당 조정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⁹⁵⁾ 이를 감안

명시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기에 단언하기는 힘들다. 실상 본문 중 서술한 바와 같이, 설령 보덕국이 반란 자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더라도 중앙집권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신문왕대의 정치적 지향 아래 그대로 존속되기는 어려웠리라 생각된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위 견해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반란의 후속 처리가 미처 완결되지도 않은 8월 13일부터 보덕국에서는 군이 사절까지 파견해가며 신문왕에 대한 일종의 ‘충성 맹세’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보덕국에서도 그러한 신라 조정의 내부 동향을 감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정황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93) 植田喜兵成智, 「新羅による安勝の「高句麗王」「報德王」冊封と骨品制編入」,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257~263쪽; 植田喜兵成智, 2023, 앞의 논문, 107~109쪽.

94)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1983, 14~20쪽;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305~310쪽.

95) 『구당서』 권5, 高宗本紀 下 上元 2년 2월, “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大破新羅之衆於七重城 斬獲甚衆 新羅遣使入朝獻方物 伏罪 赦之 復其王金法敏官爵”; 『新唐書』 권220, 列傳 145 東夷 新羅, “…上元二年 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한다면 당시 신라의 외교적 접근이 당 측의 일정한 호응을 이끌어 낼 여지도 아직 남아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신문왕 즉위 시에 책립(冊立) 및 관작의 승습(承襲)을 위해 당 사절이 왕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⁹⁶⁾ 대당 관계 복구를 위한 신라의 노력에 성과가 아주 전무(全無)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보덕국의 존재가 양국 간의 쟁점이자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다시금 떠오를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실상 고구려 관련 문제란 그것이 상징적인 측면에서건 실질적인 측면에서건 당 조정에서는 금구(禁句)에 가까울 정도로 언제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사안이었다.⁹⁷⁾ 그러한 만큼 신라가 보덕국-엄연히 고구려 그 자체인-을 자국 영내에 두고 비호하는 양상은 비록 당이 한반도 방면의 정세에 직접 개입할만한 힘과 의지가 아무리 쇠퇴하였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물론 이 시기 당이 신라 측에 보덕국의 소멸을 종용·압박했을지는 명시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과연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라가 발휘하던 정보력을 감안하면 당 조정 내부의 그러한 기조나 반응을 어느 정도 미리 인지하고는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 法敏遣使入朝謝罪 貢篚相望 仁問乃還 辭王 詔復法敏官爵 …”

9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원년 즉위기사 ; 『책부원귀』 권964, 外臣部9 封冊2 開耀 원년 10월

97) 아울러 비슷한 시기(680~681년경) 과거 고구려 유민들의 안집(安集)을 위해 요동 방면으로 파견되었던 보장왕의 반란 시도가 발각되었던 사건(『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附 儀鳳 2년 2월)으로 인해 고구려 부흥운동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던 만큼, 그에 따라 고구려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한 당 조정의 태도와 대응이 더욱 민감하게 경직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여러 차례 논급한바 보덕국은 신라에게 있어서도 그 거취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dilemma)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즉 보덕국은 단순히 고구려 유민 집단에 대한 대응과 통제 차원을 넘어, 이미 대내외적으로 삼한, 즉 한반도 전역에 걸친 신라 국가의 위덕(威德)을 드러내는 이념적 장치이자 고구려의 정통성을 신라 왕실의 계보(系譜)에 온전히 귀속·이식시키기 위한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무열왕의 ‘일통(一統)’을 현창하던 ‘태종(太宗)’ 칭호와 관련 당 측에서 참람(僭濫)하다고 신라 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도 실상 이 681년 무렵(당 고종 개요 원년) 신문왕의 책립사(冊立使)가 왕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는 견해가 통설적이다.⁹⁸⁾ 어쩌면 이 역시

98) 이 ‘태종’ 칭호와 관련된 나당 간의 논쟁 사건은 『삼국사기』에서는 692년(신라 신문왕 12) 중의 어느 시기로서 문제 제기의 주체 또한 ‘당 중종(재위 684 ; 복위 705~710)의 구칙(口勅)’이라 전하며(『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12년 봄),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당 고종대(재위 649~683)로 전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다(『三國遺事』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그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삼국사기』에 의거 이를 692년 시점의 사건으로 그대로 인정하거나(金子修一,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10~11쪽 ;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316~317쪽 ; 안주홍,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신라사학보』 52, 2021, 340~343쪽), 혹은 681년과 692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재론(再論)되었다고 보거나(김수태,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1999, 673~674쪽 ; 서영교, 앞의 책, 2006, 227~231쪽 ; 박남수, 앞의 논문, 2016, 290~291쪽), 혹은 『삼국유사』를 신뢰하여 당 고종이 아직 생존해 있던 681~682년 무렵에 신라에 도착했던 신문왕의 책립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수정하여 이해하는 등(황운룡, 「신라태종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 17, 1982, 17~18쪽 ; 권덕영, 「8·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 25, 2005, 97쪽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163~165쪽 ;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126, 2016, 4~6쪽)의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도 상호 연관된 사안으로서, 당 측에서 신라와의 관계 개선에 앞서 일종의 ‘길들이기’, 혹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굳이 ‘몽니’를 부리며 신라의 국제적 위상 및 한반도 역내의 헤게모니를 흔들어 보려는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러한 대외 현안들의 대처 여하에 따라 자칫 중대 왕실의 내적인 권위와 집권 명분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셈이다.⁹⁹⁾ 말하자면 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정세 안정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그들의 태도를 맞이하여 기존에 신라 국가 및 왕실의 권위를 제고(提高)·수식(修飾)하던 보덕국과 같은 요소들까지도 일정 부분 해체·격하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고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I. (683년, 신문왕 3) 겨울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판(蘇判)으로 삼고 김씨(金氏)를 사성(賜姓)하며 왕경(京都)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크고 넓은 저택(甲第)과 좋은 토지(良田)를 내려주었다.¹⁰⁰⁾

그렇기에 위 사료 I와 같이 683년 10월 마침내 보덕국왕 안승을 왕경으로 소환하며 관등 수여 및 사성(賜姓)과 함께 신라 지배층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김유신의 위업 현창을 목적으로 9세기 무렵 후대의 인식을 소급시킨 허구적 설화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견해도 있다(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 234~238쪽). 그러나 위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무렵 나당관계상의 국제적 여건이나 각국의 내부 정치적 사정 및 동기 등을 고려한다면 기왕의 다수설과 같이 당 고종 말년 시점에 관계 복구를 시도하던 신라 측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 사건으로 파악하는 편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99) 서영교, 앞의 논문, 2009, 230~231쪽.

10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3년 10월, “冬十月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일원으로서 편입시켰던 조치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 즉 이는 ‘일통(一統)’을 상징하는 대내적인 권위를 가급적 온존한 채로 고구려 지배층 및 그들의 계통과 정통성 자체를 우대·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외형상 일단 보덕국(즉 고구려)의 실체와 그 대외적인 의미를 소멸시킴으로서 향후 당 측이 문제를 제기할 맥락을 선제적으로 봉쇄하여 상기의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타협책이었다.¹⁰¹⁾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과거 전쟁 시기의 과도기적 잔재를 청산하면서 오로지 신라라는 단일한 국가와 왕실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의 확립이라는 과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의도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위 사료 I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보덕국 내부의 친(親)신라 세력과 반(反)신라 세력 사이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이듬해의 대규모 반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기폭제로도 작용하였다. 관련하여 우선 국왕 안승을 왕경으로 소환한 시점을 전후하여, ‘고구려민’을 병력원으로 삼는 왕경 군단인 황금서당(黃衿誓幢) 등이 급거 신규 창설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문무왕 12년(672) 이래로 약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J. … (9서당 중에) 5번째는 황금서당(黃衿誓幢)으로 신문왕 3년(683)에 고구려민(高句麗民)으로서 군단(幢)을 만들었다. 옷깃(衿)의 색깔은 황적(黃赤)이다. 6번째는 흑금서당(黑衿誓幢)으로 신문왕 3년에 말갈국민(靺鞨國民)으로 군단을 만들었다. 옷깃의 색깔은 흑적(黑赤)이다. … ¹⁰²⁾

101)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62~263쪽; 植田喜兵成智, 앞의 논문, 2023, 109쪽.

102)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 … 五曰黃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高句麗民爲幢 衿色黃赤 六曰黑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靺鞨國民爲幢 衿色黑赤 … ” ;

기왕에 여기의 ‘고구려민’의 실체에 대해서는 668년 멸망 시점을 전후하여 고구려에 속해 있던 주민이나 전쟁포로 등으로 파악하거나,¹⁰³⁾ 혹은 672~673년 무렵 고구려 부흥운동의 소멸 과정에서 보덕국(안승)과는 계열을 달리하던 별개의 유민 집단으로 파악하는 등,¹⁰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된바 있다.

그런데 위 사료 J에 명시된 창설 시기나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같은 시점에 왕경으로 소환되어 정착하였던 안승과 그 지지세력 등이 신라 조정의 어떠한 의도 하에 ‘고구려민’으로서 분류·규정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¹⁰⁵⁾ 즉 앞서 신라가 ‘옛 고구려의 정당하고 유일한 계승자’로서 인정하며

한편 이 당시 황금서당과 함께 창설된 흑금서당(黑衿誓幢)의 ‘말갈(국)민’에 대해서는 과거 나당전쟁 당시 당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말갈병의 포로 및 잔류인원으로 보거나(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門題』, 東洋文庫, 1954, 355쪽 ; 이인철, 『6~7세기의 말갈』, 『한국사론』 95, 2001, 53~54쪽), 현 강원·함경도 등 동북방면에 거주하던 ‘위말갈(僞靺鞨)’ 즉 동예(東濊) 계열 주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신라 통일기 구서당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 41·42, 1999, 195쪽). 혹은 그와 달리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던 일부 말갈 집단으로서 673년경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신라 영내로 유입될 당시 함께 유입되었던 인원으로서 파악하는 견해도 있는데(서영교, 앞의 책, 2006, 165쪽), 이 흑금서당이 황금서당과 더불어 683년 시점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나 상기 본문과 같이 이 두 군단의 창설 과정이 동시기 안승 세력의 왕경 소환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견해가 더 유력하리라 생각된다. 즉 다소 복잡하지만 ‘고구려왕’으로서 안승이 인솔하던 부흥운동 세력 중에는 ‘말갈(국)민’, 즉 말갈 계통의 일부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673년경 안승의 신라 내투를 계기로 이들 역시 보덕국 내에 정착하였다가 683년에 이르러 안승의 지지세력인 ‘고구려민’과 더불어 왕경으로 이동하면서 황금·흑금서당의 2개 군단으로 신규 편성되었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103)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54쪽 ; 노중국, 앞의 논문, 194쪽.

104) 임기환, 앞의 책, 2004, 349~350쪽 ; 서영교, 앞의 논문, 2009, 231~232쪽.

105) 정선여, 앞의 논문, 2010, 94~95쪽 ; 정선여, 앞의 논문, 2013, 45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75~76쪽.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던 존재가 다름 아닌 안승이었던만큼, 자연히 그러한 신라 측의 내적인 인식과 논리상에서 ‘고구려민’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고구려왕’ 안승에 부속된 집단이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⁶⁾ 특히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라가 시종일관 이 ‘고구려왕’ 안승에 대한 후대(厚待)를 매개로 고구려의 정통성 자체를 이식·흡수하며 중대 왕실의 권위를 수식하려는 이념적 장치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683년 10월 안승이 왕경으로 소환되었을 때 안승 개인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측근 및 친(親)신라 성향의 보덕국 내 고위층 인사들과 다수의 수행인원·호위병력·추종자 등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고구려왕’을 따라 귀부(歸附)한 ‘고구려민’으로 간주된 이들 집단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신라 국가 체제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미에서 신규 군단인 ‘황금서당’의 편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황금서당’의 보기감(步騎監, 4인 / 11위 나마 ~ 13위 사지)으로서 첫 실전에 투입되었던 김영운(金令胤)과 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원활한 통제 겸 감시를 위해서라도 군단 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단위부대의 중간 지휘관이나 핵심 참모진 등은 상당 부분 신라인 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시기 당에서는 복속된 이민족 출신의 번장(番將)들에게 남아금군(南衙禁軍)의 지휘관인 제위장군(諸衛將軍)의 관직을 수여하며 활용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¹⁰⁷⁾ 그와 유사하게 신라 역시도 상징적·이념적인 의미에서 안승을 위시한 ‘고구려민’ 출신의 관료들을 황금

106) 정선여, 앞의 논문, 2010, 95~96쪽;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76~77쪽.

107) 이기천, 「7세기 당의 제위장군호 수여와 번장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120, 2012, 68~72쪽.

서당의 고위 지휘관, 혹은 특별히 원외(員外)·산직(散職)과 같은 형태로 임명하였을 개연성도 있겠다.¹⁰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민’과 대비하여 신라 조정의 소환에 불응한 채로 여전히 금마저에 잔류하였던 집단, 이른바 ‘보덕성민’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9서당 소속 군단(벽금·적금서당)으로 편성되었던 비율(2 : 1)로 추정하면, 오히려 이쪽이 2배 이상의 다수파였지 않을까 한다. 당연하겠지만 이들은 보덕국의 완전한 해체·흡수를 의도하던 신라 조정과 여기에 충실히 부응하였던 안승 등의 친(親)신라 성향 ‘고구려민’과는 달리, 기존 고구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공간으로서의 보덕국의 존치를 원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는 과거 한성 고구려국 내부에서의 안승 세력과 검모잠 세력의 대립에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갈등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도 보덕국 자체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일단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갈등은, 683년 신라의 조치로 인한 ‘고구려왕’ 안승이라는 구심점의 소실을 계기로 삼아 684년 11월 대규모 반란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K-①. (신문왕 4년, 684) 11월에 안승의 족자(族子)인 장군(將軍) 대문(大文)이 금마저에 머무르면서 반란을 꾀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남은 이들은 대문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는 (신라의) 관리들을 살해하고

108) 한편 동시기 좌평 충상(忠常)·상영(常永) 등 신라에 투항한 백제 출신의 고위 인사가 장군·대감 등의 군사지휘관을 역임한 사례(『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11월 22일), 그리고 9서당 소속 부대의 병종 구성에는 기사(騎射)가 가능한 마병(馬兵)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9서당 소속 군단의 지휘부 및 주요 군관직에는 원(原)신라인 뿐 아니라 해당 이민족 집단 중 사회경제적 상류층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리라 추정한 견해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최상기, 「신라 9서당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소속 군관의 출신과 일부 병종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6, 2022, 70~83쪽).

성읍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장사(將士)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당주(幢主) 꺾실(逼實)이 (보덕성민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州)·군(郡)으로 옮겼으며 그 땅을 금마군(金馬郡)으로 삼았다. 【대문(大文)은 혹은 실복(悉伏)이라고도 한다.】¹⁰⁹⁾

K-②. … 문명(文明) 원년(684) 갑신(甲申)에 고구려의 잔적(殘賊)이 보덕성(報德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신문대왕이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꺾실(逼實)도 귀幢(貴幢)의 제감(弟監, 5인 / 13위 사지~10위 대나마)으로 삼았다. (꺾실이) 행군(行軍)에 임하여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 두 형님들은 모두 나라일(王事)에 죽어서 불후(不朽)의 명성이 남았다. 내가 비록 불초(不肖)하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구차히 살아남겠는가? 오늘 그대와 살아서 이별하지만 끝내 죽어서 이별하게 될 것이니, 상심하지 말고 잘 살라”라고 하였다. 적진과 대치함에 이르러 홀로 나아가 힘껏 공격하여 수십 명을 베고는 죽었다. …¹¹⁰⁾

K-③. 김영운은 사랑(沙梁) 사람으로 급찬(級飡) 반굴(盤屈)의 아들이며 할아버지는 흠춘(欽春) 【혹은 흠순(欽純)이라고도 한다】 각간(角干)이다. … (김)영운은 명문가(世家)에서 자라나 명예와 절개를 자부하였다. 신문대왕 때에 고구려의 잔적(殘賊) 실복(悉伏)이 보덕성(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명으로 토벌하였는데 이에 (김)영운을 황금서당(黃衿誓幢)의 보기감(步騎監)으로 삼았다. 장차 행군(行軍)할 때에 (김영운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엔 가면 가문(宗族)과 벗(朋友)으로 하여금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복(悉伏)이 가잠성(椐岑城) 남쪽 7리 지점까지 나와서 진(陳)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 이 흉악한

10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4년 11월,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驍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大文或云悉伏】”

110) 『삼국사기』 권47, 列傳7 驍徒 附 逼實, “… 文明元年 甲申 高句麗殘賊 據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爲貴幢弟監 臨行謂其婦曰 吾二兄既死於王事 名垂不朽 吾雖不肖 何得畏死而苟存乎 今日與爾生離 終是死別也 好住無傷 及對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 ….”

무리들은 비유컨대 천막 위에 제비둥지를 틀고 솔 안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 만 번 죽을힘을 다해 다투어도 하루살이 목숨일 뿐이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도적은 꺾박하지 말라고도 하니, 마땅히 조금 물러나 (적의) 피로가 극도에 달하기를 기다려 친다면 가히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그 말을 옳다 여겨 잠시 물러났는데, (김)영운만이 홀로 수궁치 아니하고 싸우고자 하였다. … (김)영운이 말하기를 “싸움터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예기(禮經)에서 경계하는 바이고, 나아감만 있고 후퇴가 없는 것은 사졸(士卒)의 마땅한 본분이다. 사내가 일에 임함에 스스로 결정할 뿐이지 어찌 반드시 무리를 따르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적진에 나아가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¹¹¹⁾

K-④. … (9서당 중에) 7번째는 벽금서당(碧衿誓幢)으로 신문왕 6년(686)에 보덕성민(報德城民)으로 군단(幢)을 만들었다. 옷깃(衿)의 색깔은 벽황(碧黃)이다. 8번째는 적금서당(赤衿誓幢)으로 신문왕 6년(686)에 또 보덕성민으로 군단을 만들었다. 옷깃의 색깔은 적흑(赤黑)이다. …¹¹²⁾

그런데 위 사료 K군, 즉 신라 측의 공식 기록들에서는 이처럼 금마저에 잔류한 유민 집단에 대해 ‘국가’로서의 성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보덕성민(報德城民)’ 혹은 ‘고구려잔적(高句麗殘賊)’ 등으로 격하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앞서 살펴본바 신라 국가 체제의 일부로 귀의(歸依)한 존재인 ‘고구려왕’과 ‘고구려민’에 대

111) 『삼국사기』 권47, 列傳7 金令胤, “金令胤 沙梁人 級浪盤屈之子 祖欽春【或云欽純】角干 … 令胤生長世家 以名節自許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王命討之 以令胤爲黃衿誓幢步騎監 將行 謂人曰 吾此行也 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 及見悉伏出椹岑城南七里 結陳以待之 或告曰 今此凶黨 譬如鷲巢幕上魚戲鼎中 出萬死以爭一日之命耳 語曰 窮寇勿迫 宜左次以待疲極而擊之 可不血刃而擒也 諸將然其言 暫退 獨令胤不肯之而欲戰 … 令胤曰 臨陣無勇 禮經之所誡 有進無退 士卒之常分也 丈夫臨事自決 何必從衆 遂赴敵陣 格鬪而死 ….”

112)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 七曰碧衿誓幢 神文王六年 以報德城民爲幢 衿色碧黃 八曰赤衿誓幢 神文王六年 又以報德城民爲幢 衿色赤黑 ….”

비하여, 단지 ‘잔당 수준의 도적 무리(殘賊)’이자 ‘일개 성읍에 응거하는 지방민(城民)’에 불과한 존재로서, 그 정체성 및 정당성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 조정에 있어서 이 684년의 무력 충돌이란 신라와 보덕국(혹은 고구려)이라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단지 신라 내부에서의 ‘토벌’ 혹은 ‘진압’일 뿐이었다고 그 의미를 가급적 축소 및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위 사료 K군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683년 10월 안승 및 ‘고구려민’이 왕경으로 소환되어 정착한 이래, 신라는 옛 보덕국의 해체 및 직할 영역으로의 편제 작업의 완료를 위해 일군의 ‘관리(官吏)’들을 파견하여 통제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금마저에 잔류한 나머지 유민 집단은 ‘안승의 족자(族子)’이자 ‘장군(將軍)’이라고 전하는 대문(大文)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그러한 신라의 통제에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는 옛 국왕 안승의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족으로서의 혈연적 정통성이나 ‘장군’으로서의 군사적 실력자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된다.¹¹³⁾ 신라 조정으로서는 이 같은 ‘보덕성민’들의 불온한 동향을 용납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하지만, 굳이 대문의 반역

113) 서영교, 앞의 논문, 2009, 237쪽 ; 정선여, 앞의 논문, 2013, 45~46쪽 ; 한편 위 사료 K-①(신라본기)에서는 ‘대문’과 ‘실복’이 동일인물이라는 협주(夾註)가 부기되어 있으나, 그와 달리 사료 K-③(열전)에서는 ‘대문’의 처형 시점 이후에도 ‘실복’이 별도의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으로 볼 때 이 K-①의 협주는 본기 찬술자의 착오로서 ‘대문’과 ‘실복’은 동일 인물이 아니었음이 명확하다(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하)』, 2012, 807~808쪽). 추정하자면 안승을 대체할 왕족으로서 금마저에 잔류하던 ‘보덕성민’의 구심점이었던 ‘대문’이 처형된 이후, 그와 어떠한 관계가 있던 별개 인물인 ‘실복’이 반란의 지도자로서 새로이 부각되면서 후대의 전승에 혼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가 직접적으로 발각될 때까지 약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대응 없이 방치하였던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다. 어쩌면 금마저 일원에 잔류하고자 했던 ‘보덕성민’들의 숫자가 많을 뿐더러 자치권의 박탈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같은 반(反)신라 성향의 인물들을 일거에 색출·소탕할 수 있도록 마각(馬脚)을 드러낼 때까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긴 힘들 것이다.

다만 이 대문의 공개적인 처형은 주민들을 분격(憤激)시키면서 관리를 살해하고 금마저 및 주변 지역까지 점거하는 대규모 무장봉기로 비화(飛火)되었다. 정황상 이는 양측 어느 쪽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사태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 조정으로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강경책으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反)신라 세력의 준동을 억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조급함으로 인해 악수(惡手)를 두면서 더욱 큰 피해와 더불어 고전(苦戰)을 자초하였던 셈이다.¹¹⁴⁾ 반대로 실복 등의 보덕성민들로서는 격분한 주민들의 봉기에 편승하여 일단 관리들을 살해하고 성읍(城邑), 즉 금마저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이후 필연적으로 들이닥칠 신라 조정의 토벌군으로부터 당장의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을 것이다. 근래에도 익히 지적되었던바, 위 사료 K-③에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보덕성(금마저)을 떠나 과거 백제-신라 간의 접경 요충지였던 가잠성(假岑城) 인근에서 ‘결진(結陣)’하여 신라군을 맞이하였던 것 역시 그 일환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¹¹⁵⁾ 즉

114) 서영교, 앞의 논문, 2009, 237~238쪽.

115) 이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과거 진평왕대부터 벌어졌던 백제-신라 간의 교전 양상과도 연관되면서 크게 나누었을 때 안성 죽산 등지의 경기도 방면(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반란 직후 이들 보덕성민의 움직임이란, 보덕국(고구려)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신라 조정의 영향권을 탈출하여 원 본거지였던 서북 방면(한성)이나 요동 등지로의 귀환을 도모한 것이라 추정한 견해도 있었던 것이다.¹¹⁶⁾ 더 나아가 신라의 여러 주둔 군단(停) 및 지방행정 단위 등을 돌파해야 하는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 및 육상 교통로 등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왕경(경주)에서 상주(上州) 방면을 거쳐 금마저(익산)으로 직공(直功)할 수 있는 경로였던 가잠성을 확보하여 신라군을 선제적으로 방어·격퇴함으로서 보덕국 자체의 존속 및 세력 확대를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로를 통한 신라 영역의 탈출을

백제문화연구소, 1997 ;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 김창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 『신라문화』 34, 2009), 진천·괴산·보은·청주 등지의 미호천 및 금강 상류 방면(津田左右吉, 『麗濟境界考』, 『朝鮮歴史地理』, 1913 ;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 윤성호, 『신라의 한강 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금산·영동·무주·완주 등지의 충남~전북 내륙 방면에 걸친 신라-백제 간 접경지대(윤선태, 「무왕과 미륵사-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백제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 전덕재, 「가잠성의 위치와 그 전투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 87, 2013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 박종욱, 「가잠성의 지리적 환경과 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공방」, 『한국사학보』 84, 2021 ; 이도학, 「신라·백제의 경계와 아막성과 가잠성」, 『고조선단군학』 46, 2021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가잠성 전투와 공훈의 역사속」, 『북악사론』 18, 2023(a)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즉 대체로 이 같은 여러 견해들은 가잠성 자체의 전략적 가치 및 그를 둘러싼 1~3차 전투의 맥락을 ‘한강 유역으로의 북상’과 관련시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추풍령 경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 간의 공방전’으로서 이해할 것인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는데, 위 본문 중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684년 보덕성민 반란 당시의 정황 및 지정학적 조건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때의 가잠성 전투는 일단 후자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 본다.

116) 정선여, 앞의 논문, 2013, 47~51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79~82쪽.

지향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¹⁷⁾

물론 이처럼 중간 지점인 가잠성 일대까지 진출했던 실복 등의 반란군은, 귀당·황금서당 등의 중앙군 병력으로 구성된 신라 측의 토벌군을 맞이하여 상당히 선전하였을망정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였다. 그나마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이었던 이들이 와해됨에 따라 금마저의 성읍(城邑) 자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는 해당 지역을 직할의 금마군(金馬郡)으로 편입하고 기존 주민들을 남쪽 변경으로 사민(徙民)시키면서 보덕국의 해체를 확정하였다.

신라로서는 이를 통해 나당전쟁 시기 이래로 국내외적으로 부담이 되어오던 자국 영내의 고구려 유민 문제를 비로소 해소하며 체제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덕국의 해체·흡수가 대대적인 반란과 진압이라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귀결되어 버린 만큼, 그동안에 신라-보덕국 간의 관계상에서 연출해왔던 도덕적 명분과 그에 따른 자발적인 귀속이라는 구도는 당초 구상과는 달리 상당 부분 퇴색이 불가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 보덕성민의 반란이란 과거 신라가 공식적으로 백제·고구려 양국의 평정(平定)을 선언했던 668~669년 이래,¹¹⁸⁾ 684년 시점까지 거의 한 세대(世代)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유민(遺民)’들에게는 여전히 옛 고국의 기억과 정체성이 강고하며 계기만

117) 정덕기, 앞의 논문, 2023, 164~173쪽.

11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8년 11월 6일,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 2월 21일, “往者 新羅隔於兩國 北伐西侵 暫無寧歲 … 先王愍百姓之殘害 忘千乘之貴重 越海入朝 請兵絳闕 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讎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句麗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既平 四隅靜泰 ….”

있다면 언제라도 반(反)신라를 기치로 삼은 대규모 반란으로 폭발할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두려운 실상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옛 삼국 유민의식의 폭발력을 재인식하게 된 신라 조정으로서는 더욱이나 그를 제어하며 중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보덕성민의 반란이 진압되었을망정 그 전후의 처리에 있어 단순한 강경책의 반복은 지양(止揚)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위 K-① 사료와 같이 남쪽 변경으로의 사민(徙民)과 같이 징벌에 가까운 처분도 있었지만,¹¹⁹⁾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K-④ 사료에도 보이는바 벽금·적금서당의 편성(686)처럼 포섭·회유를 위한 일련의 온건 조치 역시도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686년 중에 옛 고구려 본국의 관품을 헤아려 경관(京官), 즉 신라의 경위(京位) 관등을 일괄 사여토록 한 조치도 주목된다.¹²⁰⁾ 그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아마도 ‘고구려민’ 뿐만 아니

119) 반란 진압 이후 보덕성민에 대한 사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685년에 신설된 남원소경(南原小京)의 개척(『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5년 3월)에 동원된 것이 그 실체였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임병태, 「신라소경고」, 『역사학보』 35·36합집, 1967, 90~92쪽). 실상 재지기반과 유리(遊離)시키며 그 세력에 타격을 준다는 사민(徙民)의 기본적인 의의를 감안하면, 애초부터 외부 이주민으로 재지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미약했을 보덕성민을 금마저에서 다시 이주시킨다 한들 과연 징벌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알기 어렵다. 혹여 684년의 반란 당시 보덕성민 뿐 아니라 금마저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과의 연계 및 참여를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 만큼(정선여, 앞의 논문, 2013, 55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79~81쪽), 어쩌면 보덕성민의 이주 조치는 그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이라기보다는 고구려계와 백제계 주민 집단 각각을 분리시키고 상호 연대 및 결집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한 의미가 더 컸던 것이라 이해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120) 『삼국사기』 권40, 雜志9 外官, “… 高句麗人位 神文王六年 以高句麗人授京官 量本國官品授之 一古浪 本主簿 ….”

라 ‘보덕성민’ 역시도 포괄하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이쪽이 주안점이었으리라 추정된다.¹²¹⁾ 즉 벽금·적금서당과 같은 중앙 군단을 신설하고 그 병력 구성원으로서 이들 보덕성민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과거의 반란 이력에 대한 사면 및 군관(軍官) 임용에 따른 관등체계 편입 등의 조치가 선결되어야 했을 것이다. 특히 이 686년의 고구려인 관등 사여가 대체로 일길찬(7위)부터 오지(烏知 / 15위 대오大烏, 혹은 16위 소오小烏로 추정)까지 중·하급의 실무 관료, 혹은 소규모 단위부대의 지휘관 정도에 해당하는 신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라 조정은 철저히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인식 아래 복속된 여러 주민 집단의 연혁과 정체성 등을 규정하며 재편하고자 하였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도는 실질적으로는 동계(同系)인 집단을 ‘고구려민(황금서당, 683)’과 ‘보덕성민(벽금·적금서당, 686)’, 그리고 ‘백제민(백금서당, 672)’과 ‘백제잔민(청금서당, 687)’으로 분할하여 편제하는 양상으로서 관철되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¹²²⁾ 이는 바로 직전의 보덕성민 반란의 경험과 그를 통한

121) 비슷한 맥락에서 안승 등과 더불어 왕정으로 이주했던 ‘고구려민’에 대한 포섭 및 신라 관등체계의 편입 조치는 동시기 황금서당의 창설 시점(683)에서 이미 선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22) 672년 시점에 백금서당으로 편성된 ‘백제민’과 687년 시점에 청금서당으로 편성된 ‘백제잔민’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본문에서 논한바 ‘고구려민’과 ‘보덕성민’과 유사한 관념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기왕에 이 ‘백제잔민’은 660년대 사비 함락 이후의 백제 부흥운동이나 670년대 부여를 휘하 웅진도독부의 축출 과정에서 전쟁포로 혹은 사민 등의 방식으로 신라로 유입된 집단으로서 추정되어 왔는데(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56~357쪽; 노중국, 앞의 논문, 1999, 195~196쪽; 서영교, 앞의 책, 2006, 164~171쪽), 다만 백금서당(672)과 청금서당(687) 각각의 창설 시점과 그 배경 등을 고려한다면 660~670년대에 걸쳐 신라의 통제 하에 놓인 백제계 주민들의 경우 일괄 ‘백제민=백금서당’으로 편제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백제잔민’은

교훈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것처럼 분할된 여러 주민 집단들을 신라와의 관계 및 충성도와 같은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상호 경쟁시킴으로서, 공통적인 연계 및 결집을 막고 중앙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던 책략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있어 신라의 대응이란, 결론적으로는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라는 고금(古今)의 대원칙에 대단히 충실하였던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일통’이란, 한반도 역내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이자 옛 삼국의 정통성을 모두 포괄하는 신라 중심의 체계모니 속에 보덕성민(즉 고구려계)를 비롯한 여러 이질적인 주민 집단들을 융화시켜야만 하는 당대 신라 지배층의 수요를 채워줄 이념적 장치로서 새로운 측면이 재차 인식될 수 있었다.

즉 본래 660년대 무렵까지는 자국을 위협하는 ‘양적(兩敵)’을 평정한 성왕(聖王) 태종무열왕(으로 대표되는 중대 왕실)과 양신(良臣) 김유신 등의 위업과 공덕을 현창(顯彰)하려는 다분히 신라만의 내부적인 의미에서 ‘일통’의 관념이 출발하였다. 그런데 앞서 2장에서 논하였던 바와 같이, 이는 670년대 이래 나당전쟁을 거치며 당의 기미주 분할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이자 신라의 한반도 역내 체계모니 장악 및 영토·주민의 확보를 정당화하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전환되

그 이후 68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백제민’과 구분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관련하여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바 684년 보덕성민의 반란 당시의 여러 정황상 금마저 일대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도 반(反)신라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여기에 호응했으리라는 견해들이 참고가 된다(정선여, 앞의 논문, 2013, 55쪽 ; 정원주, 앞의 논문, 2019, 81쪽). 그렇다면 이 ‘백제잔민’이란 적어도 660~670년대 이래 신라에 완전히 복속되어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백제민’과는 달리 680년대까지도 반(反)신라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덕성민의 반란에 연루되었던 금마저 등지의 백제계 주민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겠다.

었다. 그리고 마침내 680년대에는 ‘일가(一家)’로서 옛 삼국(=삼한) 전체의 정통성을 포용하며 다양한 피복속민 집단을 신라 중심의 단일한 국가체제의 일원으로 포섭·협조시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통합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말하자면 이처럼 무열·문무왕대부터 신문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국가와 왕실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논리와 이념적 기반을 점차 구체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완성해가는 일련의 중장기적 과정의 산물이 곧 ‘(삼한)일통’ 이념이었던 것이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7세기대 이래 신라가 그러한 ‘일통’의 면모를 상징, 혹은 구현하고자 했던 양상을 더 살펴볼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L-①. 거문고(玄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신라고기」에서 이르기를, 처음에 진(晉)에서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악기임을 알았으나 그 소리(聲音)와 연주법을 알지 못하여 나라 사람들(國人) 중에 능히 그 소리와 연주하는 법을 아는 자를 구하여 후한 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 때 제2상(第二相)이던 왕산악(王山岳)이 그 본래의 모습을 두되 그 법제(法制)를 다소 고치고 바꾸어 만들어내고는 겸하여 100여 곡을 지어서 연주하였다. 이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추니 마침내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하였는데 뒤에 다만 거문고(玄琴)라고만 하였다. …¹²³⁾

L-②. 천수(天授) 4년【즉 장수(長壽) 2년(693)이다.】 계사(癸巳) 늦은 봄에 (국선 부례랑이) 무리를 거느리고 금란(金蘭, 현 통천 일대)으로 놀러왔다가 북명(北溟, =溟州)의 경계에 이르러 적적(狄賊)에게 붙잡혀 갔다. … 대왕

123) 『삼국사기』 권32, 雜志1 樂, “…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 人 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第二相王山岳 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 以奏之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

(=효소왕)이 이를 듣고는 놀람과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말하기를 “선왕께서 신이한 피리(神笛, =만파식적)를 얻으셔서 이 몸에게까지 전하니 지금 거문고(玄琴)와 같이 내고(內庫)에 두었는데, 어인 일로 국선(國仙)이 문득 적의 포로가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거문고와 피리에 관한 일은 다른 기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때에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를 덮으니 왕이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창고 안의 거문고와 피리 두 보물이 사라졌다. (대왕이) 이에 말하기를 “짐이 어찌 복이 없기로 저번에는 국선을 잃고서는 또 거문고와 피리를 잃었는가?”라고 하고는 이에 창고를 맡은 관리(司庫吏)인 김정고(金貞高) 등 5인을 가두었다. (693년) 4월에는 나라 안에 수소문하기를 “거문고와 피리를 얻는 자는 1년 치의 조세를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¹²⁴⁾

위 L군 사료들은 고구려 문화의 상징으로서 ‘거문고(玄琴)’의 존재와 그것을 대하는 신라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사료 M-①에서 ‘신라고기(新羅古記)’를 인용한 『삼국사기』 악지(樂志) 기록에서 보듯이 거문고와 그 악곡들은 본래 고구려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당대인들에게도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 혹은 정체성을 대표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었던 듯하다.¹²⁵⁾ 그리고 사료 L-②에서는 그러한 거문고가 이미 고구려가 멸망한지 오래인 7세기 후반 시점에서도 신라 왕실에 의해 내고(內庫, 즉 천존고天尊庫)에 엄중히 보관되면서 그

124) 『삼국유사』 권3, 塔像4 柏栗寺, “天授 四年【□長壽二年】癸巳暮春之月 領徒遊金蘭 到北溟之境 被狄賊所掠而去 … 大王聞之 驚駭不勝曰 先君得神笛傳于朕躬 今與玄琴藏在內庫 因何國仙忽爲賊俘爲之奈何【琴笛事具載別傳】 時有瑞雲覆天尊庫 王又震懼使檢之 庫內失琴笛二寶 乃曰 朕何不予昨失國仙又亡琴笛乃因司庫吏金貞高等五人 四月募於國曰 得琴笛者賞之一歲租.”

125) 한홍섭, 「고구려의 문화전통과 거문고」, 『인문연구』 48, 2005, 311~318쪽; 이는 또한 과거 진흥왕대 가야제국의 복속 과정과 관련하여 우륵(于勒)에 의해 신라로 전래되고 활용되었던 가야금 및 그 연주곡들의 의미와도 유사한 사례로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유명한 만파식적(萬波息笛)에 버금가는 국보(國寶)로서 취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만파식적이란 7세기 당시 시점에서 일통(一統)의 달성으로서 국가의 평안을 불러온 왕실(문무왕) 및 김유신의 음덕(蔭德)을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그러한 만큼 이와 짝을 이루는 보물로서 하필 일통(一統)의 주된 대상 중 하나였던 고구려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거문고가 언급된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 아울러 비록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이러한 거문고의 소실이 국선(國仙) 부레랑의 피랍과 같은 북방 영역, 즉 고구려고지에서의 변고(變故)와도 연관되면서 조정 차원에서도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7세기 후반 신라는 만파식적과 더불어 거문고를 같은 시기 중대 왕권이 이뤄낸 ‘일통’을 상징하는 신성한 국보로서 취급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중에서도 거문고의 경우는 고구려 그 자체가 신라에 의해 복속되어 그 문화와 정통성 역시도 자국의 일부로 정당하게 통합되었다는 역사·정치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기에, 만파식적과도 대비되는 보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7세기대를 전후하여 거문고와 같은 악기 및 음악이라는 일견 사소한 측면에서도 신라는 고구려가 이미 자국의 일부로 통합된,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의도를 내포하며 ‘일통’의 이념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인식의 근원은 다름 아닌 과거 문무·신문왕대까지 이어졌던 고구려 유민, 즉 한성 고구려국 및 보덕국에 대한 경략(經略)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 지금까지 문무~신문왕대에 걸쳐 보덕국(한성 고구려국)으로 대표되는바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신라의 경략(經略) 및 통합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668년 이래 고구려고지 전역에 걸쳐 당의 지배에 대한 유민들의 저항과 이탈이 빈발하였는데, 그 중 특히 한성(漢城)·평양(平壤) 등의 서북방면을 기반으로 삼은 안승·고연무 등의 활동 양상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인접한 신라 역시도 배후에서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이는 즉 나당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옛 삼국의 분할·병존을 골자로 하는 당 기미주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그를 파훼하며 신라의 영향력을 부식(扶植)시키기 위한 전략적 안배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70년대 초 옥골·개돈양 전투부터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들은, 곧 요동 방면에서 남하한 검모잠 집단과 한성 방면의 고연무 집단이 신라의 후원과 책봉 아래 옛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계승자(嗣子)’로서 공인된 존재인 안승을 매개로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과의 연계를 통해 서북방면에 걸친 종심(縱深)을 확보하여 북방전선을 상당 기간 안정시킨다는 실질적인 전략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대왕’이 보다 우월한 위계에서 ‘고구려왕’을 책봉·공인하였던 의례는 향후 고구려의 영토와 정통성 등에 대하여 신라가 어떠한 연고권 혹은 지분을 주장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과거 취리산 회맹으로 대표되는바 당의 기미주 체제에서 내세우던

논리를 우회·무력화시키면서, ‘평양이남과 백제토지(혹은 표상으로서의 삼한)’라는 한정된 권역에서만큼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hegemony)를 관철하여 왕자(王者)로서의 위상과 도덕적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장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672~673년에 걸쳐 당군의 본격적인 공세 아래 신라-고구려 연합군이 수차례 참패를 맛보면서, 신라의 후원에 의존하던 한성고구려국은 서북방면의 원 근거지를 상실하고 점차 소멸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왕 안승을 비롯한 잔여세력은 673년 무렵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으며, 신라는 사실상 대규모 무장 난민에 가까운 이들에 대한 원활한 통제와 감시를 위해 금마저(익산)에 집단적으로 안치시켰다. 아울러 674년에는 안승을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금 책봉하였는데, 이는 신라에 대한 종속적 성격을 강화하며 상하 위계를 명확히 자리매김하려는 조치였다. 이는 더 나아가 674년 시점에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번병(藩屏)’이자 ‘외원(外援)’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하여, 옛 강국 고구려까지도 복속시킨 ‘대국(大國)’ 신라의 위덕(威德)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의례적·이념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신라로서는 자국 영내에서 자치를 행하는 대규모 이민족 집단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보덕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언젠가는 동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전면적인 침공이 예고되어 있던 674~676년의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일단 현상 유지 상태로 보류해둘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나당전쟁이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일단락되면서 신라 조정 내에서 보덕국의 처리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문무왕대에는 그 스스로가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

며 보덕국을 책봉하고 공인한 당사자라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명목상 변국으로서의 외형만큼은 남겨두면서 정략결혼 등의 수단으로 신라 왕실과의 친연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그를 매개로 고구려의 정통성 자체를 신라로 이식(移植)하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신문왕대에 들어서는 즉위 직후 김흠돌 세력의 숙청을 계기로 당시 신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추진되던 중앙집권화·관료화라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보덕국의 처리 역시도 전면적인 해체와 동화라는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683년 10월 국왕 안승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왕경 소환이라는 조치로 드러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보덕국의 해체와 더불어 그 구성원을 관료와 공민으로서 신라 국가의 통치 체계 아래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신라에게 있어 이러한 조치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오로지 중대 왕실만을 유일한 정점으로 삼은 중앙집권적·일원적인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갈등의 소재가 되어 왔던 고구려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曰可曰否)할 맥락을 미리 봉쇄하면서 당과의 관계 개선 및 정세 안정화를 꾀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라의 조치는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친(親)신라와 반(反)신라를 둘러싼 보덕국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을 재차 표면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는 684년 11월 대문의 처형 등의 사건을 거쳐 금마저에 잔류하던 보덕성민의 대대적인 반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반란은 무력으로 진압되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는 옛 삼국의 정체성과 유민 의식이 가진 폭발력을 신라 조정이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신라는 이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사민(徙民)과 같은 강

정책만이 아니라, 9서당 편성 및 경위(京位) 관등의 수여와 같이 포섭과 회유를 위한 온건책도 병행해야만 했다. 다만 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동계(同系)의 집단일지라도 철저히 신라 중심적인 인식과 기준 하에 ‘고구려민(황금서당, 683)’과 ‘보덕성민(백금·적금서당, 686)’, ‘백제민(백금서당, 672)’과 ‘백제잔민(청금서당, 687)’을 분할하여 경쟁시킴으로서, 개별 주민 집단 상호 간의 연계를 막고 중앙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필요성 아래 이미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태동하던 ‘일통’의 이념 역시 그 가치가 재인식되었다. 즉 신라의 고구려 유민(보덕국/한성 고구려국)에 대한 경략(經略)의 과정에서, ‘삼한’으로 지칭되는 옛 한반도 삼국 전체를 신라 중심의 ‘일가(一家)’로 통합하려는 이념이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거문고(玄琴)와 같은 고구려 계통의 문화적 전통 역시 그러한 ‘일통(一統)’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한 측면으로서 수용 및 활용되었던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처리와 통일인식

| 정덕기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처리와 통일인식

정 덕 기*

- I. 머리말
- II. 7세기 전반 삼국정립의 폐기와 전쟁 목적의 변화
- III. 백제·고구려 멸망의 전후처리와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는 551~554년 북진·서진을 통해 16군과 한강 하류를 확보하였다. 6세기 후반 신라의 영역 팽창은 진흥왕이 삼국정립(三國鼎立)을 도모한 결과였다. 삼국 항쟁은 579~601년 소강기에 진입하나, 602·603년부터 격화되었다. 7세기 전반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공격으로 최대 판도를 누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 ‘공훈의 역상속’을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인정하는 등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¹⁾

신라는 648년 나당동맹을 맺어²⁾ 660·668년 백제·고구려를 평정하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이겨 삼국을 통일하였다. 삼국통일은 통사적·단대사적 의의가 크나, 양국 부흥군 진압과 영토·백성 흡수, 나당전쟁, 나당 관계 재설정 등 과제와 외세 이용, 고구려 영토·백성의 불완전한 흡수 등 한계가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관련 주요 논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관 논의는 삼국통일을 긍정하는 삼국통일론,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백제통합론·9세기 삼한일통의식 성립설(이하 ‘9세기 설’) 등이 대표적이다. 신라인의 삼국통일 인식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신라사 시대구분에 반영되었다.³⁾ 전근대 한국사학은 정통론적 인식에서 대개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였다. 근대 이후 사학은 정통론적 인식을 파기하나, 대개 긍정적 인식을 계승해 통설로 수용하였다.⁴⁾

백제통합론은 1988년경 시대적 과제의 궁극적 귀결점을 민족통일로 보고, 삼국통일 관련 사실의 실증·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동사강목』·『발해고』·『대동지지』은 신라·발해 병존을 주목해 삼국통일회의론을, 단재는 민족사적 과제를 인식해 삼국통일부정론을 제기하였다. ②나당동맹은 김춘추의

1)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29~48쪽 ;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a), 152·184~190쪽.

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648) ; 『자치통감』 권199, 唐紀15, 太宗貞觀 22년(648) 閏 12월 癸未, 6265쪽.

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敬順王 9년(935) 12월 論曰 ; 『삼국유사』 권1, 왕력1.

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9~24쪽. 이 글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는 신라 통일론과 이를 부정하는 남북국시대론·후기 신라론·중국고구려사론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복수, 신 귀족 세력의 당파적 이해, 고구려 원정의 전략적 파트너를 찾던 당의 이해가 부합한 결과이다. ③백제통합전쟁은 중대 왕실이 왕권 강화를 통한 체제안정을 위해 선택한 대외전쟁이다. ④백제통합전쟁은 당이 주도하였고, 신라는 대동강 이남 백제 고지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신라는 676년 한강 이남 군현 정비에 주력하고,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은 735년 당을 도와 발해를 견제한 대가로 얻었다. ⑤신라 중·하대 금석문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일통삼한의 식은 백제통합전쟁 후 창안된 경주 중심 골품 귀족의 허위의식이다. ⑥백제통합전쟁의 의의는 국내 세력의 당파적 이익 추구하고 외국의 자국 이익 추구가 빚은 반역사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⁵⁾

백제통합론에 대한 주요 비판이 제기되었다. 7세기 후반 일통삼한의 식, 신라의 한반도 상당 부분 통합을 주목해 ‘통일신라’란 용어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⁶⁾ 백제통합론의 과제로 ①단재 사관의 학술성 재검토, ②사실·실증 위주 역사해석 중시, ③발해사의 실상, 한국사 귀속 근거 구체화, ④생소한 용어·개념의 정확성 제고, ⑤고대·중세 구분 기준 명료화 등이 제시되었다.⁷⁾ 또 삼국통일부정론의 문제와 삼국통일전쟁사를 종합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①신라는 고구려 유산을 상당히 계승하였고, 나당동맹은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즉 평양 이남 고구려 토지와 백제 토지의 신라 귀속을 약정하며 체결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전쟁 목적은 백제병합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삼국은 동질성을 지닌 세계이므로, ‘통일’의 개념은 성립한다. ③삼국통일전쟁의 의의는 최초의 동족 의식인 삼한일통의식의 발생, 고도로 정비

5) 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143~144·238~267쪽.

6) 李昊榮, 「統一新羅」號稱問題, 『白山學報』 52, 1999.

7) 이영호, 「서평 :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된 중앙집권국가 성립, 중세 국가 대외정책의 틀 마련 등에 있다.⁸⁾

한편 이 논쟁 중 백제통합론이 지적인 삼국통일론의 연원을 참고해 통일신라는 식민·근대 사학의 발명·상상이란 견해와⁹⁾ 신라통일론은 전근대 유가사학 담론의 재편·전위란 견해가 대립하였다.¹⁰⁾

백제통합론의 반론이 있었다. 7세기 후반 전쟁은 신라·당은 백제 통합·고구려점령을 목표로 하였다. 676년 신라는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고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 획득을 위한 북진이 없었다. 백제 통합전쟁은 신라가 중세적 중앙집권체제로 이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¹¹⁾ 일통삼한의식의 내용은 나당외교 중 여·제 평정(668)→고구려 제외 일통삼한(673)→고구려 포함 일통삼한(692)으로 변화하였다. 삼국통일론은 식민사관의 삼국통일론이 만선사관과 해방 공간의 변용을 거쳐 정착하였다. ‘통일신라’는 영토한계로 인한 편의적 명칭이며, 백제통합론에 따르면 거론할 필요가 없다.¹²⁾ 이후 백제통합론자는 자설 재정리,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출하였다.¹³⁾

삼국통일론의 반론이 있었다.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전후 고구

8) 노태돈, 앞의 책, 2009, 24~42·297~304쪽.

9)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新羅文化』 29, 2007 ; 「‘신라 통일론’을 다시 말한다」, 『창작과 비평』 146, 2009.

10) 김홍규, 「신라통일 담론은 식민사학(植民史學)의 발명인가」, 『창작과 비평』 145, 2007.

11) 김영하,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6, 2009.

12)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75~207·208~248쪽.

13) 김영하,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韓國史學報』 56, 2014 ;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38, 2016 ;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 129, 2019(b).

려 영토 분할선, 신라·당의 작전 구역 약정이다. 676년 이후 신라는 방어망 확대에 따른 위험성 축소를 위해 임진강 이북~대동강 이남의 영역화를 미뤘다. 680년대 초·중반 일통삼한의식이 형성되나, 그 변화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삼국통일론은 식민사학처럼 지리결정론에 기초하지 않고, 지리결정론에 기초해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¹⁴⁾ 또 백제통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되었다.¹⁵⁾

백제통합론은 ‘신라가 삼한일통을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명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당·신라의 주도성·피동성을 강조하였다. 삼국통일론·백제통합론 논쟁은 평행선을 이루며 대립이 격화되나, 삼국통일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드러내 삼국통일의 의의를 풍부히 볼 단서를 마련하였다. 논쟁 과정에서 기존 명제는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며 삼한일통의식을 수립하였다’로 전환되었다. 즉 삼국통일전쟁·삼한일통의식의 관계는 ‘사상·의식이 행위·경험을 발현한 사례’에서 ‘행위·경험이 사상·의식을 구축한 사례’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연구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7세기 후반 한국사의 격변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학계에 주문하였으므로, 이 논쟁은 건전한 인문학적 논쟁이었다.

한편 백제통합론을 분석·비판하며 신라는 백제만 통합하였고, 9세기 삼한일통의식이 성립했다는 설(‘9세기 설’)이 제기되었다. 이 설은 「청주운천동사적비」를 나말여초~10세기 초 고려 광종대 자료로 보아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를 <표 1>처럼 설명하였다.

14) 노태돈, 「[說林]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研究』 154, 2011.

15) 김수태, 「[서평]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

〈표 1〉 ‘9세기 삼한일통의식 성립설’의 삼한일통의식 성립 시기와 약칭 변화

No.	게재 연월	약칭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
①	2013.06	·	나말여초
②	2014.07	·	9세기 중반
③	2016.12	9세기 설	9세기 말
④	2019.02 2023.05	9세기 설	9세기(단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는 나말여초)
⑤	2019.06	10세기 설	10세기 고려
⑥	2023.12	10세기 설	고려 초기 광종대

※ 출전 :

- ①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2013(a).
- ②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三韓-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2014, 180쪽.
- ③ 윤경진, 「三韓-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韓國史研究』 175, 2016(a), 34쪽 ; 「중국·일본의 ‘三韓’ 인식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 文字』 17, 2016(b), 62쪽.
- ④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a) : 정요근 엮음, 기경량 등 12명 지음,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2023, 18쪽.
- ⑤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와 건립 배경-최근 비판에 대한 반론과 추가 판독-」, 『韓國史研究』 186, 2019(b), 112쪽.
- ⑥ 윤경진, 「「청주운천동비」의 판독과 건립 시기에 대한 종합적 검토」, 『木簡과 文字』 31, 2023(e), 102쪽.

※ 범례 : ①약칭 : 논자 스스로의 약칭. ②굵게 : 동일 연도에 게재했지만, 내용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설은 삼한일통의식을 하대인 흥덕왕~경문왕대(826~875) 정치 변동에 기인한 정치·체제이념 변화의 산물로 보았다.¹⁶⁾ 신라의 백제 통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2가지이다. ①나당동맹 체결 당시 신라는 백제 고토 인식을 고려해 ‘평양 이남=백제 토지’ 귀속을 주장하였다. ②백제·고구려 멸망 후 신라·당은 백제·고구려 고지를 가

16)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三韓-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2015(a) ; 「신라 神武-文聖王代 정치 변동과 三韓-統意識의 출현」, 『신라문화』 46, 2015(b) ;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韓國史學報』 61, 2015(c).

졌다.¹⁷⁾ 이 설은 현재진행 중인 일설이고, <표 1>처럼 때때로 논지 변화가 있다. 따라서 논자의 종합정리를 기다려 이해해야 한다.

삼국통일부정론 비판은 상당하다. 신라의 천하관 변화와 삼국통일의 관계 및 신라·고려 삼국통일론의 차이,¹⁸⁾ 태종 시호 논변 자료의 혼란 원인과 무주 교체, 나당전쟁 중 임진강 이북 진출¹⁹⁾ 등에 대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연대와 중국·신라 자료 속 삼한·구한 의 용례 검토,²⁰⁾ 『일본서기』의 삼한 용례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 형성 시기 검토,²¹⁾ 삼국통일부정론에 대한 종합반론이 나왔다.²²⁾ 또 9세기 설의 삼국통일론 반론,²³⁾ 삼국통일부정론 간 반론이 있었다.²⁴⁾ 이후 「답설인귀서」의 사료적 가치, ‘삼국통일전

17)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c).

18)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32, 2014 ; 「일연의 삼한·삼국통일론」, 『서강인문논총』 43, 2015 ;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41, 2017.

19)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 38, 2016.

20) 전진국, 「『九韓』의 용례와 ‘韓’에 대한 인식」, 『新羅史學報』 36, 2016(a) ; 「三韓의 용례와 그 인식」, 『한국사연구』 173, 2016(b) ; 전진국, 「『청주운천동신라사적비』의 제작 연대 검토」, 『한국사연구』 184, 2019 ; 하일식, 「운천동사적비의 역사환경, 판독 교정」, 『木簡과 文字』 30, 2023.

21) 노태돈, 「삼한일통의식의 형성 시기에 대한 고찰-일본서기 ‘삼한’ 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16, 2016.

22) 기경량,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 128, 2019 ; 전덕재,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역사비평』 128, 2019 ; 정요근 엮음, 기경량 등 12명 지음,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2023, 68~92·40~65쪽.

23)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a) ;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 129, 2019(c) ; 정요근 엮음, 기경량 등 12명 지음, 앞의 책, 2023, 18~38·94~128쪽.

24) 김영하,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쟁'이란 용어 등이 검토되었다.²⁵⁾ 최근 삼국통일부정론의 폐해,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약정의 해석사를 살핀 견해가 나왔다. 659년 이 약정은 이미 효력이 없지만 「설인귀서」의 대응 수단으로 호출되며, 735년 대동강 이남을 신라 토지로 승인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

선행연구의 주요 초점인 “평양 이남 백제 토지” 약정, 삼한일통의식 등은 백제·고구려 멸망 후 자료에 보이는 표현이다. 연구를 진전시키려면 백제·고구려 멸망전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라는 백제 멸망전을 개전하며 신라·당의 약정을 거론하지 않았고, 고구려 멸망전을 마치고 양국 평정 완료를 공표하였다. 신라의 양국 멸망에 대한 전쟁 인식·전후처리를 통해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검토하면, 신라의 삼국통일 인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신라가 643년에 인식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이 660·668~669년에 진행한 양국 멸망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양국 멸망 전후처리와 삼국통일인식의 발생 과정을 논의하겠다. 2장에서는 602~659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과 신라의 청병 외교를 분석해 643년 신라의 전쟁 목적이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되었음을 논의하겠다. 3장에서는 양국 멸망 전후처리를 비교·분석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 ;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제론2-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a) ; 윤경진, 「[설립]三韓一統意識은 7세기의 이념인가-백제병합론의 반론에 대한 제론-, 『한국고대사연구』 93, 2019(d).

- 25) 김진한, 「『答薛仁貴書』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2014 ; 이재환,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2019 : 정요근 엮음, 기경량 등 12명 지음, 앞의 책, 2023, 160~181쪽.
- 26) 윤진석,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 『교양인을 위한 역사학 교실』, 이른비, 2022, 251~262쪽.

하고, 668년 헌부례 시행, 669년 백제·고구려 평정 교서(이하 ‘양국 평정 교서’) 반포의 함의를 분석하겠다. 이 글이 유관 분야 연구의 기초 검토로 쓰이길 기대한다.

Ⅱ. 7세기 전반 삼국정립의 폐기와 전쟁 목적의 변화

중고기 전반 신라는 삼국정립을 목적으로 고구려·백제와 전쟁을 수행하였다. 중고기 후반 신라는 지속된 수세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므로, 신라의 전쟁 목적은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진흥왕(540~576)은 신라사에서 영역을 가장 많이 넓혔고, 삼국정립을 목적으로 고구려·백제를 공격하였다. 진흥왕은 551년 9월 고구려 멸망을 위한 백제의 추가 북진 제안을 거부하고, 553년 2월 신주를 두며 나제동맹을 파기하였다. 또 진흥왕은 554년 7월 관산성에서 성왕, 좌평 4인, 백제 전군에 가까운 대병을 참살하였다.²⁷⁾

551~554년 신라의 고구려 멸망 가능성은 낮지만, 백제 멸망 가능성은 높다. 백제는 관산성 전투의 패전 책임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되며,²⁸⁾ 전력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관산성 전투 후 백제의 첫 대규모 신라 공격은 아막성 전투(602년 8월)에서 가능하였다. 554년 진흥왕은 21·29세의 장년이며, 친정 4년째였다.²⁹⁾ 젊은 나이와 친정

27)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14~18·31·41~45쪽.

28) 김병남, 「백제 威德王代의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韓國上古史學報』 43, 2004, 69~70쪽.

2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卽位條(540) 및 眞興王 12년(551) 春 正月 ; 『삼국유사』 권1, 기이2, 眞興王. 진흥왕은 7세(본기)나 15세(기이)에 즉위해 태후

초 치적으로 보아, 진흥왕은 정국을 주도하였다. 진흥왕이 백제멸망을 도모했다면, 백제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 후 전쟁을 통한 영역확장을 멈추었다. 관산성 전투 후 진흥왕의 군사 활동은 562년 7월 백제의 노략질에 대한 대응, 562년 9월 가야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 뿐이다.³⁰⁾ 555년 이후 진흥왕은 지방통치체제 정비(555~565년, 571년), 북제·진 외교(564~572)에 주력하였다.

555년 이후 진흥왕의 행보는 신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551~553년 이전 신라는 단기간에 16군 이상의 영역을 확보한 경험이 없었다. 새 영역은 고구려·백제와의 격전지이자 새 접경이므로, 새 영역의 안정적인 경영과 영역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삼국정립은 삼국의 공존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 항쟁 주도권을 확보해 신라 우위의 삼국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思考)이자, 진흥왕이 전쟁을 수행한 목적이었다. 진흥왕은 신라에 비해 고구려·백제를 대등 혹은 하위 국가로 인식하였다. 진흥왕은 고구려 보전을 위해 성왕과 대립하며, 고구려인이 감복해 우호를 맺어야 할 정도의 큰 덕을 갖춘 왕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³¹⁾ 564년부터 활성화된 진흥왕의 대남북조 외교는 삼국 중 진흥강국으로 성장한 신라의 위상을 동아시아에서 인정받고, 유사시 대중 외교를 통해 551~554년의 삼국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삼국정립은 중고기 후반에 계승되었다. 중고 왕실은 진흥왕 직계

가 섭정하였다. 551년 개국(開國)으로 개원하며 친정하였다(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1976, 669쪽).

3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23년(562) 秋 7·9월.

31) 『삼국유사』 권1, 기이2, 眞興王.

로 이어지므로, 삼국정립을 비판할 필요가 없었다. 또 삼국 항쟁 중 소강기는 진평왕 전기(579~601)까지 지속되므로, 554년 형성된 삼국 판도는 60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신라가 삼국정립을 양국 멸망으로 전환한 시기는 언제일까? 신라는 660년 나당연합군을 활용해 백제멸망전을 시작하므로, 이 문제의 해답은 602~659년의 전황에서 찾아야 한다. 이 기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진평왕 후기~태조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百濟戰
일람(A)·對高句麗戰 일람(B), 신라-백제·고구려 전쟁 종합 전황(C), 신라의
백제방어전 전황과 전장(D)

진평왕 후기~태조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百濟戰 일람(A)						
연월	No.	교전 지역	지휘	병종	규모	전과 및 비고
602 진평 24 建福 19 무왕 3 秋 8월	①	阿莫城 일대 (1차)	장군 (4)파진찬 3인 乾品·武梨屈·伊利伐 장군 (9)급찬 2인 武殷·比梨耶 소감 2인 黃山(무은 子)·第項	壯士 (精騎)	數千	四방어 성공 신라 방어체계 강화 귀산 : 추증 '(11)나마' 추항 : 추증 '(12)대사'
			무왕 좌명 解讎	步騎	40,000	靑公격 실패 (解讎僅免, 單馬以歸)
605 진평 27 建福 22 무왕 6 秋 8월	②	백제 東鄙	.	兵	.	靑公격 실패
			.	.	.	靑방어 성공
611 진평 33 建福 28 무왕 12 冬 10월	③	楸岑城 (1차)	현령 讚德 諸將	士卒 兵	3州 兵	四방어 실패 성 함락(城沒), 3州(上·下·新) 兵 지원, 100여 일간 전투 찬덕 전사
			.	兵	大	靑公격 성공 (滅其城)
616 진평 38 建福 33	④	母山城 (阿莫城) (2차)	.	.	.	四방어 성공 (변화 없음)
			달솔 菡奇	兵	8,000	靑公격 실패

무왕 17 冬 10월						(변화 없음)
618 진평 40 建福 35 무왕 19	⑤	楸岑城 (2차)	북한산주 軍主 邊品 金山幢主 (10대나마 奚論	師	·	楸岑성 성공 가잠성 회복(取之, 復之) 해론 전사
			·	兵	·	백방어 실패
623 진평 45 建福 40 무왕 24 冬 10월혹 秋	⑥	勒努縣	·	·	·	백방어 성공 (변화 없음)
			·	兵	·	백공격 실패 (변화 없음)
비고	진평왕 본기는 겨울 10월의 일로, 무왕 본기는 가을, 즉 7~9월의 일로 기록.					
624 진평 46 建福 41 무왕 25 冬 10월	⑦	速含城 櫻岑城 岐岑城 烽岑城 旗縣城 穴柵城	訥催 5軍의 將	兵 (士卒) 軍	5軍	백방어 실패 2州(上·下)軍+3幢(貴·法·誓) 軍 등 5軍 지원 3성(속함·기잠·할책) 등 함락 (沒·滅, 降), 3성(양잠·봉잠·기 현) 등은 백제 不克 눌치 전사 : 추증 '9급찬'
			·	兵	·	백공격 성공 6성 함락(取之)
626 진평 48 建福 43 무왕 27 秋 8월	⑧	王在城 (主在城)	성주 東所	·	·	백방어 실패 (拒戰死之)
			·	兵	·	백공격 성공 (執城主 東所, 殺之)
627 진평 49 建福 44 무왕 28 秋 7월	⑨	신라 西鄙 2城	장군 沙乞	·	·	백방어 실패 2성 함락, 남녀 300餘口 뺏김. 백공격 성공 2성 함락, 남녀 300餘口 획득. [7월]신라를 공격하고자 크게 병사를 일으켜(大擧兵) 웅진에 주둔(出屯)하나 신라·당 관계로 인해 곧 중지.
628 진평 50 建福 45 무왕 29 春 2월	⑩	楸峯城 (楸岑城) (3차)	·	師	·	백방어 성공 (出師擊破)
			·	兵	·	백공격 실패 (不克而還)

632 선덕 1 建福 49 무왕 33 秋 7월	⑪	마상	.	.	.	ᄇ방어 성공 (변화 없음)
			.	兵	.	ᄇ공격 실패 (不利)
633 선덕 2 建福 50 무왕 34 8월	⑫	西邊 (西谷城)	.	.	.	ᄇ방어 실패
		將	.	.	.	ᄇ공격 성공 13일 만에 서곡성 함락(拔)
636 선덕 5 仁平 3 무왕 37 夏 5월	⑬	西南邊 玉門谷 (獨山城 일대)	장군 2인 關川·弼吞	兵	.	ᄇ방어 성공 (掩擊盡殺, 掩至壘擊)
		장군 于菟	甲士	500		ᄇ공격 실패 (于菟登大石上, 彎弓拒戰, 矢 盡爲所擒)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秋 7월	⑭	國西 獼猴城 등 40여성	.	.	.	ᄇ방어 실패
		의자왕	兵	.	.	ᄇ공격 성공 (攻取, 下)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8월	⑮	黨項城	.	.	.	ᄇ방어 성공 당에 구원 요청(遣使講救於唐)
			.	兵	.	ᄇ공격 실패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나(發兵 攻之), 병사를 파함(罷兵)
비고	이 기사는 642년이 아닌 643년의 사건이며, 당항성에 대한 공격보다는 한주 남부 공격으로 이해된다(정덕기,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軍史』 129, 2023(b), 240~243쪽).					
642 선덕 11 仁平 9 의자 2 8월 是月	⑯	大耶城	도독(혹 성주) 2)이 찬 品釋 佐 (6)아찬 西川(혹 (8)사찬 祗那 佐 (13)사지 2인 竹竹·龍石 幕客 (13)사지 黔日 諸將	士卒	.	ᄇ방어 실패 대야성 함락(拔, 陷, 敗) 김품석 : 처자와 항복하나 살해 (혹 처자를 죽이고 자진) 서천(혹 자삼나) : 전사 죽죽 : 추증 '(9)급찬' 웅석 : 추증 '(10)대나미' 검일 : 660.8.2 사자를 찢어 죽임
		장군 允忠	兵	10,000		ᄇ공격 성공 함락 후 병사를 남겨 대야성 지 킴(留兵守其城), 품석과 처자의 수급을 왕도로 보냄(品釋與妻

						子, 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남녀 1,000여인 획득 후 백제 서쪽 주현으로 사민(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 운충 : 말 20필·곡식 1,000석 받음(王賞允忠功, 馬二十匹·穀一千石)
644 선덕 13 仁平 11 의자 4 秋 9월	⑰	加兮城 省熱城 同火城 등 7성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	.	◻공격 성공 (大克, 開加兮之津, 取)
			.	.	.	◻방어 실패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春 正月	⑱	邊, 買利浦城	上州 장군·대장군 (13)소판 김유신	兵	.	◻방어 성공 참수 2,000급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3월	⑲	國界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軍·兵	.	◻방어 성공 김유신 포상 : 加爵賞
			.	兵	大兵	◻공격 실패 (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不敢迫乃退)
645 선덕 14 仁平 12 의자 5 夏 5월	⑳	國西 7城	.	.	.	◻방어 실패 (百濟乘虛, 襲取國西七城) 당의 고구려 공격 원조를 위해 兵 30,000 징발, 이 틈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 이후 김유신이 수복을 기도하나(遣將軍 庾信來侵) 변화 없음
			.	.	.	◻공격 성공 (襲取)
634~647.07 선덕 3~16 仁平 연간 무왕 35~ 의자 7	㉑	白城郡 蛇 山 邊邑	백성군 사산인 沈那	士卒	.	◻방어 성공 심나 : 당시 新羅飛將으로 불림
			.	兵 (精兵)	.	◻공격 실패
647 진덕 元年 太和 元年	㉒	茂山城 甘物城 桐岑城 등	대장군 (13)소판 김유신 丕寧子 舉眞(비녕자 子)	士卒 軍士 (步騎)	10,000	◻방어 성공 (決死而戰, 大破)

의자 7 冬 10월		3성	슴節(비녕자 家奴)			
			장군 義直	兵 (步騎) (甚銳)	3,000	靑公격 실패 참수 3,000여급, 대패 (大敗, 義直 匹馬而還)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春 3월	㉓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성	.	.	.	靑방어 실패 이후 押督州 도독 김유신에게 회복 모의
			장군 義直	.	.	靑公격 성공 (襲取, 陷)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春 3월	㉔	大梁城 外 玉門谷	압량주 군주 김유신	兵 士卒	.	靑공격 성공 요거성 등 10여성 탈환 참획 1,000급 포로 비장 8인을 품석 부처의 유골과 교환 사졸 : 차등 있게 포상
			장군 義直 장군(裨將) 8인	兵	.	靑방어 실패 (大敗, 殺之幾盡)
648 진덕 2 太和 2 의자 8 夏 4월	㉕	백제 嶽城 등 12성 進禮城 등 9성	압량주 군주 김유신	.	.	靑공격 성공 약성 전투 : 참수 20,000여급, 생획 9,000인 진례성 전투 : 참수 9,000여급, 포로 600인 김유신 : 上州 행군대총관, (2) 이찬으로 승진 사졸 : 차등 있게 포상
			.	.	.	靑방어 실패
649 진덕 3 太和 3 의자 9 秋 8월	㉖	石吐城 등 7성 道薩城 下	장군 3인 김유신·죽지·천존	衆 將士	.	靑방어 성공 (大克) 殺虜(생획) : 달솔 正仲 등 사 졸 100인 포로 중 좌평 은상, 달솔 自堅 등 10인 참수 斬軍卒 : 8,980급 획득 전마 : 10,000필 획득 갑옷 : 1,800벌 획득 병장기 : 不可勝數 포상 : 大王迎門, 勞慰(優厚) 650.06 당에 승전 알림
			장군 좌평 殷相 좌평 正福	衆·兵 (精兵)	7,000	靑공격 실패 초전 : 不利收散卒, 재전 : 大敗

			달솔 正仲·自堅 등 10여인	壯士		좌평 은상·달솔 自堅 : 참수 좌평 정복 석방 달솔 정중 : 마상
655 태종무열 2 의자 15 정월~8월	②⑦	北境 33성	.	.	.	빰방어 실패 당에 구원 요청(遣使入唐求援)
			고구려·백제·말갈	兵	.	백공격 성공 (取)
비고	신라·고구려 본기는 정월에 신라가 33성을 잃었다고 하고, 백제본기는 8월에 신라의 30여성을 공파해 함락(沒)했다고 서술하므로, 2~8월의 전쟁으로 이해된다.					
655 태종무열 2 의자 15 秋 9월	②⑧	백제 접경 (抵) 이자 陽山 인근 刀比川城 (助川城)	三千幢 병사 驟徒 郎幢 大監 金欽運 大監 穢破 少監 狄得 大舍 詮知 步騎幢主 實用那 김유신	軍 三千幢 郎幢	.	빰방어 성공 (庾信入百濟, 攻刀比川城克之) 취도 : 전사 김흥운·예파 : 추증 (7)일길찬 적득·보용나 : 추증 (10)대나마 양산가를 지어 추모
			.	.	.	백공격 실패
비고	尙州 永同郡 陽山縣(현 충북 영동군 양산면)의 옛 이름은 助比川縣이므로, 도비천성·조천성은 같은 지명이다(정구복 등 5인 역주,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675쪽).					
659 태종무열 6 의자왕 19 夏 4월	②⑨	獨山城 桐峇城 등 2성	.	.	.	빰방어 성공 (변화 없음)
			將	.	.	백공격 실패 (변화 없음)
진평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02~659) 신라의 對高句麗戰 일람(⑧)						
603 진평 25 建福 20 영양 14 秋 8월	①	北漢山城	진평왕	兵	.	빰방어 성공 (拒)
			장군 高勝	.	.	백공격 실패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608 진평 30 建福 25 영양 19 春 2월	②	신라 北境	.	.	.	빰방어 실패 (영역 변화 없음)
			將	.	.	백공격 성공 虜獲 : 8,000인
608 진평 30 建福 25 영양 19 夏 4월	③	牛鳴山城	.	.	.	빰방어 실패
			.	.	.	백공격 성공 (拔)

612~614 진평 34~36 建福 29~31 영양 23~25	④	고구려 땅 500리	.	.	.	ᄒ공격 성공
			.	.	.	ᄒ방어 실패
비고	644년 연개소문과 상리현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崔豪元, 『高句麗 麗陽王代의 新羅 攻擊과 國內政治』 『韓國史研究』 157, 2012, 25~28쪽;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308~312쪽;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 學報』 52, 2021, 37~38쪽).					
629 진평 51 建福 46 영류 12 秋 8월	⑤	娘臂城	(2)이찬 任未里 대장군 2인 (4)파진찬 김용춘 (3)소판 김서현 - 직위 미상 (4)파진찬 白龍 (3)소판 大因 부장군 김유신(김사현 子)	兵·軍	.	ᄒ공격 성공 남비성 함락 斬殺 : 5,000여급 生擒 : 1,000인 김유신의 공적이 가장 큼 (고구려 본기는 주장(主將)을 김유신으로 기록)
			.	.	.	ᄒ방어 실패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비고	김유신열전은 김유신의 관함을 중당 당주(中幢 幢主)라 하나, 중당은 문무왕 11년(671)에 창설되었다(『三國史記』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仲幢 文武王 十一年, 始置.). 본 기의 김유신 관함을 따른다					
638 선덕 7 仁平 5 영류 21 冬 10~11월	⑥	신라 北邊 七重城	대장군 關川	.	.	ᄒ방어 성공 (戰於七重城外, 克之. 殺獲甚衆)
			.	兵	.	ᄒ공격 실패 (戰於七重城外, 我兵敗衄.)
642 선덕 11 仁平 9 보장왕 元年	⑦	한강 이북 고구려 南境	대장군 김유신	死士	10,000	ᄒ김춘추 구출 성공(교전 없음) 김유신 : 압량주군주로 승진
			.	.	.	ᄒ김춘추 역류 해제
644 선덕 13 仁平 11 보장 3 春 正月	⑧	지명 미상 2성(兩城)	연개소문	.	.	ᄒ방어 실패 ᄒ공격 성공 (破), 상리현장의 도착으로 진격 멈춤, 고구려 故地
655 태종무열 2 보장 14 春 正月~8월	⑨	北境 33성	.	.	.	ᄒ방어 실패 당에 구원 요청(遣使入唐求援)
			고구려·백제·말갈	兵	.	ᄒ공격 성공 (取)

비고		이 표의 '㉠-㉡'과 같음						
신라-백제·고구려 전쟁 종합 전황(㉢)								
구분	연월	적국	성격	규모		승패	영역	
				신라	적국		손익	주 전장 및 비고
진평왕 후기 I기 (602 ~622)	602.08	靺鞨	방어전	수천	40,000 ↑	승	+4성	아막성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소타·웅잠·외석·천산 등 4성 신축
	603.08	高句麗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05.08	靺鞨	공격전	미상	미상	패	·	·
	608.02	高句麗	방어전	미상	미상	패	·	·
	608.04	高句麗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우명산성
	611.10	靺鞨	방어전	3州兵	大兵	패	-1성	가잠성
	612~614	高句麗	공격전	미상	미상	승	+500里	2城 이상 영역
	616.10	靺鞨	방어전	미상	8,000	미상	·	·
	618	靺鞨	공격전	2軍	미상	승	+1성	가잠성
진평왕 후기 II기 (623 ~632)	623.10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24.10	靺鞨	방어전	5軍	미상	패	-6성	속함·가잠·혈책·앵잠·봉잠· 가잠 등 6성
	626.08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왕재성(혹 주재성)
	627.07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패	-2성	西鄙 2성 함락
	628.02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29.08	高句麗	공격전	미상	6000↑	승	+1성	낭비성
선덕왕 전기 (632 ~641)	632.07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
	633.08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성	西邊 서곡성
	636.05	靺鞨	방어전	미상	甲士 500	승	·	西南邊 玉門谷(獨山城 일대)
	638.10~11	高句麗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칠중성
	642.07	靺鞨	방어전	미상	·	패	-40여성	國西 미후성 등 40여성
선덕왕 후기 (642 ~647)	642.08 [643]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당향성 등 한주 남부
	642.08	靺鞨	방어전	미상	·	패	-1성	대야성
	642	高句麗	공격전	死士 10,000	·	승	·	한강 이북 고구려 南境 (교전 없이 김춘추 구출)
	644.01	高句麗	방어전	미상	미상	패	-2성	상리현장 도착으로 진격 멈춤
	644.09	靺鞨	공격전	미상	미상	승	+7성	加兮·省熱·同火 등 7성
	645.01	靺鞨	방어전	미상	2000↑ 大軍	승	·	邊, 貫利浦城
	645.03	靺鞨	방어전	미상	大兵	승	·	國界
	645.05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패	-7성	國西 7성
	634~647.07	靺鞨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백성군 사산현 변읍
진덕왕	647.10	靺鞨	방어전	10,000	3,000	승	·	茂山·甘物·桐岑 등 3성

(647 ~654)	648.03	☐	방어전	미상	미상	패	-10여성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성
	648.03	☐	공격전	미상	미상	승	10여성	西邊(鄙) 腰車城 등 10여성
	648.04	☐	공격전	미상	미상	승	21성	악성 등 12성, 진례성 등 9성
	649.08	☐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石岬城 등 7성(도살성 인근)

태종 무열왕 (654 ~659)	655.01~08	☐ 말갈	방어전	미상	미상	패	-33성	당에 구원 요청
	655.09	☐	방어전	軍 三千幢 郎幢	미상	승	·	백제 접경 지역인 陽山 인근 刀比川城(=助川城)
	659.04	☐	방어전	미상	미상	승	·	獨山·桐峇 등 2성

No.	시기	전황						신라의 공격전			신라의 방어전		
		총수	빈도	승리	패배	미상	손익	☐	☐	종합	☐	☐	종합
①	진평왕 후기 Ⅰ기 (602~622, 21년간)	9	2.3	4	4	1	+3*	2	1	3	3	3	6
②	진평왕 후기 Ⅱ기 (623~632, 9년간)	6	1.5	3	3	0	-8	0	1	1	5	0	5
③	선덕왕 전기 (632~641, 10년간)	4	2.5	3	1	0	-1	0	0	0	3	1	4
④	선덕왕 후기 (642~647, 5년간)	10	0.5	6	4	0	-43	1	1	2	7	1	8
⑤	진덕왕 (647~654, 7년간)	5	1.2	4	1	0	+21	2	0	2	3	0	3
⑥	태종무열왕 元年~6년 (654~659, 6년간)	3	2.0	2	1	0	-33	0	0	0	2	1	3
⑦	종합1(①~⑥, 58년간)	37	1.6	22	14	1	-61	5	3	8	23	6	29
⑧	종합2(①~③, 40년간)	19	2.1	10	8	1	-6	2	2	4	11	4	15
⑨	종합3(④~⑥, 18년간)	18	1.0	12	6	0	-55	3	1	4	12	2	14

신라의 백제방어전 전황과 전장(㉑)

No.	시기	전과	단수 전장	복수 전장					전장 미상	종합
			1성	2~3성	4~6성	7~10성	40성			
①	진평왕 후기~선덕왕 전기	승전	4	·	·	·	·	1	5	
		패전	3	1	1	·	·	·	5	
		미상	1	·	·	·	·	·	1	
②	선덕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	승전	5	1	·	1	·	1	8	
		패전	1	·	·	2	1	·	4	

※출전 : 비교의 출전은 표 안에 명시.

『삼국사기』 권4·5, 신라본기4·5, 眞平王·善德王·眞德王·太宗王.

『삼국사기』 권20·21, 고구려본기8·9, 嬰陽王·榮留王·寶藏王.

『삼국사기』 권27·28, 백제본기5·6, 武王·義慈王.

『삼국사기』 권41·42, 열전1·2, 金庾信 上·中.

『삼국사기』 권47, 열전7, 奚論【父 讚德 附】·素那【父 沈那 附】·驟徒【兄 夫果·弟 逼實 附】·訥催·金欽運·丕寧子【子 舉眞·奴 合節 附】·竹竹.

『삼국사기』 권49, 열전9, 蓋蘇文.

※범례 : ①검정 바탕 흰 글씨 : 신라의 공격전. ②승·패 : 방어전은 전투 후 변화가 없으면, 방어에 성공했다고 보아 勝으로, 방어에 실패하면 敗로 표기하였다. 未詳은 변화가 없지만, 속함성 등 6성 전투를 고려해 표기하였다. ③고구려·백제·신라는 ㉔·㉕·㉖으로 축약. ④㉔의 시기에서 전왕 흥거·후왕 즉위로 인해 중복된 기간은 즉위월을 따져 6월 이전이면 후왕의 기간에, 7월 이후면 전왕의 기간에 산입하였다. ⑤㉔의 빈도는 '년 / 회', 손익 단위는 성. ⑥㉔-①의 * : 성의 수를 里數로 치환하기 어렵고, ⑥-⑧로 보아 고구려에서 뺐은 500리에 최소 2성이 포함되므로 이를 표현하였다. ⑦㉔-①·②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椶峇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a), 157~160쪽. 이 견해는 대백제전 기준으로 진평왕 후기를 1·Ⅱ기로 구분하였다. 대고구려전 전황을 반영하면 세부 구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Ⅱ기의 구분은 같다. 따라서 진평왕 후기를 1·Ⅱ기로 구분하였다. ⑧㉔-⑥·⑦·⑨의 밑줄 : 655년 전투는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를 공격하므로, ㉔-⑦·⑧-⑨에 표기하고, 통계화할 때는 적국 ㉔에만 표기하였다.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과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㉔-①~⑥처럼 세분된다. <표 2>에서 642년의 전황 변화는 주목된다. 진평왕 후기~선덕왕 전기(602~641, ㉔-①~③)는 2.1년마다 전투 1회가 발생해 19전(공격전 4전, 방어전 15전)을 수행하였다. 전황은 10승·8패·1미상, 6성 손실이므로, 이 시기 신라는 손해가 크지 않은 방어를 수행한 방어자였다.

반면 선덕왕 후기~태종무열왕 6년(642~659, ㉔-④~⑥)은 1년마다 전투 1회가 발생해 18전(공격전 4전, 방어전 14전)을 수행하였다. 전황은 10승·8패, 55성 손실이므로, 이 시기 신라는 손해가 큰 방어를 수행한 방어자였다. 즉 602~659년의 58년간 전개된 삼국 항쟁에서 신라는 대개 방어자로 수세에 있었고, 642년부터 전투의 빈도·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방어력의 한계를 맞고 있었다.

전황 변화의 주요 원인은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와 전략 변화이다. 무왕·의자왕대 백제는 신라 하주(下州) 방면을 집중 공격해 신라 내지(內地) 진출을 도모하고, 간간이 상주(上州) 방면을 공격하였다.³²⁾ 신

32)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

라가 58년간 치른 방어전 29전 중 백제방어전은 23전, 602~641·642~659년에 11·12전이 있었다. 백제의 전투별 동원병력은 알기 어렵지만, 전황상 백제의 공격 규모는 확대되었다.

또 백제는 늦어도 의자왕 2년(642)에 신라 공격 전략을 전환하였다. 602~641년 백제의 공격은 단수 전장 8전, 복수 전장 2전(㉔-㉕·㉖), 전장 미상(㉗-㉘) 1전에 투사되었다. 642~659년 백제의 공격은 단수 전장 5전(㉙-㉚·㉛·㉜·㉝), 복수 전장 6전(2~3성 : ㉞-㉟·㊱, 7~10성 : ㊲-㊳·㊴·㊵, 40성 : ㊶), 전장 미상 1전(㊷)에 투사되었다. 즉 백제는 602년부터 신라 왕경을 목표로 공격하고, 642년부터 복수 전장을 공격 권역으로 묶어 동시다발적으로 신라의 왕경 방어 전선 자체를 공격하였다. 백제는 7세기 초부터 신라 멸망을 목표하였고, 7세기 전반에 가시화된 성과를 얻고 있었다.

642~659년 신라의 백제방어전 전황은 12전·8승·4패, 전장별 전황은 단수 전장이 5승·1패, 복수 전장이 2승·3패(2~3성 : 1승, 7~10성 : 1승·2패, 40성 : 1패)이다. 신라의 단수 전장 방어는 대개 성공하나, 복수 전장 방어는 대개 실패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31여성을 탈환하기도 하나(㉙-㉚·㉛·㉜), 전략적 차원의 승리를 얻지 못했다.

602~659년 고구려는 백제보다 간헐적·소규모로 신라를 6회 공격하였다. 644년 정월 연개소문의 2성 함락, 655년 고구려·백제·말갈의 신라 북경 33성 함락(㉙-㉚·㉛) 외 신라의 고구려 방어전은 단수 전장에서 진행되었다. 신라는 612~614년에 2성을 포함한 고구려 땅 500리를, 629년에 낭비성을 확보하였다. 7세기 전반 고구려는 수·당과 대규모 전쟁을 수행해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거세지 않지만, 655년 고구려·백제·말갈의 공격은 신라의 수세를 크게 심화시켰다.

신라가 양국 멸망을 생각한 시점은 언제일까? 김유신열전은 611년

17세의 김유신과 난승의 일화를 기록하였다. 김유신은 고구려·백제·말갈 등 적국이 잇달아 신라를 공격해 대개 편안한 세월이 없어 화란을 없애고자 수련하였다. 난승은 김유신이 품은 삼국을 병합할 마음(并三國之心)을 장하게 여겨 김유신에게 비법을 전했다.³³⁾

당시 신라의 관심사는 백제 대비이므로, 이것은 열전 특유의 과장이라고도 한다.³⁴⁾ 그러나 602~611년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번갈아 받으므로(A-①·③, B-①·②·③), 단순 과장은 아니다. 또 595년생인 김유신은 삼국 항쟁 중 소강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진흥왕대 전쟁을 겪지 않아 백제·고구려의 연이은 공격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17세 김유신의 생각은 단순한 측면이 있다. 신라 화란의 원인은 적국 공격이므로, 적국만 일소·병합되면 신라가 평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적국 일소·병합은 난승 등 일부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았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으로 용화향도를 이끌고, 18세에 국선이 되므로,³⁵⁾ 적국 일소·병합은 화랑에게 교육·전파되었다.

611~612년의 적국 일소·병합은 신라의 정책에 반영될 정도가 아니다.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에 출전해 전공을 세우나(B-⑤) 641년까지 활동이 없고, 642년 김춘추 구출 작전을 지휘하나 승진하지 못했다(B-⑦). 김유신은 644년 백제의 7성을 취해 소판이 되었다(A-⑪). 즉 630~641년 김유신은 정치적 위상이 높지 않았다. 641년 이전 김유신 등이 생각한 적국 일소·병합은 젊은 화랑의 단순한 생

33)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眞平王 建福 28년 辛未(611).

34) 朱甫墩, 「金庾信의 政治志向-연구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 11, 2007, 7쪽.

35)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眞平王 建福 28년 辛未(611) ; 『삼국유사』 권1, 기이2, 金庾信.

각에 불과하며, 신라의 정책에 반영될 정도가 아니었다.

삼국통일전쟁의 기점을 642년³⁶⁾ 혹 641년이라고도³⁷⁾ 하나, 신라는 643년 삼국정립을 양국 멸망으로 전환하였다. 642년 7~8월 41성(미후성 등 40여성+대야성) 상실은 왕경 서쪽 1차 방어선 붕괴, 신라사 초유의 대패 등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신라에 심각한 전력 손실, 여유 병력 부재, 멸망 위기 등을 초래하였다. 이후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공세로 전력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A를 보자.

A-①. [정월] ①유신이 백제를 벌(伐)하고 돌아와 왕을 뵈기 전에 백제의 대군이 또 와서 변경[김유신열전 : 매리포성(買利浦城)]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명해 이를 막게 하였다[김유신열전 : 왕이 다시 유신을 상주 장군에 배수하여 백제를 막게 하였다]. [김유신열전 : 유신은 명을 듣자 말을 탔다.] 끝내 집에 가지 못하고[김유신열전 : 처자를 보지 않고], 가서 백제를 공격해 깨뜨리니, 목을 벤 것이 2,000급(級)이었다.³⁸⁾

A-②. [3월] 돌아와 [김유신열전 : 왕궁에서] 왕에게 복명하였다. 아직 집에 가지 못했는데, 또 백제가 다시 침입했다는[김유신열전 : 백제 병사가 나와 국계(國界)에 주둔하고, 장차 크게 병사를 일으켜 우리를 공격하

36)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1982, 289~301쪽. 642년 이후 상황, 643년 고구려·백제의 당항성 공격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 나당동맹과 고구려·백제멸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51~53쪽. 삼국·중국의 요인과 나당동맹의 영향을 고려하면, 삼국통일전쟁의 기점은 641년이다. 유관 선행연구 경향은 노태돈, 위의 책, 2009, 43~51쪽 참고.

3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4년(645) 春 正月, “庾信自伐百濟還 未見王百濟大軍 復來寇邊 王命拒之 遂不至家 往伐破之 斬首二千級.”;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4년 을사년(645) 正月, “歸未見王 封人急報 百濟大軍來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庾信聞命卽駕, 不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 斬首二千級.” 이하 분량 관계상 비슷한 맥락의 자료는 본기 위주의 해석문에 열전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한다.

려 한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 유신은 또 집에 가지 못하고 ㉔주야로 군사를 훈련(晝夜練兵)하였다[김유신열전 :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수선하였다(練軍繕兵)]. … [김유신열전 : 국경에 이르러 백제인이 우리 병사의 위위를 보고, 감히 맞서지 못해 물러났다. 대왕이 이를 듣고 심히 기뻐하며 작(爵)·상을 내렸다.]³⁹⁾

A는 645년 정월~3월 매리포성·국경 전투 관계 자료이자, 신라의 전력 보충을 보여주는 유일 사례이다. A-①-㉔은 가혜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 전투를 말한다(㉔-①⑦). A에서 김유신의 행적은 ‘7성 공격·승리(644년 9월)→경주 일대에서 매리포성 전투 출전·승리(644년 정월)→경주에서 보충병 선발·훈련, 무기 수리 후 국경 전투 출전·승리(644년 3월)’로 요약된다.

A-②-㉔은 김유신이 국경 전투 전 군사를 선발·훈련하고, 무기를 수리했다고 하므로, 신라의 여유 병력이 적음을 보여준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국경 전투에 동원한 김유신의 병력은 ‘7성 전투 공격군 잔존병력+신병’이므로, 규모가 작다. 642년 김춘추 구출 작전에 동원한 병력은 사사(死士) 10,000명이다. 양자의 시기적 격차는 2년 이므로, 공격군 규모 차이는 크지 않다. 7성 전투는 전장 규모로 보아 병력 손실이 상당하였고, 문맥상 7성 전투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모두 보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둘째, 김유신은 국경 전투를 위한 병력·무기 보충이 필요하였고, 왕경에서 신병을 선발·훈련하였다. 국경 전투는 왕경에 있던 김유신

3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4년(645) 春 正月, “□□□還命於王 未得歸家 又急報 百濟復來侵 … 庾信 又不歸家 晝夜鍊兵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4년 을사년(645) 3월,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 百濟兵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 庾信又不入家 練軍繕兵 … 及至疆場 百濟人望我兵衛 不敢迫乃退 大王聞之 甚喜 加爵賞.”

이 귀가를 못할 정도로 준비 시간이 적고, 대규모 전투가 예상되었다(將). 신라에 여유 병력이 많았다면, 김유신은 훈련된 병사로 부대를 증편하거나, 다른 장수가 군사를 맡아 출정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7성 전투 공격군은 선덕왕 후기에 편성한 마지막 공격군이고, 645년 5월 신라는 국서(國西) 7성을 잃었다(A-⑧). 국서 7성 전투, 국경 전투의 시차는 2개월이다. A-②-㉔처럼, 신라는 국서 7성 전투에 ‘기존 전투 잔존병력+약간 훈련한 신병’을 동원했겠지만, 결과는 패전이었다. 또 644년 9월~655년 5월은 4·2·2·2개월마다 전투가 있었다. 이 시기 신라는 심각한 전력 누수, 여유 병력 부재, 어려운 전력 복구 등에 직면하였고, 전력 확충이 절실하였다.

이상의 문제는 642~643년에도 있었고, 이것은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642)·신라의 대당 청병(643)이 시작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신라는 삼국정립을 재검토해야 하였다. 642년부터 신라가 겪은 문제의 주요 원인은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였고, 삼국정립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타개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642년 신라는 백제를 정벌·병탄·보원(報怨) 대상으로 인식하였다.⁴⁰⁾

643년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642년 겨울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642년 10월경 신라는 고구려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신라는 칠중성 전투 후 고구려와 교전이 없었고, 칠중성을 공격했던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시해되기 때문이다.⁴¹⁾ 그러나 김춘추의 대고구려

4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642) 冬,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飡 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 [春秋]既而言曰 “嗟乎 大丈夫豈不能吞百濟乎” 便詣王曰 “臣願奉使高句麗 請兵以報怨於百濟” 王許之.”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春秋]欲請高句麗兵 以報百濟之怨 王許之.”

41)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榮留王 25년(642) 冬 10월.

청병 실패로,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경과는 선덕왕본기·김유신열전에 수록되었다. 양자는 내용이 약간 다르며, 신라고기가 원전인 자료이다(一事而小異, 以皆古記所傳).⁴²⁾ 이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선덕왕본기(a)·김유신열전(b)에 기록된 642년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경과

No.	구분	선덕왕본기(a)	김유신열전(b)
①	선덕왕의 고구려 청병	백제 정벌, 대야성 전역 보복, 김춘추를 파견해 청병(請師)	.
②	김춘추의 사행 배경	대야성의 패배로 딸 고타소가 죽음(都督 品釋之妻, 死焉. 是, 春秋之女也.) 김춘추가 백제말망을 다짐 김춘추의 청병사 자청, 왕의 재가	대야성의 패배로 딸 고타소가 남편 품석을 따라 죽음(春秋公 女子, 古陶炤娘, 從 夫 品釋死焉) 김춘추가 이 사건을 한으로 여김 김춘추의 청병사 자청, 왕의 재가
③	출발 직전(將行)		김춘추가 60일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김유신이 군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삼혈(歃血)하며 맹세함
④	김춘추 사행 출발 사행 중 경유지에서 현 사람의 재물 공여		훈신(訓信) (8)사간과 사행 출발 대매현(代賈縣) 사람인 두사지(豆斯支) (8)사간에게 청포(靑布) 300보(步)를 받음
⑤	김춘추의 평양성 도착	.	보장왕이 연개소문을 보내 객관에 묶게 하고, 잔치를 열며, 대우를 후하게 하여 접반함
⑥	김춘추의 사행 의도	김춘추가 직접 청병을 요청	고구려에서 염탐으로 판단
⑦	보장왕의 요구	고구려 고지(죽령 서북) 반환	고구려 고지(마북현·죽령) 반환
⑧	김춘추의 보장왕 요구 거절	선린의 뜻이 없고 겁박만 있음을 들어 보장왕 면박	국토는 신하가 처분할 수 없음을 들어 보장왕 면박
⑨	김춘추 억류	억류	억류
⑩	김춘추 살해 의도	없음	있음. 단 처형을 미룸(欲戮未果)
⑪	김춘추의 뇌물 공여 선도해·김춘추 담화		김춘추가 간을 니중에 준다고 하고 거북이로부터 도망친 토기 이야기

42)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귀토자실)를 들고 깨달음
⑫	김춘추의 대응	사자를 통해 선덕왕에게 상황 보고	보장왕에게 거짓 맹세 문서 전달
⑬	김춘추 구출 노력	김유신이 死士 10,000인 통솔 한강 이북 고구려 남쪽 국경 진입	김유신이 날짜로 보아 상황 감지 김유신이 용사 3,000인 선발(揀得) 김유신 출정 준비
⑭	고구려의 상황 파악	김유신군 행군 상황을 보고 받음	김유신군 출정 준비를 보고 받음
⑮	김춘추 억류 해제와 억류 해제 사유	억류 해제 김유신의 행군 상황	억류 해제 춘추의 맹서, 김유신의 출정 예정
⑯	귀국한 김춘추가 고구려 에 보내는 전언	.	김춘추의 사행 의도 전달 고구려 고지 반환 약속은 살기 위한 거짓말임을 고구려에 전달

※출전 :

(a)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善德王 11년(642) 冬

(b) :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善德大王 11년 壬寅(642).

<표 3>처럼, (a)·(b)는 ‘사행 배경(①·②)→사행 출발~평양 도착(③~⑤)→김춘추·보장왕 회담과 결과(⑥~⑩)→김춘추의 귀국 노력(⑪·⑫)→김춘추 구출 노력과 고구려의 대응(⑬·⑭)→귀국(⑮·⑯)’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b)가 (a)보다 경과를 상술하나, (a)·(b)의 맥락은 유사하다. (a)·(b)의 맥락 차이는 ③~⑤·⑥~⑩·⑬·⑯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에 유의해 (a)·(b)의 중요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김춘추의 비범을, (b)는 김춘추를 도운 김유신을 부각하였다. (a)에서 김춘추는 사행 의도를 보장왕에게 말하고, 보장왕의 요구를 질타·면박하였다. 보장왕은 김춘추 살해 의도가 없고, 신라-고구려 전쟁이 예상되자 특별한 조건 없이 김춘추를 풀어주었다.

(b)에서 김춘추는 김유신의 약속을 믿고 사행을 떠났다. 보장왕은 김춘추의 사행 의도를 염탐으로 판단하고, 김춘추를 살해하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김춘추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 맹세문을 올리고, 보장왕은 김춘추의 맹세문과 김유신의 출정 준비로 인해 김춘추를 풀어주었다. 귀국 시 김춘추는 사행 의도, 맹세문의 진의를 고구려에 전달하였다. 고구려는 당시 연개소문 정변 직후이므로, 김춘

추·보장왕 회담의 모습은 (b)가 (a)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이해된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은 실패하나, 신라는 고구려의 고토 회복 의지를 확인하였다. ⑦-(a)·(b)는 보장왕의 요구로, 내용 차이가 거의 없다. 보장왕은 김춘추의 청병 수용·생환 대가로 죽령 서북(마목현·죽령)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보장왕이 요구한 지역은 590년 온달의 목표인 ‘계립현(鷄立峴)과 죽령 이서’로,⁴³⁾ 죽령로 위주의 영서 내륙 요충지, 국원을 포함한다.⁴⁴⁾ 보장왕의 요구는 551년 이전 고구려 고토와 삼국 형세 회복 의지를 전제하였다.

41성 상실을 함께 고려하면, 김춘추에게 이 요구의 수용은 진흥왕 이전 신라로의 회귀, 범흥왕 가야정복의 의미 퇴색, 중고 왕실의 치적 부정을 의미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타협 여지가 없는 적국으로 인식해야 하였다. 고구려는 당과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신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이 요구를 통해 단순 거절보다 못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김춘추는 고구려의 내심을 파악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의지를 안 시점은 김춘추가 귀국한 643년 정월 이후이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김춘추는 연개소문 정변 이후 사행을 떠났다. 신라가 연개소문의 정변을 인지한 시점은 당의 사례로 보아 642년 10월 말~11월 초로 이해된다. 당시 당은 고구려의 동향을 주시하고, 642년 11월 5일 영주 도독 장검의 보고로 연개소문의 정변을 알았다.⁴⁵⁾ 둘째, 김춘추는 왕복 사행 기간을 60일로 예정하나, 60일을 넘겨 귀국하였다(③·⑬-(b)). 셋째, 김춘추 억류 해제는

43) 『삼국사기』 권45, 열전5, 溫達, 臨行誓曰.

44)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291~292쪽.

45) 『자치통감』 권196, 唐紀12, 太宗 貞觀 16년 11월 丁巳(642.12.02), 6181쪽. 이하 이 글은 필요에 따라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曆轉換(<https://sinocal.sinica.edu.tw/>)를 참고하여 중·서력을 병기한다.

김유신의 군사 선발·편성 등 신라의 김춘추 구출 노력이 보장왕에게 보고된 후 이루어졌다(⑬·⑭). (a)·(b)의 맥락 차이가 있지만,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출하고자 별도 병력을 선발·편성하였다. (a)는 병중이 사사(死士)이므로 자원병 선발 과정이 전제되며, (b)는 국내 용사 선발(揀得國內勇士)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43년 정월 이후 김춘추의 귀국으로 신라는 고구려의 의지,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 소멸 등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켜도 신라-고구려 간 전쟁이 남았음을 의미하였다. 신라는 생존을 위해 삼국정립을 백제·고구려 멸망으로 전환하고, 전쟁 목적 변화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였다. 신라는 전력 복구 시간을 벌며, 고구려의 공격이 더하는 일을 막아야 하였다.

이것은 643년 9월 4일 신라의 대당 청병으로 나타났다.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연병(連兵)·연화(聯和), 신라의 멸망 위기를 알리며 당에 청병하였다. 유관 자료를 여제연화나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이해하기도 한다.⁴⁶⁾ 그러나 유관 자료는 신라가 양국을 한통속으로 몰았고, 당은 자국 이익을 위해 사건의 진위와 관계 없이 신라의 주장을 수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유관 자료를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643년 9월 경진(庚辰)(4일, 643.10.21) 신라의 대당 청병 관련 자료

No.	구분	출전	내용
①	발단	(a)	遣使, 大唐上言.
		(b)	新羅遣使, 言.
		(c)	遣使, 上言.
		(f)	會, 新羅遣使者, 上書(-문서)言.
		(g)	新羅遣使於唐, 言.
		(h)	新羅遣使, 言.
②	643년 9월	(a)	高句麗·百濟, 侵凌臣國, 累遭攻襲, 數十城.

46) 유관 선행연구의 경향은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17~23쪽 참고.

	이전 전황	(b)	高麗·百濟, 侵凌臣國, 累遭攻襲, 數十城.
		(c)	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d)	爲高麗·百濟, 所攻.
		(g)	百濟攻取, 我(=즉 신라)四十餘城.
		(h)	百濟攻取, 其國(=즉 신라)四十餘城.
③	643년 9월 예정 상황	(a)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下國社稷, 必不獲全.
		(b)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臣社稷, 必不獲全.
		(c)	兩國連兵, 意在滅, 臣社稷.
		(f)	高麗·百濟聯和, 將見討.
		(g)	[백제가]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h)	[백제가]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④	신라 귀명 의지 피력, 양국 의도, 청병	(a)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偏師, 以存救援.
		(b)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偏師, 以存救援.
		(c)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 救助.
		(d)	使者來乞師.(이후 유관 내용 없음)
		(f)	謹歸命天子.
		(g)	乞兵救援.('보장왕 2년(643) 秋 9월' 조 마침)
		(h)	乞兵救援.
⑤	태종 질문 1	(a)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爲二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句麗·百濟旋踵翻悔, 意在吞滅, 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b)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爲三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麗·百濟 旋踵翻悔, 意在吞滅, 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f)	帝問. 若何而免?"
⑥	신라 사신 답변1	(a)	使人曰. 吾王, 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b)	使人曰. 臣王, 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f)	使者曰. 計窮矣, 惟陛下哀憐!"
⑦	태종 제안 1책	(a)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兵, 還肆侵侮, 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b)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兵, 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f)	帝曰. 我以偏兵, 率契丹·靺鞨, 入遼東, 而國可紓一歲. 一策也.
⑧	태종 제안 2책		我又能給爾數千 朱袍·丹幟, 二國兵至, 建而陳之.
		(a)	彼見者, 以爲我兵, 必皆奔走. 此爲二策.
		(b)	我又能給爾數千 朱袍·丹幟, 二國兵至, 逮而陳之. 彼見者, 以爲我兵, 必皆奔走. 此爲二策.
		(f)	我以絳袍·丹幟數千, 賜而國, 至, 建以陣. 二國見, 請我師至, 必走.

		二策也.
⑨	태종 제안 3책	(a) 百濟國, 恃海之險, 不修機械, 男女紛雜, 互相燕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泛海, 直襲其地. 爾國以婦人爲主, 爲隣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支,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王,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三策.
		(b) 百濟國, 負海之險, 不修兵械, 男女分雜, 相好宴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汎海, 直襲其地. 爾國以婦人爲主, 爲隣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枝,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往,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四策.
		(f) 百濟 恃海, 不脩戎械. 我以舟師數萬, 襲之. 而國女君, 故爲鄰侮. 我以宗室主而國, 待安, 則自守之. 三策也.
⑩	태종 질문 2	(a) 爾宜思之, 將從何事?
		(b) 爾宜思之, 將從何事?
		(f) 使者, 計孰取?
⑪	신라 사신 답변2	(a) 使人但唯, 而無對.
		(b) 使人但唯, 而無對.
		(f) 使者, 不能對.
⑫	태종의 사신 평가	(a) 帝嘆其庸鄙, 非乞師告急之才也. ('선덕왕 12년(643) 秋 9월' 조 마침)
		(b) 帝難其庸鄙, 非乞師告急之才也.
⑬	태종 새서 작성·전달, 새서 내용	太宗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句麗曰. 新羅委命國家, 朝貢不闕. (a)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선덕왕 13년(644) 春 正月’ 조)
		於是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朝貢不闕. (b)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太宗遣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c) 爾(=즉 고구려)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又,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往, 說諭高麗, (e) 令勿攻新羅.
		(f) 於是, 遣司農丞 相里玄獎, 以璽書, 讓高麗,

		且使止勿攻.
	(g)	帝命, 司農丞 相里玄獎, 賚璽書, 賜王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즉 고구려)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보장왕 3년(644) 春 正月’ 조)
	(h)	上命, 司農丞 相里玄獎, 齎璽書, 賜高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즉 고구려)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i)	太宗, 遣司農丞 相里玄獎, 告諭兩國, 王奉表陳謝.
	(j)	太宗,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k)	帝, 遣司農丞 相里玄獎, 齎詔書, 諭解.

※출전 :

- (a)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善德王 12년(643) 秋 9월 및 13년(644) 春 正月.
 (b) : 『책부원구』 권91, 外臣部36, 備禦4, 貞觀 17년(643) 9월 庚辰, 11476~11477쪽.
 (c) : 『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년(643), 5335쪽.
 (d) :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 貞觀 17년(643), 6203쪽.
 (e) : 『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貞觀 17년(643), 5322쪽.
 (f) :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會新羅遣使者上書言, 6188~6189쪽.
 (g) :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寶臧王 2년(643) 秋 9월 및 3년(644) 春 正月.
 (h) : 『자치통감』 권 197, 唐紀13, 太宗 貞觀 17년(643) 9월 庚辰, 6204쪽.
 (i)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4년(644) 春 正月.
 (j) : 『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 太宗遣司農丞 相里玄獎, 齎書告諭兩蕃, 5330쪽.
 (k) :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百濟, 帝遣司農丞 相里玄獎 齎詔書, 諭解, 6199쪽.
 ※법례 : ①검선 : 내용상 구분. ②굵게 : (a)·(b)의 자구 차이. ③(a)·(b)·(c)·(f)는 내용상 대응하는 자구를 기준으로 서로 서술.

<표 4>처럼, 유관 자료는 계통별 차이가 있다. 선덕왕본기는 『책부원구』를, 보장왕본기는 『자치통감』을 따랐다. 『구당서』·『신당서』, 신라전·고려전은 『책부원구』·선덕왕본기와 유사하나, 신라전·고려전이 더 간결하다. 의자왕본기는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을 따르면서 백제의 대응을 추가하였다. 『자치통감』은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의 영향을 받았다. 상리현장의 새서 전달 시점은 중국 기록에 643년 9월 4일로, 삼국 기록에 644년 정월로 나타난다. 양자의 시차는 새서의 작성·접수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신라의 청병 국서 전달이다. 사안의 중요도와 ①-

(f)의 글을 올려 말했다(上書言)”로 보아, 신라는 국서를 보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사건 발단(①), 청병 국서 내용(②~④), 태종-신라 사신 문답·결과(⑤~⑫), 새서 작성·내용·전달(⑬)로 구분된다.

청병 국서의 내용은 ②643년 9월 이전 전황, ③643년 9월 예정 상황과 양국의 의도, ④신라의 귀명 의지 피력과 청병 등 4가지이다. ②·③은 자료 계통별 차이가 있다. ②의 주어는 (a)~(d)가 고구려·백제, (g)·(h)가 백제이다. ③의 주어는 (a)~(c)가 양국, (f)가 고려·백제, (g)·(h)가 ‘백제와(與) 고구려’이다. ②의 전황은 유사하다. ③-(a)~(c), (f)는 양국의 연병·연화, 9월 예정 대공세, 멸망 의도를, ③-(g)·(h)는 입조로 차단만 썼다. ④-(a)~(c)는 귀명 의지 피력과 청병을, ④-(f)는 귀명 의지 피력만, ④-(d)·(g)·(h)는 청병만 썼다. ②·③을 기준으로 하면, 고구려·백제가 주어진 (a)~(d), (f)와 ‘백제와(與) 고구려’가 주어진 (g)·(h)로 구분된다. (g)·(h)는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이 642년 백제의 신라 40여성 공취, 당향성 공격, 새서 관련 내용을 이어 쓴 오류를⁴⁷⁾ 답습했으므로, (g)·(h)는 청병 국서의 내용이 아니다.

청병 국서의 내용 중 ②·③의 주어·전황이 주목된다. 신라의 수습성 상실은 백제 소행이며(<표 2>-A-⑭~⑯), 643년에 양국의 신라 공격은 없다. 신라는 백제 소행을 양국 소행이라 하고, 양국은 한통속으로 연병·연화해 9월 신라 멸망·토벌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신라는 귀명 의지를 피력하고 청병하였다. 신라는 양국, 특히 고구려를 전면에 내세워 청병하고, 날조에 가까운 내용을 당에 전달하였다.

태종-신라 사신의 문답·결과(⑤~⑫) 중 ⑤~⑪은 (a)·(b)·(f)만, ⑫는 (a)·(b)만 보이며, 새서의 작성·내용·전달(⑬)은 (d) 외 <표 4>의 자료에 보인다. (a)·(b)·(f)는 맥락이 유사하나, (a)·(b)가 상세하다.

47) 『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년(642), 5330쪽 ;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百濟, 明年(642), 6199쪽.

태종은 신라가 멸망을 면할 계책을 묻고(⑤), 신라 사신은 태종에게 계책을 청했다(⑥). 태종의 계책은 3가지이다. 첫째, 소규모 당병+거란병+말갈병으로 요동을 쳐서 1년 정도 신라의 포위를 풀어주나, 추가 공격은 없다(⑦). 둘째, 당군의 붉은(朱·絳·丹) 핫옷(袍)·기치(幟) 수천 개를 신라에 주고, 신라가 신라군을 당군으로 위장시킨다(⑧). 셋째, 백제의 방비가 허술하므로 당이 백제를 공격한다. 대신 신라는 힘을 기를 때까지 선덕왕이 당 황실 남자와 국혼해 남자를 신왕으로 삼고, 당은 신왕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⑨). 태종은 신라 사신의 선택을 묻고(⑩), 신라 사신은 대답이 없었다(⑪). 태종은 신라 사신의 태도를 탄식하였다(⑫). 이어 상리현장이 고구려에 새서를 전하게 하였다. 새서의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신라는 당에 귀명한 국가이다. 둘째, 고구려·백제는 신라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 셋째, 신라를 다시 치면, 내년에 고구려를 치겠다(⑬).

⑤~⑬에서 6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태종의 계책은 신라의 바람과 거리가 많았다.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에 대응할 실질적 방어 병력, 나아가 양국 멸망을 위한 대병이 필요하였다. 청병 국서에서 멸망을 면할 약간의 군사(偏師)를 요청했지만(④-(a)·(b)·(c)), 청병 목적상 약간의 군사는 외교적 수사이다. 태종은 문자대로 소규모 군사(少發邊兵·偏兵)를 쓴 고구려 공격이나, 군기(軍器) 대여, 백제 공격과 신라의 속국화를 제시하므로, 신라 사신은 답이 없었다.

둘째, 태종-신라 사신 문답의 초점은 ⑬으로 보아 고구려 문제이다. 새서의 수신자는 고구려(⑬-(a)~(c)·(e)~(h))이고, 새서의 내용상 주어는 너희와 백제(爾與百濟), 신라 재침 시 응징 대상은 너희 나라(爾國)이다(⑬-(a)~(c)·(g)·(h)). 너희(爾)는 새서 수신자인 고구려를 의미한다. ⑬-(i)·(j)는 새서 수신자를 양국·양변이라 하나, ⑬-(i)·(j)는 새서 내용을 축약한 서술이다.

셋째, 태종의 새서는 청병 국서 접수일에 작성되었다. 중국 자료는 ⑬을 643년 9월 4일의 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넷째, 상리현장이 새서를 전달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상리현장이 백제를 들른 후 고구려 평양성에서 연개소문과 회담한 후 귀국했다고 하나,⁴⁸⁾ 새서 수신자는 고구려이다. 또 644년 2월 을묘삭(1일, 644.03.14) 상리현장의 보고는 백제의 해명(⑬-(i))이 빠지고, 고구려 정황만 상술되었다.⁴⁹⁾

다섯째, 태종은 고구려 공격 명분을 축적하고자 신라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였다. 『자치통감』, 『구당서』·『신당서』, 백제전은 642년 백제의 전과를 서술하므로, 태종은 신라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방현령의 죽기 전 간언은 태종의 고구려공격 명분에 신라의 양값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⁵⁰⁾

여섯째, 신라는 대당 청병-새서 전달로 전력 복구 시간을 벌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643년 9월~644년 8월 백제의 신라 공격은 없지만, 644년 9월 신라는 백제의 가혜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을 함락하였다(<표 2>-①-⑰).

신라는 멸망 위기를 고구려의 주동·소행으로 몰아가면, 양국 멸망에 당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고구려의 새서에 대한 대응은 여제연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고구려는 백제와 달리 여제연화를 적극 해명하지 않고, 신라 공격을 계속한다고 하였다.⁵¹⁾ 백제·고

48)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7쪽.

49) 『자치통감』 권197, 唐紀13, 太宗 貞觀 18년(644) 2월 乙巳朔, 6207쪽 ; 『삼국사기』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년(644) 春 正月.

50) 『자치통감』 권199, 唐紀15, 太宗 貞觀 22년(648) 7월 癸卯, 6260쪽.

51)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寶藏王 3년(644) 春 正月.

구려는 현실·미래의 신라를 위협하며 타협 여지가 없는 적국이었고, 고구려의 대응은 신라·당의 연합 여지를 높였다. 신라는 백제멸망을 우선으로 삼국통일전쟁을 추진하면서 당이 개입할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이후 나당동맹이 체결되고, 백제·고구려 멸망전이 전개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Ⅲ. 백제·고구려 멸망의 전후처리와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

전 장에서는 643년 신라의 전쟁 목적이 양국 멸망으로 변화하므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설명하였다.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은 백제·고구려 멸망 후 전후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인식 발생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660년 7월 18일 의자왕이, 668년 9월 21일 보장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하며 백제·고구려는 멸망하였다. 양국 멸망 전쟁을 지휘한 태종무열왕·문무왕은 660년 11월 22일·668년 11월 5일에 왕경으로 돌아왔다. 문무왕은 668년 11월 6일 선조묘에 양국 멸망을 고하고, 669년 2월 21일 양국 평정 교서를 반포하였다. 적국 왕 항복~왕경 귀환을 전후해 진행한 두 왕의 전후처리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와 신라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과정(㉡)

태종무열왕·문무왕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No.	구분	국가	일자	출전	내용
①	국왕 항복 · 국왕 문죄	百濟	07.18	(a)	의자왕이 태자·옹진방령군 등과 와서 항복(來降) 태종무열왕은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들음(聞).
				(d)	의자왕이 태자 효(孝), 여러 성(諸城)과 항복.

	(問罪)	問	09.21	(b)	보장왕이 연남산 등을 보내 이적에게 항복 요청(請降).
				(e)	보장왕이 연남산, 수령 98인과 이적에게 백기(幟) 투항. 연남간이 폐문거수(閉門拒守). 승려 신성은 이적과 내통.
			09.26	(e)	신성 개문(開門). 연남간 자진 실패, 보장왕·연남간 생포.
			09.26 즈음	(g)	[날짜 추정]김인문이 보장왕을 이적 앞에 꿇어앉혀 죄 추궁. 보장왕이 재배(再拜)하자, 이적이 보장왕을 예로 맞음.
②	당에 노포 전달	問	07.29	(a)	태종무열왕 사비 도착. 제감 천복을 당에 보내 공훈 보고(露布).
		問	.	.	.
③	승전 연회 (역신 문자·차형)	問	08.02	(a)	[연회]주연으로 장사(壯士) 위로. 태종무열왕·소정방·제장(諸將)이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왕과 웅은 당하에 앉음. 당상에 있는 이들이 가끔 의자왕에게 술을 따라라고 시켰고, 대신은 이를 보면서 목매어 울었음. [문죄]모척(毛尺)·검일(齡日)의 대야성 함락 책임 문죄. 모척 : 참살, 검일 : 사지를 찢어 강물에 사체를 버림.
		問	.	.	.
④	유수자 (留守者) 임명	問	09.03	(a)	낭장(郎將) 유인원이 10,000명으로 사비 유진(留鎭).
		問		(d)	왕자 인태·(8)사찬 일원·(9)급찬 길·(7)가 7,000명으로 받침(副).
		問	.	.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도성(=사비)을 지키라(守)고 함.
당 ①	당군의 국왕 · 대신 · 백성 압송	問	09.03	(a)	소정방이 의자왕, 왕족·신료 93인, 백성 12,000인을 당으로 압송. 김인문, (8)사찬 유둔·(10)대야마 중지 등이 동행.
				(d)	소정방이 의자왕, 태자 효, 왕자 태·웅·연과 대신·장사 88인, 백성 12,807인을 당의 장안으로 압송.
				(f)	소정방이 의자왕, 태자 효, 왕자 태 등을 당으로 압송.
		問	09.26 이후		이적이 보장왕, 왕자 복남·덕남, 대신 등 200여인을 당으로 압송. (1)각간 김인문, (5)대야찬 주조 등이 이적과 함께 돌아감. 입공 장군 5인(인태·의복·수세·천광·흥원) 등이 수행. 문무왕은 평양성 함락·보장왕 항복 당시 힐차양(黔次壤)에 있었고, 당병이 돌아갔다고 들어 한성으로 귀환함.
				(b)	이적이 보장왕·연남산·연남간·연남생 등을 당으로 압송.
				(g)	고종이 명해 이적이 소릉에서 헌부례를 올리고 경사로 돌아와 태묘에 고하라고 함.
당 ②	도독 임명 · 헌부례 시행	問	09.23	(a)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음.
				(d)	좌위낭장(左衛郎將)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음. 당에서 헌부례 진행, 의자왕은 사면되나 곧 병사.
			09.28	(a)	왕문도가 삼년산성에서 조서·물품을 태종무열왕에게 전하다 병으로 급사
				(d)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다 사망. 유인궤(劉仁軌)로 교체.
			12.08	(i)	고종이 축천문 문루에서 헌부례를 올리고, 백제 포로를 받아

				의자왕 이하를 모두 풀어줌. 천하를 대사(大赦).
		국	.	.
		문	.	.
⑤	논공행상 (行在)	국	10.22	한성에서 문무왕이 아래처럼 논공행상함 김유신(國대각간→문태대각간) 김인문((1)각간→문태대각간) (2)이찬인 장군→각간 (3)소판 이하 위(位) 1급 상승. 한산주 소감 박경한 - 공적 : 평양성내 전투 중 군주 술탈 참살, 1등 - 포상 : (7)일길찬, 조(租) 1,000석. 흑악령 선극 - 공적 : 평양성 대문(大門) 전투 1등 - 포상 : (7)일길찬, 조(租) 1,000석. 서당당주 김둔산 - 공적 : 평양 군영 전투 1등 - 포상 : (8)사찬, 조(租) 700석. (b) 남한산 군사(軍師) 복거 - 공적 : 평양성 복문 전투 1등 - 포상 : 술간, 속(粟) 1,000석. 부양 군사(軍師) 구기 - 공적 : 평양성 남교(南橋) 전투 1등 - 포상 : 술간, 속(粟) 700석. 비열홀 가군사(假軍師) 세활 - 공적 : 평양성 소성(小城) 전투 1등 - 포상 : 고간, 속(粟) 500석. 한산주 소감 김상경 - 공적 : 사천(蛇川) 전투에서 전사(戰死), 1등 - 포상 : 추증 (7)일길찬, 조(租) 1,000석. 아술 사찬 구율 - 공적 : 사천 전투에서 도강 후 위험한 길에 스스로 들어가 대 승하여 공은 1등. 군령을 받지 않아 기록 없음(不錄). - 포상 : 없음. 분해서 자살하려다 주변 사람이 구출해 삶. (f) 왕경을 유수한 김유신을 문태대사발한으로 삼고, 식읍 500호. (i) 여장(輿杖) 수여. 김유신의 요속·좌관에게 위 1급 수여. (g) 김인문을 문태대각간으로 삼고, 식읍 500호 수여. (h) [날짜 추정]강수는 외교·문장에 공이 있어 (8)사찬으로 삼고, 봉록으로 세조(歲租) 200석을 올려줌.

⑥	승전 연회	㉔	.	.	.
		㉕	미상	(b)	문무왕 한국 중 국원 사신 (5)대야찬이 사사로이 연회를 열어 태정. 문무왕, (11)나마 간주, 간주 아들 능안 등 참석.
⑦	왕경 귀환	㉔	11.22	(a)	[왕경 귀환]태종무열왕이 백제에서 돌아옴.
	포로 압송	㉕	11.05	(b)	[왕경 귀환·포로 압송]문무왕이 고구려 포로 7,000명과 함께 경사로 들어옴.
⑧	선조묘	㉔	.	.	.
	고묘	㉕	11.06	(b)	문무왕이 문무 신료와 선조묘 조알, 백제·고구려 멸망 고묘.
⑨	전사자 위로 (王京)	㉔	11.22	(a)	태종무열왕이 논공(論功)하고, 백제 인원(人員)도 재능을 헤아려 임용(量才任用). 계금졸 선복 → (9)급찬 군사(軍師) 두질 → 고간 전사자(戰死者) 4인 : 유사지·미지할·보홍이·설유 → 차등 있게 하직(許職有差). 백제인 임용 좌평 충상·상영, 달솔 자간 → (7)일갈찬, 충관 충직(充職) 은솔 무수 → (10)대나마, 대감 충직(充職) 은솔 인수 → (10)대나마, 제감 충직(充職)
				(i)	[날짜 추정]김유신을 ㉔대각간에 제수.
				(g)	[날짜 추정]김인문을 (4)파진찬에 제수하고, 또 (1)각간을 더함. 곧 다시 당에 들어가 숙위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함.
		㉕	11.18	(b)	전사자(喪死者) 중 소감 이상 10□□필, 종자 20필 사여.
		㉔	.	.	.
당 ③	도독 임명 · 헌부례 시행	㉕	12월	(e)	고종이 함원전에서 고구려 포로를 받음. 우위위대장군(右威衛大將軍) 설인귀를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삼고, 병 20,000명으로 평양 진무(鎭撫).
			12월		고종이 보장왕, 고구려 포로를 먼저 태종의릉(昭陵)에 바치고, 개선가를 부르며 경사에 들어와 태묘(太廟)에 바침.
			12.07	(k)	고종이 함원전에서 고구려 포로를 받음. 보장왕은 자신이 한 정치가 아니므로, 사면하여(赦) 사평태상 백(司平太常伯)·원외동정(員外同正)으로 삼음. 연남산은 사재소경(司宰少卿),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 연남생은 우위대장군으로 삼음. 이적 이하 봉작·상을 차등 있게 내림. 연남건 검중(黔中) 유배, 부여풍 영남(嶺南) 유배.
					고종, 아헌(亞憲) 이적이 남교 제사, 고구려 평정 고함.
					고종이 태묘(太廟) 배알
			12.17 12.19		
⑩	양국 평정 교서 반포	㉔	.	.	.
		㉕	699. 02.21	(c)	백제·고구려 평정 교서 반포 교서에 양국 평정의 의미, 포상·추증 경과, 사면령 반포 이유, 사면령 내용 등 포함.

				사면령의 내용 (1)669년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오역(五逆)을 범해 사형을 받은 죄목 이하로, 옥에 갇힌 죄인은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석방. (2)앞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죄를 범해 관작을 뺏긴 사람은 관작 복구. (3)도적질한 사람은 석방하되, 훔친 물건을 돌려줄 재물이 없다면 징수의 연한을 두지 말 것. (4)가난해 곡식을 빌린 사람 중 흥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자·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확기에 원금만 갚고 이자는 갚지 말 것.

신라의 백제·고구려 멸망 전후처리 과정(㉔)

No.	사안	백제멸망 전후처리 (660.07.18~660.11.22) (약 4개월)		고구려멸망 전후처리 (668.09.21~669.02.21) (약 5개월)	
		유무	일자·비고	유무	일자·비고
①	국왕 항복	○	07.18	○	09.26
	국왕 문죄(問罪)	·	·	○	09.26(김인문 주도)
②	당에 노포 전달	○	07.29	·	·
③	승전 연회(역신 문죄·처형)	○	08.02	·	·
	-사비				
④	유수(留守) 임명	○	09.03	·	·
⑤	논공행상(행재소, 한성)	·	·	○	10.22
⑥	승전 연회-국원	·	·	○	미상(한국 중 김용장 주도)
⑦	왕경 귀환	○	11.22	○	11.05
⑧	포로 압송	·	·	○	11.05(고구려인 7,000명)
⑧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	·	○	11.06
⑨	논공행상(왕경)	○	11.18	·	·
	전사자 위로(왕경)	○	11.18	○	11.22(항복 후 2개월)
⑩	양국 평정 교서 반포	·	·	○	669.02.21(항복 후 5개월)

※출전 :

- (a)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660) 秋 7월 18일~11월 22일.
 (b)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文武王 8년(668) 9월 21일~11월 18일.
 (c)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文武王 9년(669) 2월 21일.
 (d)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20년(660) 6월.
 (e)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7년(668) 秋 9월~冬 10월.
 (f) :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g) : 『삼국사기』 권44, 열전4, 金仁問.
 (h) : 『삼국사기』 권46, 열전6, 強首.
 (i) :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판 상.
 (j) : 『자치통감』 권200, 唐紀16, 高宗 顯慶 5년(660) 11월 戊戌朔, 6322쪽.
 (k) : 『자치통감』 권200, 唐紀16, 高宗 總章 元年(668) 冬 10월 戊午 및 12월 丁卯·己巳.

※범례 : ①국가 : 백제·고구려는 靑·靑로 표기. ②도독 임명 : 신라왕의 전후처리는 아니나, 사건 전개상 중요하여 표기. ③일자 : 중력을 기준으로 표기. ④[날짜 추정] : 포상 날짜를 알 수 없으면, 대대적인 논공행상이 있던 시점으로 추정 표기. 단 관창의 향산벌 전투 포상(『삼국사기』 권47, 列傳7, 官昌)은 표기하지 않음. 관창의 포상 중 하나는 '예로 장사를 지내라'이므로, 행군 중 포상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임. ⑤겹선 : ㉔-㉕-㉖의 사차가 3개월이므로 구분.

두 전쟁은 친솔형 전쟁이다. 두 전쟁의 전후처리 기간은 약 4·5개월이고, 주요 사안은 대동소이하다. 국왕 항복·문죄, 노포 처리, 승전 연회, 유수 임명, 논공행상·전사자 위로, 왕경 귀환은 공통이나,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고구려멸망 후에만 보인다. 또 전후처리 사안별 유무·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자의 차이와 그 원인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 국왕 항복·문죄 중 문죄 사례는 김인문의 보장왕 문죄만 전한다(㉔-㉕). 김인문이 문죄를 주도한 이유는 문무왕이 평양성에 없었기 때문이다(㉔-㉕-㉖). 의자왕의 문죄는 태종무열왕이 주관한 승전 연회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전 연회에서 의자왕은 큰 모욕을 받았고, 모척·검일 등의 역신을 문죄·처형하기 때문이다(㉔-㉕-㉖). 한편 고구려멸망 후 문무왕이 주관한 승전 연회(역신 문죄·처형)는 보이지 않고, 환국 중 김용장이 주관한 연회만 보인다(㉔-㉕·㉖). 문무왕의 논공행상은 한성에서 진행되므로(㉔-㉕-㉖), 논공행상 당시 문무왕 주관의 승전 연회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자료적으로 승전 연회의 양상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둘째, 당에 노포(露布) 전달은 백제멸망 후에만 보이나(㉔-㉕), 고구려멸망 후에도 있었다. 당 전기 노포는 행군원수부 병조참군사가 전쟁의 정당성·경과·비용, 전과(노획물·포로·참수된 자 등의 수) 등을 써 상서병부에 올리고, 상서·문하의 결재·심의 후 황제의 재가를 받아 천하에 선포한 전첩 문서이다.⁵²⁾ 668년 고종은 고구려멸망전

52) 김정식, 「唐 前期의 奏事文書와 露布」, 『中國古中世史研究』 51, 2019, 53~61쪽.

관련 이적·신라의 공을 포상하고, 김유신의 공을 따로 포상하였다.⁵³⁾ 이적이 평양성 전투에 불참한 김유신의 공을 보고할 이유는 없다. 고종의 김유신 포상은 문무왕의 노포 처리를 전제한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전후처리를 직접 경험하였고, 노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신라 내부에서도 기록된 전공이 없으면 포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㉔-㉕-㉖-(b)). 신라의 노포는 나당 간 전후처리의 중요 근거가 될 문서였다.

문무왕은 「답설인귀서」에서 668년 이적의 신라 공훈 재산정 발언, 입공(立功) 장군(㉔-㉕-㉖-(b)) 5인이 장안에서 들은 신라의 공이 없다는 논의, 즉 신라무공론(新羅無功論)을 거론하였다.⁵⁴⁾ 이것은 이적의 불순·부당한 의도, 고종의 묵인·변복 등을 지적해 나당전쟁 발발의 원인이 당에 있다는 해명이다. 백제멸망전에 불참한 이적이 660년 신라의 군기 위반을 구실로 신라의 공훈을 재산정하겠다는 발언은 일종의 위훈삭제를 시도한다는 의미이다. 백제멸망전의 당 측 주장(主將)은 소정방이었으므로, 이적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였다. 또 이적의 발언은 660년 고종이 헌부례를 통해 천하에 선포한 신라의 전과를 번복한다는 의미이다. 문무왕이 「답설인귀서」에서 나당전쟁 발발에 대한 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668년에 이미 처리한 노포의 전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셋째, 백제멸망 후에만 사비를 유수(留守)할 사람을 임명하였다(㉔-④). 이것은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 승전 연회 후부

53) 『삼국사기』 권43, 列傳3, 金庾信 下, 總章 元年(668) 唐皇帝既策英公之功.

5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1년(671) 秋 7월 26일, 大王報書云, 英公漏云. 입공장군은 전첩보고사로 이적을 따라 당에 간 인태·의복·수세·천광·홍원이다(정구복 등 5인 역주, 앞의 책3, 2012, 234쪽; 崔根泳·嚴聖欽, 『古代韓國人名辭典』, 주류성, 2004, 86쪽). 660년 소정방을 따라 당에 간 김인문·유돈·중지(당①-(a))의 역할도 같다고 이해된다.

터 백제부흥운동이 거셌다. 사비 유수를 포기하면, 백제 복국, 고구려 정벌이 무산될 소지가 있었다.

둘, 사비보다 평양을 유수할 필요성이 적었다.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포위·함락 날짜는 알기 어렵지만, 사비성 전투는 최장 6일을 넘지 않는다. 12일 나당연합군은 사비성 포위를 위해 소부리 별관에 나아갔다. 13일 밤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주하고, 소정방은 사비성을 포위하였다. 18일 의자왕이 항복하였다.⁵⁵⁾ 사비성은 지휘부 붕괴로 삽시간에 함락되었다.

반면 평양성 전투는 포위만 한 달이 넘었다.⁵⁶⁾ 문무왕의 논공행상은 평양성 안·대문·군영·남교·소성과 사천(蛇川) 등 곳곳에서 전투가 격렬했음을 보여준다(A-⑥-㉔-(b)). 또 도성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으므로, 이적이 압송한 포로 20여만명과 신라가 압송한 포로 7,000명(A-⑧·⑤-㉔-(b)) 중 평양성 주민의 비율은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고구려멸망 과정에서 평양성의 인적·물적 손실은 격심했다고 보이므로, 평양 유수는 사비 유수보다 필요성이 적었다.

넷째, 양국 평정에 대한 선조묘 고묘, 교서 반포는 고구려멸망 후에만 있었다(B-⑨·⑪). 선조묘, 즉 종묘 고묘는 개선 의례의 일종이다.⁵⁷⁾ 백제멸망 후 선조묘 고묘나 교서 반포 등과 유사한 성격의 조치는 없었다. 제문·교서의 주요 사안은 백제·고구려 평정에 대한 문제이며, 포로 압송 여부의 차이(A-⑧-㉔·㉕)가 있기 때문이다.

5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660) 秋 7월 12·13·18일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20년(660) 6월, 遂與太子孝.

5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7년(668) 秋 9월.

57)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 149, 2010, 111~112쪽. 이 글에서는 선조묘 고묘를 고구려 토멸전의 개선 의례로 보았다. 그러나 포로 압송과 제문을 고려하면, 양국 멸망 전쟁의 개선 의례인 헌부례를 시행했다고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660년 백제멸망전 개선 의례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백제멸망전 개선 의례 수행은 중대 왕실 개창의 정통성·권위를 강화하는 사안이므로, 태종무열왕·문무왕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백제멸망은 태종무열왕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이유로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 백제부흥운동의 격화로 개선 의례를 늦출 가능성이다. 이것은 3가지 문제가 있어 설득력이 낮다. ①양국 멸망 전후처리 사안·기간은 대동소이하다. ②당 고종의 헌부례·대사는 백제부흥운동과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 백제부흥운동은 승전 연회 후 시작되며, 소정방은 사비를 유수할 사람을 임명한 후 환국하였다(㉠-당①-백). 고종은 소정방에게 백제부흥운동 상황을 보고 받았겠지만, 개선 의례를 시행하였다(㉠-백-당②-(j)). 660년 소정방의 보고는 백제멸망 선포가 반복될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고종은 현상을 위주로 개선 의례를 진행하였다. ③문무왕은 662년 2월 탐라가 속국이 되자, 3월 백제 평정을 기정사실화하며(既平百濟) 대사·대포(大酺)를 진행하였다.⁵⁸⁾ 대포는 태평을 맞아 국가에서 술을 내리는 호화 연회이나,⁵⁹⁾ 개선 의례는 아니다. 662년 백제부흥운동은 거셌다. 7월 30일 고종은 문무왕의 유수 요청이 없다면, 백제 고지의 당군 철수를 중용하였다. 유인케는 백제 복국에 따른 고구려정벌 무산을 우려해 증원군을 요청하였다.⁶⁰⁾ 662년 고종은 헌부례 시행 약 19개월만에 백제멸망 선포를 반복할 상황에 처했다. 662년 8월 신라는 내사지성의 백제 잔적을 토파하고, 대당·남천주 총관 진주·진흙의 직무태만을 강하게 처벌하였다.⁶¹⁾ 고종의 헌부례,

5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662) [2월]·3월.

59) 정덕기, 앞의 논문, 2023(a), 182쪽.

60) 『자치통감』 권200, 唐紀16, 高宗 龍朔 2년(662) 7월 丁巳, 6329~6330쪽.

6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662) 8월.

문무왕의 백제 평정 기념 대포는 백제부흥운동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660년 백제멸망 개선 의례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백제부흥운동과 연결해 이해하기 어렵다.

둘, 신라가 백제부흥운동 종료를 백제멸망 완료로 인식하여 개선 의례를 늦출 가능성이다. 이것은 2가지 문제가 있어 설득력이 낮다. ①665년 3월 백제부흥운동 종료⁶²⁾ 후 신라는 백제멸망 개선 의례를 치르지 않았다. ②고구려부흥운동을 고려하면, 668~669년 고구려멸망전 개선 의례를 치를 수 없다. 기타 태종무열왕·문무왕이 고구려멸망 전쟁의 개선 의례만 시행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양국 멸망 전후처리 중 가장 큰 차이는 고구려멸망 전후처리에만 보이는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이다. 유관 자료를 B로 인용하였다.

B-①. 11월 5일. 왕이 사로잡은(虜) 고구려 사람 7,000명과 경사로 들어왔다. [11월] 6일. 문무 신료를 통솔해 선조묘를 조알하였다. 고(告)하였다. ④삼가 선조의 뜻을 잊고자, 대당과 같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백제·고구려에 죄를 묻고(問罪), 원흉을 처단해(伏罪) 국운이 태평(泰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를 아뢰오니, 신께서는 그것을 들으소서!”⁶³⁾

B-②. 개선(凱旋)을 고하는 날에는 남문 밖에 포로(俘)·베어낸 왼쪽 귀(馘)를 진열하며, 북쪽을 향하되 서쪽이 뒷자리가 된다. 군실(軍實)은 뒤에 늘어놓는다. 고전(告奠)의 예는 [묘에] 고하는 예(告禮)와 같다.⁶⁴⁾

6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4년(665) 3월.

6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8년(668) 11월, “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學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64) [唐]蕭嵩 等 撰,『大唐開元禮』권83,軍禮,凱旋獻俘,402쪽,“凱旋告日 陳俘·馘於南門外 北面西上 軍實陳於後 其告奠之禮 皆與告禮同.”

B-③. [2월 21일 문무]대왕이 못 신하를 모아 교서를 내렸다. “㉠지난날 신라는 양국에 끼어 북벌(北伐)·서침(西侵)하니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전사의 시체는 뒹굴어 들판에 쌓이고, 몸·머리는 나라 경계에 나뉘었다. ㉡선왕(=태종무열왕)은 백성이 해를 당함을 근심해 천승의 귀중함을 잊고, 바다를 건너 입조해 황제께 청병(請兵)하였다. 본래 양국을 평정해 길이 싸움을 없게 하고, 누대의 깊은 원수를 갚아 백성의 남은 명을 보존하려 하였다. ㉢백제는 평정되었으나, 고[구]려는 멸하지 못했다. 과인(=문무왕)은 평정을 이루려던 유업을 이어 끝내 선왕의 뜻을 이뤘다. 지금 두 적국이 이미 평정되니 사방이 태평(靜泰)하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모두 이미 상을 주고, 전사한 혼령에게 명복 빌 재물을 추증하였다. ㉤다만 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형구로 고생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 일을 생각 하니, 먹고 잠이 편치 않다. ㉦나라 안 죄수를 사면한다.”⁶⁵⁾

B-①은 11월 5·6일 문무왕의 왕경 귀환·선조묘 고묘와 당시 의례에 쓴 제문(祭文)을 보여준다. 문무왕이 포로를 입경(入京)시켰고, 하루 뒤 문무왕·문무 신료가 선조묘 제사를 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 포로를 왕경에서 처리할 이유가 있고, 이것은 선조묘 고묘와 관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B-②는 당의 헌부례를 보여준다. 헌부례는 전쟁 승리를 도운 태묘·태사의 제신에게 고례(告禮)·헌부(獻俘)로 감사를 표하고, 황제가 전과를 과시해 왕조의 정당성과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을 지닌

6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文武王 9년(669) 2월 21일, “大王會羣臣 下敎 “往者 新羅 隔於兩國 北伐西侵 暫無寧歲 戰士曝骨 積於原野 身首分於庭界 先王愍百姓之殘害 忘千乘之貴重 越海入朝 請兵絳闕 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讎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麗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旣平 四隅靜泰 臨陣立功者 並已酬賞 戰死幽魂者 追以冥資 但 囹圄之中 不被泣辜之恩 枷鎖之苦 未蒙更新之澤 言念此事 寢食未安 可赦國內.”

개선·전첩 의례이다.⁶⁶⁾ 고하고 제사하는 예는 고묘 의례와 같았다.

B-②는 헌부례의 제물이 포로·베어낸 왼쪽 귀·군실이며, 포로·베어낸 왼쪽 귀 뒤에 군실을 진설한다고 하였다. 베어낸 왼쪽 귀는 주벌(誅伐)·복주(伏誅)의 증표, 공훈을 세는 수단이다.⁶⁷⁾ 군실은 노획한 군기(軍器)·포로 등 전리품을 말하나,⁶⁸⁾ B-②의 군실은 군기 등 전리품만 말한다. 포로와 베어낸 왼쪽 귀는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전과이고, 군실보다 앞에 진설되기 때문이다.

즉 헌부례는 인적·물적 전리품 등을 제물로 선조묘 등에 바치는 헌부, 제사를 지내며 제문을 선조묘 등에 고하는 고례로 구성된 개선 의례이다. 고례·헌부를 고부(告俘)로 축약한 용례는 헌부례의 구성에서 비롯하였다.⁶⁹⁾ 헌부·고부 등 용례, 제물의 진설 순서에서 포로가 가장 앞서는 점 등은 헌부례의 핵심이 포로를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B-①은 668년 11월 6일 문무왕이 시행한 헌부례와 헌부례에서 쓴 제문을 수록한 기사이다.

66) 김정식, 「唐 前期 戰捷 公布 儀禮와 그 성격-獻俘禮·選露布儀禮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69, 2023, 125~131쪽.

67) 『毛詩正義』 권23, 大雅, 文王之什, 皇矣, 1216~1217쪽. “攸馘安安【[唐]孔穎達 正義曰：有訊·馘者 美文王以德服崇 不至於破國壞城耳 於時 非無拒者 故得有訊·馘 馘獲 釋詁文 … 「玉藻」云 聽嚮任左 故不服者 殺而獻其左耳曰 馘罪 其不聽命服罪 故取其耳 以計功也】”

68) 『毛詩正義』 권23, 大雅, 湯之什, 抑, 1369~1370쪽. “用戎戒作【[唐]孔穎達 正義曰：以用戎戒作 謂兵戎備之 … 用兵是將帥之事 故知戒將帥之臣 以治軍實也 … 軍實者 即車·馬·弓·矢·戎·兵 是也 弓矢即戎兵 而又言戎兵 容戈·盾·矛·戟之類 軍之所用皆是】”；『春秋左傳正義』 권3, 隱公 5년(BC 718), 107쪽. “傳：歸而飲至 以數軍實【[晉]杜預 注：飲至於廟 以數車徒器械 及所獲也】”；『春秋左傳正義』 권17, 僖公 33년(BC 627), 547쪽. “傳：先軫朝 問秦囚 公曰 “夫人請之 吾舍之矣” 先軫怒曰 “武夫力而拘諸原 婦人暫而免諸國 墮軍實而長寇 讎亡無日矣.”

69) 『신당서』 권215上, 列傳140上, 突厥 上, 6035쪽. “頡利至京師 告俘太廟.”

제문의 주요 사안은 선조 과업인 백제·고구려의 문죄·복죄 완료이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연속된 전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태종무열왕은 백제멸망 개선 의례를 시행하지 않았고(㉠-㉡), 문무왕은 양국 멸망을 포괄해 개선 의례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668년 논공행상 대비 660년 논공행상이 전쟁 준비에 가까운 이유도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660년 논공행상은 태종무열왕이 재능을 헤아려 백제인을 총관·대감·제감 등 무관에 충원한 사실을 특기하였다. 반면 668년 논공행상은 문무왕의 포상만 쓰고, 무관 충원은 특기하지 않았다. 668년에도 무관 전사·충원 조치가 있었겠지만, 660·668년 논공행상과 관련해 특기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668년 논공행상보다 660년 논공행상이 전쟁 준비에 더 가까운 성격이 있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B-③은 양국 평정 교서의 일부로, 사면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량 관계상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B-③은 ‘양국 평정 이전 상황(㉠)→태종무열왕의 대당 청병·양국 평정 의도(㉡)→태종무열왕·문무왕의 양국 평정이 지닌 의미(㉢)→양국 평정 후속 조치(㉣)→사면령 반포 이유(㉤)→사면령(㉦)’ 순서로 구성되었다.

B-③에서 주목할 것은 3가지이다. 첫째, ㉠은 진흥왕 이래 왕실의 삼국정립을 비판하고, 상대사를 재평가하였다. ㉠은 신라의 고구려·백제 공격을 양국 평정 이전 빈번한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7세기 전반 삼국 항쟁에서 신라는 대개 방어자이므로, ㉠의 북벌·서침은 진흥왕의 치적을 요약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또 태종무열왕이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란 점을 고려하면, ㉠은 삼국정립을 고수한 진평왕 이후 중고 왕실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는 태종무열왕의 대당 청병·양국 평정 의도가 전쟁 소멸, 부당한 침략 보복 등 위민(爲民)에 있고, ㉢는 태종무열왕·문무왕이

양국을 평정해 태평에 이르렀다고 서술하였다. ㉞는 대당 청병·양국 평정 과업을 몸소 행한 선왕을 헌창하고, ㉟는 남은 과업을 마쳐 태평을 만든 문무왕의 치적을 강조하였다. ㉞·㉟는 양국 멸망 전쟁의 목표가 신라의 생존·안녕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므로,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B-①-a)과 맥락이 유사하다. 이것과 ㉟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㉞·㉟는 양국 평정 완료를 통해 태종무열왕 이후 왕실의 정통성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서술이다.

셋째, ㉞는 양국 평정 후속 조치로 논공행상·추증의 진행을, ㉟는 사면 이유를, ㉟는 사면령을 서술하였다. 사면령은 국내, 즉 신라의 실효 지배 영역에 사는 관인·백성의 정치·경제 범죄에 적용되었다(<표 5>-A-⑩-c)). 사면령은 전승 기념·민심 수습, 빈곤층이 지배층의 예측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⁷⁰⁾ 민의 안정화, 왕의 지배를 민에게 전면적으로 관철한 공민화 조치로⁷¹⁾ 이해되었다. 또 사면령을 통해 훈련된 적군 포로, 사면된 장정을 신규 병력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⁷²⁾

사면령의 오역(五逆, <표 5>-A-⑩-c-1))은 모반(謀反)·모반(謀叛), 대역(大逆), 악역(惡逆), 불의(不義)·불신(不信), 부도(不道)이다. 신라의 모반(반)죄는 당·일본의 10악(惡)·8학(虐) 중 첫째·셋째인 모반(謀反)·모반(謀叛)을 묶은 것으로, 사직·국가의 위해를 피하거나, 나라를 배반해 적국을 따르고자 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⁷³⁾

문무왕이 헌부례 시행 약 4개월만에 양국 평정 교서·사면령을 추

70) 尹善泰, 「新羅 中代の 刑律」, 『강좌 한국고대사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127쪽.

71) 김영하, 앞의 책, 2007, 182쪽.

72)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출판사, 2012, 82~83쪽.

73) 한영화, 「신라의 五逆과 통치이념」, 『사람』 53, 2015, 158·162·166~170쪽.

가로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사면령이 주요 목적이 전승 기념, 민심 수습 등에만 있었다면, 헌부례 시행과 사면령 반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종은 백제멸망 후 헌부례 시행과 천하 대사를 함께 진행하였다(<표 5>-㉔-㉕). 교서의 양국 평정 인식은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B-①-a)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669년 사면령을 추가로 내릴 이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이유로 나당전쟁의 조짐, B-①-a의 문죄·복죄 완료, 모반(반)죄 사면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669년 2월은 668년 9월 하순 이후 당에 입조한 입공장군 5인의 환국 예상 시기이다. 670년 7·12월 홍원·수세의 활동이 보이므로,⁷⁴⁾ 670년 7월 이전 입공장군 5인은 환국하였다. 669년 5월 문무왕은 각간 흠순·파진찬 양도를 당에 사죄사로 보냈다.⁷⁵⁾ 사죄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사죄사 파견은 나당 관계 변화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다. 입공장군의 환국 예상 시기, 668년경 당에서 돌던 신라무공론, 669년 5월 사죄사 파견 등으로 보아 신라는 늦어도 669년 5월 이전에 나당전쟁의 조짐을 감지하였다. 이 상황에서 B-③이 반포되었다.

B-①-a는 양국 평정을 신라가 당과 의병(義兵)을 일으켜 양국의 죄를 물어 처단한 행위, 즉 정벌로 규정하였다. 신라는 양국에 대한 문죄·복죄를 마쳤으므로, 신라의 실효 지배 영역에 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의 적대 관계는 소멸하였다. 삼국통일전쟁 중 신라에 저항해 투옥된 백제·고구려 유민이나, 이적(利敵) 행위를 하거나 의심받아 투옥된 신라인은 상당했다고 판단된다. 진주·흠순처럼, 당시 신라는 죄질 대비 처벌의 강도를 높게 처벌했기 때문이다.

7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10년(670) 秋 7월·12월.

7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669) 夏 5월.

B-③는 국내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 간 적대 관계 소멸을 근거로 모반(반)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면과 모반(반)죄에 해당하나 투옥되지 않은 사람의 추가적인 문죄가 없음을 천명한 조치이다. 투옥될 상황이라도 사면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석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B-③는 나당전쟁의 조짐을 감지하며 반포되므로, 백제·고구려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 나당전쟁 준비를 도모한 조치이다.

B-③은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가 백제·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결합하는 합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669년 2월 안승의 투항 대상은 신라로 나타나고,⁷⁶⁾ 670년 3월 나당전쟁의 서전인 오골성 전투는 사찬 설오유의 부대와 태대형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이⁷⁷⁾ 연합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라는 고구려멸망의 주범이나, 약 5~18개월 만에 신라를 투항·연합의 대상으로 인식한 일부 고구려인이 나타났다.

나당전쟁의 조짐 속에서 반포한 양국 평정 교서는 삼국통일인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신라는 나당전쟁을 준비하며 백제·고구려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야 하였고,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신라인과 양국 유민이 결합할 근거를 구축하였다. 이 결과 나당전쟁은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활동으로 개전하였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나당전쟁은 삼국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라와 당의 전쟁으로 규정될 것이었다. 또 신라의 양국 멸망·평정 인식은 삼국통일인식으로 전환될

76) 669년 2월 안승의 신라 투항은 670년 이후 안승의 신라 남하와 관련해 보거나 (임기환,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294~297쪽), 669년 2월 안승의 신라 투항 시도와 좌절로 보기도 한다(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127~137쪽). 안승의 신라 투항에 대한 해석은 차후 과제이나, 이 글에서는 B-③이 안승의 투항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77)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134~141쪽.

것이였다. 양국 평정 교서는 일종의 속인(屬人) 문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인식이 배태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674년 “삼한이 일가를 이루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다”란 김유신의 발언⁷⁸⁾ 신라인, 백제·고구려 유민이 나당전쟁을 치르는 현상과 양국 평정 교서로 배태된 신라의 삼국통일인식을 반영한 발언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은 신라가 643년에 인식한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 668~669년에 진행한 양국 멸망 전후처리의 관계를 검토하고, 양국 평정 교서의 함의를 통해 삼국통일 인식의 발생 과정을 논의하였다.

중고기 전반 진흥왕의 영역 팽창은 삼국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삼국정립은 삼국 공존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 항쟁 주도권을 확보해 신라 우위의 삼국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이자, 진흥왕의 전쟁 수행 목적이다. 삼국정립은 중고기 후반에 계승되었다.

602~659년 신라-백제·고구려 전쟁의 전황 및 신라의 청병 외교 현황을 고려하면, 신라는 643년 전쟁 목적을 삼국정립에서 양국 멸망으로 전환하였다. 642년 백제의 신라 41성 공취는 신라사 초유의 대패를 의미하며, 왕경 서쪽 1차 방어선 붕괴, 심각한 전력 손실, 여유 병력 부재, 멸망 위기 등을 초래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빈번한 대공세에 대응하고자 대고구려·대당 청병 외교를 전개하였다.

642년 신라의 대고구려 청병은 실패하나, 신라는 대고구려 청병을

78)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唐 高宗]咸亨 4년 癸酉(673) 夏 6월,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통해 고구려의 고토 회복 의지와 신라-고구려 관계의 개선 여지가 없음을 인식하였다. 신라는 현실·미래의 위협을 백제·고구려로 인식하고, 삼국정립을 양국 멸국으로 전환하며 대당 청병을 추진하였다.

643년 신라는 당에 청병하며 양국을 한통속으로 몰았다. 당은 고구려 공격 명분을 축적하고자 신라의 주장을 수용하고, 새서를 통해 삼국에 개입하였다. 신라는 자국 멸망 위기의 원인을 고구려로 몰아가면, 양국 멸망에 당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백제는 여제연화를 부인하였다. 고구려는 여제연화를 적극 해명하지 않았고, 고구려의 대응은 신라·당의 연합 여지를 높였다. 이후 양국 멸망을 목표로 나당동맹이 체결되었고, 삼국통일전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은 신라의 양국 멸망 전후처리에 반영되었다. 양국 멸망 전후처리 사안·기간은 유사하나, 고구려멸망 후에만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 양국 평정 교서 반포 등이 이루어졌다.

고구려 포로의 왕경 압송·입경과 양국 평정 선조묘 고묘의 시차는 1일이고, 고구려 포로를 왕경에서 처리할 이유는 선조묘 고묘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고구려멸망전 개선 의례로 헌부례가 시행되었음을 알려준다. 백제멸망전 개선 의례는 시행되지 않았고, 헌부례 제문의 주요 사안은 백제·고구려의 문죄·복죄 완료이다. 따라서 헌부례 시행은 삼국통일전쟁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헌부례 시행 4개월 후 양국 평정 교서와 사면령이 반포되었다. 교서는 진흥왕 이래 중고 왕실의 삼국정립을 비판하며, 상대사를 재평가하였다. 또 양국 평정 완료를 통해 태종무열왕 이후 왕실의 정통성과 새 시대의 개막을 강조하며, 사면령을 내렸다. 양국 평정 교서는 신라가 나당전쟁 조짐을 감지한 시기에 반포되었고, 교서의 양국

평정 인식은 헌부례 제문의 양국 평정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헌부례 제문은 양국 평정을 정별로 규정하였다. 신라는 당과 의병을 일으켜 양국의 죄를 묻고 처단했기 때문이다. 신라는 양국의 문죄·복죄를 마쳤으므로, 신라가 실효 지배하는 영역에 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의 적대 관계는 소멸하였다.

양국 평정 교서의 사면령에는 오역(五逆)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면이 있다. 오역은 사직·국가의 위해를 꾀하거나, 나라를 배반해 적국을 따르고자 꾀하는 행위인 모반(반)죄를 포함하였다.

양국 평정 교서 반포는 신라인-백제·고구려 유민 간 적대 관계 소멸을 근거로 모반(반)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하며, 사면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추가 문죄가 없음을 천명한 조치이다. 또 양국 유민을 신라인으로 흡수해 나당전쟁 준비를 도모한 조치이다.

양국 평정 교서는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가 백제·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결합하는 합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멸망의 주범이나, 교서 반포 후 약 5~18개월 만에 신라를 투항·연합의 대상으로 판단한 일부 고구려인이 나타났다.

신라는 나당전쟁을 준비하며 백제·고구려 유민을 포로·죄인이 아니라 신라인으로 흡수할 수단을 찾아야 하였다. 이 결과 나당전쟁은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활동으로 개전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면 나당전쟁은 삼국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라와 당의 전쟁으로 규정되었다. 또 양국 평정 교서는 속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신라의 양국 멸망·평정 인식은 삼국통일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사강목』 『대동지지』 『아방강역고』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湖西邑誌』 『擇里志』
- * 『史記』 『舊唐書』 『新唐書』 『자치통감』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 『당회요』 『대당육전』 『책부원귀』 『통전』 『천지서상지』 『전당문』 『문관사림』 『馮師訓碑』
- * 『禮記』 『左傳』 『孫子兵法』 『吳子』
- * 『일본서기』
- * 朝鮮總督官房土木部, 『治水及水利踏査書』
- * 朝鮮總督官房土木部, 『江景事情』
- * 「大唐平百濟國碑銘」 「馮師訓碑」 「祿仁秀 墓誌銘」 「李他仁墓誌」 「泉男生墓誌」 「泉獻誠墓誌」 「朝鮮半島全圖」
- *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 충남역사문화원, 『백제사료자료 역주집-일본편-』, 아디람, 2008.
- *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논산시, 『논산황산벌전적지』, 현대읍세인쇄사, 2000.
-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 [漢]毛亨 傳 / [漢]鄭玄 注 / [唐]孔穎達 疏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 손무 著, 유동환 譯, 『손자병법』, 홍익출판사, 1999.
- * 吳鋼 主編, 『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 三秦出版社, 2006.
- * [宋]王欽若 等 編纂, 周勣初 等 校訂, 『冊府元龜』(校訂本),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譯註 孫武子直解 吳子直解』, 전통문화연구회, 2012.
- * [周]左丘明 傳 / [晉]杜預 注 / [唐]孔穎達 正義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

理, 『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 池田溫 解題, 古典研究會 出版, 『大唐開元禮【附 大唐郊祀錄】』, 汲古書院, 1972.
- * 胡戟·榮新江,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2012
- * 개별 발굴보고서는 생략

2. 저서

- * B.A.프리드먼 著, 진중근·신의철·장찬규·모영진 共譯, 『전술의 정석』, 길찾기, 2023.
- * 國防軍史研究所, 『韓民族戰爭通史 I-古代編』, 1994.
-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2002.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2023.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통일신라』, 탐구당, 2003.
-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 유래집-중부편』, 2008.
- *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 *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 * 김문경, 『당대의 사회와 종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4.
- * 김수태,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96.
- * 김영수, 『역사를 훑친 첩자』, 김영사, 2006.
- * 김영심,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2022.
- *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1.
- * 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 *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 *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6.
- * 김종수, 『한국 고대·중세 군사제도사』, 국학자료원, 2020.
- * 김철준, 『韓國古代國家發達史』, 春秋文庫, 1975.
- * 김철준, 『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 * 노중국,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 檀國大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2003.
- * 당진군, 『당진군지 상』, 상록동양인쇄문화, 1997.
-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 * 扶餘郡誌編纂委員會, 『扶餘郡誌』, 扶餘郡, 1987.
- *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 서영교, 『고구려, 전쟁의 나라』, 글항아리, 2007.
- * 서영교, 『고대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 * 서영교, 『新羅 軍事史 新研』, 은서, 2016.
- *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 서인환, 『나당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9.
- * 성형권, 『전술의 기초』, 마인드북스, 2023.
- * 손영중,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 * 앙투안 앙리 조미니 지음·이내주 옮김, 『전쟁술』, 책세상, 1999.
- *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2004.
- * 엘빈 토플러 지음·이규행 감역, 『전쟁과 反戰爭』, 한국경제신문사, 1994.
- *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김영수 지음,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 역사학회 저,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 월 듀런트, 아리엘 듀런트 지음·안인희 옮김, 『월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 을유문화사, 2014.
-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지문당, 2013.
- * 윤진석, 『교양인을 위한 역사학 교실』, 이른비, 2022.
- *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 * 이기백, 『韓國史學의 方向』, 일조각, 1978.
-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 古代編』, 一潮閣, 1982.
- * 이도학,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일지사, 2010.
- * 이문기,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 *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朴英社, 1976.
-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 * 이상훈,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푸른역사, 2015.
- * 이상훈,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 * 李成市,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2022.
- * 이인철,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 * 이재준, 『백제 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2017.
- * 이태규,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2.
- * 임용한, 『전쟁과 역사 - 삼국편』, 혜안, 2001.
- *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 2』, 혜안, 2012.
-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 * 전덕재,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 * 전덕재, 『신라지방통치제도사』, 학연문화사, 2023.
- *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 정구복 등 5인 역주,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 정덕기,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혜안, 2021.
- * 정덕기, 『신라 상대 관복제도사』, 2023.
- * 정요근 엮음, 기경량 등 12명 지음,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2023.
-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 崔根泳·嚴聖欽, 『古代韓國人名辭典』, 주류성, 2004.
-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의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 클라우제비츠 저·김홍철 역, 『전쟁론』, 삼성출판사, 1990.

- *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2006.
- * 한준수,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 * 홍영호,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景仁文化社, 2006.
- * 황보경, 『역사자료로 본 삼국과 한강』, 주류성, 2016.
- * 拜根興, 『石刻墓誌與唐代東亞交流研究』, 科學出版社, 2015.
- *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1995.
- * 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 * 今西龍,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 * 金子修一,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ゾア』, 名著刊行會, 2001.
-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 白鳥庫吉, 『塞外民族史研究』, 岩波書店, 1970.
- * 石見清裕,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
- *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判, 1974.
- * 井上直樹, 『高句麗の史的展開過程と東アジア』, 塙書房, 2021.
- * 池内宏, 『滿鮮史研究(上世 第2策)』, 吉川弘文館, 1960.
- *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 村上四男,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 * 平岡武夫, 『唐代の曆』,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54.

3. 논문

- * 강봉룡, 「新羅 中古期 ‘州’제의 형성과 운영」, 『한국사론』 16, 1987.
- * 강봉룡,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 1990.
- * 강봉룡, 「新羅下代 涇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1997.
- * 강세권 외, 『조선단대사-신라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 * 강중훈,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 『三國史記』 列傳 7에 실린 新羅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5, 2004.
-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 * 권덕영, 「8·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 25, 2005.
- *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
- * 권순진,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 * 권영필,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
-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 *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 * 권창혁, 「나당전쟁기 한산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군사』 129, 2023.
- * 기경량,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 128, 2019.
- * 金子修一,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 * 김덕원,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 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2016.
- *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 * 김강훈,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高定問」, 『歷史教育論集』 65, 2017.
-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 김덕원,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 49, 2020.
- *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 * 김덕원, 「나당동맹의 파탄 과정」, 『신라사학보』 59, 2023.
- * 김명준, 「선덕여왕(善德女王) 대 「풍요(風謠)」의 불교정치적 의미」, 『우리文學研究』 39, 2013.
- * 김병근, 「668년 고구려 멸망시 蛇川原戰의 재구성 및 의의」, 『高句麗渤海研究』 46, 2013.
- * 김병남, 「백제 威德王代의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韓國上古史學報』 43, 2004.
- * 김병남,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2013.

- *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 김병희·서영교,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 『軍史』 118, 2021.
- * 金秀鎭,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 김수진, 「670년 평양 일대 고구려 유민의 남하와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실학』 72, 2020.
- *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 *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上)』, 일조각, 1994.
- * 김수태,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1999.
- * 김수태, 「[서평]현재적 관심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
-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 * 김수태, 「일연의 삼한·삼국통일론」, 『서강인문논총』 43, 2015.
- * 김수태,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41, 2017.
- *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664년 사비산성 전투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25, 2018.
- *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전략과 백제의 방어전략」, 『STRATEGY』 21, 1999.
- * 김영관,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 정책」, 『선사와 고대』 36, 2009.
- * 金榮官,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20, 2010.
- * 김영관, 「中國 發見 百濟 遺民 祔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24, 2012.
- * 金瑛洙,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62, 2007.
- *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 * 김영하,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 김영하, 「신라 중대왕권의 기반과 지향」, 『한국사학보』 16, 2004.
- * 김영하,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6, 2009.
- *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 * 김영하,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韓國

- 史學報』 56, 2014.
- *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38, 2016.
 - * 김영하,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
 - * 김영하, 「[說林]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2-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a).
 - *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 129, 2019(b).
 - * 김 용,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선사와 고대』 74, 2024.
 - * 김은영, 「청소년의 음용수 섭취와 식생활 습관 및 ADHD와의 관련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 * 김정식, 「唐 前期의 奏事文書와 露布, 『中國古中世史研究』 51, 2019.
 - * 김정식, 「唐 前期 戰捷 公布 儀禮와 그 성격-獻俘禮·選露布儀禮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69, 2023.
 - * 김종수,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한국사연구』 126, 2004.
 - * 김종수, 「백제 군제의 성립과 정비, 『역사교육』 103, 2007.
 - * 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람』 19, 2003.
 - *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 *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126, 2016.
 - *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 *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19, 1988.
 - * 김주성, 「660년 7월 8일간의 전투 재구성, 『백제문화』 56, 2017.
 - * 김지영,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 김진한, 「『答薛仁貴書』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2014.
 - * 김진한, 「高句麗 滅亡과 淵蓋蘇文의 아들들,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 *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 81, 1996.
 - *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 41·42, 1999.
 - * 김홍규, 「신라통일 담론은 식민사학(植民史學)의 발명인가, 『창작과 비평』 145, 2007.

- * 羅棟煜,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 144, 2009.
- * 나승균, 「나제전쟁에서의 간접접근전략 연구: 나·당연합국과 백제군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 30, 2012.
- * 남정호, 「660년 백제의 방어전략 회의와 방어전 재검토」, 『전북사학』 53, 2018.
- * 노근석,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 * 노양규, 「662년 식량수송작전을 통해 본 김유신 장군의 활동과 합의」, 『한국군사학논총』 2-2, 2013.
- * 노중국, 「法興王代の 國家體制 強化」,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경상북도, 1987.
- * 노중국, 「통일기 신라의 백제고지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 * 노중국, 「신라 통일기 구서당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 41·42, 1999.
- *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 -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 『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 盧泰敦, 「對渤海 日本國書에 云謂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 *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 * 노태돈, 「나·당전쟁과 나·일 관계」,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 노태돈, 「[說林]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研究』 154, 2011.
- * 노태돈, 「삼한일통의식의 형성 시기에 대한 고찰-일본서기 ‘삼한’ 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16, 2016.
- * 柳昌煥, 「三國時代 騎兵과 騎兵戰術」, 『韓國考古學報』 76, 2010.
- *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 - 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98, 2008.
- * 문동석, 「660년 7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 『新羅史學報』 38, 2016.
- * 민덕식, 「唐 柴將軍 精舍草堂碑에 관한 檢討」, 『백제문화』 31, 2002.
- * 박가영, 「서울 아차산성의 축조과정과 시기 고찰」, 『서울과 역사』 114, 2023.
- *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 38, 2016.
- * 박노석, 「백제 황산벌 전투와 멸망 과정의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27, 2010.
- * 박동명, 「신라 六停 將軍의 就任資格과 그 性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 朴省炫, 「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 『韓國史論』 47, 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2002.

- * 박성현, 「신라 통일기 州·小京의 성곽과 그 활용-漢山州와 國原小京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21, 2012.
- * 박명호,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31, 2008.
- * 박수정,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 박수정,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제도 수용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52, 2021.
- * 박장환,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통 시론」, 『중앙고고연구』 11, 2020.
- * 박종욱, 「가잠성의 지리적 환경과 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공방」, 『한국사학보』 84, 2021.
- *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 * 박초롱,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조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86, 2017.
- * 박윤선, 「도일 백제유민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 83, 2012.
- * 박중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 * 박현숙, 「백제 군사조직의 정비와 그 성격」, 『사총』 47, 1998.
- * 방용철,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 * 방용철, 「여·제 연합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 * 방용철,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 133, 2018.
- * 방용철, 「문무왕의 안승 책봉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3, 2021.
- * 拜根興,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 白種伍, 「抱川 城東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 * 白種伍, 「신라 복진기 할미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新羅史學報』 6, 2006.
- * 白種伍, 「南漢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 백종오·김병희·김주홍,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2001.
- * 서영교,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대하여」, 『신라문화』 17·18, 2000.

- *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116, 2002(a).
- *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b).
- * 서영교, 「羅唐戰爭기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2006.
- *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혜성」, 『인문학연구』 78, 2009.
- * 서영교,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令出兵授新羅 璽書의 背景」, 『역사학보』 237, 2018.
- * 徐榮敎,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 2021.
- * 徐榮敎,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a).
- * 徐榮敎, 「高句麗 最後의 戰爭」, 『歷史學報』 254, 2022(b).
- * 서영일,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 52, 1999.
- * 徐日範, 「北韓地域 高句麗山城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 서정석, 「충남지역 백제산성에 대한 일연구」, 『백제문화』 22, 1992.
- *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 전투의 실상」, 『군사』 76, 2010.
- * 성주탁, 「대전부근 古代城址考」, 『백제연구』 5, 1974.
- * 손설빈·임태용, 「호암산성 성벽과 제2우물지 발굴성과」, 『서울 호암산성, 그 여정과 도약(학술대회 자료집)』, 한강문화재연구원, 2024.
- * 송영대, 「6~7세기 신라의 전략·전술 입안과 활용」, 『韓國史研究』 169, 2015(a).
- * 송영대, 「『삼국사기』를 통해 본 6~7세기 신라의 무기체계」, 『사학연구』 117, 2015(b).
- * 스태크(J.C.A. Stagg) 저·임지현·김원수 외 옮김, 「군사사관 무엇인가」, 『오늘날의 역사학, 쟁점과 전망』, 역사비평사, 1992.
- * 植田喜兵成智,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설인귀·문무왕서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 85, 2023.
- * 신범규, 「신라 중고기 軍事制度의 정비와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 신은이,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 132, 2018.
- * 신은이, 「나당전쟁의 전개와 보덕국」, 『영남학』 84, 2023.
- * 신현준·이진선, 「『舊唐書』·『新唐書』 王方翼傳 譯註」, 『新羅史學報』 28, 2013.
- * 심광주,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2002.
- * 심광주, 「楊州 大母山城의 築造方法과 築城時期」,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4.
- * 심광주, 「하남 이성산성의 축성법과 축성시기」, 『하남 역사 총서 1』, 2019, 하남역사박물관.
 - * 심정보, 「대전의 고대산성」, 『백제연구』 20, 1989.
 - * 심중훈, 「신라 석축산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 안성현, 「서울·경기·강원지역 성곽 발굴조사 성과」, 『계간 한국의 고고학』 Vol.34, 2016.
 - * 안성현,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2018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8.
 - * 안성현, 「서울·경기지역 신라성곽 연구」,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과 불암산성(학술대회 자료집)』, 국방문화재연구원·한국성곽학회, 2022.
 - * 안성현, 「사적으로 본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성곽」, 『한국의 성곽유산 I』, 2023.
 - * 안주홍,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신라사학보』 52, 2021.
 - * 양기석,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삼년산성』,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 *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충』 46, 1997.
 - * 양종국, 「백제 의장왕대의 정치와 對中外交의 성격 검토」, 『백제문화』 47, 2012.
 - *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 2권(연천의 역사), 2022.
 - * 여호규·拜根興, 「유민묘지명을 통해 본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 『동양학』 69, 2017.
 - * 여호규,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邱史學』 133, 2018.
 - *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 * 오준호, 「軍陣醫書『行軍方便便方』의 구성과 내용」,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2-2, 2014.
 - * 오진석, 「연남생 투항 이후 고구려 서북부 성곽방어체계의 붕괴과정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122, 2021.

- * 유재춘, 「역사상 춘천의 군사적 거점과 가치」, 『군사연구』 130, 2010.
- * 유재춘, 「江原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과 課題」, 『학예지』 8, 2001.
- *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2013(a).
- *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b).
- *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2014.
-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2015(a).
- * 윤경진, 「신라 神武-文聖王代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신라문화』 46, 2015(b).
- * 윤경진,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韓國史學報』 61, 2015(c).
- * 윤경진,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韓國史研究』 175, 2016(a).
- * 윤경진, 「중국·일본의 ‘三韓’ 인식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 文字』 17, 2016(b).
- *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c).
- * 윤경진,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 2017.
- *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a).
- *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와 건립 배경-최근 비판에 대한 반론과 추가 판독-」, 2019(b).
- * 윤경진,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 129, 2019(c).
- * 윤경진, 「[설립]三韓一統意識은 7세기의 이념인가-백제병합론의 반론에 대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93, 2019(d).
- * 윤경진, 「「청주운천동비」의 판독과 건립 시기에 대한 종합적 검토」, 『木簡과 文字』 31, 2023(e).
- * 윤명철, 「당진의 고대 해양도시적인 성격 검토와 향로」, 『동아시아고대학』 29, 2012.
- * 윤병모,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요서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2009.
- * 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 *尹善泰, 「新羅 中代의 刑律」, 『강좌 한국고대사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新羅文化』 29, 2007.
- * 윤선태, 「‘신라통일론’을 다시 말한다」, 『창작과 비평』 146, 2009.
-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8.
-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 2019(b).
-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c).
-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 윤성호, 「한강유역 고대 관방유적 조사·연구 현황 - 고양 먹절산토성과 서울 양천고성을 중심으로 -」, 『先史와 古代』 71, 2023.
- * 윤성호, 「서울 호암산성의 운영과 기능의 변화」, 『선사와 고대』 75, 2024(a)
- * 윤성호, 「나당전쟁기 칠층성 전투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61, 2024(b).
- * 윤일영, 「고대선박의 항해속도 연구-고려도경을 중심으로」, 『군사학연구』 7, 2009.
- * 윤일영, 「황산벌 전투: 黃山原·三營·三道의 위치, 戰鬪配置·經過·結果」, 『군사학연구』 9, 2011.
- * 윤재운, 「신라도의 노선과 교류」, 『高句麗渤海研究』 69, 2021.
- * 윤진석,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 * 윤진석, 「백제 멸망기 ‘태자’문제 보론(補論)」, 『북악사론』 15, 2022.
- * 이경섭,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탐라문화』 59, 2018.
- * 이규호, 「당의 고구려 유민 정책과 유민들의 동향」, 『역사와 현실』 101, 2016.
- *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1976.
- * 이기백,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學報』 3, 1977.
- * 이기동, 「신라의 대당(對唐) 군사동맹과 삼국통일」, 『한국사시민강좌』 36, 2005.
- * 李基天, 「唐 前期 境內 異民族 支配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 이기천, 「당의 입장에서 본 신라의 통일」, 『역사비평』 130, 2020.
- * 이기천, 「7세기 당의 제위장군호 수여와 번장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120, 2012.
-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 * 이명식, 「新羅 統一期의 軍事組織」,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 * 이문기, 「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 29, 1986.
- * 이문기,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史料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15, 1990.
- * 이문기, 「新羅 中古期 『停』制의 成立과 展開」, 『大丘史學』 44, 1993.
- *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 * 이문기,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李文基, 「新羅 文武王代의 軍事政策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32, 2004.
- *李文基, 「648·649년 신라의 對百濟戰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a).
- * 이문기, 「『三國史記』 ‘法幢 冠稱 軍官’ 기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교육론집』 60, 2016(b).
- * 이문기,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한국군사사』 II, 육군본부, 2012.
- * 이문형, 「백제 무왕시기 익산지역의 방어체계」, 『중앙고고연구』 34, 2021.
-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2015.
- *李玟洙, 「高句麗 遺民 李他仁의 族源과 柵城 褥薩 授與 배경에 대한 고찰」, 『大丘史學』 128, 2017.
- * 이민수, 「李他仁의 唐 投降과 扶餘城의 高句麗 復國運動 鎮壓에 대한 分析」, 『역사와 경계』 106, 2018.
- * 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 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계획」,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편,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20.
- *李玟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 * 이민수, 「662년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 재구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 *李玟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b).

- * 이민수,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軍史』 122, 2022(c).
- * 이병렬·조기호,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 멸망관 재고찰」, 『인문학논총』 3, 2003.
- *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과 설오유 부대」, 『역사교육논집』 45, 2010.
- * 이상훈,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 37, 2011.
-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 * 이상훈, 「군사조직과 그 운용」,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8-신라의 통치제도』, 2016(a).
-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b).
- * 이상훈,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 2016(c).
- * 이상훈,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 멸망」, 『역사와 실학』 59, 2016(d).
- * 이상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e).
- *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 2017.
- * 이상훈, 「삼국통일기 신라군의 행군편성 구조」,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a).
- * 이상훈, 「668년 신라군 선발대의 진군로와 그 의미」, 『大丘史學』 133, 2018(b).
- *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 * 이상훈,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60, 2021.
- * 이상훈, 「나당전쟁기 고구려 한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아시아고대학』 67, 2022.
- * 이상훈, 「고구려 부흥운동기 사야도의 위치에 대하여」, 『북악사론』 18, 2023.
- *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110, 2023.
- * 이영호, 「신라 집사부의 설치와 중시」, 『국사관논총』 69, 1996.
- * 이영호, 「서평 :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韓國古代史研究』 52, 2008.

- * 이영호,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5-신라의 왕권강화와 발전』, 2016.
- * 이완석, 「당대 국제관계와 외교체제의 변용」, 『중국중세사연구』 38, 2015.
- * 이용현, 「통일신라 기간도로 5通의 방향과 범주」, 『민족문화연구』 97, 2022.
- * 李鎔熙, 「唐 前期 對外戰爭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 이인철, 「新羅 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 54, 1989.
- * 이인철, 「6~7세기의 말갈」, 『한국사론』 95, 2001.
- * 이재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2010.
- * 이재성, 「麗唐戰爭과 거란·해」, 『중국고중세사연구』 26, 2011.
- * 이재준,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인 연구」, 『군사』 98, 2016(a).
- * 이재준, 「나·당 연합군의 침공전략과 백제의 대응」, 『韓國軍事學論集』 72, 2016(b).
- * 이재준, 「군사적 관점에서 본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 * 이재준, 「백제 기벌포 위치비정에 관하여」, 『북악사론』 18, 2023.
- * 이재환,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2019.
- * 이재환, 「가야계 ‘신라인’의 활동과 위상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 * 이정범, 「한강유역의 고대 산성과 활용 주체 -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남 역사 총서 4』, 하남역사박물관, 2022.
-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 *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 * 이정빈,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군사사의 과제」,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 이준성, 「서양, 중국, 한국에서의 쇄노(노)의 역사와 전술적 운용 고찰」, 『군사연구』 137, 2014.
- * 이철성, 「19세기 강경의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 * 이호영,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論文集：檀國大學校(人文·社會科學篇)』 21, 1987.

- * 李昊榮, 「‘統一新羅’ 號稱 問題」, 『白山學報』 52, 1999.
- * 이현숙, 「7세기 신라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 * 이현숙, 「중국 남북조의 전염병에 대한 시론」, 『의료사회사연구』 7, 2021.
- * 이희진, 「백제 멸망과정에서 나타난 군사사상의 재검토」, 『사학연구』 64, 2001.
- * 임기환,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 임기환, 「신라의 삼국통일-대내의 정세변동과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고대사 1』, 푸른역사, 2016.
- * 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 * 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
- * 임기환,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94, 2024.
- * 임병태, 「신라소경고」, 『역사학보』 35·36합집, 1967.
- * 임용환,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대전리산성 학술회의 자료집, 2013.
- * 임진수, 「667~668년 당의 공격과 고구려의 대응 - 압록강 전선의 전투 양상을 중심으로 -」 『東洋學』 97, 2024.
- * 장미애, 「백제말 정치세력과 백제의 멸망」, 『백제문화』 58, 2013.
- * 장병진, 「당의 고구려고지 지배 방식과 유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2016.
-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2016.
- * 장학근,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본 나·당 연합국과 백제의 전쟁」, 『해양연구논총』 29, 2002.
- * 전덕재, 「신라 하대 진의 설치와 성격」, 『軍史』 35, 1997.
- * 전덕재,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 변화와 군주(軍主)」, 『역사와 현실』 40, 2001.
- * 전덕재, 「가잠성의 위치와 그 전투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 87, 2013.
- * 전덕재,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역사비평』 128, 2019.
- *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제군관·범군호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6, 2019.
- * 전진국, 「‘九韓’의 용례와 ‘韓’에 대한 인식」, 『新羅史學報』 36, 2016(a).

- * 전진국, 「삼한의 용례와 그 인식」, 『韓國史研究』 173, 2016(b).
- * 전진국, 「『청주운천동신라사적비』의 제작 연대 검토-서체와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84, 2019.
- * 全海宗, 「歸化에 대한 小考-東洋古代史에 있어서의 그 意義-」, 『白山學報』 13, 1972.
- * 정경숙, 「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 48, 1985.
- * 정덕기, 「6~7세기 신라 병부의 조직정비와 병마행정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 2021.
-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a).
- * 정덕기,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軍史』 129, 2023(b).
- * 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2010.
-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2013.
- * 정성권, 「항마축지인 불상의 신라 등장시기와 배경」, 『신라사학보』 59, 2023.
- *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韓國古代史研究』 63, 2011.
- * 鄭媛朱, 「高句麗滅亡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 * 정원주, 「男生의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 29, 2018.
- * 정원주, 「안승의 항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군사』 110, 2019.
- * 정원주, 「666년~668년 전쟁에서 淵男生의 鄉導 역할에 대한 考察」, 『역사와 담론』 107, 2023.
- * 曹凌, 「고구려의 멸망에서 나당전쟁 발발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4, 2017.
- * 曹凌, 「당·신라전쟁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 조범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 * 조범중, 「백제 복속 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정책」, 『백제학보』 7, 2012.
- * 조범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 존·씨·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 * 조효식, 「신라의 성곽」, 『신라고고학개론 上』, 진인진, 2014.

- * 주보돈,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 1987.
- * 朱甫喲, 「金庾信의 政治志向-연구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 11, 2007.
- * 주보돈, 「새로운 질서의 모색」,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2-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 *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 * 차용걸, 「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 『石堂論叢』 41, 2008.
- * 추명엽,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 149, 2010.
- * 채미하,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추존」, 『한국사학보』 61, 2015.
- * 채희국, 『고구려 력사 연구-고구려 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중합대학출판사, 1985.
- * 최경선, 「6세기 신라의 軍主와 광역 州의 관계」, 『중원문화연구』 26, 2018.
- * 최경선, 「6세기 신라 軍主의 군단과 그 역할」, 『중원문화연구』 27, 2019.
- * 최민희,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를 통해 본 신라의 통일의식과 통일기년」, 『경주사학』 21, 2002.
- * 최민희,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의 ‘개토’ 재론-‘남읍오행’론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 * 최몽룡, 「상고사의 서해교섭사 연구」, 『국사관논총』 3, 1989.
- * 최범호, 「新羅 上州·下州의 이동 과정과 운영」, 『전북사학』 53, 2018.
- * 최범호,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군사 지리적 관계」,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1), 2023(a).
- * 최범호,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성립과 10정(停)의 역할」,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6(24-1), 2023(b).
- * 최상기,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 운용」, 『한국사론』 59, 2013.
- * 최상기, 「신라 9誓幢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 - 소속 軍官의 출신과 일부 兵種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56, 2022.
- * 최영진, 「신라 중대 전제왕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2, 2020.
- * 최원식, 「軍事力の 增強과 軍事的 基盤」,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경상북도·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 * 최진열, 「당 전·후기 나당전쟁 서술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6, 2017.
- * 최현화,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2006.
- * 崔豪元, 「高句麗 嬰陽王代의 新羅 攻擊과 國內政治」, 『韓國史研究』 157, 2012.
- * 최호원, 「고구려 검모잠·안승 세력과 대신라관계 인식」, 『신라사학보』 49, 2020.
- *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 난의 재검토」, 『대구사학』 58, 1999.
-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신라사학보』 50, 2020.
-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영접의례 구성」, 『신라문화』 59, 2021.
- *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과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 * 하일식, 「운전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木簡과 文字』 30, 2023.
- * 한영화, 「신라의 五逆과 통치이념」, 『사림』 53, 2015.
- * 한정훈, 「신라통일기 육상교통망과 五通」, 『釜大史學』 27, 2003.
- * 한정훈, 「6·7세기 新羅 交通機構의 정비와 그 성격」, 『역사와 경계』 58, 2006.
- * 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 *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한국학논총』, 2017.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삼무당의 설치와 여제 유민」, 『한국고대사연구』 30, 2018.
- * 한준수, 「신라 문무왕대 삼국 통일의 완성과 水軍의 활약」, 『新羅文化』 5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21.
- * 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달구벌 移都의 추진과 兩京制」, 『北岳史論』 15, 2022.
- * 한준수,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 201, 2023.
- * 한홍섭, 「고구려의 문화전통과 거문고」, 『인문연구』 48, 2005.
- * 홍보식, 「익산 왕궁·금마지역의 백제 사비기 유적 입지와 토지 활용 양상」, 『중앙고고연구』 32, 2020.
- * 홍사준, 「탄현고」, 『역사학보』 35·36, 1967.
- * 홍성열, 「신라 군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고대 군사사, 어떻게 볼것

- 인가』, 역사산책, 2023.
- * 홍성열, 「신라 중대 한산주 2정의 설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b).
 - * 홍성열, 「신라 통일기 5주서의 역할과 위상」, 『북악사론』 15, 2022(a).
 - * 홍승우,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기재방식과 典據資料」, 『史學研究』 117, 2015.
 - * 홍주희, 「新羅幢停의 形成과 構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 황보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 2020.
 - * 황보경, 「남한강 지류역 성곽의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 -이천 설봉·설성산성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1, 2023.
 - * 황운룡, 「신라태종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 17, 1982.
 - * 황인덕, 「천방사(千房寺)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 32, 2000.
 - * 拜根興,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 辛時代, 「唐代安東都護府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 李獻奇·周錚, 「武周屈突詮墓誌考釋」, 『中原文物』 2002-3, 2002.
 - * 程尼娜, 「唐代安東都護府研究」, 『社會科學輯刊』 2005-6, 2005.
 - * 韓昇, 「唐朝對百濟的戰爭: 背景與性質」, 『百濟文化』 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3.
 - *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1997.
 - *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1983.
 - * 末松保和,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43-12, 1932.
 - *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 武田幸男, 「新羅の骨品體制事會」, 『歷史學研究』, 299, 1965.
 - * 柿沼陽平, 「王方翼攷-『舊唐書』 卷185 良吏王方翼列傳譯注を中心として」, 『帝京大學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 20, 2021.
 - * 李成市, 「新羅六停の再檢討」, 『朝鮮學報』 92, 1979.
 - * 日野開三郎, 「小高句麗國の研究(1)」, 『史淵』 63, 1954.

- *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朝鮮學報』 11·12, 1957·1958.
- * 井上秀雄, 「新羅王畿の構成」,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 75-1, 2016.
-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2, 1930.
- * 池内宏, 『滿鮮史研究(上世 第2策)』, 吉川弘文館. 1960.
- *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1966.
- * Stefan Bergsmann, “The Concept of Military Alliance”, *Small States and Alliances*, ed. Erich Reiter and Heinz Gärtner (Physica, 2001).

4. 인터넷 자료

- *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曆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 감수

이정빈(경희대 사학과 교수)

기경량(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 사업담당

한동훈(군사사부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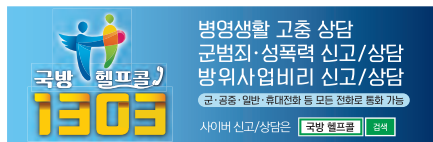
* 본지에 실린 연구내용은 당 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님.

군사연구총서 제2집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5010065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뒷표지 출처



경주시청이 창작한 동해안권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1유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